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사회 8대 변화

박영자·조정아·홍제환·정은이
정은미·이석기·전영선·강호제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사회 8대 변화

연구책임자 : 박영자(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공동연구자 : 조정아(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홍제한(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
 정은이(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
 정은미(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
 이석기(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영선(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강호제(북한과학기술연구센터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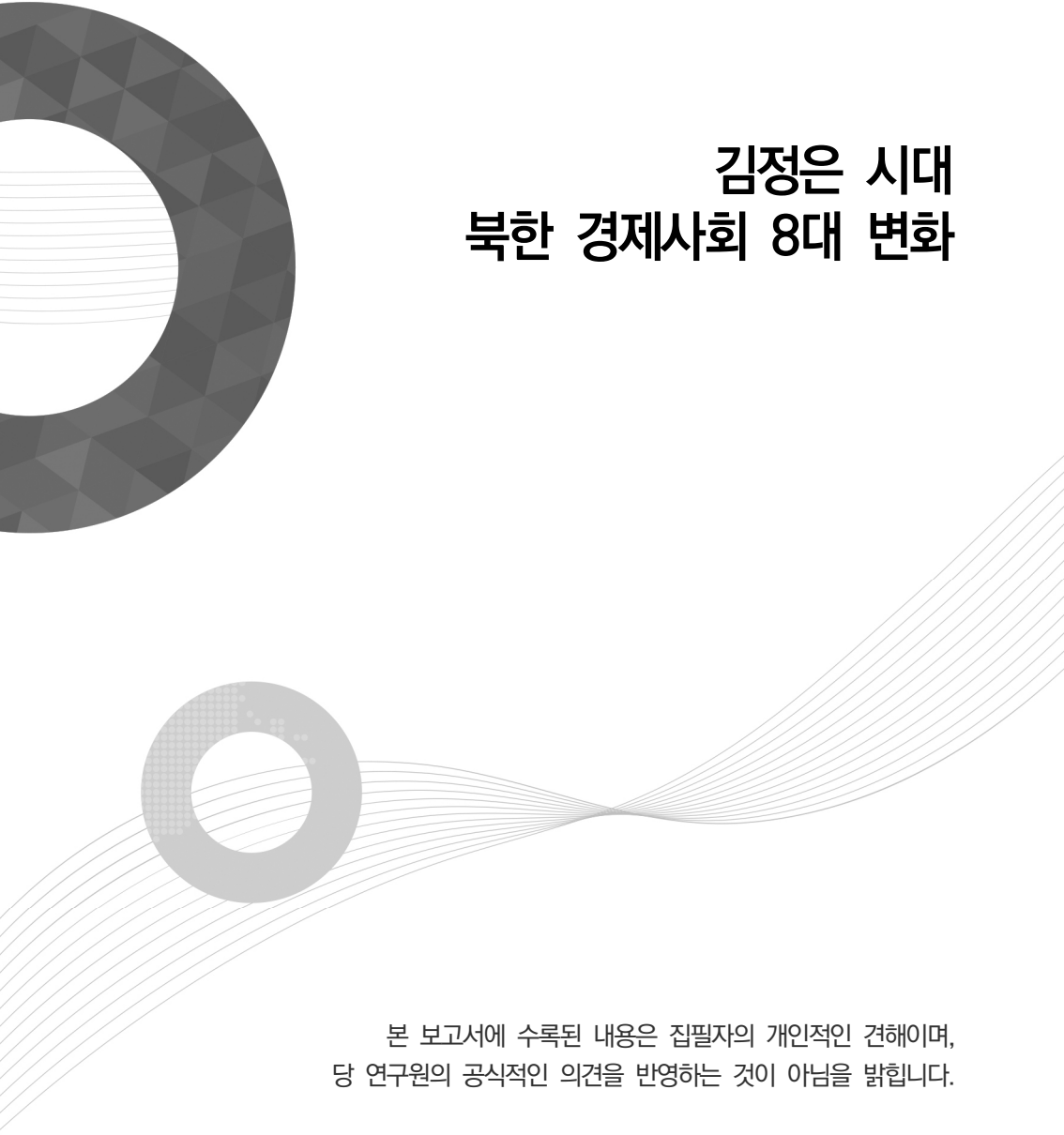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사회 8대 변화

KINU 정책연구시리즈 18-01

발행일	2018년 11월 30일
저자	박영자, 조정아, 홍제환, 정은이, 정은미, 이석기, 전영선, 강호제
발행인	김연철
발행처	통일연구원
편집인	북한연구실
등록	제2-02361호 (97.4.23)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화	(대표) 02-2023-8000 (FAX) 02-2023-8296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세일포커스 (02-2275-6894)
인쇄처	명문인쇄공사 (02-2079-9200)
ISBN	978-89-8479-925-7 93340
가격	비매품

© 통일연구원, 2018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02-734-6818), 사무실(02-394-0337)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사회 8대 변화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차례

요약	13
요약문(executive summary)	16
들어가는 말	49
1. 기획의도 및 목적	51
2. 연구시각과 내용	52
I. 시장과 산업: 시장을 디딤돌로 회복 중인 산업	55
1. 북한 경제, 느리지만 지속적 회복추세	57
2. 서비스 산업, 고용창출과 투자확대 통해 북한 경제 성장 견인	62
3. 종합시장, 북한 주민의 생활 터전이자 경제회복의 출발점	69
4. 이념과 정치선전의 족쇄 벗어나는 관광산업	73
5. 전력사정, 부분적 성과 있으나 근본적 해결은 미진(未盡)	76
6. 제조업, 제한적 회복 조짐 속 업종별 큰 차이	80
7. 경공업, 중국산 제품과 경쟁하는 상품 증가	84
II. 기업과 노동: 강화되는 기업의 자율성	89
1. 기업 경영의 자율성 증대 추세	92
2. 정상 운영에 어려움 겪는 공장·기업	95
3. 8·3 노동자	99
4. 국영기업 활용해 돈 버는 '돈주'들	101
5. 일자리 찾는 사람들	106

6. 해외 파견 꿈꾸는 노동자들	110
III. 금융과 화폐: 사금융 발전과 공금융 정비	115
1. 공식 금융시스템 특징과 변화 환경	117
2. 사금융 시스템 형성과 발전	121
3. 북·중 무역과 해외 송금시스템의 형성과 발전	122
4. 김정은 시대 금융개혁	125
IV. 과학기술과 정보화: 북한의 미래발전전략	135
1. 과학기술 중시 이유	138
2.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과학자·기술자 우대	139
3. 온-오프라인을 종합한 '과학기술전당'	141
4. '새 세기 산업혁명'과 CNC	143
5. 북한의 정보 네트워크와 이동통신망	148
6. 최근 북한산 정보기기들	151
V. 교육: 공교육 개혁과 교육격차 확대	157
1. 정책방향과 제도개편: '전민과학기술인재화'와 국제수준 추구	160
2. 초중등교육과정과 교과서 개정	165
3. 과학기술교육 강화와 교육정보화 추진	168
4.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증대 및 교육격차 확대	173
5. 사교육의 제한적 확산	177

VI. 계층·지역·세대: 변화의 바람이 일상을 바꾸다	183
1. 밥상의 빈부격차	186
2. 부동산 열풍! 사유재가 된 살림집	191
3. 부(富)의 재편: 지역 불평등의 가속화	197
4. 소비의 계층화	205
5. 새 세대의 욕망이 꿈틀대다	211
VII. 젠더와 재생산: 변화하는 사회적 성(性)을 말하다!	217
1. 변화하는 여성과 모성정책의 딜레마	219
2. 시장화와 가정 내 성역할 변화	223
3. 데이트와 결혼	229
4. 출산율과 출산의지 저하	234
5. 사랑과 결혼의 타산: 혼인신고 기피와 이혼	239
VIII. 문화와 유행: 문명국 건설 행보와 욕망 확대	245
1.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	248
2. 모란봉악단의 ‘창조 기풍’과 ‘일본새’	252
3. 공연문화의 변화	257
4. 유희장과 위락시설 건설	261
5. ‘축구강국’의 열망	265
6. 도시 재건과 ‘김정은 신화’ 창조	270
7. 개인의 욕망 확대	273

맺는말: 정책적 시사점	279
1. 경제적 변화에 조응하는 시사점	281
2. 사회적 변화에 조응하는 시사점	284
참고문헌	287
최근 발간자료 안내	293

표 차례

〈표 I-1〉 김정은 체제 전후 새로 선보인 관광 상품	75
〈표 II-1〉 개인의 기업 활동 유형과 수준	105
〈표 II-2〉 북한의 사적 고용 수준	108
〈표 IV-1〉 최근 북한의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 주요내용	139
〈표 V-1〉 북한 초중등학교 교과목	165
〈표 V-2〉 북한 초중등교육 이수율 및 출석률	175
〈표 V-3〉 지역별, 성별 기초학습능력	177
〈표 VI-1〉 북한의 배급제: 급수별 1일 식량 공급량	187
〈표 VI-2〉 주택 유형별 비중 변화	194
〈표 VI-3〉 화장실 형태	195
〈표 VI-4〉 지역별 재력 분포	199
〈표 VI-5〉 행정구역(도)별 재력 수준에 대한 인식	200
〈표 VI-6〉 행정구역(시)별 재력 수준에 대한 인식	201
〈표 VI-7〉 지역별 가구 및 개인 재산 현황	203
〈표 VI-8〉 지역별 가구의 ICT 장비 보유와 인터넷 접속 비율	204
〈표 VI-9〉 계층별 남한상품 소비 경험 비교	209
〈표 VI-10〉 재력수준별 가구의 ICT 장비 보유 및 인터넷 접속 비율	211
〈표 VI-11〉 연령별 ICT 장비의 이용률	215

〈그림 I-1〉 북한 경제성장률 추이	58
〈그림 I-2〉 북한 산업별 생산활동 추이(1990년=100)	62
〈그림 III-1〉 북한 금융기구의 종류와 역할	118
〈그림 III-2〉 북한 내륙 지역과 지역 간 비공식 자금이체시스템	121
〈그림 III-3〉 북·중 간 비공식 민간무역 결제시스템	123
〈그림 III-4〉 외국(남한·미국·영국 등)·중국·북한 3각 비공식 자금이체시스템 ..	124
〈그림 V-1〉 북한 학제	162
〈그림 V-2〉 북한의 개정 교과서(초급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	167
〈그림 V-3〉 북한의 개정 교과서(초급중학교 1학년 정보기술 교과서) ..	169
〈그림 VI-1〉 북한 주민의 하루 식사 횟수	188
〈그림 VI-2〉 북한 주민의 고기 섭취 횟수	189
〈그림 VI-3〉 살림집 장만 방법	196
〈그림 VII-1〉 북한 기혼여성 연령별 출산율 추세(1993-2014)	235
〈그림 VII-2〉 북한 기혼여성 1인당 산생률과 이상적 자녀수 차이(2014) ..	237

사진 차례

〈사진 I-1〉 우주에서 본 한반도의 밤	79
〈사진 I-2〉 광장에 전시된 신형 트럭	81
〈사진 I-3〉 류경김치공장에 공급된 북한산 설비	82
〈사진 I-4〉 대형 유통망에서 판매되는 북한산 제품	88
〈사진 II-1〉 평양 가방공장	96
〈사진 II-2〉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현장	98
〈사진 II-3〉 평양의 택시 영업	103
〈사진 III-1〉 전자결제카드 사용	131
〈사진 III-2〉 휴대전화로 쇼핑하는 북한 주민	134
〈사진 IV-1〉 미래상점	141
〈사진 IV-2〉 과학기술전당	142
〈사진 IV-3〉 당창건 65돌 선전포스터	146
〈사진 IV-4〉 고려링크	150
〈사진 IV-5〉 전국 정보화 성과 전람회	153
〈사진 IV-6〉 북한 IPTV 서비스	156
〈사진 V-1〉 금첩체육인종합식료공장의 원격교육	172
〈사진 VI-1〉 밥상의 빈부격차	190
〈사진 VI-2〉 평양의 미래과학자거리와 려명거리	192
〈사진 VI-3〉 소비의 계층화	207
〈사진 VI-4〉 북한 대학생들의 일상 모습	213

〈사진 VII-1〉 북한의 여성과 양육	228
〈사진 VII-2〉 롤러스케이트장에서의 데이트 모습	233
〈사진 VIII-1〉 북한의 집단제조 ‘빛나는 조국’	247
〈사진 VIII-2〉 2012년 모란봉악단 창단 시범공연에 나타난 디즈니 캐릭터 ..	253
〈사진 VIII-3〉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모란봉악단 축하공연 ..	257
〈사진 VIII-4〉 삼지연관현악단의 강릉공연	258
〈사진 VIII-5〉 왕재산예술단의 공연 〈달려가자 미래로〉	259
〈사진 VIII-6〉 왕재산예술단의 타프춤(탭댄스)	260
〈사진 VIII-7〉 왕재산예술단의 룬춤	261
〈사진 VIII-8〉 스케이트장을 배경으로 한 북한 만화영화	262
〈사진 VIII-9〉 축구 조기교육을 강조한 과학영화 “축구인재와 조기교육 2” ..	265
〈사진 VIII-10〉 북한 여자축구를 다룬 드라마 ‘우리여자축구팀’	268
〈사진 VIII-11〉 축구를 소재로 한 북한 영화 ‘소학교의 작은 운동장’	269
〈사진 VIII-12〉 도서 『인기있는 대동강맥주』	275
〈사진 VIII-13〉 북한의 미용관련 도서	277
〈사진 VIII-14〉 북한의 화장품 광고	277
〈사진 VIII-15〉 결혼식 하객들을 태운 유람선	278

이 연구는 김정은 시대 경제사회 변화의 8대 분야 정책과 실태를 밝히고 평가한다. 특히 한반도 정세 변화를 능동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콘텐츠를 중시한다. 각 장을 구성하는 8대 주제는 시장과 산업, 기업과 노동, 금융과 화폐, 과학기술과 정보화, 교육, 계층·지역·세대, 젠더와 재생산, 문화와 유행이다. 각 주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브레인스토밍을 거친 후 학제 간 연구방법으로 연구 및 집필되었다. 각 장별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I장 시장과 산업은 ‘시장을 디딤돌로 회복 중인 북한산업’을 평가한다. 세부적으로 1. 북한 경제, 느리지만 지속적 회복추세, 2. 서비스 산업, 고용창출과 투자확대 통해 북한 경제 성장 견인, 3. 종합시장, 북한 주민의 생활 터전이자 경제회복의 출발점, 4. 이념과 정치선전의 족쇄 벗어나는 관광산업, 5. 전력사정, 부분적 성과 있으나 근본적 해결은 미진(未盡), 6. 제조업, 제한적 회복 조짐 속 업종별 큰 차이, 7. 경공업, 중국산 제품과 경쟁하는 상품 증가를 키워드로 구성된다.

II장 기업과 노동은 ‘강화되는 북한기업의 자율성’을 평가한다. 세부적으로 1. 기업 경영의 자율성 증대 추세, 2. 정상 운영에 어려움 겪는 공장·기업, 3. 8·3 노동자, 4. 국영기업 활용해 돈 버는 ‘돈주’들, 5. 일자리 찾는 사람들, 6. 해외 파견 꿈꾸는 노동자들이라는 키워드로 구성된다.

III장 금융과 화폐는 ‘사금융 발전과 공금융 정비’ 실태와 평가를 다룬다. 세부적으로 1. 공식 금융시스템 특징과 변화 환경, 2. 사금융 시스템 형성과 발전, 3. 북·중 무역과 해외 송금시스템의 형성과 발전, 4. 김정은 시대 금융개혁을 키워드로 구성된다.

IV장 과학기술과 정보화는 ‘북한의 미래발전전략’이라는 주제로 진단된다. 세부적으로 1. 과학기술 중시 이유, 2.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과학자·기술자 우대, 3. 온-오프라인을 종합한 ‘과학기술전당’, 4. ‘새

세기 산업혁명'과 CNC, 5. 북한의 정보 네트워크와 이동통신망, 6. 최근 북한산 정보기기들을 키워드로 구성된다.

V장 교육은 '공교육 개혁과 교육격차 확대'의 실태와 평가를 다룬다. 세부적으로 1. 정책방향과 제도개편: '전민과학기술인재화'와 국제수준 추구, 2. 초중등교육과정과 교과서 개정, 3. 과학기술교육 강화와 교육정보화 추진, 4.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증대 및 교육격차 확대, 5. 사교육의 제한적 확산을 키워드로 구성된다.

VI장 계층·지역·세대는 '변화의 바람이 일상을 바꾸다'를 주제로 다룬다. 세부적으로 1. 밥상의 빈부격차, 2. 부동산 열풍! 사유재가 된 살림집, 3. 부(富)의 재편: 지역 불평등의 가속화, 4. 소비의 계층화, 5. 새 세대의 욕망이 꿈틀대다를 키워드로 구성된다.

VII장 젠더와 재생산은 '변화하는 사회적 성(性)을 말하다!'를 주제로 실태와 현재 수준을 진단한다. 세부적으로 1. 변화하는 여성과 모성정책의 딜레마, 2. 시장화와 가정 내 성역할 변화, 3. 데이트와 결혼, 4. 출산율과 출산의지 저하, 5. 사랑과 결혼의 타산: 혼인신고 기피와 이혼을 키워드로 구성된다.

VIII장 문화와 유행은 '문명국 건설 행보와 욕망 확대'를 주제로 다룬다. 세부적으로 1.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 2. 모란봉악단의 '창조 기풍'과 '일본새', 3. 공연문화의 변화, 4. 유희장과 위락시설 건설, 5. '축구강국'의 열망, 6. 도시 재건과 '김정은 신화' 창조, 7. 개인의 욕망 확대를 키워드로 구성된다.

전체적으로, 김정은 시대 경제사회 변화의 주요 동력은 시장화와 정보화이다. 이러한 변화는 2000년대 김정일이 부분개혁을 시도하면서 진행된 연장선에 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드러난 지점은 이러한 변화를 정책적으로 흡수한 것이다. 특히 경제사회 분야에서 김정은

집권 후 소위 ‘인민중시’ 및 ‘청년중시’ 정책에 따라, 북한 주민과 사회의 변화 요구를 수용하려는 조치가 많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경제적 변화에 비해 사회적 변화가 두드러진다.

북한 내부적으로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화가 아직 제조업의 본격적인 성장을 이끌어 내지는 못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국가의 집중투자가 필요한데 2017년까지 김정은 정권이 핵·미사일을 중심으로 한 군수산업 분야에 국가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6년간 김정은 정권의 안정화를 위해 ‘김일성-김정일주의’ 이데올로기 수립 및 우상화 사업에 국가 투자를 집중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직까지 북한의 경제 정책과 제도의 변화 수준은 핵·미사일 발전 수준이나 통제경제 상황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반면, 아래로부터의 사회 변화는 크게 드러나고 있다. 시장경제가 북한 사회의 비공식 영역에서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시장화 과정에서 발전한 정보화 역시 비공식 사회 영역에서 진전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사회 분야의 정책과 제도의 변화 측면보다는 북한 사회 영역에서 북한 당국이 ‘비사회주의 현상’으로 지목하는 주민들의 의식과 행위 변화가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최근 김정은 시대의 경제적 및 사회적 변화에 조응하는 대북 교류협력과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 내 변화하는 행위자들을 식별하고 이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중시해야 한다.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모든 대북사업에 북한 주민의 임파워먼트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설계 및 적용이 중요한 시기이다.

주제어: 김정은 시대, 경제사회적 변화, 시장과 산업, 기업과 노동, 금융과 화폐, 과학기술과 정보화, 교육, 계층·세대·지역, 젠더와 재생산, 문화와 유행, 대북교류협력 방향

□ 시장과 산업: 시장을 디딤돌로 회복 중인 산업

북한 경제, 느리지만 지속적 회복추세

북한 경제는 1998년을 바닥으로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으며, 김정은 집권 이후 회복 추세가 다소 빨라지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김정은 시대 시장경제화가 심화됨에 따라, 시장화의 영향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국은행 추정치보다 북한 경제의 실제 회복이 빠를 수 있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 북한 경제의 회복은 산업별로 불균등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의 회복이 가장 더디다. 지하자원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대외무역의 확대와 서비스 산업의 성장만으로는 북한 경제 회복에 한계가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 경제의 고도성장론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의 산업별 양상을 검토한다.

현재 북한에서는 종합시장을 중심으로 상업·유통이 주도하는 서비스 산업이 북한 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2000년대 중후반까지와는 달리 제조업 부문에서도 생산역량의 회복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발전량의 큰 증가는 없지만 재생 에너지의 이용확대와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원 전환 투자 등에 따라 주민 및 산업설비의 에너지 사정도 변화가 보인다.

서비스 산업, 고용창출과 투자확대로 경제성장 견인

과거 북한 경제 성장을 주도하던 중화학 공업 대신에, 현재 북한의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분야는 서비스 산업이다. 계획경제의 약화에 따라 상업·유통업이 발달하고 있으며, 이것이 다시 운수업, 숙박업 등의 서비스 산업 발달을 촉진한다. 이러한 서비스 산업의 발달은 투자,

요약문(executive summary)

고용, 시장창출, 재정확충 등을 통하여 북한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민간 주도로 성장하고 있는 서비스업의 핵심 거점인 종합시장과 정부가 성장을 주도하는 대표적 서비스업인 관광산업을 통하여 현재 북한 서비스 산업의 실태와 변화를 볼 수 있다.

종합시장, 북한 주민의 생활터전이자 경제회복 출발점

북한의 시장화를 선도하고 있는 상업·유통업의 핵심은 종합시장이다. 종합시장은 양과 질 측면에서 발달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북한의 경제 주체들이 종합시장을 매개로 경제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념과 정치선전의 족쇄 벗어나는 관광산업

북한 정부가 육성하는 대표적 서비스업이 관광산업이다. 특히 북한은 종래 체제선전 수단의 성격이 강했던 관광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또한 외국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 중이다. 이제 서양 관광객이 평양에서 북한 주민과 접촉하는 것은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게 되었다.

전력사정, 부분적 성과 있으나 근본적 해결은 미진(未盡)

에너지 사정 개선을 위해 북한은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발전량 증가 노력과 함께 송배전망 현대화나 전력 수요 관리 정책, 재생 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 확대와 산업설비의 에너지 절약형 투자 지속 등 다양한 에너지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 정책들도 북한의 에너지 사정을 어느 정도 개선시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수력발전소의 건설 및 화력발전소 개보수 등을 통한 전력 공급 증가 노력은 제한적인

요약문(executive summary)

성과만을 거두었다.

제조업, 제한적 회복 조짐 속 업종별 큰 차이

2000년대 북한 경제 회복의 가장 큰 문제점이 제조업의 회복이 더디다는 점인데, 최근 북한 제조업의 회복 조짐이 보이고 있다. 특히 기계공업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계공업은 김정은 집권 이후 경제 적 성과가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된다. 공작기계, 농업용 기계 등 산업용 기계뿐만 아니라 전동차, 트럭 및 어선 등 수송기계의 개발과 생산도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계공업의 회복은 국산 설비에 의한 설비 현대화를 가능하게 하여 경공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다. 기계공업의 회복은 중국 등으로부터의 기계류의 지속적인 수입 증가와 CNC 공작기계의 보급, 그리고 기계류 시장의 형성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금속 및 화학 소재 산업은 김정일 시대부터 공급역량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성과는 매우 제한적이다.

경공업, 중국산 제품과 경쟁하는 상품 증가

경공업은 식품가공업 등을 중심으로 중국산 제품과 경쟁하는 제품이 증가하는 등 다소 개선되고 있다. 이는 중간계층 이상의 소득증가에 따른 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선호 하락 및 북한산 제품의 수요 증가, 그리고 경공업 기업의 설비 경쟁력 강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 기업과 노동: 강화되는 기업의 자율성

기업 경영의 자율성 증대 추세

계획경제를 근간으로 한 북한 경제는 경제활동에 대해 적절한 유인

요약문(executive summary)

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계획경제 시스템이 갖고 있는 근본적 문제로 북한 경제는 1980년대 이후 악화되었다. 이에 북한은 2000년대 이후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시장경제를 일정 부분 용인하며,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모색해 왔다.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도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조치가 이어졌다. 세부적으로 첫째, 중앙에서 기업에 내려 보내는 계획을 대폭 줄였다. 둘째, 기업이 자체 실정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일부에 대해 스스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기업이 개인 투자자인 ‘돈주’의 자금을 동원하는 행위를 합법화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북한이 에너지·원자재 부족이라는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탓에 아직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이러한 자원 제약 문제가 완화될 경우 그 효과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정상 운영에 어려움 겪는 공장·기업

북한은 계획경제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 방식을 택하고 있다.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국가가 모든 공장·기업을 계획경제 시스템 내에서 관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탄광, 발전소, 제철소, 군수 공장, 필수품 공장과 같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부 생산시설만 전력, 자재 등을 공급해 주는 등 중점 관리하고 있다. 나머지 지방공장은 스스로 생존토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지방공장은 전력, 자재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정상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공장·기업에는 ‘사회적 동원 과제’, 즉 발전소·도로 건설 등 국가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 자재, 노동력 등을 제공하는 과제도 부과

요약문(executive summary)

되고 있다. 이러한 과제는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데, 김정은 시대 들어와 요구 수준이 더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장·기업의 정상 가동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8.3 노동자

북한 노동자 대부분은 북한 장마당에서 쌀 1kg을 살 수 있는 정도의 금액에 불과한 북한 돈 5,000원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다. 공장·기업에 일거리도 별로 없는 데다, 배급과 임금도 사실상 지급받지 못하다보니, 지방공장 노동자의 출근율은 대체로 50% 이하에 불과하다.

출근하지 않는 노동자 대부분은 공장·기업에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출근 및 사회적 과제 동원 등을 면제받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이들을 8·3 노동자라 부른다. 이들은 공장·기업에 돈을 내고 기업 소속은 유지한 채, 시장 등에 가서 개인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생산시설을 충분히 가동하기 어려운 기업 입장에서도 8·3 노동자의 존재는 국가에 돈을 납부하고, 사회적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기업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함에도 각종 조세·준조세적 부담이 기업에 부과되고, 그로 인해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임금도 받지 못한 채 ‘자력갱생’할 것을 요구받는 상황이 계속되는 한, 8·3 노동자가 출현하는 현상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영기업 활용해 돈 버는 ‘돈주’들

북한이 표방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돈주’라 불리는 자본가 계층을 중심으로, 개인들이 국영기업을 활

요약문(executive summary)

용하거나 사영기업을 운영하여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들은 국영기업에 자금 또는 자재를 대주고 그에 상응하는 수익금을 회수하거나, 국영기업의 명의 또는 생산수단을 빌린 뒤, 자신의 자금을 투자하여 원자재를 구입하고 노동자도 고용해서 생산 활동을 전개한다.

기업은 기업 운영, 사회적 과제 수행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를 받거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돈주는 보다 안전하게 사업을 할 수 있고 기업에 공급되는 전기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활동은 기업과 돈주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있다.

김정은 시대 들어와 돈주의 기업 활동은 더욱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북한 당국이 2014년 돈주의 투자 행위를 일부 합법화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어,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관건은 '생산수단의 사유화'가 용인되는 단계로까지 나아갈 것인가 하는 점이며, 향후 북한이 이와 관련해 어떠한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할 것인지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일자리 찾는 사람들

북한에서는 체제 특성상 공식적인 노동시장이 형성될 수 없다. 학생, 군인, 고령자 등을 제외하고 경제활동이 가능한 모든 주민은 국가에서 지정한 직장에 배치되어 노동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비록 초보적 형태이긴 하지만, 사적 노동시장이 형성·발전하고 있다. 직장에서 임금을 받지 못해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돈주 등 개인이 운영하는 공장·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노동력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제 여건상 비공식 영역에서 생성되는 일자리보다 일자리

요약문(executive summary)

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구직자 중 상당수는 자신에게 고용되어(self-employed), 영세한 자영업자로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수공업, 상업, 서비스업 발전과 함께 사적 고용 규모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사적 고용은 개인이 가내수공업 형태의 생산을 하면서 필요한 인력을 고용한다든가, 국영기업 소속이지만 실제로는 개인이 운영하는 상점이나 식당에서 종업원을 고용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쉬고 있는 사람이 많은 데다 손전화(핸드폰)가 보급되어 있어 인력 확보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해외 파견 꿈꾸는 노동자들

북한은 중국, 러시아, 쿠웨이트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 노동자를 파견해 왔다.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서다. 그 규모는 김정은 시대 들어와 증가하여 대략 5~10만 명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대북 제재로 인해 감소 추세에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 파견된 북한 노동자의 생활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일단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고된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게다가 작업장 근처에서 단체생활을 하고, 혼자서 외출하거나 핸드폰을 소지하는 것을 제한받는 등 생활에 제약이 받는 경우도 많다.

그럼에도 북한 노동자들은 목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인식하여 해외 파견을 선호한다. 비록 노동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수를 받지 못하지만, 부여된 업무 외의 '청부', 즉 일종의 부업을 하여 어느 정도 돈을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파견이 이처럼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다보니, 파견

요약문(executive summary)

기회를 얻기 위한 경쟁도 치열한데, 토대(출신성분), 당원 여부, 범죄 전적 등이 고려되며, 뇌물 공여도 필수적이다.

□ 금융과 화폐: 사금융 발전과 공공용 정비

공식 금융시스템 특징과 변화 환경

북한의 은행체계를 보면 당국은 1976년 상업은행을 조선중앙은행에 통합시키면서, 조선중앙은행 '단일은행제도'를 완성하는 한편, 국가예산은 국가기관의 필요자금과 기업의 확대 재생산자금을 담당하고, 금융은 기업의 유동자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즉, 금융은 재정의 보조적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국가재정이 축소될 경우, 기업은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대출수요를 증대시켜야 한다. 문제는 경제난으로 은행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기업의 경영 악화는 계획경제 위축과 국가재정 악화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한다는 점이다.

이에 경제난으로 재정이 악화된 북한은 2000년대 들어 금융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4년에는 '중앙은행법'을, 2006년에는 '상업은행법'을 각각 제정하고 2014년 이후에는 중앙은행에서 상업은행의 기능을 분류했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개혁이 실행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주민이 저축을 기피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 이유는 첫째, 예금자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만큼 인출이 어렵다. 둘째, 불법적인 경제활동이 많아지면서 소득 공개를 극히 꺼려한다. 따라서 당국은 시중의 유통화폐를 국가경제로 흡수하기 위해 1992년과 2010년에 화폐교환을 실시하였으나 하이퍼인플레이션만 초래했을 뿐 실패로 끝나고 오히려 사

요약문(executive summary)

금융만 확대시키고 외화를 선호하는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만 초래했다.

사금융 시스템 형성과 발전

북한의 사금융은 환전과 대출뿐 아니라 송금도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했다. 특히 지역 간 연결된 시장네트워크를 통해 전국 어디서든 송금이 가능하다. 이는 시장이 전국 네트워크망을 가지고 균등하게 발전한 데서 비롯되었다.

상품의 유통 증가는 필연적으로 화폐유통의 증가를 수반한다. 특히 종전에는 상인들이 현지까지 와서 상품을 직접 날라 갔다면, 지금은 앉은 자리에서 전화주문만으로 타 지역 상품을 받아볼 수 있다. 이는 택배회사와 같은 개인운송업자를 생겨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각 지역에는 상품거래를 대규모로 하는 ‘물주(物主)’가 있으며 이들이 바로 은행 역할을 한다.

북·중 무역과 해외 송금시스템의 형성과 발전

북한 내륙을 연결하는 이관시스템은 북한 내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원천은 북·중 간 비공식 민간무역 결제시스템이다. 사실 민간의 북·중 무역은 보따리무역에서 시작되었다.

1990년대 초반 해도 민간무역은 중국조선족, 북한화교, 중국연고자 등 해외연고자에 한정되었다. 그런데 90년대 중반 무역에 대한 당국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일반인도 회사의 ‘워크’(무역허가권)를 빌려 중국과 교역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 북한의 왕(王)도매상은 중국에 직접 가지 않고도 전화 주문만으로 상품을 직접 받아볼 수 있다.

한편, 북·중 거래 초기 북한 상인이 중국에 판 상품은 소소한 것에

요약문(executive summary)

불과했으나 1980년대 후반 중국의 개혁개방 여파로 생활수준이 높아지자 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이로 인해 북·중 민간교역에서도 금이 거래되었다. 그런데 금 밀수는 곧 북한으로의 대량 현금유입을 의미한다.

금 거래 증대는 물주에 의한 북·중 간 비공식 무역결제시스템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동력이 되었다. 이 시스템은 북한 내륙 뿐 아니라 한국 등 제3국으로 확장되어 제3국·중·북 등 3국 간 송금시스템을 파생시켰다. 그런데 이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이슬람의 ‘하왈라(hawala)’, 인도의 ‘훈디(hundi)’ 등 비공식 중개업자 간 네트워크를 통해 송금하는 비공식 자금이체시스템과 유사하다. 다만 중국을 경유하고, 북한에 사는 가족에게 현지통화가 아닌 외화로 전달될 뿐이다.

김정은 시대 금융개혁

북한 당국은 민간의 수중에 머물고 있는 화폐량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며, 특히 김정은 시대 유희화폐자금의 공식경제로의 흡수를 정책적으로 추진했다. 주목할 점은 당국이 2009년 말 화폐교환과 달리, 주민이 보유한 유희화폐자금을 흡수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부 자본주의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첫째, 은행의 ‘신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소유 여하를 묻지 않고 저금 잔고의 출처를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이 발표되고 있다. 실제로 북한 은행에 저금을 하면 원금뿐 아니라 이자를 받았다는 주민들이 생겨나고 있다.

둘째, 평양을 중심으로 전자결제카드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그 근거 중 하나가 카드결제가 가능한 단말기를 설치한 상점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주민이 사용하는 카드는 우리의 ‘T머니’ 카드와 가깝다.

요약문(executive summary)

무엇보다 이는 ①신분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 ②거스름돈을 정확히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장점으로 예불카드의 이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2015년 조선중앙은행에서 내화전자결제카드인 ‘전성카드’를 출시했으며, 전성카드가 사용가능한 가맹점을 늘리고 있으며 송금까지도 가능한 것이다.

한편, 통신의 혁명은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일단 배달을 가능하게 했다. 이는 식당 음식배달에서 지역 내 택배, 국제택배에 이르기까지 유통의 혁명을 가져왔다. 휴대전화로도 앱을 깔면 배달도 가능하며 결제도 가능하다.

게다가 상대방끼리 전화송금도 가능하다. 수수료는 20~30% 정도이며, 서로 돈을 넣어 쌍방이 요금의 충전도 가능하다. 장마당에 가서 장사꾼에 돈을 넣을 수도 있고 인출도 가능하다.

이와 같이 김정은 정권 이후 북한 경제의 특징은 사회주의계획경제 내에서의 시장친화적 제도개혁의 모색이다.

□ 과학기술과 정보화: 북한의 미래발전전략

‘새 세기 산업혁명’

북한이 과학기술을 강조한 것은 사회주의체제의 특징으로, 해방 직후 김일성 시대로부터 과학기술은 중시되었다. 과학기술은 국방력 강화에 필수적인 것이기도 하고, 경제발전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김정일과 김정은 시대로 이어지며 환경과 정책에 따른 기술진전이 추진된다.

대표적으로 김정은 시대는 국제적 흐름을 의식해 4차 산업혁명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 세기 산업혁명’이 추진된다. 그런데 현재 북한의

요약문(executive summary)

산업 분야 과학기술 수준을 보면 아직 4차 산업혁명을 논할 수준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3차 산업혁명의 본격화'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북한에서는 '새 세기 산업혁명'이라 부른다.

특히 김정은 집권 후 정보화 시대와 지식경제시대 담론을 다듬은 끝에,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새 세기 산업혁명'이라 부르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북한은 생산현장의 자동화와 무인화와 연계된 CNC (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화를 지향한다.

CNC는 컴퓨터를 통해 수치를 제어하는 장치이다. 북한은 컴퓨터로 정밀 기계제작 과정을 통제하는 것처럼, 생산현장의 모든 공정을 컴퓨터로 조정하는 '통합생산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시스템 전반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북한 정권의 목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기술이 CNC이다.

이러한 구상은 김정일 시대에 시작되었으나, 구체적으로 정책화된 것은 김정은 시대이다. 특히 2018년 7~8월 집중된 김정은의 생산단위 현지지도에서 이와 관련한 정책 지도가 공개되었다. 김정은 주도로 북한이 '지식경제시대' 및 '정보산업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가 강조되고 있다.

군수분야에서 발전한 CNC=기계제작기술+정보기술(IT)

컴퓨터를 통해 수치제어하는 장치/기술을 가리키는 CNC는 기계제작기술과 정보기술(IT)의 결합이라 할 수 있다. CNC기술이 확보되면 원료의 낭비를 줄이면서, 더 정밀한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

CNC기술은 금속가공 등이 중요한 무기 제조 분야에서 필수 수요 영역이다. 첨단 무기는 첨단 기계제품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비롯한 각종 첨단 무기를 만들기 위해 CNC기술을 발전시켰다. 최근

요약문(executive summary)

김정은 시대 경제발전전략은 이러한 군수 기술을 민수로 전환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다.

1980년대부터 김정일에 의해 개발되기 시작한 북한의 CNC기술은 1990년대 중반에 4축 CNC를 만들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고, 2000년대 후반에 최첨단을 돌파했다고 선전한다. CNC기술의 수준은 우주 발사체, ICBM, SLBM의 수준과 연관성이 높다. 최근 북한 당국의 ICBM 완성 선언으로 볼 때, CNC기술이 발전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CNC기술을 민수 영역, 즉 경제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도입할 때이다. 생산의 자동화, 무인화를 지향하는 통합생산체계를 만드는 데 CNC기술과 관련 역량들이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군수분야에 활용된 CNC기술이 민수분야로 잘 전환된다면, 북한 상품의 품질도 올라갈 것이다. 또한 최근 북한이 강조하는 국제적 품질관리 표준을 준수하게 되면 대외 상품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

북한의 정보 네트워크: 인터넷과 인트라넷

북한도 국가적 정보 유통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정보 네트워크의 현저한 특징 중 하나는, 국외로 연결되는 인터넷과 북한 내부에서만 운영되는 인터넷, 즉 인트라넷이 분리되어 연결망이 운영된다는 것이다.

네트워크 구성 등은 별 차이가 없지만, 북한 당국은 '체제 보안' 등을 이유로 국외와의 연결망을 제한하고 있다. 북한은 인트라넷 구조의 국내 네트워크 '광명'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유선 네트워크의 경우, 중요지역과 기관 간에는 광섬유로 이어져 있고, 개인집은 아직 구리로 된 전화선으로 되어 있다.

요약문(executive summary)

북한의 이동통신망: 고려링크, 강성네트

김정은 집권 후 북한은 국제적 정보통신 기술 확산 추세를 정책에 반영하기 시작한다. 실례로 고려링크를 통한 북한의 무선통신 가입자 수가 2010년에 50만 명 수준이었으나, 2012년에는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 시기 북한이 자체적으로 스마트폰을 개발하고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북한의 무선통신 가입자 수는 2013년 200만 명 수준에 이른 후 2017년의 경우 37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무엇보다 김정은 시대 고려링크 외에 '강성네트'라는 무선통신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했다. 고려링크는 외국기업과 합영의 형태로 설립되어 운영되었으므로 내국인 전용뿐만 아니라 외국인 전용 서비스도 제공하였다. 그러나 북한 내부 자본으로 만든 강성네트는 내국인 전용 서비스만 제공한다.

고려링크의 외국인 전용 서비스는 북한 국내에 들어온 국제 인터넷 망과 연결되어 있어 북한 국내에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다. 즉 고려링크 외국인 전용 USIM을 장착한 스마트폰이나 휴대용 와이파이 중계기를 통하면 국제 인터넷망에 접속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북한 내부에서 직접 찍어서 올리는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올 수 있게 된 것이다. 남북에 있는 사람들이 카카오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인터넷 화상 통화를 한 적도 있다.

북한 내부에서도 중요 대학이나 연구소 등은 인터넷망을 통해 해외 망과 연결할 수 있다. 이들 기관의 구성원이 국제 인터넷망에 접속하려면 북한 당국의 사용 승인을 미리 받아야만 한다. 김정은 시대 들어서면서 ICT 관련 학생이나 연구원들은 상대적으로 사용 승인을 쉽게 받는다고 한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직접 접속이 어렵고, 인민대학습당

요약문(executive summary)

이나 전자도서관, 과학기술보급실 등에 정보수집 요청 등의 절차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고려링크가 처음 북한 내 서비스를 시작하던 시기에는 대부분 수입 스마트폰이 사용되었다. 자체 제작한 북한산 스마트폰은 2011년 ‘류성’을 시작으로 발전하였다. 2013년부터는 ‘평양’, ‘아리랑’, ‘진달래’라는 스마트폰 시리즈가 버전을 바꾸어가며 출시되고 있다. 대략 20개 가량의 모델이 사용되고 있다. 북한의 스마트폰 부품은 주로 중국에서 수입하여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주민들 역시 스마트폰을 통해 통화는 물론, 문자와 사진 등을 서로 주고받는다. 국제 인터넷망에 접속하지는 못하지만 북한 국내망에는 접속하여 정보를 찾아보거나 인터넷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기도 한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은 카메라 기능이다. 중요한 장면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마음은 남이나 북이나 마찬가지이다.

또한 북한에 종이가 부족해서 교과서를 비롯한 인쇄물 책자를 제대로 발간하지 못하는 현실적 제약은 북한이 태블릿 PC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었다. 스마트폰과 마찬가지로 2013년 즈음부터 자체 생산하기 시작한 북한 태블릿 PC는 ‘노을’, ‘삼지연’, ‘아침’, ‘룡흥’, ‘아리랑’, ‘울림’, ‘묘향’ 등의 이름으로 서로 다른 5~6개의 업체에서 생산되고 있다.

일반 노트북은 물론 최근 자판 분리형 노트북과 스틱형 PC도 북한에서 생산되고 있다. 최근에 만들어진 기업소의 과학기술보급실이나 학교의 전산실에는 PC가 아니라 노트북이 놓여 있는 경우도 많다. PC나

요약문(executive summary)

모니터의 외형이 애플사의 맥북처럼 금속 재질인 경우도 등장했다.

최근 북한산 정보기기들

북한이 주최하는 2017년 ‘전국 정보화 성과 전람회’에는 다양한 첨단 기기 및 프로그램들이 선보였다. 먼저 전국 수준에서 전력 생산 및 소비를 통제하는 시스템이 등장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의 전력공업성 산하 전력정보연구소의 ‘불야경’이라는 국가통합전력관리체계가 소개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ICT기술을 생산에 도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에도 활용하라는 지침에 따라 각종 교수학습용 기기도 많이 출품되었다. 전자칠판은 물론, 프로젝터, 3D 입체 투영기 등도 제작되어 전시되었다.

또한 내나라전자상점, 앞날전자상점 등 인트라넷 망에서 물건을 고르고 주문하고 결제할 수 있는 쇼핑몰도 여러 개 소개되었다. 전자결제 방식의 도입과 함께, 전자카드, 24시간 주문 배송 서비스 등이 함께 소개되고 있다.

그리고 김정은 집권 후 2015년경부터 시작된 ‘만방’이라는 이름의 IPTV 서비스는 북한 정보통신 환경의 변화를 보여준다. 북한의 텔레비전 방송 채널의 실시간 시청은 물론, 지나간 방송을 주문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오늘날 첨단 ICT 기술은 블록체인(Block Chain) 기술과 함께 인공지능(AI) 기술이다. 주목할 점으로 2017년 북한의 ‘전국 정보화 성과 전람회’에는 북한의 AI 관련기술도 선보였다. 문서인식, 음성인식 기술 관련 제품을 내왔던 북한은 안면인식 기술까지도 전시하였다. 아직 그 수준을 확인하긴 어려우나 북한 당국의 선전 및 노동신문 등의 보도를 신뢰한다면, 북한의 ICT관련 분야는 여러 영역에서 성과를

요약문(executive summary)

거두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주목할 점으로 북한의 정보기술 수준의 경우, 하드웨어 실력은 뒤떨어진 편이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실력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향후 남북교류협력이 활발해졌을 때 기술적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질 분야가 북한의 소프트웨어 분야로 평가된다.

□ 교육: 공교육 개혁과 교육격차 확대

정책방향과 제도개편: '전민과학기술인재화'와 국제수준 추구

교육 부문은 김정은 정권의 개혁 의지와 개혁의 방향성이 일찍이 정책적으로 반영된 분야이다. 김정은 시대 들어 교육사업은 '사회주의 문명강국건설'의 주요한 수단으로 간주되며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김정은 시대 교육 정책의 두드러진 특징은 '글로벌 스탠더드'의 적용과 과학기술교육 강화 및 교육정보화 추진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교육 부문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가시적인 개혁 조치는 2012년에 이루어진 초중등 학제개편과 12년제 의무교육 실시였다. 2012년 학제개편을 통해 초중등학제를 소학교 5년,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으로 개편하고, 의무교육을 유치원 높은 반부터 고급중학교까지 1년 연장하였다.

2016년 5월 조선노동당 7차 당대회에서는 과학기술강국건설을 위한 '전민과학기술인재화'가 목표로 제시되었다. 이후 종합대학 증설, 학과 통폐합 및 신설, 교육과정 조정, 대학입시제도 개선, 대학 학점제 도입 확대, 대학원 교육제도 개선, 원격교육 확대 등의 제도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고등교육 제도 개혁은 중국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이루어

요약문(executive summary)

졌던 조치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향후 귀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초중등교육과정과 교과서 개정

2012년 학제개편 이후 초중등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정 작업이 진행되었다. 교과목 구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김정은 체제 출범에 따라 김정은 관련 정치사상 과목을 모든 학교급에 신설한 점과 함께, 자연과학 및 기술 관련 교과, 외국어교육이 강화된 점이 눈에 띈다.

과목별 수업시수 변화를 보면, 영어과 수업시수와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정보기술 과목의 비중도 중등단계에서 증가하였다. 또한, 개정 교육과정은 나선형 교육과정, 통합교과 등 국제적 교육과정의 흐름을 부분적으로 반영하였다. 교육과정 구성 및 교과목 체계의 변화는 북한 당국이 교육 부문에서 지향하고 있는 세계화, 정보화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교과서는 더욱 두드러진 변화를 보여준다. 외형 면에서 가독성과 흥미도를 높이고자 하였으며, 일방적 주입식과 암기식 교육을 지양하고 있다. 즉,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수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과서를 구성하였다. 교과서 내용과 편성 체계 면에서도 국제적 흐름을 소개하거나, 학습자 중심의 탐구활동을 강조하는 등 최신 교육방법을 적용하는 시도가 눈에 띈다.

과학기술교육 강화와 교육정보화 추진

김정은 시대 북한에서는 ‘정보산업시대’, ‘지식경제시대’인 현 시대에 과학기술 발전이 국력을 좌우하는 관건이 된다고 인식한다. 따라서 과학기술 부문의 인재양성을 통해 ‘사회주의문명강국’, ‘경제강국’을 건설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전략에 따라 학교교육, 특히 중등교

요약문(executive summary)

육 단계에서 기초 자연과학교육과 컴퓨터교육 등 과학기술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새 세기 교육혁명'의 목표로 제시된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각종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교육과 원격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다.

최근 교육정보화의 양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수업에 사진과 동영상 등의 멀티미디어 매체를 활용하는 '다매체교수' 컴퓨터 및 컴퓨터 네트워크, 가상컴퓨터 환경, 액정 TV 등을 갖춘 다기능화된 교실의 증설과 원격교육 확대이다.

2010년에 김책공업종합대학에 원격교육대학이 설립되었고, 이를 따라 각 부문의 주요 대학에 원격교육대학을 부설하여 기업소 현장기술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원격교육대학이 확대되고 있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증대 및 교육격차 확대

경제난 이후 북한 교육은 제도적으로 무상교육으로 운영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 학부모들이 일정 정도의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만 한다. 일반학교의 경우, 국가의 예산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대부분의 학부모들에게 의존하여 '세부담', '꾸리기' 등으로 불리는 비용을 충당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시설비 명목의 큰 돈 이외에도 토끼가죽, 장갑, 파철, 땀감, 퇴비 등 다양한 '과제' 수행이 학생들에게 부과된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은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위축시키고 결석을 유도하는 요인이 된다. 부모가 각종 교육지원 부담을 감당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거나 학생이 장사나 농사일 등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빈곤계층 아동들의 경우, 장기간 결석을 하거나

요약문(executive summary)

아예 공교육망에서 벗어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교육비 증가가 경제적 취약계층의 교육접근성 악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경제난 이후 시장화 과정에서 경제적 계층이나 지역별 교육격차는 상당히 커진 것으로 추정된다. ‘수재학교’와 일반중학교 간, 일반중학교 중에서도 도시와 농촌의 학교 간에는 교육시설, 환경, 교원 수준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교육의 제한적 확산

김정은 집권 이후 초중등교육 강화와 교육개혁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주민들 속에서 개인교습 형태의 사교육이 확산되고 있다.

사교육이 확산된 정도는 지역마다 크게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대도시에서는 낮설지 않은 현상이다. 사교육의 종류도 최근 들어 다양화되어, 초기에는 악기교습과 수학, 물리 등 대학입시에 필요한 주요 과목을 중심으로 사교육이 이루어졌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외국어와 컴퓨터, 글씨쓰기, 노래부르기, 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교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사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과외교사들이 나타났다는 점도 초기의 양상과 다른 점이다.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북한에 사교육이 보편화되었다거나, 북한 교육의 중요한 축을 구성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남한의 학원 같은 제도화된 사교육 기관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사교육 현상의 출현과 확산은 교육을 국가의 의무로만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자녀의 미래를 위한 학부모의 개인적 투자 행위로

요약문(executive summary)

보는 인식이 생겨났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 계층·지역·세대: 변화의 바람이 일상을 바꾸다

밥상의 빈부격차

북한의 과거 배급제는 소수의 특권층 가구를 제외한 전국 가구에 ‘평균적 밥상’을 제공했다. 적어도 1990년대 이전에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먹는 것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거나 기아에 허덕이는 일은 없었다. 하지만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배급제는 서서히 유명무실화되었다. 노임(급여)은 전혀 실질소득의 역할을 하지 못하며,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노임(급여)조차 받아보지 못하고 있다. 특수한 직종이나 분야에 종사하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식량배급을 받고 있는데, 종전에 하루 700g이던 배급량이 김정은 정권 들어서 450g으로 줄어들었다.

이제 북한 주민의 밥상은 식량배급소가 아닌 시장에 의해 차려지고 있다. 시장의 확산과 비공식 경제활동으로 인한 소득 증가로 대부분의 북한 주민의 식생활은 과거 배급제가 실시되던 시기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다. 김정은 정권이 안정기에 들어선 2015년 이후에 하루 세끼 식사가 가능했다는 탈북민 응답률이 86%를 상회하는 추세이다. 또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고기를 ‘거의 매일 섭취’ 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의 차이로 인한 밥상의 빈부격차가 뚜렷해졌다. 상층은 기본적으로 쌀밥을 주식으로 하고, 고기나 과일 등 다양한 부식물을 섭취하며, 아이스크림이나 커피 등의 기호식품도 즐긴다. 평양 시민의

요약문(executive summary)

경우 피자, 스파게티, 햄버거, 콜라 등 고가(高價)의 외국 요리 전문식당에서 외식을 하기도 한다. 반면에 하층은 강냉이밥을 주식으로 섭취하고, 고기는 거의 섭취하지 못한다.

이러한 밥상의 빈부격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과거 배급제로의 회귀를 원하지 않는다.

부동산 열풍! 사유재가 된 살림집

원칙적으로 북한에서 주택(살림집)은 국가가 배정한다. 북한의 주택정책은 ‘국가임대주택제도’라 할 수 있다. 시장화는 북한을 소비사회로 변모시켰으며, 살림집 역시 사고팔 수 있는 중요 재화가 되었다.

북한에서 아파트는 부의 과시와 성공의 욕망을 부추기는 상징이다. 김정은 정권에서 대대적으로 선전되고 있는 평양의 미래과학자거리와 려명거리에 들어선 화려하고 웅장한 신축 고층아파트는 끊임없이 북한 인민들의 상승과 과시의 욕망을 자극함으로써 당과 국가의 정책과 노선에 ‘자발적 순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 집권 이후 아파트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주거 인프라의 수준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주거 인프라의 경우 도시와 농촌 간 격차가 크다. 북한 중앙통계국과 유니세프(UNICEF)가 공동 조사한 2017년 다중지표군집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살림집까지 수도관으로 식수가 공급되는 가구 비율은 55.6%에 불과하다. 2014 SDHS 보고서에 따르면, 화장실의 경우 수세식의 비중은 63.2%(개별+공동), 재래식의 비중은 36.8%(개별+공동)로 조사되고 있으나 도시의 경우 수세식 비중이 71.1%인데 반해 농촌은 수세식의 비중이 48.9%에 불과해 도-농 격차가 크다.

요약문(executive summary)

부(富)의 재편: 지역 불평등의 가속화

빈부격차는 개인과 가구(household)의 차원을 넘어 지역 차원으로 확대되어 고착되고 있다. 자본과 상품의 이동 그리고 시장의 규모와 접근성에 따라 지역의 부(富)가 재편되고 있다. 2017년 북한 다중지표 군집조사 보고서에 포함된 ‘재력 지표(Wealth Index)’를 보면, 최상위 40%에 속하는 가구가 도시의 경우 60%인 반면 농촌은 8.8%에 불과하고, 반대로 최하위 20%에 속하는 가구의 비중이 도시는 6.4%에 불과한 반면 농촌은 4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주민(탈북민)의 주관적 평가로 집계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2016년 조사에 의하면, 평양시를 제외하고 가장 잘 사는 시는 나선시(36.3%), 신의주시(28.5%), 평성시(13.1%) 순으로 나타났다. 나선시와 신의주시는 대표적인 접경도시로 상품과 자본의 이동이 활발하며, 평성시는 평양의 관문도시로 큰 물류시장이 형성된 곳이다. 반면에 농업이 주요 산업인 농촌지역은 가장 가난하고 낙후한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

내구소비재와 정보통신기술 장비의 보유는 지역 불균형 발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2017 MICS 보고서에 의하면, TV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내구소비재들의 보유율이 도시에 비해 농촌에서 매우 낮게 나타난다. 특히, 세탁기의 경우 도시의 보유율은 22.6%인 반면, 농촌은 3.9%에 불과하다. 유선전화의 경우 도시는 61.9%인 반면, 농촌은 18.1%에 불과하고, 이동전화의 경우 역시 도시는 80.4%에 달하는 반면, 농촌은 50.6%로 나타났다.

소비의 계층화

계층은 재산, 권력, 위신 등과 같이 경제·정치·사회적 자원의 불평등

요약문(executive summary)

한 분배로 인해 서열화된 위계적 집단이다. 배급이 아닌 시장 중심의 분배방식은 북한 사회를 점진적으로 계층화한다. 가구 소득의 격차는 소비의 계층화로 나타나며, 특히 의식주 생활에서부터 남한상품의 소비에 이르기까지 계층 간 소비 패턴은 큰 차이를 보인다.

흥미로운 것은 가계 지출 내역 중 자녀교육 지출 비중이 중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사회에서도 교육이 계층상승의 사다리로 인식되고 있으며, 중층의 자녀 교육열이 가장 높음을 보여준다. 2017년 MICS 보고서에 의하면, 라디오와 TV는 재력 수준의 차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대부분의 가구들이 보유한 반면, 유선전화와 이동전화의 보유율은 재력 수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인터넷 사용은 재력 수준과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소비의 '통제 구역'임이 드러났다.

새 세대의 욕망이 꿈틀대다

2012년 9월 김정은 정권의 출범과 함께 공표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제도'는 북한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체이자 김정일 정권의 친위 그룹이 될 '새 세대'의 육성 방침이다. 새로운 교육제도는 영어 교육과 함께 '지식경제시대', '정보산업시대'에 걸맞은 인재양성을 위한 과학 기술 교육이 중시된다.

북한의 '새 세대'는 국가 권력의 위력을 인정하고 당원이 되고 싶은 정치적 욕망을 포기하지 않으며, 동시에 ICT와 같은 현대 문물에 대한 관심이 높고 남한 영상물의 소비를 통해 남한의 대중문화에도 노출되어 있다. 2017년 MICS 보고서에 의하면, 연령별 컴퓨터와 인터넷 이용률이 10대에서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새 교육제도가 낳은 결과이자, 이전 세대와 구분 짓는 새로운 기술로 무장한 새 세대

요약문(executive summary)

의 등장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하여 새 세대가 체제 저항적 의식이 강하다고 볼 순 없다. 김정은 시대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조사 결과, 젊은 연령층일수록 김정은에 대한 지지도가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새 세대와 젊은 지도자 김정은이 이끄는 국가 간에, 기성세대보다 더 높은 연대의식이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 젠더와 재생산: 변화하는 사회적 성(性)을 말하다

변화하는 여성과 모성정책의 딜레마

김정은 정권의 모성(母性)정책 강화 및 북한의 시장화와 정보화가 아래로부터의 진전되면서, 북한 여성/남성의 생활방식과 의식 변화가 드러나고 있다. 특히 남성들에 비해 일상생활 세계를 이끌어나가는 여성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변화의 추동력은 국가정책, 가족, 자아발전 욕구이다. 국가정책 및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여성/남성의 의식과 행위 변화가 이루어진다. 그 변화 양상은 데이트 → 결혼 → 출산 → 이혼이라는 생애과정에서 드러난다.

북한의 선군정치가 본격화되면서 북한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확연히 구분되었다. 남성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전방의 전사’로서의 역할이 부여되었다. 여성은 전선을 엄호하며 가정을 중심으로 사회를 지켜내는 ‘후방의 전사’로서의 역할이 부여되었다.

그러나 지난 30여 년 북한의 전쟁준비는 지속되었으나 전쟁은 발발하지 않았다. 따라서 전선에서 전방을 책임지던 남성들은 점점 무력해졌다. 이로 인해 전선을 떠나 후방으로 복귀했을 때 자신의 역할을

요약문(executive summary)

찾지 못하는 남성들이 많아졌다. 반면 가정경제와 사회적 약자를 책임져야 하는 여성들은 왕성하게 활동하며 의식과 행동의 변화가 커졌다.

여성들에 비해 남성들의 의식과 행위 변화가 더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상대적 기득권 집단이 자신의 생활습관이나 우월적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하나는, 노동당과 군대를 앞세워 비생산적인 사회위계를 지속하는 북한 정권의 가부장성 때문이다.

돈의 맛

따라서 '생산적 노동'으로 가족단위 중심의 주민생존을 책임지고 있는 북한 여성들의 변화가 남성들에 비해 빠르게 이루어진다. 특히 북한 사회의 시장경제 발전과 함께 이를 주도하는 여성들이 생계 해결 과정에서 획득한 생존기술을 발전시켰다. 나아가 더 나은 삶의 미래를 꿈꾸며 국가와 가족을 넘어선 '자기 발전'을 추구한다.

그 결정적 계기는 '돈의 맛'을 알게 된 것이다. 배급에 의존해서 살던 삶이 무너지면서 돈이 자신과 가족의 삶을 발전시킬 수 있음을 체험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돈을 버는 길이 출세하는 길'이라는 것도 깨닫게 된다.

또한 여전히 가부장적 제도가 지속되고 남성들이 쉽게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사회를 떠나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도 한다. 그 결과 북한 사회에서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추동하는 이들이 여성들이다. 나아가 북한이탈주민의 70% 이상도 여성들이다.

시장화와 가정 내 성역할 변화

북한의 국가수립 과정에서부터 현재까지 북한의 여성정책 기조는

요약문(executive summary)

전통적 어머니 역할에 사회경제적 역할을 부가한 ‘어머니-노동자 이중 역할론’이었다. 이에 나아가 경제난과 시장화 과정에서 후방을 책임지던 북한 여성들에게 북한 정권은 ‘이악한 어머니’ 역할을 강조한다.

김정은 집권 이후 <어머니대회>를 연이어 개최하며 여성들에게 헌신적인 어머니의 역할과 책임을 강제한다. 그리고 <어머니의 날>을 제정하여 국가-사회적으로 이를 칭송하며 모델화한다. 사회적으로 억세게 일을 하거나 장사를 하는 어머니들에게도 가사와 양육은 고유한 역할로 강제된다.

한편 가족 내에서 아버지들은 대개 양육과 일상생활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보통 가정의 남편들은 가정 내에서 특별한 역할이 없는 상황이 초래된다. 즉, 다수 북한이탈주민이 증언하듯, 북한 사회에서 기업에 적을 두고 있으나 가동률이 떨어져 별다르게 할 일이 없는 남편들은 하는 일 없이 ‘집지키는 멍멍이’나 ‘병풍’으로 회자된다.

경제권이 발언권으로, 발언권이 주도권으로

이러한 상황이 30여 년간 지속되면서 북한 여성들 가운데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흐름이 드러난다. 돈을 버는 여성들의 경제권이 강화되면서 사회와 가정에서의 발언권도 강해진다. 그리고 여성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가정 내 주도권도 강화된다.

그 결과 부부관계가 다소 평등해지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나타난다. 남성들 사이에서도 가사는 남녀가 같이 해야 한다는 의식이 증대하고 있다. ‘쌀독을 아내가 쥐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가정경제를 이끌고 목소리가 커지면서, 남자들이 집안일이라도 좀 도와야 한다는 의식이 확장된 것이다. 그러나 육아는 여전히 어머니의 몫이다.

데이트와 결혼관 변화

데이트의 경우, 최고지도자 부부인 김정은과 리설주의 자연스럽게 세련된 부부동반 행보가 북한 젊은이들의 연애에 영향을 미쳤다. 북한 사회에서도 이전 시대에는 볼 수 없었던 자유연애의 모습이 증가했다.

북한의 상업과 서비스업 발전으로 연애 코스 또한 다양해졌다. 이제 수영장, 노래방, 사우나, 당구장, 볼링장, 스케이트장에서의 연애를 즐긴다. 연상연하 커플이 증대하면서 경제력 있는 여성들은 데이트 비용을 책임지기도 한다. 또한 정보화와 함께 북한도 국제화 및 인권이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연애 과정에서 여성존중 의식이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평양을 중심으로 한 북한 도시의 중산층 가족의 자녀들 사이에서의 변화이다. 농촌지역 및 하층 주민들은 변화가 느리다. 정보화가 더디며 경제적 여유도 없고 서비스 시설도 발전하기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촌의 젊은이들은 도시나 해외로 나가 자유로운 연애를 해보고 싶은 열망이 크다.

최근 북한 미혼 남녀들이 선호하는 배우자 조건의 1순위는 경제력, 2순위는 출신성분/집안, 3순위는 발전가능성이다. 과거에는 성격과 출신성분/집안, 학력 등이 중요했다. 그러나 현재는 외화벌이 간부, 상업과 서비스업 종사자, 검찰 간부, 안정적으로 장사하는 사람, 운전수 등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배우자를 선호한다.

출산율과 출산의지 저하

출산율은 북한 사회와 여성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드러낸다. 2014년 북한 기혼여성(15-49세)의 합계출산율은 1인당 1.89명이다. 1993년 인구센서스 결과는 2.13명이었고, 2008년 결과는 2.01명이었다. 이

요약문(executive summary)

는 지난 30여 년간 북한 사회의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고, 여성들의 출산의지 또한 낮아지는 추세임을 알려준다.

2000년대만 하여도 출산율 저하의 주요 원인은 경제난 극복이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 들어서서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출산기피’ 양상이 커졌다. 아이를 1~2명만 낳아 남부럽지 않게 잘 키워야 한다는 의식의 변화가 뚜렷하다. 특히 도시, 고학력자, 고소득 가구 출신 기혼여성들 사이에 저출산 경향이 두드러진다. 대표적으로 2014년 조사에서 평양에 사는 고학력자, 고소득 가구 기혼여성들의 자녀수가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또한 남성들보다 여성들 사이에서 아들보다 딸을 선호하는 의식이 높아졌다. 가부장성이 강한 북한 사회에서 여성들이 가정경제를 책임질 뿐 아니라, 아들보다 딸이 어머니의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과 결혼의 타산(打算): 혼인신고 기피와 이혼

북한 사회에서 ‘사랑과 결혼의 타산’이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북한의 젊은 커플들이 혼인신고를 기피하다가 자식을 낳으면 신고하는 모습이 증대하였다. 혼인을 하면 국가의 각종 통제를 많이 받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혼인신고 기피, 만혼, 동거선호 양상이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결혼하면 가정경제를 책임지면서 국가사업에 자주 동원되는 등 통제가 심하기 때문이다. 또한 가사와 양육의 부담도 크며 재판이혼 제도로 이혼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혼도 증대하였다. 최근 북한의 이혼 특성은 ‘북한 여성들이 더 이상 참고 살지 않겠다.’는 독립선언이다. 생계 그 자체가 이혼의 결정

요약문(executive summary)

적 원인이라기보다는 그동안 묵시되었던 가부장적 부부관계가 폭발하는 양상이다. 아내가 힘들게 돈을 벌어서 가족이 먹고 사는데, 남편의 폭력에 외도까지는 더 이상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의식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양상이다.

사회적 분위기도 이혼에 관대해졌다. 무엇보다 더 이상 ‘때 맞고 살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었다. 그러나 아내/남편이 돈을 잘 벌어서 그에 기대어 살면 이혼이 손해이기 때문이다. 즉, ‘사랑과 경제의 타산’이 발전하고 있다.

□ 문화와 유행: 문명국 건설 행보와 욕망 확대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은 김정은 체제가 시작된 2012년 신년사를 통해 제시된 김정은 시대의 국가 발전 목표이다. 당시 제시한 사회주의 문명국은 ‘높은 문화지식과 건강한 체력,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고 ‘건전한 생활기풍이 차 넘치는 사회’이다.

김정은이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위한 우선 과제로 제시한 것이 과학기술 발전 및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이었다. 문화 측면에서는 각종 유희장과 편의시설 등 문화 인프라 건설 및 체육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과 함께 주민들 사이에서는 개인의 행복과 욕망을 추구하는 풍토가 확산되고 있다.

모란봉악단의 ‘창조 기풍’과 ‘일본새’

모란봉악단은 2012년 7월에 창단한 전자음악단이다. 모란봉악단은 2012년 7월 ‘시범공연’으로 첫 선을 보인 이후 김정은 체제의 혁신과

요약문(executive summary)

변화를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김정은이 모란봉악단을 통해 보여주고자 한 키워드는 ‘혁신’과 ‘변화’였다.

모란봉악단이 보여준 변화를 혁신의 모범사례로 삼아 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키자는 주문이었다. 즉, 모란봉악단이 창조했다는 ‘새로운 시대의 창조기풍’과 ‘일본새(일하는 본보기)’를 따라 배워야 한다고 선전한다.

공연문화의 변화

2018년 2월에 있었던 삼지연관현악단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성공 기원 축하공연’에서, 북측 공연단은 검은색의 타이트한 핫팬츠에 빨간색 민소매 상의를 입고, 북한 가요 〈달려가자 미래로〉를 불렀다. 북한의 최근 공연을 보면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 공연이 화려해지고 다양해졌다.

2017년 7월 북한의 왕재산예술단 역시 〈달려가자 미래로〉에 맞추어 시원하고 활기찬 울동을 선보였다. ‘타프춤’(tap dance)과 홀라후프를 이용한 현대무용인 ‘륜춤’을 공연하였다. 탱크탑의 상의와 초미니스커트를 입고 공연한 이들은 파격적인 무용 동작을 선보였다.

유희장과 위락시설 건설

김정은 체제의 출발은 놀이공원 개보수로부터 시작하였다고 할 정도로 문화시설 건설이 늘었다. 인민들이 자주 찾는 곳, 인민들이 즐길 수 있는 전국에 문화휴식터를 새로 건설하거나 개건, 보수하였다.

평양을 중심으로 시작된 ‘유희장’ 건설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가고 있다. ‘현대적인 문화후생시설과 공원, 유원지’를 더 많이 세워서, 인민들이 새 시대의 문명한 생활을 누리게 할 것을 지시한 이후 전국적으로

요약문(executive summary)

유희오락시설 건설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이를 북한 당국은 인민 대중을 앞세운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로 선전한다.

‘축구강국’의 열망

김정은 시대 문화정책 중 체육중시는 두드러진 변화이다. 김정은이 농구를 좋아하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대중사업 측면에서는 축구 발전을 추진하였다.

2013년 4월에는 평양에 세계 수준의 선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평양국제축구학교를 개설하였고, 『로동신문』에 해외 축구 소식도 게재하고 있다. 또한 텔레비전 드라마 <우리여자 축구팀>, 청소년 영화 <소학교의 작은 운동장> 등의 영화 드라마를 만들어 축구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있다.

2016년 노르웨이 출신인 예른 안데르센 감독을 축구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하면서, 세계수준의 축구 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축구 유망주들을 스페인, 이탈리아의 축구 아카데미 유학을 보냈고, 평양국제축구학교를 통한 축구인재양성에 힘쓰고 있다.

도시 재건과 ‘김정은 신화’ 창조

새로운 도시 건설은 김정은 체제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의 하나이다. 건축에 관심이 많았던 김정은은 2012년 1월 개교 60주년이 되는 ‘평양건설건축종합대학’을 종합대학으로 승격시키면서, ‘평양건축종합대학’으로 학교 이름을 바꾸었다. 2013년에 11월에는 평양건축종합대학을 찾아가 명예총장을 자처하기도 하였다.

2012~2017년 기간 건설된 현대식 아파트는 매년 마다 새로운 지구에 새로운 형식으로 추진되었다. 김정은 시대 건축은 새로운 지도자의

요약문(executive summary)

비전을 도시건설과 아파트를 통해 보여주려는 듯 웅장하고 화려한 외관으로 지어졌다. 새롭게 건설된 아파트들은 평양 도심의 스카이라인을 바꾸어 놓을 만큼 과시적이면서도 다양한 형태로 세워졌다. 또한 새로운 도시 건설과 아파트 건축이 문학 창작의 소재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개인의 욕망 확대

김정은 시대의 변화로 주목되는 것이 개인의 욕망 확대이다. 평등을 강조하는 북한 사회에서 개인성은 조직을 해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김정은 체제에서는 사회 발전 속에서 개인적 욕망을 충족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양한 유희장 건설을 통해서 개인들이 즐길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확충하면서, 한편으로 뷰티산업 발전 등 개인적 욕망을 충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전통적으로 북한의 사회 풍속 관련 정책은 주로 ‘통제’였지만, 김정은 시대 들어서 ‘건설’과 ‘향유’가 강조된다. 유희장, 체육시설, 편의봉사시설이 대폭 증대하였다. 마식령스키장이나 미림승마구락부, 해당화관 등은 김정은 시대의 변화하는 주민 생활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되었다.

사회적으로 집단보다 개인을 우선하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소비 상품에서도 개인의 취향이 반영되고 있다. 개인의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개인 취향을 고려한 소비상품도 출시되고 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는 자기중심적인 의식도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문화와 유행 양상은 평양 및 대도시 중심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공연문화를 이전 시대보다 다소 자주 접할 수 있는 것 외에 그 문화와 유행을 향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들어가는 말



1. 기획의도 및 목적

지난 2018년 4월 남북한 정상 간의 판문점 회담을 기점으로 북한의 변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다. 남북관계 개선 흐름에 따라 지난 10년간 한국 사회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북한 사회 및 주민들의 삶과 의식에 대한 관심이 급증대한 것이다. 올해 판문점 선언 후 공식화된 김정은과 북한의 ‘비핵화-경제우선’ 대내외 행보 변화로부터, 김정은 시대 북한의 내부 변화 실태를 객관적으로 알고자 하는 수요의 급증이다.

특히 김정은 시대 북한 내부, 그동안 지속적으로 다루어진 정치군사·외교 중심의 변화가 아니라, 경제사회 분야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의 증대이다. 향후 남북교류협력 진전 및 남북관계 개선 흐름에 맞추어 다양한 정책 설계에 참고하고자 하는 관련 정부부처들의 필요와 요구 역시 증대하고 있다. 핵·미사일 문제에 집중했던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 역시 현재 북한의 행보 변화에 영향을 미친, 북한의 내부 경제사회 및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의식 변화 등을 쉽게 이해하고자 하는 요구가 증대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최근 정부부처, 언론, 국민들의 북한관련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여, 이에 대한 정보를 사실에 기초하여 시급히 제공할 필요성에 따라 추진되었다. 그동안 북한의 경제, 사회, 정치, 과학, 교육, 문화 등 영역에서 각 분야를 깊이 있고 다양하게 연구한 전문가들이 사회적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연구방법은 학문 간 경계를 넘어 북한 경제사회 내부 변화를 종합적으로 연계한 학제 간 연구이다. 평균 15년 이상 북한 내부 각 분야를 지속적으로 연구한 전문가들이, 각 분야 정책과 실태를 종합하여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본 김정은 시대 경제사회 변화’를 규명한다. 무엇보다 북한의 경제, 사회, 정치, 과학, 교육, 문화 등의 영역에서 연구

성과를 축적한 전문가들의 브레인스토밍 결과를 중시한다. 각 주제는 연구자들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키워드를 선정하고 변화의 맥락을 소통하면서 작성된다.

연구의 최종 목적은 각 분야 전문연구자들의 관련 분야에 대한 ‘팩트와 통찰’에 기초하여, 김정은 시대 8대 분야 변화의 실태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새로운 발굴이나 이론에 기초한 학술적 분석서가 아니다. 정부관련 부처 및 언론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김정은 시대 북한 내부 변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서를 지향한다.

2. 연구시각과 내용

2018년 현재 북한의 경제사회를 바라보는 두 가지 극단적 시각이 있다. 하나는 식량부족으로 대규모 아사자가 발생하고, 전력 공급 부족 등으로 대부분의 공장들이 가동을 중단하고, ‘꽃제비’라 불리는 부랑아들이 시장을 전전하던 시기에 형성된 시각이다. 이 시각에 의하면 북한의 경제사회는 여전히 지극히 낙후되어 있으며, 주민들은 굶주림과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북한 경제사회가 개선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평양 등 일부 대도시의 지배계층에 국한된 현상이다.

두 번째 시각은 비교적 최근에 형성된 시각으로 북한의 경제사회가 시장화를 통해서 고도성장하고 있으며, 사회적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시각이다. 이 시각은 주로 최근 평양을 방문한 일부 인사들이 전하는 북한의 경제성장, 평양에 새로 건설된 고층아파트들, 400만대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무선통신 이용자수, 그리고 평양 등 대도시의 백화점이나 대형 유통망에서 거래되는 북한산 제품 등을 통하여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사회에 대하여 이토록 대립적인 시각이 공

존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북한의 경제사회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고, 제한된 정보조차 제대로 해석되거나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의 경제사회적 변화가 산업별 및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대립적 시각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2018년 현재 북한의 경제사회는 대규모 아사자가 발생할 정도의 위기 상황은 아니다. 그렇다고 북한 전반에 균형 잡힌 고도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사회는 분명 김정일 시대에 비해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그 개선의 속도가 급진전된다고 평가하긴 어렵다. 무엇보다 지역별, 계층별, 산업별로 변화의 속도가 매우 불균등하다. 그리고 시장화에 따른 부의 편중으로 중상층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는 것과 달리, 농민이나 하층민의 생활 사정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시대에 비해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사회가 성장세를 유지하며 변화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각에 따라 북한 경제사회 주요 분야의 변화 양상을 가능한 객관적으로 전달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북한의 경제사회는 분명 1990년대의 위기로부터 회복하고 있으며, 이제 더 이상 대규모 아사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과 함께, 이러한 회복과 아래로부터의 다양한 변화가 아직은 본격적인 경제성장이나 시민사회 형성을 논할 수준은 아니라는 점을 동시에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시각에 따른 본 연구는 연구책임자(박영자)가 설계하여 핵심 주제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진행한다. 주요 연구내용은 김정은 시대 경제사회 변화의 8대 분야 정책과 실태를 밝히고 평가하는 것이다. 특히 한반도 정세 변화를 능동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콘텐츠를 중시한다. 연구설계를 다룬 들어가는 말과 정책적 시사점을 다룬 맺는말은 연구책임자가 집필한다.

각 장을 구성하는 8대 연구 분야는 시장과 산업(이석기), 기업과 노동(홍제환), 금융과 화폐(정은이), 과학기술과 정보화(강호제), 교육

(조정아), 계층·지역·세대(정은미), 젠더와 재생산(박영자), 문화와 유행(전영선)을 영역으로 공동연구자들인 북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브레인스토밍을 거친 후 각 장별로 대표 집필한다. 마지막으로 전체 연구내용은 연구책임자가 수정 및 조율한다.

이러한 8대 연구 주제는 공히 각 주제관련 김정은 시대 정책 변화 및 실태와 효과를 다룬다. 김정일 시대와의 지속성과 변화의 맥락을 짚어 내고, 김정은 시대 두드러진 변화를 평가한다. 정책 변화 측면에서는 북한의 공식 정책 내용과 배경, 환경, 목적과 의도 등을 포함한다. 실태 및 효과 측면에서는 정책 실행/수행 실태 및 현실적으로 드러난/드러나고 있는 효과를 분석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한반도 정세 변화에 조응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The page features a decorative background with several thin, curved lines that sweep across the top and bottom. On the left side, there is a large, dark gray circular shape with a white center, partially filled with a grid of small dots. A smaller version of this same circular shape is located in the bottom right corner.

I. 시장과 산업: 시장을 디딤돌로 회복 중인 산업

이 장에서는 북한 경제를 바라보는 두 가지 극단적 시각, ‘대부분의 주민이 굶주림과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낙후된 경제’라는 극단적 부정 시각과 ‘빠르고 눈부신 발전’이라는 극단적 긍정 시각으로 부티의 거리두기를 시도한다. 이러한 시각에 따라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의 회복/변화 양상을 시장과 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가능한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평가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북한 경제는 분명 1990년대의 위기로부터 회복하고 있으며, 이제 더 이상 대규모 아사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점과 이러한 회복이 아직은 본격적인 성장이라고 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는 점을 동시에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북한 경제 회복의 주요 동력이 시장화이며,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화가 아직 제조업의 본격적인 성장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현재 북한 경제 회복의 한계라는 점도 지적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시장화와 북한 경제 회복을 주도하고 있는 서비스 산업의 발달 상황을 먼저 살펴보고 이어 북한 경제의 가장 큰 약점인 에너지 사정과 김정은 집권 이후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제조업의 실태를 살펴본다.

1. 북한 경제, 느리지만 지속적 회복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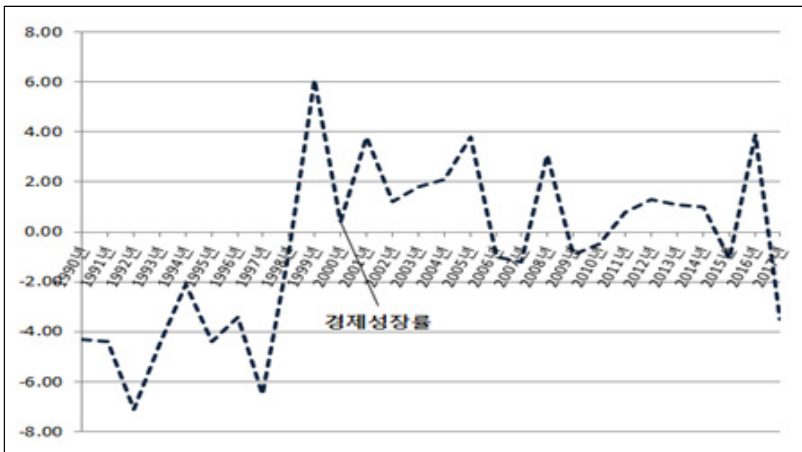
1998년 이후 회복추세

북한 경제는 대부분의 사회주의 경제가 그러했듯 ‘계획경제의 구조적 비효율성 문제’가 있었지만, 1970년대까지는 국가자원의 집중투자로 인해 나름의 공업국가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에는 정체상태에 빠졌으며, 1990년대에는 몰락 수준으로 후퇴하였다.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 대규모 수해, 김일성 주석의 사망 등으로 끝없이 추락

하던 북한 경제는 대략 1998년을 바닥으로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 이후 북한 경제는 부침이 없지는 않지만 느리게나마 회복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김정은 시대에도 이러한 경향은 이어지고 있다. 여전히 국지적으로 식량 사정이 악화되거나 여전히 굶주림의 위협에 시달리는 한계계층이 존재하지만 이제 대규모 아사자가 발생할 정도의 식량 위기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있다. 영유아의 영양상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사망률도 하락하고 있다.

아래 <그림 I-1>은 한국은행의 북한 GNI(국민총소득) 추정치인데, 북한 경제가 1998년 이후 추세적으로 소폭의 회복을 지속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극심한 가뭄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한 2015년을 제외하고는 북한 경제가 이전보다 다소 빠른 회복세를 보이다가 2017년에는 대북 경제제재와 가뭄 등으로 상당 폭 후퇴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I-1> 북한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bok.or.kr> (검색일: 2018.9.25.).

그런데 북한의 공식매체나 외부 관찰자의 전언 등을 통해서 본 김정은 시대의 북한 경제는 한국은행의 추정치보다 훨씬 개선된 것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북한 경제의 회복 속도가 김정은 시대에 다소 빨라진 것도 있지만 2000년 이후의 회복이 누적되었으며, 시장화가 진전됨에 따라 외부 관찰자에게 북한 경제의 개선된 모습이 더 잘 관찰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외부 관찰자는 시장경제 상황을 주로 관찰할 수밖에 없는데 평양 등 대도시의 시장경제 활동이 김정은 집권 이후 더욱 활발해졌기 때문에 북한 경제가 전반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한국은행의 북한 GNI 추정치는 2000년 이후 지속되고 있으며, 김정은 집권 이후 심화되고 있는 시장화의 영향을 거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2000년대 이후 북한 경제의 회복은 무연탄 등 지하자원과 1차 산품의 수출과 상업·유통, 운수업 등 민간 서비스업의 성장에 힘입은 바가 크다. 그런데 한국은행의 추정치는 상업·유통을 비롯한 민간 서비스업의 성장이 미친 영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탓에 북한 경제의 현 상태를 과소평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김정은 집권 후 국가주도 시장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경제의 시장화가 가속화되었기 때문에 한국은행 추정치가 북한 경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 바로 이 점이 김정은 시대에 외부 관찰자의 눈에 비친 북한 경제와 한국은행 추정치 간에 괴리가 큰 주요 원인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시장은 수많은 북한 주민들에게 소득과 일자리를 공급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시장에서 획득한 소득으로 시장에서 생필품과 ICT 제품 등 고급 소비재와 심지어 부동산¹⁾까지 구매한다. 개인뿐만

아니라 많은 국영기업도 시장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하여 생존하고 있다. 국가가 생산을 위한 물자를 충분히 공급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시장을 통해 물자를 조달하고, 이렇게 조달한 물자로 시장 수요가 있는 상품을 생산하고, 시장 가격으로 판매하여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기업 운영을 위한 자금을 조달한다. 여전히 발전소나 제철소 등 핵심적인 기업은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많은 국영기업에게 이제 계획은 형식적인 것이 되어가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정권은 시장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무선통신 서비스와 같이 국가가 주도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국가나 국영기업이 이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핸드폰을 비롯한 ICT 제품이나 축산물 등 고급 소비재는 종합시장(소위 장마당)보다는 국가가 주도하여 확충한 백화점이나 슈퍼마켓 등 대형 유통망에서 주로 거래된다. 또한 북한에서 여전히 고급 서비스에 속하는 커피숍이나 패스트푸드점 등도 국가 주도나 용인 하에 성장하고 있다. 국가가 시장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무엇보다 재정수입 확보, 특히 외화수입 확보를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필요성도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가 대규모의 아사자가 발생하고, 가동되는 기업이 극히 일부에 불과했던 1990년대보다 분명히 개선되었으며 경제의 활력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경제는 낙후되어 있으며, 농민을 비롯한 많은 주민들이 어려운 생활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외무역의 확대와 시장화의 과실은 주로 평양 등 대도시나 신의주, 혜산 등 국경도시의 중간계층 이상에 집중되고 있으며, 농촌 주민이나 내륙 중소도시 주민들 대부분의 생활상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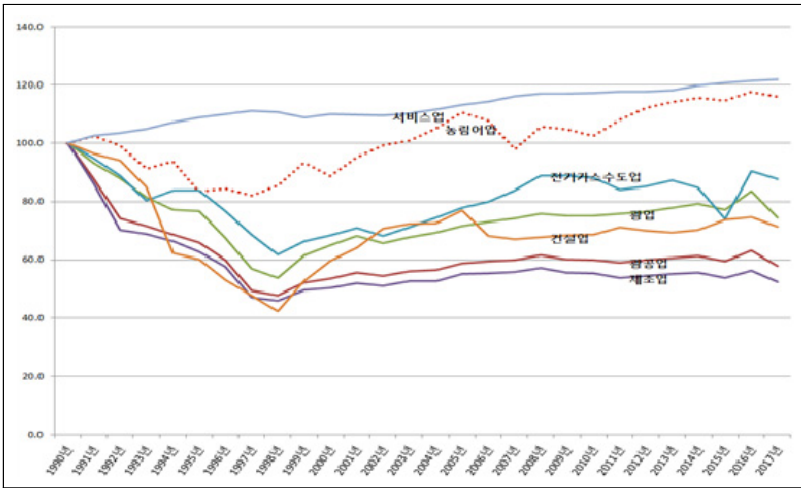
1) 정확하게는 부동산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이 거래된다.

산업별 불균등 성장

북한 경제의 회복은 산업별로 매우 불균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서비스업, 농림어업, 전기·가스업, 건설업 및 광업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며, 제조업의 회복 속도가 가장 더디다. 특히 북한 경제의 시장화를 주도하고 있는 상업·유통 등 서비스업의 성장이 제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북한 경제 회복의 가장 큰 한계이다(〈그림 1-2〉 참조). 중국이 석탄 의존도를 점차 줄이고 있어 무연탄의 대중 수출은 대북 경제제재가 아니더라도 조만간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수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서비스업, 특히 상업·유통이나 음식·숙박 등 전통적인 서비스업은 생산성 향상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북한 경제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주도해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북한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회복과 성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김정은 집권 이후 일부 제조업 부문의 생산 역량이 회복되는 조짐이 보이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제조업은 여전히 타 산업에 비해서 성장이 더디다.

김정은은 집권 이후 북한 경제의 성장, 특히 제조업의 성장을 통하여 북한 경제를 산업화된 국가로 발전시키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의 설치를 통한 외자유치 노력이나 관광 인프라의 확충 및 새로운 관광 상품의 개발을 통한 관광 수입 확대 노력 등을 기울이고 있지만 대북 경제제재에 직면하여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개별 경제정책과 함께 종래 대규모 생산 설비 투자를 통한 양적 성장전략에서 과학기술과 교육·훈련을 통한 질적 성장전략으로 전환을 도모하고 있으며, 경제관리체계의 개편 혹은 경제개혁을 통한 경제 전반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그림 I-2> 북한 산업별 생산활동 추이(1990년=100)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bok.or.kr> (검색일: 2018.9.25.).

주: 각 산업별 명목 GNI를 추이를 지수화한 것

2. 서비스 산업, 고용창출과 투자확대 통해 북한 경제 성장 견인

경제 활력을 촉진한 서비스업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경제성장 초기에 서비스 산업은 생산성 향상, 일자리 창출, 그리고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 북한의 경우에서 서비스 산업은 국영기업의 가동률 제고 등에 따라 실질적인 일자리와 소득 창출 기회를 상실한 많은 북한 주민에게 일자리 및 소득원을 제공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하며, 경제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과거 북한은 국방이나 행정 등 국가 고유 서비스뿐만 아니라 상업·유통, 운수, 숙박 등 거의 모든 서비스를 계획경제체제가 작동하던 1980년대까지 국가가 주민에게 공급하는 행정 서비스와 같이 공급하

였다. 자원배분의 우선순위가 낮았으며, 계획경제 시스템 그 자체가 서비스 산업의 발달을 가로막았다. 다만, 사회주의 체제의 운영을 위하여 국영상점과 양정사업소 등을 중심으로 한 상업·유통과 수매, 식당을 중심으로 한 사회급양, 그리고 편의 봉사라고 불리는 일부 개인 서비스 등이 최소한의 수준으로 공급되었다. 그리고 ‘농민시장’이 국영상점망 등으로만 충족시킬 수 없었던 상업적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고 있었다. 이들 기본적, 중간적 서비스업²⁾은 공급주체와 방식은 다르고, 서비스의 수준도 떨어지지만 계획경제체제하에서 나름대로 공급 시스템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이는 향후 이들 서비스업이 빠르게 발달하는 기반이 되었다. 반면 금융, 통신, 관광, 소프트웨어나 연구개발 서비스 등 현대적 서비스는 상업은행이 존재하지 않는 등 사회주의 특유의 경제시스템의 영향이나 이념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산업적 형태로 존재하지 않거나 왜곡된 형태로 존재하였다.³⁾

국가의 역할 강화

상업·유통, 식당, 개인 서비스 등은 계획경제 시기에 어느 정도 공급 체계가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시장화와 함께 비교적 빠르게 시장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었다. 생필품의 배급이 사실상 중단되고, 식량 배급도 크게 축소됨에 따라 국영상점과 양정사업소, 급양사업소 등은 원래의 기능을 거의 상실하였다. 그러나 국영상점과 봉사사업소 등 시설은 여전히 존재하였으며, 인력도 축소되었지만 유지되었다. 농민 시장은 오히려 기능이 확산된 장마당으로 진화하였다. 시장화에 따라

2) 서비스업은 발전 단계에 따라 크게 도소매, 운수업 등 전통적 서비스업, 교육서비스, 숙박음식 등 중간적 서비스, 그리고 출판, 보험 및 금융, 과학 및 기술 서비스 등 현대적 서비스업으로 구분된다.

3) 이석기 외, 『북한의 서비스 산업』 (세종: 산업연구원, 2017), p. 14.

수요는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에 민간이 계획경제 시기에 구축된 공급 역량을 활용하거나 비교적 쉽게 시장을 대상으로 서비스 공급을 확대할 수 있었다. 미용이나 수리, 맞춤형복 등 개인 서비스는 기존의 편의 봉사사업소를 기반으로 편의봉사 노동자가 사실상 시장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개인 서비스 사업자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시장 서비스를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부동산 중개나 컴퓨터 수리 등 기존의 편의 봉사사업소에서 공급하지 않던 새로운 서비스 수요는 비공식적인 개인 사업체 형태로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상업·유통, 운수업이나 숙박·식당업 등은 초기에는 주로 민간이 투자하고 운영하는 형태로 발달하였는데, 최근에는 대규모 유통망 등을 중심으로 국가 및 공공부문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반면, 무선통신,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현대적인 서비스의 경우 처음부터 국가 및 공공부문이 산업의 발달을 이끌고 있다. 이들 서비스업의 경우 기존의 공급 시스템이 거의 존재하지 않거나 다른 내용의 서비스가 공급되고 있었으며, 업종의 성격상 민간이 소규모 투자로 생산역량을 확충하기 어렵다. 그리고 금융, 관광, 통신 등의 서비스 공급 체계의 변경을 위해서는 정치적, 이념적 고려사항도 적지 않다. 따라서 이들 현대적인 서비스업의 육성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계획경제의 약화와 시장경제의 확산에 따라 아래로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성장하기보다는 정부의 정책전환과 투자 및 자본유치 등에 의해서 뒤늦게 발달하고 있다. 정부 및 공공부문이 주도하여 제한적이지만 산업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면서 관련 부문에서 민간의 투자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⁴⁾

상업·유통, 교통·운수업, 식당 및 개인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산업은 2000년대 북한 경제의 회복 및 제한적인 성장에 상당한

4) 이석기 외, 『북한의 서비스 산업』, p. 17.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런 점에서 여타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 초기와 유사하게 북한에서도 서비스 주도 성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1980년대까지 유지되어 온 제조업, 특히 중화학 공업 중심의 성장 모델이 붕괴된 이후 서비스 산업이 경제회복 및 성장을 주도하는 서비스 산업 주도 성장모델이 등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⁵⁾

노동생산성 제고

서비스 산업은 가동률이 크게 떨어진 국영 제조업 기업들의 고용역량이 약해진 상황에서 새로운 고용 기회와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⁶⁾ 종합시장을 중심으로 상업·유통업이 가장 많은 일자리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⁷⁾, 개인 서비스업도 많은 새로운 일자리 및 소득원을 창출하고 있다. 무선통신업도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금융업 및 관광업은 아직 일자리 및 소득 창출 역할이 제한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서비스 산업의 발달은 국영 제조업 부문에서 이탈된 노동자를 대거 고용함으로써 노동 투입량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쟁이 지배하는 시장주도 산업으로의 노동력의 이동은 전반적인 노동생산성을 제고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비스 산업의 발달은 투자도 촉진한다. 서비스 산업의 발달은 민간에 의한 서비스 공급 역량

5) 북한의 서비스 주도 성장 가능성과 이차 서비스 산업이 북한 경제 전반 및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위의 책, pp. 263~282 참조.

6) 서비스 산업은 1990년대 이후 실질적인 고용이 증대된 유일한 산업이라고 볼 수 있다.

7) 전국에 산재한 400여 개 종합시장 종사자수는 매대를 기준으로 백만 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홍민외, 『북한 전국 시장 정보: 공식시장 현황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16), pp. 32~33. 참조.

확충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민간에 축적된 화폐자본이 대거 투자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점이나 식당, 버스회사나 택시회사 등은 모두 개인이 투자하여 운영하고 있다. 부족한 정부 재정이 투입되지 않고서도 전국의 상점 시설이 현대화되고, 상품이 증가하고 있으며, 식당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운행되는 버스나 택시가 늘어나고 있으며, 전국적인 시외버스망이 형성되고 있다.⁸⁾

정부재정 확충에 기여

그리고 서비스 산업의 성장은 다양한 경로로 정부재정을 확충시킴으로써 경제성장 기반을 보완한다. 무선통신은 단말기 판매 수입이나 통신료 등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중앙정부 재정에 기여한다. 국가가 직접 투자하거나 외국과 합작·합영한 기업, 당이나 군 소속 무역회사 등이 설립한 상점 등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보다 직접적인 방식으로 정부 재정에 기여한다. 반면, 서비스 산업 중 생산규모가 가장 큰 상업·유통업이나 운수업, 식당업은 주로 지방정부나 관련 기관의 재정을 확충하는 형태로 중앙정부의 재정에 기여한다.⁹⁾ 상업은행의 자금증개 기능이 아직 의미 있는 수준으로 발달하지 못하고 있고, 민간자금을 기업이 직접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덜 갖추어져 있는 상황에서 정부재정은 여전히 투자를 위한 가장 주요한 자금원이다. 따라서 서비스 산업은 부가가치의 일부가 여러 가지 형태로 재정으로 흡수되는

8) 이석기 외, 『북한의 서비스 산업』, pp. 273~274.

9) 예를 들어 종합시장에서는 매대별로 장세를 징수하는데, 이렇게 징수된 장세는 주로 지방정부 공무원의 월급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간이 주도하는 여타 서비스업도 주로 지방정부의 재정에 기여하는데, 이는 중앙정부 재정의 지방예산 투입 필요성을 줄여서 중앙정부의 투자 여력을 확충시킨다. 이석기, “북한의 서비스 산업,” 『KIET 산업경제』, 3월호 (2018), p. 38.

방식을 통하여서도 북한 경제의 회복 및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¹⁰⁾

파급효과 및 효율성 증대

서비스 산업은 타 산업 및 업종에 대한 파급효과를 통하여서도 경제의 성장 및 효율화를 촉진하고 있다. 상업·유통업의 발달에 의한 소비재 시장의 확대는 국영 제조업 기업 및 사적 생산자의 생산을 자극한다. 소비재 시장의 발달은 시장에서 수요 되는 소비재를 생산하기 위한 생산재 시장도 동시에 발달시킨다. 상업·유통의 발달로 국가에 의한 투자의 회수 가능성이 생겼으며, 국가는 한정된 재원으로 더 많은 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상업·유통업의 발달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타 서비스업의 발전을 자극한다. 상업·유통의 발달은 사람과 물자의 이동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여 사적인 운수 서비스의 발달을 촉진하고 있다. 상업이 주도하는 전반적인 시장 경제활동의 증대는 금융시장 및 노동시장의 발달도 견인한다. 역으로 운수업 및 금융업의 발달은 상업·유통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이 업종의 성장을 촉진한다.¹¹⁾

무선통신은 시장 정보 유통 비용을 크게 저하시킴으로써 상업·유통업의 효율성을 크게 증대시킨다. 무선통신 서비스의 발달은 운수업의 발달과 결합되면서 물류 혁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핸드폰으로 배달을 주문하면 ‘씨비차’ 업주가 배달해주는 일종의 민간 소포업 혹은 택배업이라는 새로운 서비스업이 생겨나고 있다. 무선통신의 발달에 따라 공식 금융기관의 송금이나 결제기능이 아직 취약한 상황에서 민간 간의 송금 및 결제체계가 형성되고 있다. 무선통신을 위한 핸드폰의 보급은 정보통신 서비스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핸드폰용 게임이나 영상물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데, 아직 인터넷을

10) 이석기 외, 『북한의 서비스 산업』, pp. 38~39; p. 276.

11) 위의 책, pp. 277~278.

통하여 앱이나 데이터를 내려 받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보통신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체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구입하고 있다. 또한 핸드폰의 보급 확대로 모바일 쇼핑의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음식이나 의류 등에 대한 모바일 주문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핸드폰의 보급에 따라 가능해진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 시장의 형성은 게임제작 등 소프트웨어 서비스나 정보통신 서비스 공급업, 그리고 배달업 등 새로운 서비스 수요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¹²⁾

관광산업은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음식, 주류, 숙박업 등에 대한 수요를 창출한다. 나아가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투자는 수송망 및 위락시설에 대한 건설투자를 유발한다.¹³⁾

사금융이 발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업은행 체제의 부분적인 형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금융업의 발달은 잠재적으로 달러라이제이션 및 인플레이션의 완화, 저축의 확대와 자금중개 기능의 형성, 기업의 투자자금 조달 가능성 제고 등의 영향력이 기대되고 있지만 아직 경제 전반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만, IT 기반의 확대를 토대로 하는 전자카드의 도입 및 사용 확대는 현재의 사금융 중심의 자금순환을 은행 중심의 자금순환으로 전환시키고, 이는 종국적으로 상업금융 시스템의 정착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¹⁴⁾

12) 위의 책, pp. 278~279.

13) 위의 책, p. 280.

14) 위의 책, p. 280.

3. 종합시장, 북한 주민의 생활 터전이자 경제회복의 출발점

지방정부 운영과 주민생활에 직결

종합시장¹⁵⁾은 1990년대 이후 북한 경제의 변화가 집약되어 나타나고 있는 경제활동의 장이다. 종합시장은 국영기업 대신에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에게 일자리와 생계를 위한 소득을 제공해 주고 있으며, 거의 모든 주민들이 생필품을 비롯한 소비재를 구매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무역회사와 돈주, 거대상인과 중간상인, 그리고 매대에서 장사하는 소매상인이 종합시장을 매개로 연결되어 있으며, 종합시장의 발달과 성장은 운수업을 비롯한 서비스업을 발달시키고 있다. 매대의 자릿세나 종합시장을 거점으로 전국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시외버스 사업에서 거두어들이는 준조세 등이 지방정부의 주요 수입원이다.

북한 경제가 제한적이거나 회복되고 있고, 시장화가 진전되고 있으며, 서비스 산업이 이를 주도하고 있지만 아직 회복이나 변화가 전면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종합시장은 전국적·전면적으로 발달하고 있다. 전국 어디에나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종합시장이 개설되어 있으며, 거의 모든 주민들이 거의 모든 소비재를 여기

15) 현재 북한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규모 시장에 대한 공식적인 명칭은 종합시장이다. 그런데 북한의 재래식 시장을 칭하는 용어로 장마당이라는 용어가 더욱 널리 사용되고 있다. 장마당은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1990년대에 배급제가 기능을 중단함에 따라 계획경제 시기에 공식적으로 설립되었던 농민 시장이 상인의 수나 거래되는 상품의 종류 및 양의 측면에서 크게 발달하였는데, 당시 이를 장마당이라고 불렀다. 초기 장마당은 불법이라고 하기는 어려웠지만 법적 기반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후 시장화가 더욱 진전됨에 따라 장마당은 합법화되었는데, 그 공식적인 명칭이 종합시장이다. 이후 '장마당'이라는 용어는 종합시장으로 합법화되기 이전의 시장을 의미하기도 하고, 종합시장을 포함한 시장 전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특히 종합시장 이외에도 시장 거래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이 많이 있는데, 장마당은 이러한 지역까지 포함할 수 있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에서 거래한다. 소비재 국영기업은 종합시장을 비롯한 시장을 대상으로 상품을 개발, 생산 및 공급하고 있으며, 이들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재 기업에 대해 자본재 기업들은 시장가격으로 설비와 중간재를 공급함으로써 생산을 지속한다.

1990년대 북한 경제가 몰락해 갈 때 사실상 작동을 멈춘 계획경제체제의 빈자리를 자생적으로 발달한 시장경제가 메꾸어 나갔는데, 장마당이 그 중심이었다. 국영기업이 급격하게 위축됨에 따라 사실상 실업이나 불완전 고용 상황에 처한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장마당에서의 장사를 통하여 생계를 꾸려 나가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장마당은 기능을 중단한 국영상점망 대신에 주민들에게 식량을 비롯한 생필품을 공급하는 핵심적인 유통망이 되었다. 그리고 장마당은 시장 가격에 의한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국가가 생산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지 못하여 생산이 크게 위축된 국영기업이 기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북·중 무역 등 대외무역이 확대됨에 따라 북한 경제를 외부와 연결하는 주요 통로가 되었다. 이렇게 장마당은 1990년대 위기 상황에서 북한 경제와 주민이 생존하는 주요한 터전이 되었으며, 지금도 북한 경제 회복의 주요 원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외 연구자가 북한이탈주민 면담조사와 구글 어스 위성사진 조사를 종합하여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북한의 공식시장(종합시장) 총 개수는 404개이다. 또한 북한의 도별(9개 도, 평양직할시, 남포특별시, 나선특별시) 평균 시장 개수는 33.7개로 나타났다. 도별 시장 분포를 보면, 평안남도가 65개의 시장을 보유하고 있어 압도적 우위를 나타냈다. 평양직할시와 남포특별시를 평안남도에 포함시킬 경우 시장의 개수는 모두 116개로 전체 시장 404개의 4분의 1 이상이 평안남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된다. 다음은 평안북도 51개, 함경남도 48개, 함경북도 46개 순이었으며, 양강도는 18개로 상대적으로 가장 작은 개수의 시장이 입지하고 있었다. 종합시장 전체의 면적은 183만

9,582㎡(55만 6,474평)로 추정되었다. 이는 남한의 일산 신도시(157만 4천㎡)보다 약간 크고 여의도(290만㎡)의 3분의 2 정도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종합시장 내 총 매대 수는 109만 2,992개로써 종합시장 1개당 2,836개로 추정되었다. 종합시장 1개당 이용하는 고객 수는 평균 5만 6,696명이었고, 종합시장 관련 전체 종사자 수는 109만 9,052명으로 추정되었다.¹⁶⁾

상품 공급루트 다양화

종합시장에는 매우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을 한다. 과거에는 북한 화교, 귀국자, 농민 등이 주된 상품 공급자였으나 2000년 이후에는 무역회사 등으로 상품 공급루트가 크게 다양화되었다. 특히, 북한 당국이 2003년 종합시장 개혁을 통해 시장참여의 주체를 개인에서 기업으로 확대시킨 이후 무역회사가 종합시장의 1차 상품 공급자로 대두되었다. 무역회사는 중국에서 대량으로 상품을 수입하여 도매상들에게 물건을 넘김으로써 시장에 상품을 공급한다. 수입품 시장이 확대되고, 시장에서 화폐 자본을 축적한 상인이 늘어남에 따라 왕도매상이라고 불리는 대상인들이 생겨났다. 이들은 공식적으로 수입하기도 하지만 밀무역을 통하여 대량의 소비재를 수입하여 중간상인들에게 공급하며, 중간상인은 다시 직접 매대에서 장사를 하는 소매상인들에게 상품을 공급한다. 많은 경우 소매상인은 수입업자와 중간상인이 공급하는 상품을 단순히 판매하고, 판매수익의 일부를 분배받은 판매원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세 번째 상품 공급루트는 개인에 의한 상품 공급이다. 단순히 집에서 술을 빚거나 국수를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 파는 행위에서부터 가내 수공업, 공장제 수공업, 공장제 생산 등 사적

16) 홍 민 외, 『북한 전국 시장 정보: 공식시장 현황을 중심으로』, pp. 32~33.

생산자에 의하여 생산된 상품도 종합시장으로 흘러들어간다. 넷째, 국영기업에서 생산된 소비재도 대부분 시장에 공급된다. 마지막으로 자경지 등에서 생산된 농산물도 주로 시장에서 거래된다.

연관산업 발전

그리고 국경지대나 생산지로부터 종합시장으로 상품을 수송하기 위한 운수업과 상품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업, 그리고 배달업이나 식당이나 숙박업과 같은 개인 서비스업도 종합시장을 매개로 활성화된다. 아직은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종합시장의 성장은 시장에 상품을 공급하기 위한 제조업의 투자와 생산도 자극한다. 이렇게 종합시장은 매대 상인뿐만 아니라 북한의 거의 모든 경제주체들이 서로 연관 관계를 맺으면서 생산 및 소비활동을 하는 장이다.

종합시장은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며, 이 추세는 김정은 집권 후에도 지속 및 가속화되고 있다. 혜산 시장의 경우, 2012년 12월말 현재 매대 수가 3,600여 개였던 것이 2015년 3월 현재 4,000여 개로 2년여 만에 400개나 늘었다. 또한 같은 기간 혜산시 연봉시장의 경우, 매대 수가 755개에서 1,047개로, 위연시장은 879개 → 1,124개, 연풍시장은 392개 → 744개로 각각 크게 늘었다. 아울러 북한의 대표적인 도매 시장이기도 한 청진 수남시장은 2015년 3월 현재 매대 수가 3년 전보다 수천 개 늘어난 1만 2천여 개에 달했다고 한다.¹⁷⁾ 종합시장은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이 현대화되고, 거래되는 상품도 다양화되는 등 질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북한의 상업·유통망이 다양화되고, 현대화되고 있다. 중간계층 이상은 고급 소비재를 종합시장이 아니라 전문 상점이나 백화점 및 대형

17) 이석기 외, 『2015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16년 전망』 (세종: 산업연구원, 2016), pp. 162~164.

슈퍼마켓에서 구매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종합시장은 북한 시장경제의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4. 이념과 정치선전의 족쇄 벗어나는 관광산업

외화획득 산업으로 활성화

북한의 관광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외국인의 평양 관광을 생각하면 통제된 상황에서 낮에는 김일성 광장에 참배하고, 저녁에는 대규모 집단 체조인 아리랑 공연을 관람하는 것을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요즘의 평양 관광은 이와는 크게 다르다. 경비행기로 평양 상공을 비행하는 관광 상품으로부터 대동강에 띄운 배에서 개최되는 맥주파티까지 다양한 관광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완전히 자유롭게 북한을 여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관광객은 북한 주민들을 만나고, 그들의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진다. 맥주 파티에는 외국 관광객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참가할 수 있으며, 마식령 스키장이나 미림 승마장은 내국인과 외국인이 같이 스키나 승마를 즐긴다. 자전거 여행이나 지하철 경험 등 생활밀착형 관광 상품도 증가하고 있다. 아직 외국 관광만큼은 아니지만 내국인에 의한 관광도 이제 더 이상 낮선 것은 아니다.

종래 북한에서 관광은 체제선전과 교육·선전의 수단이었으며 관광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북한은 1990년대 경부터 외래 관광을 외화 획득을 위한 산업으로 인식하고 관광객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관광 상품도 체제선전 일변도에서 점차 자연관광과 생활관광 등의 비중이 늘어났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외화 획득 산업으로서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내국인의 국내관광에 대해서도 종전과 달리 선전이나 교육 일변도에서 벗어나 위락이나 휴양 등의 측면도 추가하기 시작하였다. 이제 북한 주민들도 돈과 시간이 있으면 평양 등 대도시의 위락시설이나 마식령 스키장 등 관광지에서 여가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생활밀착형 관광 상품 증가

최근 북한의 관광 상품 중 눈에 띄는 것은 맥주파티 등 생활밀착형 관광 상품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통제된 상황에서 북한 당국이 보여주는 것만 관광하기 보다는 북한의 문화와 북한 주민의 생활을 경험하고 싶은 서구 관광객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외국인 관광객은 이전보다 훨씬 자유롭게 북한의 문화를 느끼고 북한의 생활을 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외국인 관광객과 북한 주민이 접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은 북한 당국의 허용 하에 이러한 과정에서 찍은 사진 등을 SNS를 통해서 전 세계와 공유하고 있다.

북한 사회의 개방 확대는 관광정책과는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북한 정부의 관광을 통한 재정확보 노력이 결과적으로 북한 사회를 대내외적으로 개방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¹⁸⁾

18) 이석기 외, 『북한의 서비스 산업』, p. 159.

<표 I-1> 김정은 체제 전후 새로 선보인 관광 상품

연도	관광 상품명	내용
2009	보트관광	대동강에서 보트를 타는 관광 상품
2011	자전거투어	평양-남포 청년영웅도로를 자전거로 이동
	골프관광	평양골프장에서 진행된 아마추어 골프대회
	자동차관광	중-북 라선변경관광 자동차 이용 관광 상품
	환형관광	북-중-러 3국 환형 관광 상품
	주체사상관광	주체사상을 배우는 관광 상품
2012	경제관광	남포 천리마제강소 등을 둘러보는 관광 상품
	테마관광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 기념 관광 상품
	골프관광	평양 아마추어 골프시합 관광 상품
	비행기관광	고려항공 보유 비행기 종류 관람 및 견학
2013	정치관광	군 관계자, 남북대치 상황 및 핵문제 등 설명
	철도관광	철도 이용 동해안지역 관광(원산, 함흥, 청진 등)
	베테랑투어	평양에서 무궤도전차와 전차 타고 도심 이동
	맥주관광	낙원백화점 생맥주 양조장 등 견학
2014	새해맞이관광	불꽃놀이 참가, 가정집·양조장·미림승마구락부 방문
	노동체험관광	농민과 함께 모내기, 김매기, 과일수확 체험
	묘향산캠핑관광	묘향산 트래킹 이후 숙박은 텐트 이용
	열차관광	관광전문열차 이용 지역 도시 및 명승지 관광
	스키투어	마식령 스키장에서 스키타기
2015	지하철관광	평양 지하철 2호선 첫 이용 관광 상품
	프로레슬링관광	일본 안토니오 이노키 등 주최 국제프로레슬링대회
	평양헬기투어	헬기로 평양 상공 관광(영 파이오니어 투어스)
2016	경비행기관광	북한이 자체 개발했다는 경비행기로 평양상공 관광
	에어쇼관광	원산국제공항에서 에어쇼를 관람하는 관광 상품
2017	대동강맥주축제	대동강변의 유람선 무지개호에서 맥주축제를 테마로 한 관광 상품
	기을철 마라톤대회	매년 4월에 개최하는 국제마라톤대회와 별개로 기을철에 마라톤대회 개최
	평양 도보관광 상품	평양 시내를 도보로 관광하는 관광 상품

자료: 이석기 외, 『북한의 서비스 산업』 (세종: 산업연구원, 2017), p. 153.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외국인 자본 유치를 위해 경제특구와 경제 개발구를 설치하는 한편, 관광산업을 수출산업으로 개발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하고 있다. 관광산업을 육성을 위한 투자는 원산갈마해양관광개발구에 집중되고 있다. 이 지역에 대한 외국으로부터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공항인 갈마 비행장을 건설·개항하였으며, 2018년 신년사에서 원산갈마해양관광특구의 조기 완공이 제기된 이후 관광특구 일대를 대대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적어도 수백동의 건물이 건설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관광 부문이 대북 경제제재가 완화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재개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향후 이 지역에서의 남북경협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5. 전력사정, 부분적 성과 있으나 근본적 해결은 미진(未盡)

우선순위 과제인 전력

전력난은 식량난과 함께 1990년대 북한 경제 위기의 핵심적인 요소였으며, 지금도 북한 경제의 가장 어려운 측면의 하나이다. 북한 정부는 군수 부문을 제외하고는 국가 재정을 전력 부문에 우선 투입하여 중대형 수력발전소 건설, 화력발전소 개보수 및 발전소용 석탄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하였다. 전력 공급량이 다소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한국은행 추정치에 의하면 1988년 279억 kWh였던 전력 공급량은 1998년에는 170억 kWh까지 감소하였다가 이후 조금씩 증가하여 2008년에는 255억 kWh까지 회복되었다. 그런데 한국은행 추계치에 의하면, 이후 전력 공급량은 오히려 줄어들어 2015년에는 190억 kWh가 되었으며, 2016년에는 247억 kWh까지 회복되었다. 2016년의 전력 생산량이 2008년보다 줄어들었을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북한의 전력 생산량

이 크게 증가하지는 못한 것은 사실이다.

북한이 전력 부문에 자원을 집중 투입하고 있지만 전력사정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대형 수력발전소를 계속 건설하고 있지만 북한에서 자체 제작한 수차 등 발전설비의 문제로 설계 용량대로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화력발전소는 워낙 노후화되었고, 기술과 부품이 부족하여 충분히 개보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전력의 부족으로 석탄 생산량을 늘리는 데도 한계가 있다. 송배전망이 크게 노후화되어 새로운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필요한 곳에 제대로 보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요인들이 결합되어서 김정일 시대부터 전력 생산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만족할 만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그에 따라 2016년에 발표된 경제발전5개년전략에서도 전력공급의 증대는 여전히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전력사정 개선 요인과 한계

다만, 발전량 추정치와 별개로 북한의 에너지 사정이 1990년대와는 여러 면에서 달라진 것도 사실이다. 서비스 산업의 성장에 따라 전력을 사용하는 각종 영업시설이 증가하였으며,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하는 산업설비의 가동률 역시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찰자들은 북한의 전력사정이 기상조건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변동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민의 전력 사정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가에 의한 전력 공급이 다소 증가한 데도 기인하지만 주로 많은 주민들이 태양광 설비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설치함으로써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주택용뿐만 아니라 보육원 등 소규모 공공시설이나

양묘장이나 양어장 등 소규모 생산시설에서도 필요한 전력의 일부를 태양광 설비를 통하여 조달하고 있다. 백만 세트 이상의 태양광 설비가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 정부는 태양광을 비롯한 풍력, 지열 등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이용 확대를 에너지 정책 및 과학기술 중시 정책의 일환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대형 공공건물을 에너지 제로 건물로 건설하기도 하고, 풍력 발전기 등을 개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큰 성과는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두 번째는 산업설비의 에너지 효율성 증가 가능성이다. 북한이 본격적으로 공업화를 추진하던 1950~60년대에 북한지역에는 전력공급이 충분하였다. 그에 따라 북한은 매우 에너지 다소비형, 특히 전력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구축하였다. 이 때문에 전력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든 1990년대에 북한의 핵심 산업설비들이 괴멸적인 타격을 입은 것이다. 이후 북한은 주요 산업설비의 개보수 및 현대화를 위한 투자 시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원의 전환(전력이나 증유로부터 석탄으로)을 주요한 사업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석탄 가스화를 통한 고온공기 연소기술을 제철소 등 대규모 에너지를 사용하는 산업설비들에 채택함으로써 전력 및 증유의 수요를 줄이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원 전환을 위한 투자의 결과 산업설비들의 에너지 효율성이 어느 정도 높아졌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은행의 북한 발전량 추정치와 외부 관찰자의 북한 에너지 사정에 대한 평가 사이의 괴리를 일정 정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은은 집권 이후 전력 상황 개선을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의 하나로 설정하고, 중대형 수력발전소 건설과 화력발전소 개보수 등 전통적인 전력 공급 확대 정책과 함께 송배전망 현대화나 전국적 통합전력공급망 구축 등 에너지 공급 효율화 정책과 전력 요금 인상 등 수요 관리정책, 그리고 태양광, 풍력, 지열 등 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 확대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아직 큰 성과는 없다.

여전히 우주에서 본 북한의 밤은 평양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암흑이다.

<사진 I-1> 우주에서 본 한반도의 밤



자료: 연합뉴스 제공

북한 경제가 성장하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전력을 비롯한 에너지 공급의 확대는 불가결한 과제이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북한이 자체적으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투자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발전소 용 터빈이나 각종 부품 등을 생산하는 관련 산업이 여전히 취약하며, 기술이나 인력 문제도 심각하다. 외부로부터의 자원과 기술의 도입이 절실하며, 남북경협은 이를 위한 효과적인 대안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6. 제조업, 제한적 회복 조짐 속 업종별 큰 차이¹⁹⁾

기계공업 분야 성과

북한 경제가 2000년대에 느리지만 지속적인 회복을 하고 있으나 여타 산업에 비해 제조업의 회복 속도가 더디다는 중대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2010년대 이후, 특히 김정은 시대에 북한의 제조업은 업종별로 회복 양태나 속도가 크게 차이가 나지만 전반적으로 생산 역량이 제한적이지만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계공업은 김정은 시대 북한 중화학 공업의 회복을 선도하고 있는 산업분야라고 할 수 있으며, 주택건설 등 건설사업의 증가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시멘트 등 건설자재 산업도 회복 속도가 빠르다. 반면, 철강 등 금속산업과 화학산업은 금속소재 및 화학소재 공급을 확대시키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가 없다. 경공업은 중화학 공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회복속도가 빠른 편이다.

기계공업은 최근 노동신문 등 북한 공식매체에서 성과보도가 가장 많고, 그 내용도 구체적인 산업이다. 발전소 건설을 위한 중전기 등 그동안 성과가 많이 보도되던 설비뿐만 아니라 그동안 거의 침묵을 지키고 있던 수송기계나 농기계 등에서도 성과보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0년경까지 거의 성과가 보도되지 않던 승리자동차연합기업소와 금성트락포르공장의 개발 및 생산 성과보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들 공장은 2015년에 각각 신형 5톤 트럭과 80마력 트랙터를 개발하였으며, 2017년에 수백 대씩을 생산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김중태전기기관차종합공장이 자체적인 신형 지하철을 생산하는 등 철

19) 김정은 시대 북한 주요 제조업의 실태와 동향에 대해서는 이석기·변학문·나혜선,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산업과 산업정책』 (세종: 산업연구원, 2018), pp. 106~188. 참조.

도 차량 부문에서도 개발과 생산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의 수산업 강조와 함께 중소형 어선을 중심으로 매년 수십 척의 선박이 건조되는 등 민수용 선박 건조가 크게 증가하였다.²⁰⁾

<사진 I-2> 광장에 전시된 신형 트럭



자료: 연합뉴스 제공

북한 기계공업 회복의 또 다른 측면은 최근 국산 설비에 의한 설비 현대화가 폭넓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0년경까지 북한에서 설비의 현대화는 중국 등으로부터 설비를 수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최근에는 내부에서 제작한 설비를 통한 현대화가 추진되고 있다. 특히, 대형 기계공장이 아닌 평양 인근의 중소형 기계공장에서 많은 설비를 공급받아 설비의 현대화를 추진하였다고 하는 평양어린

20) 이석기, “김정은 시대 북한산업과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KIET 산업경제』, 8월호 (2018), p. 15.

이식품공장의 성공사례가 대대적으로 보도된 이후 많은 공장들이 북한산 설비를 통하여 현대화를 추진하였다고 보도하고 있다. 신규 공장의 건설 시에도 북한에서 설계되고, 북한의 기계공장에서 제작된 기계나 설비가 도입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2016년 건설된 류경김치공장의 경우 설비의 상당 부분을 평양시봉사총국 산하 철제 일용품공장 등에서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²¹⁾

<사진 I-3> 류경김치공장에 공급된 북한산 설비



자료: 연합뉴스 제공

이러한 기계공업의 역량 회복은 다음의 몇 가지 요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첫째, 북한은 2000년대 이후 무연탄 등의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로 꾸준히 중국 등으로부터 기계 및 설비를 수입해 왔는데, 최근

21) 이석기, “김정은 시대 북한산업과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pp. 15~16.

기계공업의 역량 회복은 이러한 수입 기계 및 설비를 토대로 한다. 둘째, CNC 공작기계의 개발 및 보급의 영향이다. 북한은 군수공업을 위해 개발한 CNC 공작기계와 자동화 기술을 기계공업을 중심으로 민수 부문으로 확산시켰다. 금성트랙터, 승리자동차 등 기계공장들에 다수의 CNC 공작기계들을 공급하였으며, 대안중기계 등 대형 설비공장들의 가공 설비들을 CNC 공작기계로 전환(소위 CNC화)시켰다. 이러한 CNC 공작기계 및 자동제어 기술의 보급이 북한의 기계공장의 생산역량을 제고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시장화의 영향이다. 시장화로 소비재 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이를 생산하기 위한 기계와 설비의 시장도 생성되어 기계공장들이 시장 가격으로 기계와 설비를 공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생산과 공급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시장화 추세 속에서 국산화 정책, 과학기술 중시정책, 그리고 CNC 공작기계의 보급 등이 결합되어서 최근의 기계공업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북한산 기계의 공급 증가가 북한 산업 전반의 역량 확대에 이어질지, 효율이 떨어지는 설비의 공급에 그칠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다.²²⁾

소재산업 분야 미진(未盡)

반면, 소재산업은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금속산업은 기계 제작이나 설비건설 등에 필요한 강철 등 금속소재를 공급하며, 화학산업은 경공업과 농업, 건설 부문 등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1990년대의 북한 경제 몰락 이후 이들 산업은 제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추정치에 의하면 북한은 1988년에 강철을 약 500만 톤 생산하였으나 1988년에는 95만 톤으

22) 위의 글, p. 15.

로 줄어들었으며, 이후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지만 2016년에도 122만 톤에 불과할 정도로 거의 공급능력이 회복되지 못하였다. 화학 소재 역시 비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공급 증가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금속 및 화학 산업의 부진은 대규모 장치산업인 이들 산업의 재건과 현대화를 위한 투자 자금을 북한 정부가 조달하는 것이 불가능한데다 화학산업의 경우 대부분의 설비가 경쟁력이 없는 기술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 등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에는 황해제철소에서 코크스탄을 쓰지 않는 소위 주체철 공법의 하나인 산소열법용광로를 현대화하고, 이 성과를 바탕으로 김책제철소에 생산 능력이 더 큰 산소열법용광로를 건설하여 가동하고 있으며, 탄소하나화학공업 창설을 위하여 순천화학연합기업소에서 대규모 메탄올 생산 공정 건설 등을 추진하는 등 금속과 화학소재 공급 능력 확대를 위해 신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성과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다.²³⁾

금속 및 화학 소재 공급 능력의 부족은 이미 북한 산업의 회복 및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북한이 자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소재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경협 등 외부와의 협력이 불가피할 것이다.

7. 경공업, 중국산 제품과 경쟁하는 상품 증가

북한산 제품의 경쟁력 강화

중국산 수입품 일변도이던 북한 시장에서 북한산 제품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일부 품목의 경우 ‘중국산=저가제품, 북한산=고급

23) 위의 글, p. 19.

제품'이라는 평판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시장화에 따른 소비재 시장이 질적, 양적으로 확대되고, 이러한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북한의 경공업 기업의 투자 및 생산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북한 주민에 대한 소비재 공급은 섬유·의류나 식품가공 등 북한의 경공업이 담당하였지만, 북한 국영기업의 소비재 공급 역할은 1980년대에 크게 약화되었다. 전력과 원부자재 공급이 급격히 줄어든 1990년대에는 국영 경공업 기업에 의한 소비재 공급 기능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이제 북한 주민들은 시장에서 소비재를 구매해야 했다. 가장 먼저 식량과 가공식품을 이어 의류 등 기초 생필품들을 시장에서 구매하기 시작하였다. 식량을 제외한 거의 모든 소비재 시장은 중국산 등 수입 소비재가 지배하기 시작하였다. 북한 정부는 주민의 수입산 소비재에 대한 일방적인 의존을 경계하면서 국영기업에 의한 소비재 공급 확대 정책을 천명하였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거의 없었다. 중화학 공업의 설비와 원부자재 공급 역량이 크게 약화된 상황에서 국영기업에 의한 소비재 공급 확대는 수입 수요만을 증대시키기 때문이었다. 생산도 크게 늘일 수 없었으며, 제품의 질도 수입품을 따라가지 못했다.

2000년대 중반 경부터 북한은 경공업 중 식품가공업을 집중적으로 복구 및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일용식품공업성을 설치하고, 각 도에 종합식품공장을 건설하는 등 식품가공업에 자원배분을 집중하였다. 경공업 중 식품가공업에 집중한 것은 일차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인 먹는 문제와 관련된 산업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식품산업은 기호와 관련된 산업으로 지역적 특색이 강하게 작용하여 중국산 제품과 경쟁이 가능하다는 점과 원자재를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어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식품가공 부문을 중심으로 북한 정부,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시장을 활용한 중앙정부의 경공업 육성 정책이 지속되고, 무역회사나 국영기업

등에서 중소기업 설비투자 여력이 조금씩 축적됨에 따라 1990년대에 몰락하였던 북한의 경공업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중화학 공업에 비해 경공업의 회복 추세가 안정적이고, 더 빠른 것으로 평가된다. 그 결과 중국산 수입품 일변도이던 북한 시장에서 북한산 제품의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2013년 이후의 국산화 정책도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기계 공업의 회복에 따라 국산 설비에 의한 경공업 기업 현대화가 가능하게 된 것도 북한 경공업의 경쟁력 회복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그 결과 2010년대 중반 현재 북한 시장에서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북한산 제품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는 북한 경공업 공급 역량의 부분적 회복과 함께 북한 시장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 북한의 시장화가 진전되고, 수입 상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중국산 저가 수입품이 대거 시장에 공급되었다. 저가의 원자재를 사용한 질이 낮은 제품이 대량으로 생산되어 북한 시장에 공급되었다고 한다. 북한 주민들이 최소한의 생필품을 조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저가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실제로 중국산 약품 등에 따른 인명사고도 적지 않게 일어남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대한 평판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되었다. 중간계층이 성장하고, 이들의 고급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자 저가 중국산 제품을 대신할 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도 따라서 증가하게 되었다.²⁴⁾

북한산 제품의 공급 증가

북한산 제품의 공급 증가는 다음과 같은 경로로 이루어진다. 첫째, 무역회사가 생산에 참여하는 경우이다. 중국에서 소비재를 수입하여

24) 위의 글, pp. 17~18.

판매하던 무역회사가 중국산 제품의 평판이 하락하고, 북한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중국 등으로부터 설비와 원부자재를 수입하여 북한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시장에 판매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새로운 국영기업이나 기존의 국영기업이 설비를 현대화하여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이다. 이 형태는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경공업 공장의 설비 현대화가 추진되면서 확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기계공업의 설비 생산능력이 부분적으로 회복되어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국산 설비를 통한 설비 현대화가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된 것도 국영기업에 의한 경쟁력 있는 제품 공급의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방식은 중국 기업과의 합작·합영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이다. 북한에서 갑자기 제품의 질이 크게 올라간 제품들이 주로 여기에 속하는데 화장품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네 번째는 가내 수공업이나 사적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이 시장에 공급되는 경우이다. 가내 수공업이나 사적 제조업체도 시장 구조의 변화에 따라 점차 상대적으로 고급 제품의 비중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산 제품은 서민들이 주로 찾는 종합시장뿐만 아니라 중간계층 이상이 주로 이용하는 평양 등 대도시의 백화점 등 대형·고급 유통망에서도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²⁵⁾

그리고 일부 북한산 경공업 제품, 특히 북·중 임가공을 통하여 생산된 봉제의류는 대북 경제제재가 본격화되기 전에는 빠르게 수출이 확대되었다. 외부와의 협력을 통하여 시장과 원부자재만 확보하면 북한의 경공업은 제한적이지만 세계시장에 진출할 역량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5) 위의 글, p. 18.

아직 이러한 현상은 제한적이지만, 국산화 정책이나 대북 경제제재, 그리고 돈주²⁶⁾의 참여 등에 따라 북한산 제품의 시장 진출이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하다.²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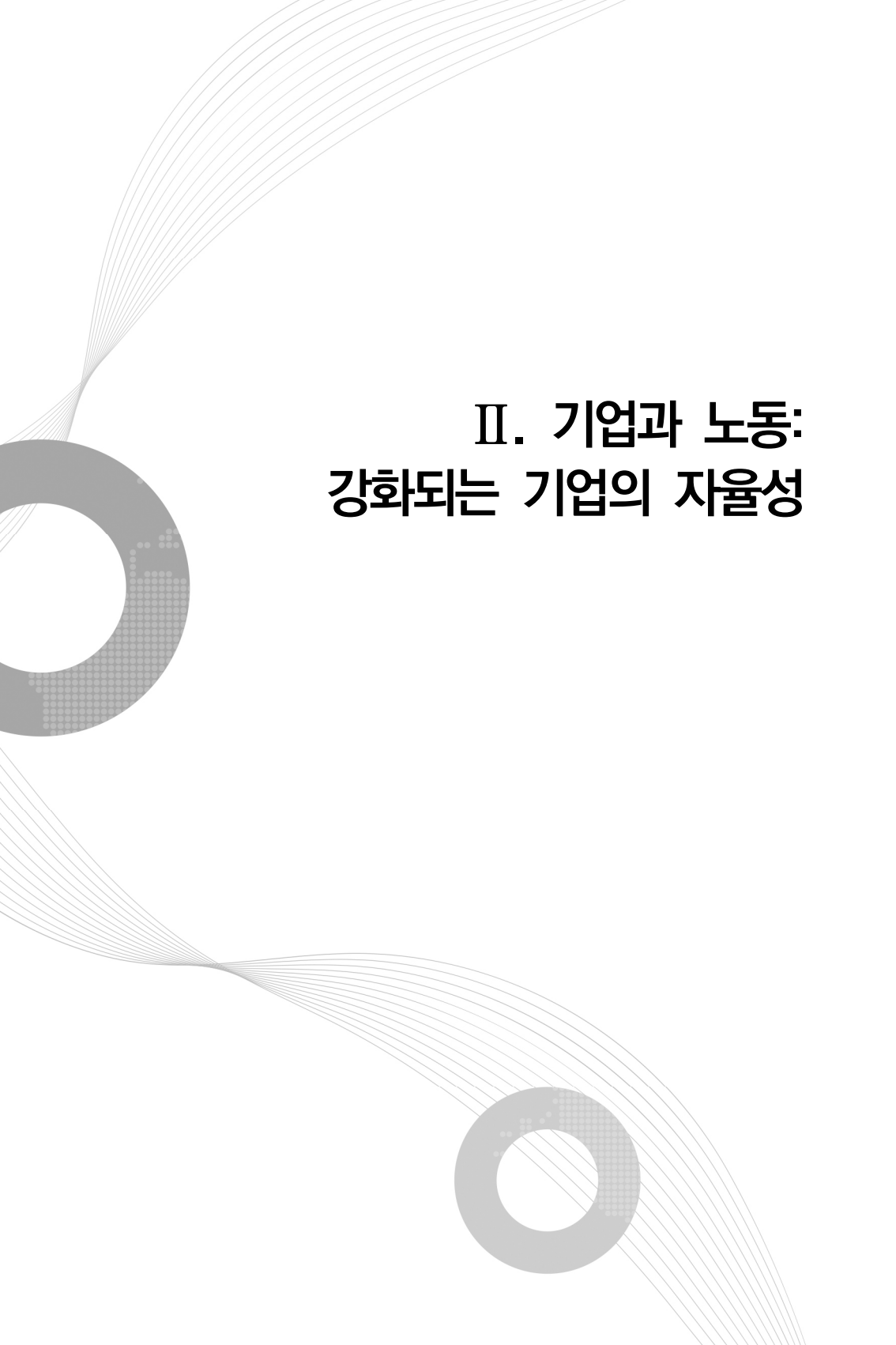
<사진 I -4> 대형 유통망에서 판매되는 북한산 제품



자료: 연합뉴스 제공

26) 돈주는 북한에서 상당한 규모의 화폐자금을 축적하고, 이를 환전, 무역, 사금융, 제조업 등에서 이 자금을 활용하여 영리활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석기·변학문·나혜선,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산업과 산업정책』, p. 246.

27) 이석기, “김정은 시대 북한산업과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p. 18.

A decorative graphic on the left side of the page consists of several thin, curved lines that sweep across the page. Two large, grey, circular elements are integrated into the design: one is a solid ring on the left, and the other is a solid ring at the bottom right. Both rings have a fine grid of small dots on their right-hand side.

Ⅱ. 기업과 노동: 강화되는 기업의 자율성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고수해 왔다. 하지만 계획경제체제에 내재된 비효율성으로 인해 경제 상황은 악화되어 갔고, 1990년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이러한 위기를 거친 이후, 북한은 기업관리 방식의 변화를 모색해 왔다. 계획경제체제의 기업관리 방식을 고집해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까닭이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2002년 7·1 조치 등을 통해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도 기업관리 방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기업법, 재정법 등의 개정을 통해 계획 부문을 축소시키고,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주는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아직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지만, 향후 북한 경제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제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기업, 노동자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재정난에 시달리는 국가가 정상 가동이 어려운 기업에 각종 부담을 지우면서 ‘자력갱생’을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기업은 기업대로,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살 길을 찾아야 했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경제 현상이 출현하게 되었고, 성장·진화를 거듭해 왔다.

그 결과 오늘날 북한의 국영기업은 신흥 자본가 계층인 ‘돈주’로부터 투자를 받기도 하며, 기업의 명의, 생산시설 등을 ‘돈주’에게 대여해 주고 얻은 수익이나 8:3 노동자로부터 납부받은 돈으로 운영하는 등 과거와는 상이한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다. 또 노동자는 돈을 기업에 납부하는 대신 외부에 나가 개인적인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등의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공식적인 형태의 노동시장도 형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김정은 시대 갑작스레 나타난 것은 아니다. 이는 그 이전부터 출현하여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형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달라지는 경제 환경에 맞춰 계속 변화해 갈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이 장에서는 기업 및 노동 분야에서 나타난

주요 변화를 중심으로, 북한에서 과거와 다른 형태의 경제 현상이 나타나게 된 배경은 무엇이며, 김정은 시대 어떠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지 등에 대해 살펴본다.

1. 기업 경영의 자율성 증대 추세

기업관리 시스템을 바꾸게 된 배경

북한 경제라고 하면 이러한 모습을 연상하기 쉽다. 우선 국가가 경제 전체에 관한 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각각의 기업에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지 계획을 하달하고 필요한 자재와 인력을 공급한다. 그러면 기업은 상품을 계획량만큼 생산하여 국가가 지정한 곳에 공급한다.

북한 경제가 이러한 방식으로 작동하던 시기도 있었다. 하지만 사회주의 국가 대부분에서 그러했듯, 이러한 시스템은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그것은 경제활동에 대해 적절한 유인을 제공해주지 못한다는, 계획경제 시스템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기인한 결과였다. 이로 인해 1980년대 이후 북한 경제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었고,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경제위기는 절정에 달하게 된다.

북한 당국은 변화를 꾀할 수밖에 없었다. 더 이상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고집하기 어려웠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부 분야에서는 계획경제 시스템을 고수하되, 그 외의 분야에서는 ‘아래로부터’ 나타나고 있던 변화를 용인했다.

변화는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시장 활용을 일정 부분 용인하며,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중앙에서 세우는 계획의 범위를 축소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했던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북한 경제는 계획경제의 전형적인 모습에서 차츰 멀어져 갔다.

김정은 시대 더욱 확대된 기업의 자율성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도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조치가 이어졌다. 그 핵심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로,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는 허용하지 않되, 기업 경영은 보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북한 당국은 2012년 6·28 방침, 2014년 5·30 담화 등을 통해 기업 경영의 자율성 강화 방안을 제시해 왔으며, 이러한 사항은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이루어진 '기업소법', '무역법', '인민경제계획법', '재정법' 등의 개정 과정에서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²⁸⁾

주요 변화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계획 방식이 바뀌었다. 중앙에서 기업에 내려 보내는 계획을 대폭 줄이는 대신, 기업이 자체 실정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업이 생산품목과 생산량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확대된 것이다. 둘째, 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일부에 대해 스스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상 시장가격을 용인하는 조치도 취해졌으며, 이러한 제품의 판매처도 기업이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기업의 재정과 관련한 제도도 변화되었다. 우선 우리나라의 법인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국가납부금을 산정하는 방식을 바꾸어, 기업이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할 유인이 증가하도록 하였다. 또 기업이 가처분소득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를 보다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28) 북한의 개정 법령에 관한 논의는 주로 양문수, "김정은 집권 이후 개정 법령을 통해 본 '우리식경제관리방법'," 『통일정책연구』, 제26권 2호 (2017), pp. 81~115; 이석기, "북한의 기업관리제도 변화와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KIET 산업경제』, 5월호 (2018), pp. 70~80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넷째, 종전에는 무역 및 합영·합작을 일부 기관·기업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모든 기업이 허가를 받을 경우 할 수 있게 되었다. 다섯째, 기업이 개인 - 특히 ‘돈주’ - 의 자금을 동원하는 행위를 일부 합법화하였는데, 이에 관해서는 뒤에서 다시 살펴볼 것이다.

아직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어

김정은 시대 이루어진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2002년 7·1 조치와 마찬가지로 ‘아래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던 변화를 사후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 당국은 현실과 제도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 생산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기업 생산의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뒤에서 보듯이, 북한 기업은 여전히 대부분 정상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에너지·원자재·투자재원 부족이라는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도적 변화가 미진한 부분도 존재하는 탓이다.

이처럼 아직 성과가 나타나진 않고 있지만, 김정은 시대 이루어진 조치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한 만큼, 향후 전력 문제를 비롯한 물리적 제약 문제가 완화될 경우 그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북한 당국이 기업 환경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²⁹⁾ 앞으로도 북한 기업의 자율성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북한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29) 일례로, 2018년 4월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우리의 국회에 해당)에서 박봉주 총리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규정을 부단히 보충, 갱신”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 정상 운영에 어려움 겪는 공장·기업

계획경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여 경제가 악화됨에 따라 북한은 계획경제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 방식을 택하였다. 국가가 모든 공장·기업을 계획경제 시스템 내에서 관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 가운데 일부만 중점 관리하고, 나머지 공장·기업은 스스로 생존토록 한 것이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업은 가동 상태 양호

북한 정부가 가장 중요시하는 생산시설인 탄광, 발전소, 제철소, 군수공장 등에서는 계획경제 시스템이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다. 북한 경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들 시설에서의 생산이 필수적인 까닭에 북한 당국이 공장에 생산 계획을 하달하고, 전력, 자재 등을 공급하는데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경공업 부문 공장 중에서도 북한 당국이 관심을 쏟고 있어 전력이나 원료 사정이 괜찮은 공장이 더러 있다. 생필품을 생산하는 공장이나 명절·기념일 등에 나누어줄 선물용 물품을 생산하는 공장도 같이, 체제 유지 차원에서 필요한 공장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공장에도 중앙 혹은 지방(도·군) 차원에서 원료, 전기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있어 정상 가동이 가능하다.

<사진 II-1> 평양 가방공장



자료: 연합뉴스 제공

주: 2017년 1월 건설된 평양가방공장에서 가방을 생산하고 있는 모습

자력갱생을 요구받는 지방공장

이와 달리 국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거나 규모가 크지 않은 대부분의 지방공장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으며, 가동된다고 하더라도 가동률이 매우 저조한 경우가 많다.

공장의 정상 가동을 가로막는 가장 큰 애로 요인은 전력 공급이 원활치 않다는 점이다. 북한은 만성적인 전력난으로 생산시설 가동은 물론 일상생활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는 데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이마저도 국가적으로 우선시되는 부분에 먼저 공급되다보니 지방공장의 전력 사정은 열악할 수밖에 없다. 생산을 위해 하루 몇 시간이라도 전기를 공급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생산설비가 노후화되고, 원자재가 부족한 것도 공장 가동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노후화된 생산설비를 보수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

체하고, 원자재 공급도 늘려야 하지만, 자금 확보하기가 곤란한 것이 북한 공장이 직면한 현실이다. 특히 지방공장은 북한의 계획경제 시스템에서 사실상 배제된 채 자력갱생할 것을 요구받고 있어,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자금 등을 직접 마련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방에 있는 공장 노동자들의 출근율은 저조하며, 설령 출근을 하더라도 일거리가 별로 없어 일찍 퇴근하거나 대충 시간을 보내다 집에 가는 경우가 많다. 국가도 이러한 공장에는 많은 제품을 생산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공장·기업별로 계획을 할당하고, 그에 상응하는 일정 금액을 납부토록 하고 있으나, 공장·기업이 큰 부담을 느낄 수준은 아니다. 기업은 일부나마 생산시설을 가동해 생산한 제품을 시장에서 판매하여 얻은 수익, 8:3 노동자에게서 정기적으로 받는 돈, '돈주'에게 공장 시설이나 명의를 임대해 주고 얻는 임대수익 등을 활용해³⁰⁾ 이를 납부하고 있다.

사회적 과제의 과중한 부담에 시달리는 기업들

북한의 공장·기업은 생산 외에도 일종의 준조세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동원 과제 수행을 요구받고 있다. 사회적 동원 과제란 공장·기업이 발전소 건설이나 도로 건설 등 국가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자재 혹은 노동력 등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공식적으로 제도화된 것이 아니지만, 생산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공장·기업에도 부과되고 있다.³¹⁾ 국가 재정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 차원에서 수행해야 하는 사업의 부담을 국가가 기업에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30) 8:3 노동자나 공장 시설 임대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살펴본다.

31) 합영기업의 경우 사회적 동원 과제는 면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영자 외, 『북한 기업의 운영실태 및 지배구조』 (서울: 통일연구원, 2016), p. 227.

문제는 이것이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김정은 시대 들어와 기업에 할당되는 사회적 과제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³²⁾ 이로 인해 공장·기업에서는 생산 목표 달성보다도 사회적 동원 과제 수행에 더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장·기업의 정상 가동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국가가 공장·기업에 사회적 과제를 부과하는 일을 축소·폐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 원인인 재정 문제가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준조세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공장·기업의 가동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선결되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설수록, 사회적 과제를 부과하는 문제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고민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 II-2>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현장



자료: 연합뉴스 제공

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현장 모습. 건설 과정 중 일부는 기업의 사회적 동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32) 위의 책, p. 157.

3. 8-3 노동자

앞서 본 것처럼, 북한 대부분의 공장·기업은 생산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 데다 각종 사회적 동원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공장·기업은 노동자 몫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여, 노동자에게는 형식적인 수준의 매우 낮은 임금만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쌀 1kg 살 수 있는 금액에 불과한 월급

북한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는 매년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한에 있을 당시 공식 직장에서 받은 월급을 조사하고 있는데, 응답자의 90% 이상이 북한 돈으로 5,000원 이하의 월급을 받았다고 답하고 있다.³³⁾ 그런데 북한 돈 5,000원은 북한 장마당에서 쌀 1kg을 살 수 있는 정도의 금액에 불과하다. 월급 외에 일부나마 배급이 이루어지는 기업도 있는데, 여기 소속된 노동자들은 사정이 좀 나올 것이다.

북한 관련 언론매체 등을 통해 평양 3·26전선공장, 무산광산, 김책제철연합기업소, 평양피복공장 등과 같이, 임금을 수십~100배 인상하여 현실화한 기업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³⁴⁾ 북한 당국도

33)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7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변화 “병진노선”의 두 얼굴,”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학술회의, 2017.8.30.), p. 14, <http://tongil.snu.ac.kr/xe/?module=file&act=procFileDownload&file_srl=86958&sid=a09280901700e1b53647ce02cbe3318b> (검색일: 2018.9.30.).

34) “평양326전선공장에서 보는 경제관리의 새 시도,” 『조선신보』, 2013.4.24; “北 ‘6·28방침’ 본격화…“물가반영 임금 100배 인상,” 『데일리NK』, 2013.11.6,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ld=nk04504&num=101557>>; “평양 피복 공장에도 9월부터 월급 100배 인상,” 『데일리NK』, 2013.11.29,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ld=nk04504&num=101757>>; “북한, 평양 피복·방직 공장 월급 30만원 지속 지급,” 『데일리NK』, 2014.3.25,

임금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2014년과 2015년 기업소법을 개정하면서, 공장·기업이 노동자의 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하지만 공장·기업 대부분 그만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인 탓에, 이처럼 임금을 현실화한 공장·기업은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짐작된다.

8.3 노동자, 돈을 내고 출근하지 않는 사람들

이처럼 공장·기업에 일거리도 별로 없고, 임금도 사실상 지급되지 않다보니, 지방공장의 경우 노동자의 출근율은 대체로 50% 이하에 불과하다. 출근하지 않는 노동자 중 일부는 무단결근을 하는 사람들이는데, 적발될 경우 ‘노동교양’이라는 처벌을 받아 몇 개월 동안 고된 노동에 시달릴 수도 있다.

출근하지 않는 노동자 대부분은 공장·기업에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출근 및 사회적 과제 동원 등을 면제받는 사람들이다. 북한에서는 이들을 8:3 노동자라 부른다. 이들은 공장·기업에 돈을 내는 대신 시장 등에 가서 개인적으로 경제활동을 한다. 이처럼 돈을 내고 출근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하지만, 공장·기업에서는 이를 묵인해 주는 행태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평소에는 출근하다가 소득 기회가 생기면 해당 기간 동안만 기업에 돈을 내고 8:3 노동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³⁵⁾

8:3 노동자가 출현한 것은 노동자와 기업의 이해가 서로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경우, 직장을 퇴사하고 시장에서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4504&num=102999>) (검색일: 2018.8.2.).

35) 이석기·양문수·정은이, 『북한 시장실태 분석』 (세종: 산업연구원, 2014), pp. 273~274.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이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에 적을 두지 않거나 무단으로 결근하다 적발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돈을 내고 기업 소속은 유지한 채, 개인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받고 있는 것이다. 공장·기업의 경우, 국가에 돈을 납부하고, 사회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한데, 생산시설을 충분히 가동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8·3 노동자는 중요한 자금원이 되고 있다.

이들이 '8·3' 노동자라고 불리는 이유

그런데 이들은 왜 하필 '8·3' 노동자라고 불리는 것일까? 1984년 8월 3일 김정일의 주도로 '8·3 인민소비품 생산운동'이 시작된 바 있다. 가정주부, 노인과 같은 '국가계획에 없는 노동력'과 공장 폐기물, 부산물과 같은 '국가계획에 없는 자재'를 이용해 '8·3 인민소비품'이라는 '국가계획에 없는 제품'을 만드는 운동이었다.³⁶⁾ '8·3'은 여기서 유래되어 비공식적인 경제행위를 지칭하는 용어로 북한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8·3 노동자 또한 비공식적인 경제활동에 종사한다는 점에서 '8·3'이라는 수식어가 붙고 있는 것이다.

기업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함에도 각종 조세·준조세적 부담이 기업에 부과되는 상황이 계속되는 한, 그로 인해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임금도 받지 못한 채 합법·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자력갱생'할 것을 요구받는 상황이 계속되는 한, 이처럼 비공식적인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8·3 노동자가 출현하는 현상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국영기업 활용해 돈 버는 '돈주'들

북한이 표방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 중

36) 임수호, 『계획과 시장의 공존』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8), p. 77.

하나는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쉽게 말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이 기업에 자신의 자금을 투자하거나 생산설비를 구입해 공장·기업을 운영할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의 모든 기업은 국영기업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실제로는 ‘돈주’라 불리는 자본가 계층을 중심으로 한 개인들이 국영기업을 활용하거나 사영기업을 운영하여 소득을 올리고 있다. ‘돈주’란 장사나 사채업, 중국과의 무역 등 개인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자본을 축적한 사람을 일컫는다. 이러한 현상은 비공식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³⁷⁾

개인이 벌이는 기업 활동의 몇 가지 유형

첫 번째 유형은 국영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방식(대부투자형)이다. 돈주가 국영기업에 자금 또는 자재를 대주고 그에 상응하는 수익금을 받는다. 돈주가 농장에 돈을 빌려주거나 비료를 공급해주고, 농장에서 수확 후 농산물을 팔아 번 돈의 일부를 분배받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두 번째 유형은 돈주가 국영기업의 명의 또는 생산수단을 대여하여 사업하는 방식(명의 또는 생산수단 대여형)이다. 돈주가 국영기업에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기업의 명의 또는 생산수단(자산)을 빌린 뒤, 자신의 자금을 투자하여 원자재를 구입하고 노동자도 고용해서 생산 활동을 하는 것이다. 광산의 경우를 예로 들면, 돈주가 국영광산 책임자에게 수익의 일정 부분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갱을 인수받은 뒤, 광부를 모집해서 채굴하여 광물을 판매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중 일부를 광산 책임자에게 지급한다.

37) 이에 관해서는 윤인주, “북한의 사유화 현상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18권 1호 (2014), pp. 66~76을 주로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세 번째 유형은 사영기업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활동은 국영 기업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위의 두 유형과는 성격이 다소 상이한데, 개인이 가내수공업 형태로 신발, 의류 등을 가공해서 판매한다거나, 광산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 광물을 몰래 캐서 판매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사진 II-3> 평양의 택시 영업



자료: 연합뉴스 제공

주: 평양에서 성업 중인 택시. 이 중 상당수는 돈주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영기업과 돈주가 윈윈(win-win)하는 길

돈주가 불법적으로 국영기업을 활용해 생산활동을 벌이는 것은 이러한 방식이 기업과 돈주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우선 기업은 생산이 활발치 않아 기업 운영, 사회적 과제 수행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보니, 돈주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명의 또는 사용하지 않는 생산시설을 대여해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유인을 갖게 된다.

돈주 입장에서도 국영기업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사영기업을 운영할 수도 있지만, 문제가 될 위험성이 큰 탓에 사업 규모를 확대하기 곤란하다. 반면 국영기업을 활용할 경우, 보다 안전할 수 있다. 게다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기업에 공급되는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김정은 시대 들어와 개인의 기업 활동 더욱 증가

김정은 시대 들어와 돈주의 기업 활동은 더욱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1>은 북한에서 개인이 벌이고 있는 기업 활동의 유형과 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표에 제시된 2007~2012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조사(이하 '2012년 조사')와 2013~2015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조사(이하 '2015년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앞서 소개한 여러 유형의 기업 활동이 모두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1> 개인의 기업 활동 유형과 수준

(단위: %)

형태	설문 문항	매우 많았다		어느 정도 있었다	
		2012년 조사	2015년 조사	2012년 조사	2015년 조사
대부 투자	농장 작업반에 돈을 빌려주고 농산물을 팔아서 번 돈을 나누어 가지는 사람	12.8	28.1	44.0	40.6
	개인농사를 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농산물을 팔아서 번 돈을 나누어 가지는 사람	10.1	23.1	39.4	40.6
명의 대여	화물차를 사서 기관·단체에 등록해놓고 돈을 버는 사람	33.9	56.3	36.7	37.5
	(상업)관리소에 적을 걸고 집에서 식당을 하는 사람	14.7	50.6	45.0	36.9
	(편의봉사)관리소에 적을 걸고 개인이 하는 미용실	25.7	45.0	12.8	40.0
	(편의봉사)관리소에 적을 걸고 개인이 하는 숙박소	14.7	25.6	19.3	23.8
명의 및 생산 수단 대여	기관·단체의 이름을 빌려서 광물을 캐는 개인광산	15.6	27.5	16.5	35.6
	개인이 기계를 구해서 꾸며 놓은 국수 생산기지	41.3	53.8	28.4	36.9
	(급양)관리소로부터 건물을 빌려서 개인이 하는 식당	30.3	48.1	47.7	38.1
생산 수단 대여	수매상점 종업원 중 물건을 직접 들여와 파는 사람	12.8	47.5	41.3	39.4
	돈을 주고 기관·단체의 화물차를 빌려 쓰는 사람	33.9	55.6	34.9	33.1
사영 기업	기관·단체의 이름을 빌리지 않고 몰래 광물을 캐는 개인광산	13.8	18.8	11.0	37.5

자료: 양문수·윤인주, “북한 기업의 사실상의 사유화: 수준과 추세에 관한 정량적 분석,” 『통일연구』, 제20권 2호 (2016), pp. 69~74.

돈주의 기업 활동은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 시대 들어와 북한 당국은 돈주의 활동을 묵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건설 사업에 돈주의 자본을 끌어들이는 등 돈주를 활용하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그만큼 돈주의 역할과 위상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북한 당국이 이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최근에는 돈주의 투자 행위를 일부 합법화하는 조치가 취해지기도 했다. 2014년 기업소법 개정을 통해 기업이 경영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유휴화폐자금’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는 돈주가 기업에 자금을 합법적으로 대여해 줄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졌음을 의미한다. 이를 계기로 향후 돈주의 기업에 대한 대부·투자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관건은 ‘생산수단의 사유화’가 용인되는 단계로까지 나아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단계로까지 나아간다면, 이는 북한 경제체제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³⁸⁾ 향후 북한이 민간의 기업 활동과 관련해 어떠한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할 것인지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다.

5. 일자리 찾는 사람들

노동시장에서는 새로운 인력을 찾는 기업과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노동자가 만나 거래(고용)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체제 특성상 노동시장이 형성될 수 없다. 학생, 군인, 고령자 등을 제외하고 경제활동이 가능한 모든 주민은 국가에서 지정한 직장에 배치되어 노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업은 존재하지 않으며, 노동력이라는 상품이 거래될 여지도 없는 것이다.

38) 홍제환, 『김정은 정권 5년의 북한경제: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17), p. 72.

대체로 '자신에게 고용되어' 자영업에 종사

그러나 현실에서는, 비록 아직 초보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사적 노동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영 생산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자 직장에 소속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출근하지 않는 주민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또 돈을 버는 개인이 운영하는 공장·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노동력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노동수요와 공급이 만나 사적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북한 경제 여건상 생성되는 일자리보다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다. 또한 생성되는 일자리 중에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도 드물다. 고정적인 일자리보다는 일용직을 비롯해 단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위주로 노동수요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탓에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 중 상당수는 자신에게 고용되어(self-employed), 영세한 자영업자로서 경제활동에 종사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긴 하지만 사적 고용 규모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개인의 기업 활동과 관련해 소개했던 연구에서 사적 고용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진 바 있는데, <표 II-2>에 제시된 것처럼, 김정은 시대 들어와 사적 고용 규모가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2> 북한의 사적 고용 수준

(단위: %)

설문 문항	매우 많았다		어느 정도 있었다	
	2012년 조사	2015년 조사	2012년 조사	2015년 조사
다른 사람의 밭에서 농사일을 도와주고 돈을 받는 사람	16.5	35.0	45.9	49.4
개인이 하는 고깃배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	37.6	53.1	34.9	26.9
개인이 하는 국수 생산기지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	40.4	44.4	24.8	43.1
화물차에 실을 짐을 날라주면서 돈을 받는 사람	45.0	68.1	43.1	27.5
(상업)관리소에 적을 걸고 집에서 하는 식당의 종업원	17.4	28.8	28.4	49.4
개인이 하는 편의봉사시설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	18.3	30.6	51.4	50.0

자료: 양문수윤인주, “북한 기업의 사실상의 사유화: 수준과 추세에 관한 정량적 분석,” 『통일연구』, 제20권 2호 (2016), pp. 69~74.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사적 고용

사적 고용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단 개인이 가내수공업 형태의 생산을 하면서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신발을 생산할 경우, 고무바닥을 만드는 공정이나 ‘신발눈깔’이라 부르는 운동화 끈을 꿰는 구멍을 만드는 공정 등에 사람을 고용하여 맡기기도 한다.³⁹⁾ 돈주가 국영기업의 명의 및 생산시설을 대여하여 생산하면서 국영기업 소속 노동자를 고용해 생산하는 경우도 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경우 임금은 돈주가 지불한다.

39) “대북제재에 개인 신발제조시장 활성화, 이유는?,” 『데일리NK』, 2016.3.24, <<https://www.dailynk.com/%EB%8C%80%EB%B6%81-%EC%A0%9C%EC%9E%AC%EC%97%90-%EA%B0%9C%EC%9D%B8-%EC%8B%A0%EB%B0%9C%EC%A0%9C%EC%A1%B0%EC%8B%9C%EC%9E%A5-%ED%99%9C%EC%84%B1/>> (검색일: 2018.8.7.).

국영기업 소속이지만 실제로는 개인이 운영하는 상점이나 식당도 많은데, 이러한 곳에서도 사적 고용이 늘어나고 있다.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는 상점이나 식당이 속한 국영기업 소속이지만, 임금은 이를 운영하는 개인이 지급한다.⁴⁰⁾ 또한 평성에서 ‘돈주 아파트’라고 불리는 동네에는 식모살이 하는 여성이 많은데, 이들은 한 달에 15달러, 북한 돈으로 12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한다.⁴¹⁾

손전화 보급으로 구인·구직 용이해져

그럼 북한에서 고용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북한에서 인터넷 보급이 확산되고 있긴 하지만, 노동시장 자체가 비공식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탓에 우리처럼 인터넷을 통해 공개적으로 구인·구직 정보가 오고가는 어렵다. 그렇다고 우리와 같이 인력사무소가 있어서 이를 통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북한에서 노동수요와 공급을 연결해주는 역할은 거간꾼(중개인)⁴²⁾이 하는 경우가 많다. 노동력이 필요해 거간꾼에게 요청하면 이들이 재빨리 노동자를 모아온다고 한다.⁴³⁾ 특히 요즘은 손전화(핸드폰)가

40) 이석기·양문수·정은이, 『북한 시장실태 분석』, p. 279.

41) “‘北 가정부 월급 15달러’…비공식 노동자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데일리NK』, 2018.7.23, <<https://www.dailynk.com/%E5%8C%97-%EA%B0%80%EC%A0%95%EB%B6%80-%EC%9B%94%EA%B8%89-15%EB%8B%AC%EB%9F%AC-%EB%B9%84%EA%B3%B5%EC%8B%9D-%EB%85%B8%EB%8F%99%EC%9E%90-%EC%96%B4%EB%96%BB%EA%B2%8C-%EB%B0%94%EB%9D%BC%EB%B3%BC/>> (검색일: 2018.8.7.).

42) 지역에 따라 이들은 ‘중매쟁이’ 혹은 ‘사람장사꾼’ 등으로도 불린다. 김영희, “북한의 5대시장 형성과 작동 메커니즘을 통해 본 시장화 실태,” 『KDB북한개발』, 통권 10호 (2017), p. 75.

43) “北서 핸드폰으로 일공(日工) 모집…30분만에 수십명 몰려,” 『데일리NK』, 2016.8.18, <<https://www.dailynk.com/%E5%8C%97%EC%84%9C-%ED%95%B8%EB%93%9C%ED%8F%B0%EC%9C%BC%EB%A1%9C-%EC%9D%BC%EA%B3%B5%E6%97%A5%E5%B7%A5%EB%AA%A8%EC%A7%9130%EB%B6%84%EB%A7%8C/>> (검색일: 2018.9.7.).

보급되어 있어 사전에 구축되어 있는 연락망을 활용해 쉽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⁴⁴⁾ 쉬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소규모 노동력은 지인을 통해서도 손쉽게 구할 수 있다.

이처럼 북한에서 사적 노동시장이 양적으로 팽창하고, 구인·구직을 연결하는 시스템도 차츰 개선되어 가고 있긴 하지만, 질적으로는 개선될 부분이 많다. 우선 일용직 등 단기적인 일자리가 대부분이어서 노동자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기 어렵다. 또한 비공식적인 형태로 형성되다보니,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자가 겪는 어려움을 보호해 줄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 이러한 요소는 사적 노동시장의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현재와 같이 노동시장이 비공식적으로 형성된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하겠다.

6. 해외 파견 꿈꾸는 노동자들

북한은 중국, 러시아, 쿠웨이트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 노동자를 파견해 왔다.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서다. 파견은 건설업·임업·봉제업·요식업·IT 분야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⁴⁵⁾ 파견 규모는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김정은 시대 들어와 규모가 증가하여 대략 5~10만 명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2017년 하반기 유엔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노동자를 신규로 받아들이지 않고 체류 중인 노동자도 2년 내에 돌려보내기로 한 만큼, 해외 노동자 규모는 감소 추세에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4) 위의 기사.

45) 이상신 외, 『북한 해외노동자 실태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16), p. 21.

해외 파견된 노동자의 힘든 일상

해외 파견된 북한 노동자의 생활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일단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러시아 대도시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경우, 아침 6~8시에 현장에 나가 밤 10~12시에 일과를 마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한다.⁴⁶⁾ 2013년 아랍에미리트 왕궁 건설 현장에 근무했던 한 북한이탈주민은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 달리 가장 더운 시간에도 북한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일을 해야 했으며, 하루 16시간 정도 일을 했다고 한다.⁴⁷⁾

게다가 노동자가 이러한 고된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일단 소득 중 일부는 국가에 '계획분' 명목으로 바쳐야 한다. 이 돈은 북한 중앙정부로 들어가게 된다. 이외에도 거주비, 사회보험료, 식비, 충성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내야 한다. 이렇게 납부한 돈의 일부를 중간 관리자가 착복하기도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많게는 회사에서 받는 돈의 80~90%에 이른다.⁴⁸⁾

그렇다고 생활이 자유로운 것도 아니다. 노동자들은 주로 작업장 근처에서 단체생활을 하는데, 혼자서 외출하거나 핸드폰을 소지하는 것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또 북한 당국에서 파견한 관리의 감시를 받는 등 생활에 제약을 받는 경우도 많다.

46) 이애리아·방일권·이창호, 『러시아 모스크바 및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의 북한 노동자』 (서울: 통일연구원, 2017), p. 84.

47) 한동호 외, 『북한인권백서 2018』 (서울: 통일연구원, 2018), p. 418.

48) 이애리아·이창호·방일권,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북한 노동자』 (서울: 통일연구원, 2016), p. 43.

노동자들이 해외 파견을 선호하는 이유

그럼에도 북한 노동자들은 해외 파견을 선호한다. 이는 노동자들이 해외 파견을 목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평양의 한 대외건설사업소의 노동자는 임금과 배급을 받지 못하면서도 출근하는 것을 해외로 나가기 위한 투자로 생각한다고 한다. 해외 건설자로 나가야 돈을 벌 수 있는데, 해외 건설자로 나갈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경력을 쌓고 기술도 연마해야 하며 상급자에게 좋은 이미지도 심어주어야 하는 만큼 출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이다.⁴⁹⁾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노동자들은 뇌물을 주고 체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귀국 후 다시 해외에 파견되려 노력하기도 하는데, 이 역시 해외 노동자로 파견되는 것이 비록 몸은 고되지만 목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서 노동자들이 노동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수를 받지 못한다고 한 바 있다. 그렇다면 노동자들은 어떻게 돈을 모을 수 있는가? 이들은 대체로 부여된 업무 외의 '청부'를 함으로써 돈을 모으고 있다. 청부란 회사가 아니라 개인이 공사를 수주해서 작업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는 불법이지만 상납금을 내고서도 돈을 어느 정도 모으려면 불가피하기 때문에, 능력이 되고 기회가 주어질 경우 노동자는 이러한 작업에 나서고 있다.

해외 파견 기회를 얻기 위한 경쟁 치열

해외 파견이 이처럼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다보니, 파견 기회를 얻기 위한 경쟁도 치열하다. 그렇다면 어떠한 노동자에게 이러한 기회가 주어지고 있을까? 우선 토대(출신성분)가 좋아야 한다. 가까

49) 박영자 외, 『북한 기업의 운영실태 및 지배구조』, p. 109.

운 친척 중에 정치범, 경제범 등도 없어야 한다. 또한 당원 위주로 선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범죄 전적, 군사복무 내역 등에 대해서도 검증이 이루어진다. 북한 당국이 이처럼 선발 과정에서 토대, 당성, 경력 등을 고려하는 것은 이들이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해 탈북하는 것을 막고, 이들을 통해 체제 위협 요소가 북한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해외 파견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뇌물 공여도 필수적이다. 해외 파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뇌물 없이는 일이 진척되지 않는다고 한다. 뇌물은 서류 조작 등을 통해 해외 파견을 위한 자격 요건을 갖추는 데에 활용되기도 한다. 뇌물을 주고 본인 혹은 친척의 범죄경력을 없애기도 하고, 직장 생활을 충실히 하지 않았던 것을 무마하기도 한다. 이는 시장화가 진전되고, 부정부패 문제가 심화됨 속에, 토대 등을 기반으로 한 북한 특유의 차별 시스템이 약화되고 있는 현실을 잘 보여준다.

The page features a decorative background with several thin, curved lines that sweep across the top and bottom. On the left side, there is a large, dark gray circular shape with a white center, filled with a fine grid of small dots. A smaller, similar circular shape is located in the bottom right corner.

Ⅲ. 금융과 화폐: 사금융 발전과 공금융 정비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6년 북한의 1인당 GNI는 한화 146만 원이다. 세계은행 기준에 따르면, 이는 북한이 여전히 최빈국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2001년을 기점으로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했다고 하지만, 2% 전후의 낮은 수준이며, 2017년에는 오히려 -3.5%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지난 10년간 북한 경제가 호전되었다는 상반된 주장과 지표가 있다. 아사자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증언을 넘어 택시·버스, 국산품, 휴대전화 보급률, 관광 상품 증대, 수영장·헬스장을 비롯한 여가시설 확대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변화가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동되는 국영기업소를 중심으로 종업원의 임금이 실질 생활비에 근접한 수준으로 상승되고 있으며, 근로소득 못지않게 주민의 부동산 자산이 증대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식량배급제 붕괴와 함께 주택배정시스템도 붕괴됨에 따라 주택도 시장에서 구입해야 하는 상품이 되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는 북한 주민이 최대로 많은 화폐거래를 할 경제 공간을 창출해냈다. 주목할 점은 최근 북한 당국은 ‘돈의 출처를 묻지 말라’, ‘주민들 속에서 사장되어 있는 돈을 동원해 집을 지어준다.’는 문구를 법에 삽입하였다. 다시 말하면 당국도 2010년 화폐교환의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원화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시장 친화적인 정책변화의 길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장에서는 북한의 금융과 화폐 부문에서도 김정은 시대 이후 어떠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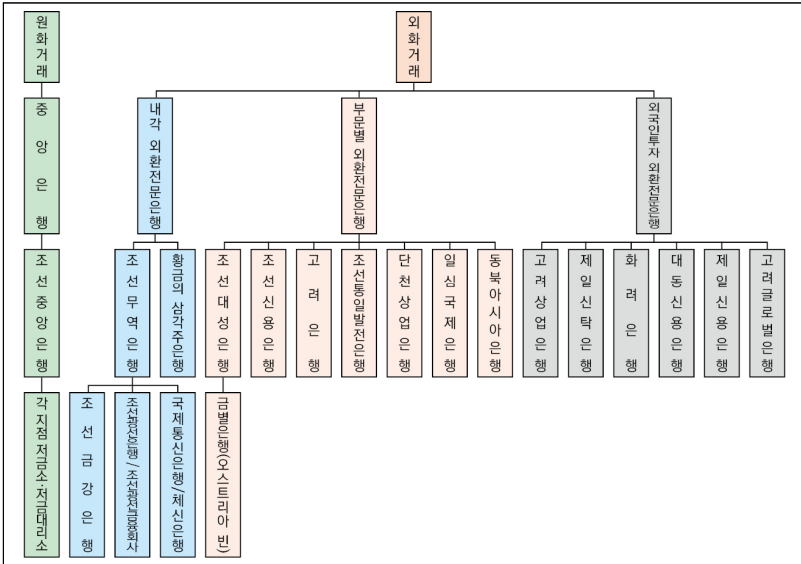
1. 공식 금융시스템 특징과 변화 환경

단일은행제도

북한 당국은 1976년 상업은행을 조선중앙은행에 통합시키면서, 조

선중앙은행 ‘단일은행제도(mono-banking system)’를 완성했다. 즉, 단일은행제도는 자본주의체제의 ‘이원적 은행제도(two-tier banking system)’와는 대비되는 개념으로, 중앙은행이 중앙은행과 상업은행 기능 모두를 담당해 중앙은행 고유 기능 외에도 기업·개인 대상 등의 금융업도 맡아 수행하는 제도이다(〈그림 III-1〉 참조).⁵⁰⁾

<그림 III-1> 북한 금융기구의 종류와 역할



자료: 김광진, “북한 금융기구의 종류와 역할,” 한국수출입은행 북한·동북아연구센터 역음, 『북한의 금융』 (서울: 오름, 2016), p. 75.

50) 그 외에도 〈그림 III-1〉과 같이 국가무역회사의 대외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조선무역은행 및 기타 노동당 39호실, 군수공업부 등 특수기관이 관리 수행하는 특권기관은행, 외국인 투자 또는 북한과 합병한 합병 외환은행들이 있다. 대외금융을 담당하는 전문은행에는 조선무역은행과 권력기관의 무역결제업무를 전담하는 조선대성은행, 조선금강은행, 조선창광신용은행, 조선금성은행, 고려은행, 조선통일발전은행 등이 있으며, 합병 금융기관은 합병법 제정 이후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원활한 기업활동 보장을 위해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조선합영은행, 고려상업은행, 화려은행 등이 있다. 이 외 기타 금융기관으로 협동농장 신용부, 황금의 삼각주은행, 보험기관 등이 있다. 김광진, “북한 금융기구의 종류와 역할,” 『북한의 금융』 (서울: 오름, 2016), p. 73.

이와 같이 북한이 단일은행제도를 채택하게 된 배경은 경제체제가 중앙(국가) 중심의 계획경제인 만큼 국가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집중·동원하여 계획경제를 수행함과 동시에 금융을 통해 국가기관을 통제하기 위함이다.

1990년대 경제난에 따른 금융제도 개혁의 필요성 대두

북한에서는 국가예산이 국가기관의 필요한 자금과 함께 기업의 확대 재생산자금을 담당하고, 금융은 기업의 유동자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즉 금융은 어디까지나 재정의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불과하다.⁵¹⁾ 따라서 국가재정이 축소될 경우, 기업은 이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대출의 수요를 증대시켜야 한다. 문제는 경제난으로 은행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기업의 경영악화는 곧 계획경제 위축과 함께 국가재정 악화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한다.

실제로 북한의 기업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자금조달 방식에 큰 변화를 경험하였다. 북한 당국은 2000년대 들어 경제난으로 인해 국가 재정 및 금융시스템이 어려워지자 금융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재정·금융 회계 등 금융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조사연구를 시작하였다.⁵²⁾ 특히 2004년에 ‘중앙은행법’을, 2006년에 ‘상업은행법’을 각각 제정하여 변화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14년 이후에는 중앙은행에서 상업은행의 기능을 분류했다.⁵³⁾ 그러나 상업은행이

51) 문성민·이동현, “북한 금융의 특징과 제도·정책 변화,” 위의 책 p. 19.

52) 조선중앙은행 등 금융담당자들도 중국의 국영은행에 파견되어 중국의 금융개혁을 조사하여 금융개혁을 준비해 왔다. 최 문, “조선의 국내 금융과 현대화 추진,” 『북한과의 비즈니스: 현대화와 신소비문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국제학술회, 2017.6.14.), p. 84.

53) 상업은행은 자금의 유통과 기관·기업체에 대한 재정적 통제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채산을 맞추는 ‘금융기관채산제’를 실시하게 하였으며, 중앙은행은 국가의 전반적 화폐유통을 책임지고 관리하게 하고 모든 은행들에 대한 금융적 지도와 감독통제를 기본으로 하였다. 위의 글, pp. 83~84.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지켜보아야 한다.

한편, 최근 김정은 시대에 강조되는 정책 중 하나가 ‘사회주의기업 책임관리제’이다. 이는 상품의 품목에서 수량, 가격, 판로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재량권을 확대시키는 한편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실질적으로는 폐지하는 제도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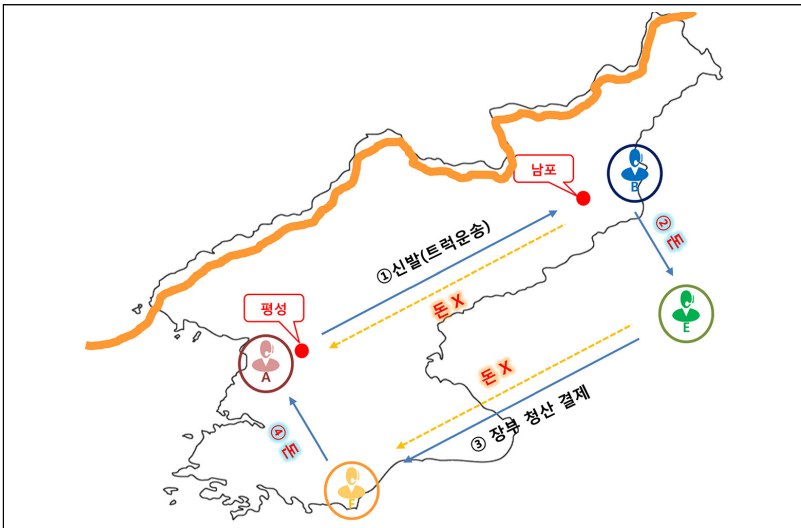
따라서 기업에 대한 자금보장의 책임이 법적으로 국가재정에서 기업과 은행으로 전가되고, 이에 따라 기업은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크게 증대시켰지만, 은행 역시 경제난 속에서 자금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은행이 시중의 유희화폐를 흡수하여 대출재원을 확보하는 데는 명백히 한계가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주민의 저축 기피현상이다. 주민은 애초에 국가은행을 신뢰하지 않는다. 게다가 1990년대 이후에는 불법적인 경제활동이 증대되고, 이를 통해 재산을 축적한 주민계층이 생겨나면서 이들은 자금의 노출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났다. 뿐만 아니라 설령, 주민이 은행에 저축을 한다고 해도 필요할 때 인출이 거의 불가능하여 대부분 돈을 집의 곳곳 은밀한 곳에 분산하여 보관한다. 1990년대 이후 각 주민 세대들은 집의 담장을 높게 쌓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집에 숨겨둔 돈을 정기적으로 말리기 위해서라는 탈북자의 증언도 존재한다.

이러한 패턴은 비공식경제 부문으로 화폐가 유입되어 공식경제 부문이 시중의 화폐를 회수하지 못하여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북한 당국은 이에 대한 우려를 통해 2010년 시중의 증대된 화폐를 국가경제로 흡수하기 위해 화폐교환을 실시하였으나 하이퍼인플레이션만 초래했을 뿐 실패로 끝나고 오히려 사금융만 확대시키고 외화를 선호하는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만 초래했을 뿐이다.

2. 사금융 시스템 형성과 발전

그렇다면, 북한의 사금융은 어디까지 발전했는가? 이를 둘러싸고 최근 부각되는 변화 중 하나가 북한의 사금융이 환전과 대출뿐 아니라 송금의 기능도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했다는 점이다. 특히 송금체계는 지역 간 연결된 시장네트워크를 통해 형성되어 전국 어디서든 이체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평안남도 평성은 전국에서 상품의 주문이 밀려오는 북한 최대의 도매시장으로, 남포 상인 'A씨'는 집에 앉아서 평성의 도매상인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신발 수천 켤레를 주문하면, B씨는 물류업자 'C씨'에 배송을 의뢰하고, C씨는 자신의 고용 운전수 D에게 평성에서 남포까지 배송을 명령한다. 이때 남포상인 'B씨'는 평성상인 'A씨'에게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직접 평성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그림 III-2>와 같이 '이관시스템'을 활용하면 된다.

<그림 III-2> 북한 내륙 지역과 지역 간 비공식 자금이체시스템



자료: 정은이, “북중 간 비공식 송금시스템의 생성과 발전: 탈북자 송금을 중심으로,” 『동북아연구』, 제20권 4호 (2017), p. 136을 수정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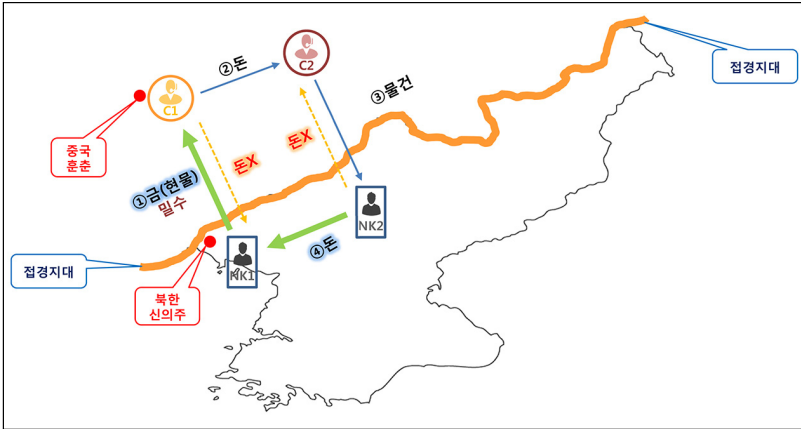
즉, 이관시스템이란 각 지역의 물주들과 연계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각 지역에는 상품거래를 대규모로 하는 ‘물주(物主)’가 존재하며 이들이 은행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상기 남포상인 B씨는 평성상인 A씨에게 신발 결제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평성까지 가지 않고 본인이 사는 남포의 ‘물주 E씨’를 찾아간다. ‘E씨’는 전국 각지의 상인들과 큰 장사를 하고 있어 각 지역 상인들과 청산하지 못한 대금들이 쌓여 있다. 특히 평성상인과 거래가 많다. 따라서 남포상인 B씨가 남포의 물주 ‘E씨’에게 대금지불을 의뢰하면, E씨는 평성에 사는 자신의 장사 파트너 ‘F씨’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에게 줄 돈을 평성상인 A씨에게 지불하라고 그 금액만큼 장부에서 청산을 하면 끝이다. 후에 ‘A씨’는 물주 ‘F씨’를 찾아가 수수료만을 지불하고 장사대금을 받는다.

물론 이관시스템은 금액이 5천 달러를 초과하면 수용하기가 곤란하다. 위험의 부담이 커서 직접 인편으로 돈을 운반하며, 이때도 3인 이상이 동반 및 감시 하에 결제가 이루어진다. 이는 소위 ‘장부이관’이라 불러 일반적인 이관시스템과 구분된다.

3. 북·중 무역과 해외 송금시스템의 형성과 발전

상기의 북한 내륙을 연결하는 이관시스템은 북한 내부에서 시장의 발달과 함께 자생적으로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근원을 살펴보면 <그림 III-3>과 같이 북·중 간 형성된 비공식 민간무역 결제시스템으로 거슬러간다.

<그림 Ⅲ-3> 북·중 간 비공식 민간무역 결제시스템



자료: 정은이, “북중 간 비공식 송금시스템의 생성과 발전: 탈북자 송금을 중심으로,” 『동북아연구』, 제20권 4호 (2017), p. 142를 수정 보완

사실 북·중 무역은 보따리 소규모 무역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북·중 간 무역은 중국조선족, 북한화교, 중국연고자 등 해외연고자에 한정되었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 이후 무역에 대한 당국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일반인 또한 무역회사의 워크(무역허가권)를 빌려 중국과 교역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성장한 북한의 왕(王)도매상은 중국에 직접 가지 않고도 전화 주문만으로도 중국 상품을 앉은 자리에서 직접 받아볼 수 있게 되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중국에 탄탄한 교역파트너가 생겨난 것도 큰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중국과 북한 양 지역의 왕도매상은 상품이 거래될 때마다 결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기에 청산 방식으로 대금결제를 하였다.

한편, 거래 초기 북한 상인이 중국에 판 상품은 수산물, 약초, 공산품 등 소소한 것에 불과했다. 그러나 중국이 개혁개방의 여파로 생활수준이 향상되자, 금에 대한 수요가 생겨났다. 이로 인해 북·중 민간교역에서 금이 거래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금 밀수는 곧 북한으로의 대량 현금유입을 의미한다. 그러나 거액인 만큼 대금을 인편으로 보내기에

는 위험부담이 크다. 따라서 금 거래 증대는 북·중 간 비공식 무역결제 시스템을 한층 더 확대·발전시키는 동력이 되었다. 북·중 간 무역업자들 또한 50% 이상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금 거래를 한다. 이는 금융제재의 여파 및 북·중 간 거래가 크지 않다는 것도 원인으로 작용하지만 무엇보다 북한 무역업자는 자국에 자금의 노출을 꺼려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북·중 간 형성된 비공식 자금이체시스템은 북한 내륙 뿐만 아니라 <그림 III-4>와 같이 한국 등 외국으로도 확장되어 외국(남한, 미국, 영국 등)·중·북 등 3국 간 송금시스템을 파생시켰다.

<그림 III-4> 외국(남한·미국·영국 등)·중국·북한 3국 비공식 자금이체시스템



자료: 정은이, “북중 간 비공식 송금시스템의 생성과 발전: 탈북자 송금을 중심으로,” 『동북아연구』, 제20권 4호 (2017), p. 144를 수정 보완

그런데 3국 간 형성된 북한의 비공식 송금시스템은 특이한 시스템이 아니다. 이는 이슬람의 ‘하왈라(hawala)’, 인도의 ‘훈디(hundi)’ 등 비공식 중개업자 간 네트워크를 통해 송금하는 비공식 자금이체시스

템과 매우 유사한 메커니즘이다. 다만 이는 중국을 경유하고, 북한에 사는 가족들에게 현지 통화가 아닌 외화로 전달될 뿐 큰 차이가 없다.

이 송금시스템은 비록 제도의 밖에서 움직이지만 북한의 거시경제 측면에서 평가하면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왜냐하면 돈의 순환이 확대되면 그만큼 화폐 유통속도를 증가시켜 경제 내의 여러 주체들 간에 더 많은 거래를 발생시키는 효과를 초래한다. 특히 해외에서 보내오는 송금은 의의가 크다. 해외 송금의 수급자는 주로 일반 서민층이 적지 않다. 이들은 여유자금이 별로 없어 송금을 받는 즉시 생활하는 데 모두 소비해야 한다. 즉, 부자계층과 같이 장롱 속에 돈을 쌓아둘 여유가 없어 모두 시장에 들고 나와 써야 한다. 이는 돈의 유통 속도를 증가시킨다. 이러한 측면에서 송금은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이끄는 동력 중 하나가 된다.

4. 김정은 시대 금융개혁

북한 당국은 민간의 수중에 머물고 있는 화폐량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며, 유희화폐자금을 공식경제로 흡수하기 위한 방안을 주요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당국은 2010년 화폐교환의 실패를 큰 교훈으로 삼아 주민이 보유한 유희화폐자금을 흡수하기 위해 전자결제카드 보급, 휴대전화를 통한 결제망 증대, 상점 확대 등 일부 자본주의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자결제방식은 자금의 회전 속도를 높여 상품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한편 국가의 통화 관리를 강화시키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즉,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국가경제를 국가의 관리 하에 놓이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유휴화폐 및 저금 확대 방안

북한 주민이 은행에 저금하기를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는 본인의 저금을 적시에 원하는 금액만큼 인출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0년 이후, 주변에 은행에 저금을 하면 원금뿐 아니라 연말에 또는 3개월에 한 번씩 이자를 받는 주민들이 생겨났다는 탈북자의 증언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물론 여전히 은행에 대한 불신이 강해 저금하는 주민은 일부에 불과하지만, 그 수가 매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김정은 시대 변화로서 주목할 만하다.

실제로 북한에서 발행하는 『경제연구』에 따르면, 최근 은행이 기관·기업소의 부족한 자금을 보장하기 위해 유휴화폐자금동원에 대한 방안으로 은행의 ‘신용’ 향상을 강조하고 있다.⁵⁴⁾ 여기서 은행의 신용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개인에게 일방적 저축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금자가 적시에 편리하게 돈을 인출해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함께 내재되어 있다.⁵⁵⁾

뿐만 아니라 주민들은 저축하기를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저축을 하면 국가에 공개된다는 점이다.⁵⁶⁾ 특히, 북한은 제도가 미비한 상황에

54) “서로 다른 소유의 유휴화폐자금은 은행 신용을 통해서만 동원리용할 수 있다.” 홍영의, “은행의 역할을 높이는 것은 경제강국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 『경제연구』, 3호 (2014), p. 39.

55) “현시기 유휴화폐자금을 동원리용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변화된 환경의 요구에 맞게 저금사업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저금은 류통계에 잠겨있는 유휴화폐자금을 동원리용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저금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는데서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주는 합리적인 저금방법들을 더 많이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오늘 저금사업이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편리한 장소에서 저금을 하고 또 저금한 돈을 찾을 수 있게 전국적인 범위에서 저금사업의 정보화를 실현하고 그에 맞는 저금방법을 도입하는 것이다.” 김영남, “현시기 유휴화폐자금과 그 동원리용,” 『경제연구』, 4호 (2014), pp. 45~48.

56) 따라서 일부러 해외 노동자로 파견되어 외화를 벌어들여 쓸 수 있는 명목을 마련하는 주민도 있다.

서 시장화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비법(불법과 합법의 중간 지대, 이른바 회색지대)으로 자금을 축적한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런데 북한 은행이 최근 개인소유를 보장하기 위해 ‘소유 여하를 묻지 않고 저금 잔고의 출처를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이 공식적인 학술지에 발표되고 있다.⁵⁷⁾ 이는 향후 국가중앙은행이 시중의 유통화폐를 흡수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함축한다.

전자결제카드의 확대

최근 평양을 중심으로 주민의 전자결제카드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그 근거 중 하나가 김정은 시대 이후 카드결제가 가능한 단말기를 설치한 상점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⁵⁸⁾ 설령 실질적인 상점의 경영 주체가 개인이라고 해도 2~8만 불 정도만 내면 기관명의 를 빌려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북한에 종합시장이 500여 개에 이른다는 추정치가 있지만, 종합시장 못지않게 최근 당국이 식당을 비롯한 상점들(편의봉사소), 전문 마트, 편의점 등을 보급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광복거리상업중심’이다. 이곳은 초기 경영노하우의 부족으로 중국자본

57) “저금잔고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이다. 저금잔고의 비밀을 지킬 데 대한 원칙은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 성격과 함께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를 보호할 데 대한 우리나라 헌법의 요구이다. 은행은 발생초기부터 유희화폐자금을 자기 수중에 집중시키고 그것을 대부공간을 통하여 리용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은 소유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형성된 유희화폐자금을 최대한 자기 수중에 집중시키는 것이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광명백과사전 5』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2), p. 276.

58) “최근 공화국에서는 세 세기의 요구에 맞게 우리식의 전자결제체계가드를 적극 받아들이고 있다. 현재 중앙은행의 모든 지점들과 무역은행, 대성은행을 비롯한 여러 은행들, 광복지구중심, 마식령스키장, 문수놀이장, 옥류관, 청류관 등 봉사단 위들, 각 도내 체신기관들이 전성카드결제체계를 도입하여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문명하게 하고 있다.” 최 문, “조선의 국내 금융과 현대화 추진,” p. 85.

을 유치·운영하였으나 최근 독자운영으로 경영방식의 변화를 꾀하고 있으며,⁵⁹⁾ 판매 상품 또한 초창기에는 90% 전후가 중국산이었다면, 지금은 많은 부분이 국내산으로 대체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 주민이 사용하는 카드는 어떤 카드인가? 최근 북한 경제학자가 쓴 논문에 따르면, 북한에서의 전자화폐는 크게 ①은행카드, ②예불카드 및 ③전자현금 등 세 종류이다. 여기서 은행카드는 우리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에 해당되며, 예불카드는 T머니카드와 유사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 조사에 의하면 북한 주민이 사용하는 전자결제카드는 예불카드에 가까웠다. 예불카드에는 은행이 발행하는 예불카드, 상점이 발행하는 상품구입카드, 상업협회 및 특정회사가 발행하는 예불카드가 있는데, 무엇보다 평양을 중심으로 북한 주민이 카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첫째,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⁶⁰⁾ 둘째, 대체로 외화를 지불할 경우, 거스름돈을 정확히 돌려받기가 어려운데, 예불카드로 지급할 경우 거스름돈을 정확히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 당국은 최근에 카드의 이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지불결제도구로서 유통을 더욱 편리하게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탈북자 인터뷰조사에 의하면 실태는 다음과 같다.

카드 사용은 평양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확산된 이유는 무엇보다 외화로 거래를 했을 경우, 거스름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 대외 결제수단으로 달러결제를 금지하고 유로로 결제하게 하였으며, 국내 봉사망(서비스업)도 유로로 지불하게 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의 현실은 미국 달러나 일본 엔화, 중국 위안화

59) 초기에 건설되었을 당시 “광복거리 상업중심”이라고 중국어로 써 있었지만 2017년 조선 글자의 간판으로 변경되었다.

60) “신용카드는 소유자의 신분을 대표하지만, 예불카드는 이름을 적지 않고 카드를 가지는 임의의 사람이 이 카드로 소비하거나 현금을 찾을 수 있다.” 류 전, “전자화폐의 리용,” 『경제연구』, 4호 (2013), p. 51.

에 비해 유료가 절대 부족하다. 따라서 식당, 상점 등 외화봉사소에서 다양한 방법을 고안해냈는데, 그 중 하나가 가령 냉면 한 그릇에 3유로 라면 무역은행의 환율을 적용해 달러로 받았다. 그러나 달러가 결제수단으로 통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작은 단위의 외화가 필요한데, 북한은 모든 결제수단으로 달러가 사용될 만큼 작은 단위의 외화가 부족하여, 이는 거래의 큰 장벽이 되었다. 가령, 상품이 3.7달러라면 손님이 4달러를 내고 0.3달러를 거슬러 받아야 하지만, 작은 단위의 달러, 이른바 '잔달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는 매우 곤혹스런 일이다. 내화에 대한 가치가 없어 내화로 거슬러 주면 구매자가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따라서 임시방편으로 상점 주인이 거스름돈을 쪽지에 써주고 도장(싸인)을 찍어 다음에 오면 활용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 또한 매우 불편하다. 분실위험이 있는가 하면 물에 젖을 수도 있는 등 훼손가능성도 높으며, 게다가 이 쪽지를 받은 상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제약이 따랐다. 반면에 카드를 사용하면 이런 불편함이 사라진다. 사용한 만큼만 비용이 차감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카드 사용을 보급시키는 데 주요 요인 중 하나로 택시 보급을 들 수 있다. 2018년 현재 평양에는 택시가 약 6천 대가 있으며, 요금은 1km당 0.5달러이다. 택시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사실은 그 만큼 수요가 많다는 사실과도 의미 상통한다. 평양에서는 젊은층 사이에 택시 이용이 늘고 있는데, 택시 이용 또한 소비자의 입장에서 잔돈을 돌려받는 것이 문제였다. 예를 들어, 요금이 4.5불이 나와 5달러를 내면, 0.5달러는 돌려받지 못했다.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상황을 뻔히 알아 화도 낼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카드를 사용한 이후로는 이용자가 거스름돈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다. 고려호텔이나 무역은행 등에서 돈을 충전해 놓으면, 선불한 금액 내에서 사용된 요금만 차감이 된다. 뿐만 아니라 다른 카드 소지자에게 자금의 송금도 가능하며, 은행에서 현금으로 다시 찾아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당국은 전자결제카드의 보급을 확대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고안해 냈다. 첫째, 2010년 12월 조선무역은행에서는 우리의 T머니 카드와 같이 충전 가능한 전자결제카드인 ‘나라카드’를, 2011년에는 고려은행에서 ‘고려카드’ 등 다양한 형태의 전자화폐 카드를 발행했다.⁶¹⁾ 이는 북한 당국이 비공식 부문의 자금을 공식 부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2009년 화폐교환과 같이 강압적인 형태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역으로 수요와 공급에 입각한 경제적 공간을 활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으로도 풀이된다.

둘째, 당국은 카드 사용의 확대를 위해 대형마트를 활용했다. 최근 상점 등 쇼핑센터가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종합시장보다는 상업중심이 생기면서 거래되는 물품의 가격, 내용 측면에서 거래되는 금액이 더 클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2015년도 조선중앙은행에서 내화전자결제카드인 ‘전성카드’를 출시했으며, 전성카드가 사용가능한 가맹점을 늘리고 있으며 기능도 고려카드 등과 같이 송금도 가능하다는 것이다.⁶²⁾⁶³⁾ 사실 북한 주민이 내화 사용을 꺼린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부피가 너무 커서 사용이 불편했기 때문이다. 내화의 가치가 하락되면서 부피가 커진 것이다. 따라서 카드에 내화를 장착해서 쓰면 이런 불편함은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61) 조선무역은행은 2010년 12월에 외화전자결제 카드인 “나라”를 발행하고 외화봉사단위들의 상품 및 봉사대금결제에서 널리 활용하게 했다. 그 이후 중앙은행의 모든 지점들과 무역은행, 대성은행을 비롯한 여러 은행들, 광복지구 중심, 마식령 스키장, 문수물놀이장, 유희관, 청류관 등 봉사단위들, 각 도내 체신기관들이 카드결제 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최 문, “조선의 국내 금융과 현대화 추진,” p. 85.

62) 무현금결제방법이기에 신속하고, 잔돈처리가 깨끗하며, 환전이 편리하다. 또한 유동자금이 결제과정에 머무르는 시간을 대폭 줄이고, 자금 회전속도를 높이며 상품유통을 원활하게 한다. 나아가 카드-카드 사이 송금과 핸드폰에 의한 대금 결제를 진행할 수 있다. 위의 글, p. 85.

63) 김영남, “현시기 유희화폐자금과 그 동원리용,” p. 44.

셋째, 북한은 각종 신용카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의 경제 학술지 『경제연구』에 따르면, 각종 신용카드들은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경제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여 오늘날 모든 나라들에서 더욱더 일반화되고 있으며, 현금대용 기능, 신용제공 기능, 판매촉진 기능, 시장관리의 측면에서 손님 정보수집 기능을 언급하고 있다.⁶⁴⁾

<사진 Ⅲ-1> 전자결제카드 사용



자료: 연합뉴스 제공

64) 김 혁, “신용카드의 종류와 경제적 기능,” 『경제연구』, 3호 (2013), p. 56.

전자상거래

4인 가족을 기준으로 북한에서 한 가게당 한 달 생계비가 평균 50달러가 든다. 따라서 한 대에 150달러에서 최대 800달러가 넘는 휴대전화는 사치품에 해당된다. 그러나 휴대전화의 보급률은 500만 대가 넘어 혼수품으로도 필수항목이 되었다. 이는 북한 인구구조로 볼 때 어린 연령층을 제외하면, 국민 대다수가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맞먹는 규모이다. 개중에는 장사를 위해 집을 팔아서라도 휴대전화를 장만한다. 다시 말하면 휴대전화는 주민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휴대전화의 목적이 다양해졌다. 젊은층은 오락이나 학습용으로 보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성능도 날이 갈수록 향상되고 있다. 휴대전화 ‘평양’이 처음 출시되었을 때만 해도 크고 무거운 휴대하기가 불편했다면, 지금은 배터리도, 충전기도 탈착형이 아닌 일체형으로 아이폰과 같이 크기도 작고 가벼운 휴대전화가 출시되고 있다. 또한 휴대전화에 내장된 소프트웨어도 해가 갈수록 진화·발전하여 오락게임도 다양해지고 정보가 다양하게 얻을 수 있다. 심지어 외국도서를 비롯하여 핵과 관련된 군사기술정보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정보가 휴대전화에 내장되어 있어 지식과 정보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내장된 정보도 경우에 따라 유료로 판매가 된다. 휴대전화기술 또한 남한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다. 음성인식과 홍채인식을 비롯하여 최근에는 지문인식기능도 시도된 전화기가 출시될 예정이다. 따라서 전문가에 따르면, 북한의 스마트폰 기술이 남한과 비교해 2년 정도 밖에 뒤쳐져 있지 않다.⁶⁵⁾

65) 정은이, “[북한돋보기] 북한 장마당 인사이트 3: ‘평양’, ‘아리랑’, ‘진달래’ … 휴대전화 바뀐 새로운 세상,” 『통일한국』, 4월호 (2017), p. 40.

이와 같이 해마다 새로운 형태의 휴대전화기술을 시장에 선보이는 이유는 그 만큼 기종도 다양하여, 이에 따른 새로운 수요자를 창출하기 위한 판매경쟁이 심하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이 자체적으로 모든 기술을 보유하여 휴대전화를 제작한다는 것은 어렵다. 하드는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수입해 통신체계를 북한에서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종전에는 중국제를 그대로 들여와 브랜드만 국산으로 바꾸어 판매했다면, 최근에는 부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조립하여 판매하고 있다.⁶⁶⁾

이러한 통신의 혁명은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일단 배달을 가능하게 했다. 이는 식당 음식배달에서 지역 내 택배, 국제택배에 이르기까지 유통의 혁명을 가져왔다.⁶⁷⁾ 휴대전화로도 앱을 깔면 배달도 가능하며 결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상대방끼리 전화송금도 가능하다. 그러나 국가망을 활용하는 것이라 주민은 여전히 소액결제만을 이용한다. 소득이 노출되면 곤란하기 때문이다. 주로 군대에 간 아들에게 부모가 용돈을 보내는 용도로 많이 사용된다. 수수료는 20~30% 정도로 높은 편이지만, 전화요금 등 과정을 생각하면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입금뿐만 아니라 언제든 충전된 돈의 인출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장마당에 가서 장사꾼에 돈을 충전시킬 수도 있으며 봉사소에 가서 돈을 인출해 사용도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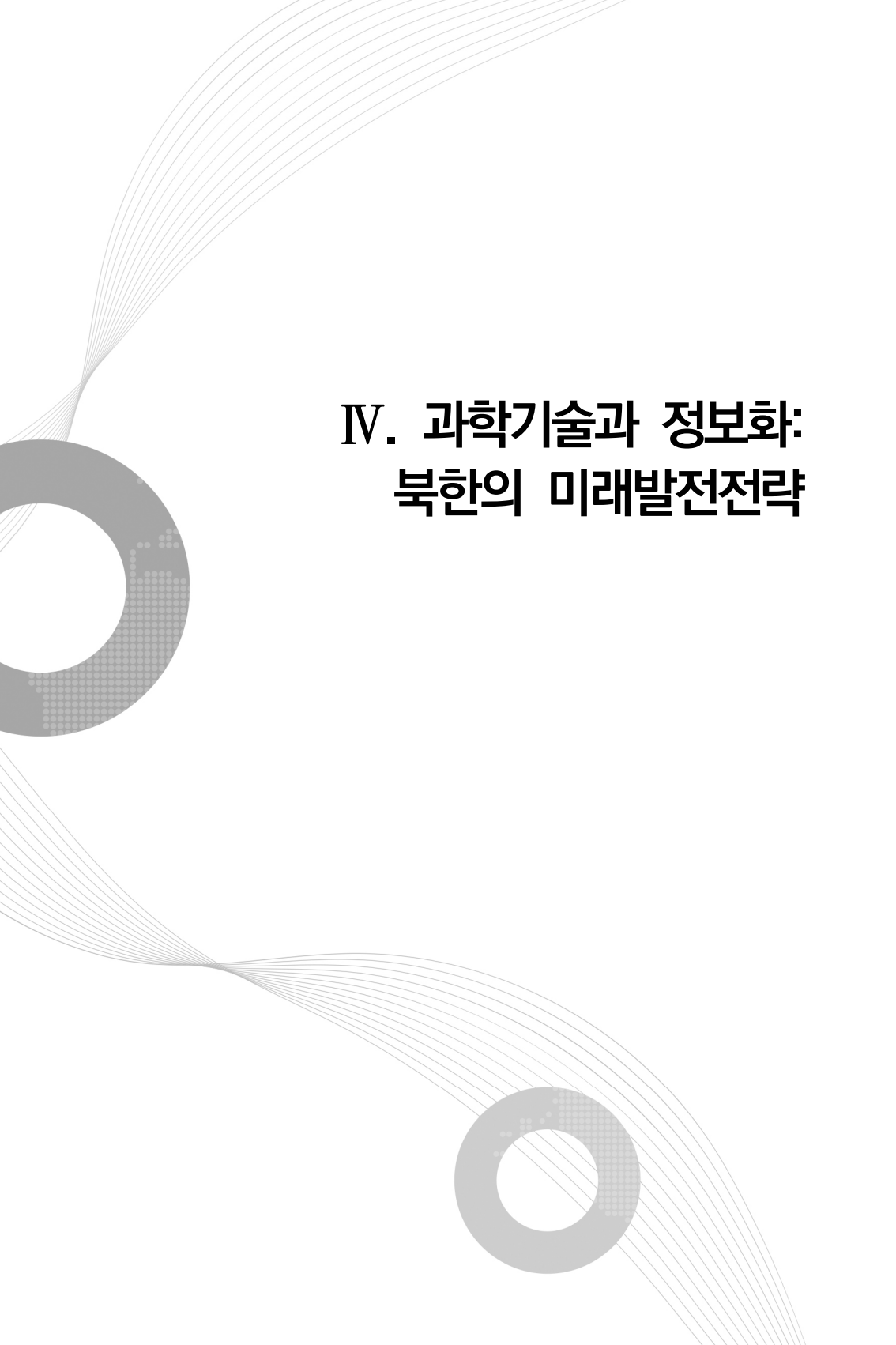
66) 위의 글, p. 41.

67) 위의 글, p. 41.

<사진 Ⅲ-2> 휴대전화로 쇼핑하는 북한 주민



자료: 연합뉴스 제공

The page features a decorative background with several thin, curved lines that sweep across the top and bottom. Two large, stylized circular shapes are present: one on the left side and one at the bottom right. Both circles are filled with a grid of small dots, with the density of the dots increasing towards the right side of each circle. The overall aesthetic is clean and modern, with a focus on geometric and organic forms.

IV. 과학기술과 정보화: 북한의 미래발전전략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 북한에서 과학기술 중시 및 과학기술 우선 담론이 수시로 거론된다. 과학기술은 북한이 가장 앞서워 해결해야 할 ‘선차 과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과학기술은 “강성대국 건설의 힘있는 추동력”이자 “경제강국 건설의 기관차”라는 담론 또한 과학기술을 강조하며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다.

그런데 북한 사회에서 국제적 소통을 상징하는 인터넷 접속이 자유롭지 않다는 ‘단절’의 이미지는, 낡고 가난한 북한의 이미지와 겹쳐져 인식되었다. 이로 인해 북한의 과학기술과 정보화 수준에 대한 실태가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못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더욱이 지난 10여 년 동안 남북 교류협력이 거의 단절되었다. 이로 인해 외부사회에서 북한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함에 따라, 북한의 정보화 환경도 매우 낙후된 이미지로 고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북한에서 정보네트워크가 작동하고 있다. 북한의 정보통신 환경은 국내망과 국제망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정권 집권 후 과학기술 발전 정책에 따라 북한에도 정보화가 진전되어 내부 정보네트워크가 확장되었다. 최근 북한에서 스마트폰을 쓰고 IPTV를 본다는 사실 그 자체가, 외부인들에게 놀랍게 다가올 정도로 북한의 정보화 실태 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전체적으로 김정은 정권 집권 후 북한은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 추격발전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후발국가의 전형적 모습이기도 하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실태에 대한 접근이 제약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북한의 과학기술과 정보화의 동향 및 실태를 김정은 시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김정일 시대와의 지속성과 변화라는 관점에서 북한의 과학기술과 정보화 정책 실태를 살펴보고 평가한다.

그러나 북한 과학기술발전에 중요한 핵과 미사일 등에 대한 구체적 기술 평가는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이미 수많은 연구를 통해 평가되었을 뿐 아니라 그 정확한 기술수준 역시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 과학기술 중시 이유

북한이 과학기술을 강조한 것은 사회주의체제의 특징이다. 구 사회주의체제 수립시기부터 생산력과 기술 발전을 추구한 현존 사회주의 국가들은, 과학기술을 경제와 군사 발전을 선도하는 분야로 중시하였다. 따라서 해방 직후 북한의 김일성 시대로부터 과학기술은 중시되었다. 과학기술은 국방력 강화에 필수적인 것이기도 하고, 경제발전에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정일 시대 구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내부 계획경제의 모순이 전면화되면서, 북한은 체제생존전략의 일환으로 선군정치를 실시하며 핵·미사일 발전에 자원을 집중한다. 이러한 흐름은 김정은 집권 5년간인 2017년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일정한 차이점이 있다. 김정일 시대에는 군수산업 중심의 과학기술 발전이 은밀히 추진되었다. 반면 김정은 시대는 과학기술이 인민생활 전반을 향상시키는 전략적 과제로 제기된다.

특히 김정은 시대 들어, 과학자와 기술자 우대 정책이 강화되었다. 새롭게 건설한 현대식 아파트를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각종 포상과 함께 휴양시설 등 복지 정책을 증대하였다. 또한 작전을 면밀하게 세우고 과감하게 실천할 것을 과학기술 정책 차원에서 강조한다.

2017년 11월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후 2018년 현재까지, 새 정책의 중심기조인 경제우선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과학기술 발전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경제발전에 필요한 요소들이 부족하므로 기술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이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 전반에 깔려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 5월 6일 북한의 제7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재정비된 북한의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표 IV-1> 최근 북한의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 주요내용

분야	주요 과제
인민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알곡, 고기, 남새, 과일 등) '식량 증산'이 핵심 과제, 유기농산물·축산물·공예작물·과일과 고급 수산물 생산 가공기술 개발 • 경공업: 원료와 자재의 국산화, 기호품 생산을 위한 기술 개발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력·화력발전소 발전능력 극대화를 위한 과학기술적 문제 해결 • 전력계통 관리의 과학화, 중요 생산물 단위당 에너지 소비 절감 • 재생에너지 개발: 풍력, 조수력, 지열, 생물질, 태양에너지 등
자립경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철 공병 완성, 석탄 가스화("주체공업의 자립을 위한 생명선") • 화학공업을 국내 원료에 기초한 공업으로 발전 • 자원의 2차, 3차 가공기술 개발 → 기술수출품, 첨단기술제품 생산국으로 발전
지식경제 강국/ 과학기술 강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첨단 돌파전: 기초과학, 첨단 과학기술, 핵심 기초기술 • 새 세기 산업혁명: CNC화된 경제, 과학기술 집약형 경제로 전환 • IT, NT, BT 등 첨단산업의 대대적 창설 • 과학연구기관과 대학에 첨단 기술제품 생산기지 건설 • 문명강국 건설에서 과학자, 기술자의 역할 확대 • 생산현장 소속 과학자, 기술자의 역할 강화

자료: 변학문, 『김정은 정권 과학기술 정책의 특징과 산업 발전 전략 (통일부 신진연구자 정책연구과제)』 (서울: 통일부, 2016), p. 37 수정·재구성.

북한에서 과학기술을 강조하는 이유는 시기마다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경제발전 전략과 관련되어 있다. 외부 세계와 교류가 적고 폐쇄된 체제 특성상 노동력, 자본, 자원 등 생산요소 투입에 제약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내부의 노동력과 자원을 활용한 기술혁신이 중요하다. 또한 기술혁신은 과학의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기에, 과학기술 중시정책을 강조한다.

2.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과학자·기술자 우대

경제 및 군사력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중시 기조는 전통적인 북한의 정책 목표이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 들어서 과학기술 지원 정책이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사람들로 구체화된다. 또한 교육과 산업 등 여타 분야

로의 확장이 추진된다.

무엇보다 김정은 정권은 과학자와 기술자들에 대한 물질적 지원/우대와 함께, 과학자와 기술자들에 대한 정치사회적 위상을 상승시켜 주었다. 또한 북한 사회와 주민들 사이에서 과학기술 중시 풍조를 확장하고, 과학자와 기술자들의 위대성 및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김정일 시대에는 국방공업 부문에 집중했던 과학기술을, 김정은 시대 들어 일반 생활과 관련된 영역에 도입하려는 점이 달라진 지점이다.

김정은 정권이 처음으로 전체 과학자, 기술자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대규모 사업을 진행한 것은 연풍호 근처에 과학기술자들을 위한 휴양소를 만드는 일이었다. 과학기술자를 길러내는 교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전체 과학자, 기술자들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결정한 사업이었다. 이는 1950년대 김일성의 과학자 및 기술자 우대 조치와 유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나아가 김정은은 미사일 기술력을 보여준 소위 ‘인공위성’ 발사 성공에 기여한 과학기술자들을 대상으로 한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조성하여 보급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은하과학자거리, 미래과학자거리, 여명거리, 함흥과학자살림집 등으로 이어졌다. 과학기술자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우선 공급하기 위해 ‘미래상점’을 별도로 만들어 주기도 하였다. 국가차원에서 과학기술자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다.

<사진 IV-1> 미래상점



자료: 연합뉴스 제공

주: 과학기술자들의 생필품 보급으로 김정은 시대 신축된 '미래상점'

3. 온-오프라인을 종합한 '과학기술전당'

2016년 1월에 개관한 북한의 '과학기술전당'은 김정은 시대의 과학 기술 중시 정책/노선의 상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과학기술전당은 전국의 과학기술보급실, 전자도서관, 미래원 등을 연결한 과학기술 정보서비스의 중심이면서 과학기술 성과를 전시하고 학습할 수 있게 만든 과학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 국가망(북한에서 국내 인터넷을 이렇게 부른다)을 통해서나 과학기술전당에 직접 방문 하면 과학기술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아이들은 과학관에 전시되어 있는 설치물을 통해 과학기술의 전반적인 동향에 대해 학습할 수 있게 하고, 어른들은 자신들이 궁금증을 자료 검색이나 열람 혹은 학술문답실에 직접 문의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만들었다. 궁금증 해결을 위해 전문가를 면담해야 한다면 관련 분야 전문가를 물색하여 알아봐주기도 하고, 가능하다면 화상채팅 서

비스를 통해 직접 면담을 주선해 주는 것도 과학기술전당의 임무라고 선전하고 있다.

<사진 IV-2> 과학기술전당



자료: 연합뉴스 제공
주: 2016년 개관한 북한의 '과학기술전당'

이외에도 과학기술전당에는 각종 과학기술 관련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시장, 행사장과 함께 영화관도 갖추어져 있다. 또한 별도 건물에는 500석 규모의 과학기술자 전용 숙소까지 마련되어 있다고 소개된다.

북한 당국의 보도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이곳에서는 크고 작은 과학기술 관련 행사 30여 건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연구활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과학기술 관련 활동이 진행될 수 있게 설계된 것이다. 따라서 과학기술전당은 김정은 시대 과학기술 활동의 중심 기관이라 할 수 있다.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은 북한의 전략적 목표가 사회주의

강국 건설이라고 밝혔다. 사회주의 강국은 정치군사 강국, 과학기술 강국, 경제 강국, 문명 강국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 정권의 논리에 따르면, 2017년 11월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정치군사 강국은 이미 달성한 것이다. 따라서 2018년부터는 국가 과제의 첫머리에 과학기술 강국 건설이 놓여 있다. 경제 강국, 문명 강국도 과학기술 발전에 기초 하여 달성하겠다는 국가 미래 설계이다.

4. ‘새 세기 산업혁명’과 CNC

북한의 ‘새 세기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 기술은 CNC이다. CNC란 ‘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의 약자로서 ‘컴퓨터를 통한 수치제어’를 말한다. 북한에서는 2009년 8월 11일 “(정론) 첨단을 돌파하라”라는 노동신문 정론에서 첨단기술의 대표로 거론되면서 유명해졌다. 그 이전에는 “컴퓨터수자조종”으로 번역하여 부르던 것을, CNC라는 영어 약자 표현 그대로 사용하였다. 외국어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도 아니고 ‘씨엔씨’라는 한글표기도 아닌 영문이니셜 표기 그대로 사용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 기술은 보통 ‘기계를 만드는 기계’라고 하여 어미기계(mother machine)라고 불리는 공작기계에 적용이 되어 ‘CNC공작기계’를 뜻하기도 한다. 즉, CNC란 좁게는 CNC공작기계를 뜻하고, 넓게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밀하게 수치제어를 하는 기계장치 전체를 가리킨다.

북한에서 ‘CNC화’란 말도 쓰는데 이는 생산설비를 컴퓨터로 정밀하게 수치제어할 수 있게 바꾼다는 의미라 할 수 있다. 최근 북한이 강조하는 ‘생산현장의 현대화, 자동화, 무인화’란 CNC기술을 활용하여 생산현장에서 사람 대신 컴퓨터가 통제하는 방향으로 자동화시키겠다는 의도이다.

기계제작 측면에서 작업자가 손으로 일일이 부품을 깎고 수치를 측정하는 작업방법으로는 고도로 정밀한 기계장치를 만들기 어렵다. 작

업의 한계가 많고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재료의 낭비도 많다. 무엇보다 기계의 정밀도를 보장하기 쉽지 않다. 0.1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정밀도를 요구하는 기계장치(대표적으로 발사체, ICBM)는 정밀한 CNC공작기계를 활용해야만 만들 수 있다. 미사일 발사체 관련 기술을 자체 보유한 국가들을 일컫는 ‘스페이스 클럽’ 국가들은, 대부분 최첨단 CNC공작기계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자체 기술로 ICBM과 SLBM, 발사체 등을 만들었다는 것은 높은 수준의 CNC기술을 보유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정밀 무기를 만들기 위해 개발했던 CNC기술을 민수로 전환한다면 높은 수준의 기계설비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한다.⁶⁸⁾

‘새 세기 산업혁명’

생물학적/물리학적 세계(아날로그 세계)가 디지털 세계와 결합하는 변화를 4차 산업혁명이라 부른다. 공장의 자동화, 무인화, 디지털화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핵심 변화들이다. 그런데 현재 북한의 산업 분야 과학기술 수준을 보면 아직 4차 산업혁명을 논할 수준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3차 산업혁명의 본격화’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북한에서는 ‘새 세기 산업혁명’이라 부른다.

68) 강호제, “북한 CNC기술의 출발,”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 NK테크 브리핑, <http://www.nktech.net/inform/nkt_briefing/nkt_briefing_v.jsp?s_code_cd=focus&record_no=317> (검색일: 2018.8.28.). CNC의 정밀함을 나타내는 표현에는 4축, 5축과 같은 축수와 1계통, 다계통으로 표현하는 계통수가 있다. 축수는 CNC 기계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즉, 2차원 평면에 글씨만 쓴다면 2축, 도장처럼 글씨를 높낮이를 바꾸어가면서 표시하면 3축, 1~2 방향으로 회전까지 할 수 있다면 4~5축이 된다. 하나의 기계로 구멍을 뚫거나 연마를 하는 등 다양한 종류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면 ‘다계통’이라고 부른다. CNC기술은 4축 이하는 비교적 간단한 것이고 4축을 넘어 5축 이상이 되면 고급 기술에 속한다. 그리고 2계통 등 다계통 CNC가 될 때 고도화된 것이다.

특히 김정은 집권 후 정보화 시대와 지식경제시대 담론을 다듬은 끝에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새 세기 산업혁명’이라 부르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북한은 생산현장의 자동화와 무인화와 연계된 CNC (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화를 지향한다.

앞서 다루었듯이 CNC는 컴퓨터를 통해 수치를 제어하는 장치이다. 북한은 컴퓨터로 정밀 기계제작 과정을 통제하는 것처럼, 생산현장의 모든 공정을 컴퓨터로 조정하는 ‘통합생산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시스템 전반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북한 정권의 목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기술이 CNC이다.

이러한 구상은 김정일 시대에 시작되었으나, 구체적으로 정책화 된 것은 김정은 시대 들어서이다. 특히 2018년 7~8월 집중된 김정은의 생산단위 현지지도에서 이와 관련한 정책 지도가 지속되고 있다. 김정은 주도로 북한이 ‘지식경제시대’ 및 ‘정보산업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가 강조되고 있다.

지식경제시대와 정보산업시대의 구체적인 정책방향은 ‘과학기술과 경제의 일체화’와 ‘컴퓨터를 통한 통합생산체계’ 구축 및 ‘생산의 자동화, 무인화’로 이어졌다. ICT기술을 발전시켜 생산을 자동으로 조절하여 사람의 개입 없이 무인화 된 생산 공정을 만드는 것이 새로운 시대의 발전 방향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북한이 CNC를 강조하는 이유와 연계된다.

군수분야에서 발전한 CNC=기계제작기술+정보기술(IT)

한편 컴퓨터를 통해 수치제어하는 장치/기술을 가리키는 CNC는 기계제작기술과 정보기술(IT)의 결합이라 할 수 있다. CNC기술이 확보되면 원료의 낭비를 줄이면서, 더 정밀한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

CNC기술은 금속가공 등이 중요한 무기 제조 분야에서 필수 수요

영역이다. 첨단 무기는 첨단 기계제품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비롯한 각종 첨단 무기를 만들기 위해 CNC기술을 발전시켰다. 최근 김정은 시대 경제발전전략은 이러한 군수 기술을 민수로 전환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1980년대부터 김정일에 의해 개발되기 시작한 북한의 CNC기술은 1990년대 중반에 4축 CNC를 만들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고, 2000년대 후반에 최첨단을 돌파했다고 선전한다. CNC기술의 수준은 우주발사체, ICBM, SLBM의 수준과 연관성이 높다. 최근 북한 당국의 ICBM 완성 선언으로 볼 때 CNC기술도 첨단 수준에 도달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 IV-3> 당창건 65돌 선전포스터



자료: 연합뉴스 제공

따라서 북한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CNC기술을 민수 영역, 즉 경제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도입할 때이다. 생산의 자동화, 무인화를 지향하는 통합생산체계를 만드는 데 CNC기술과 관련 역량들이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군수분야에 활용된 CNC기술이 민수분야로 잘 전환된다면, 북한 상품의 품질도 올라갈 것이다. 또한 최근 북한이 강조하는 국제적 품질 관리 표준을 준수하게 되면 대외 상품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 현재 김정은 정권은 생산 자동화, 무인화 등을 적극 도입하여 북한 산업 전 분야에 확장시켜 제품의 생산능력을 단번에 도약시키길 원하고 있다.

김정은 시대, 생산현장의 자동화와 품질 제고

앞서 다루었듯이 김정은 집권 후 이전과 달라진 흐름 중 하나가 생산현장의 무인화 및 자동화 강조이다. 컴퓨터에 의한 통합적 생산 체계를 적극 도입한 화장품, 과자와 음료수, 가방 등 실생활에 필요한 물품생산 공장들이 모범 단위 공장으로 소개되고 있다. 이를 본보기로 삼아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의 생산 현장들도 바뀌었다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다.

또한 품질 수준 제고를 위한 활동으로 북한은 국가규격을 개정하면서 ISO/IEC를 그대로 적용하는 등을 통해 국제수준에 맞추고자 하고 있고, 식료생산공장들은 ISO 인증까지 받도록 했다. 2014년에는 품질 제고를 위한 장려 방안으로 ‘12월15일 품질메달’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1981년 시행된 북한의 국내 품질 기준인 ‘2월2일 제품’ 중에서 ISO 인증을 받게 하고 그 중에서 엄선된 제품에 대해 ‘12월15일 품질메달’을 수여함으로써 국제적 수준의 품질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5. 북한의 정보 네트워크와 이동통신망

인터넷과 인트라넷

북한도 국가적 정보 유통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정보 네트워크의 현저한 특징 중 하나는, 국외로 연결되는 인터넷과 북한 내부에서만 운영되는 인터넷(흔히 인트라넷으로 지칭하지만 북한에서는 국가망이라고 부른다)이 분리되어 연결망이 운영된다는 것이다. 네트워크 구성 등은 별 차이가 없지만, 북한 당국은 ‘체제 보안’ 등을 이유로 국외와의 연결망을 제한하고 있다.

물리적으로 다른, 즉 국내용을 해외 접속용과 분리하여 완전히 다른 네트워크를 이루도록 하고 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음성전화의 경우, 연결하는 방법조차 다를 정도로 국내 전화와 국제 전화가 구분되어 있는 것과 유사한 모양이다.

북한은 인트라넷 구조의 국내 네트워크를 ‘광명’망을 구축하여 운영하였고, 유선 네트워크의 경우, 중요지역과 기관 간에는 광섬유로 이어져 있고, 개인집은 아직 구리로 된 전화선으로 되어 있다.

북한의 이동통신망: 고려링크, 강성네트

북한의 무선망(이동통신망)은 2008년 이집트의 오라스콧이라는 회사와 북한의 체신성이 공동으로 만든 ‘체오(CHEO)테크놀로지’라는 회사에서 ‘고려링크’라는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확장되었다. 2000년대 초반 2세대 무선망이 시험적으로 개설되기 시작하였으나, 3세대 무선망 기술로 곧바로 넘어간 사례이다.

2008년 당시 무선망 설비가 거의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여 북한 정부는 고려링크에게 4년 동안 무선통신 사업 독점권을 보장하였다. 2007년 1월 애플에서 아이폰을 처음으로 출시한 이후 전 세계적

으로 스마트폰을 통한 무선통신 사업이 급속히 팽창하기 시작하였다.

김정은 집권 후 북한은 이러한 국제적 정보통신 기술 확산 추세를 정책에 반영하기 시작한다. 실례로 고려링크를 통한 북한의 무선통신 가입자 수가 2010년에 50만 명 수준이었으나, 2012년에는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 시기 북한이 자체적으로 스마트폰을 개발하고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북한의 무선통신 가입자 수는 2013년 200만 명 수준에 이른 후 2017년의 경우 37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무엇보다 김정은 시대 들어 고려링크 외에 ‘강성네트’라는 무선통신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했다. 고려링크는 외국기업과 합영 형태로 설립되어 운영되었으므로 내국인 전용뿐만 아니라 외국인 전용 서비스도 제공하였다. 그러나 북한 내부 자본으로 만든 강성네트는 내국인 전용 서비스만 제공한다고 한다.

고려링크의 외국인 전용 서비스는 북한 국내에 들어온 국제 인터넷망과 연결되어 있어 북한 국내에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다. 즉, 고려링크 외국인 전용 USIM을 장착한 스마트폰이나 휴대용 와이파이 중계기를 통하면 국제 인터넷망에 접속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북한 내부에서 직접 찍어서 올리는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올 수 있게 된 것이다. 남북에 있는 사람들이 카카오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인터넷 화상 통화를 한 적도 있다.

<사진 IV-4> 고려링크



자료: “북한 내 외국인들, USB 이용해 지방에서도 인터넷 사용,” 『VOA』, 2016.11.11, <<https://www.voakorea.com/a/3591225.html>> (검색일: 2018.9.10.)

주: 고려링크의 휴대용 와이파이 중계기. 흔히 에그/동글이라 불리는 기계이다. 여기에 외국인 전용 USIM을 넣고 노트북의 USB에 꽂으면 국제 인터넷망에 접속 가능하다.

북한 내부에서도 중요 대학이나 연구소 등은 인터넷망을 통해 해외 망과 연결할 수 있다. 이들 기관의 구성원이 국제 인터넷망에 접속하려면 북한 당국의 사용 승인을 미리 받아야만 한다. 김정은 시대 들어서면서 ICT 관련 학생이나 연구원들은 상대적으로 사용 승인을 쉽게 받는다고 한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직접 접속이 어렵고, 인민대학습당이나 전자도서관, 과학기술보급실 등에 정보수집 요청 등의 절차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정리하면 2000년대 후반부터 북한은 이집트 통신기업인 오라스콤의 투자로 ‘고려링크’라는 무선 통신망이 구축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김정은 시대에는 국내 자본으로 만든 ‘강성네트’까지 더해져 최소 2개 이상의 무선 통신망이 만들어져 있다. 이들 무선통신망은 국가망인 ‘광명’과 연결되어, 유선이나 무선 모두로 ‘국내용 인터넷(인트라넷)’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외국인은 외국인 전용 USIM을 사용하면 국제 인터넷망을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평양을 방문한 외국인도 북한 당국의 허가를 받아 자기나라 친구들과 인터넷을 통해 대화할 수 있다. 연결 속도가 느린 한계가 있으나 점차 시스템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6. 최근 북한산 정보기기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고려링크가 처음 북한 내 서비스를 시작하던 시기에는 대부분 수입 스마트폰이 사용되었다. 자체 제작한 북한산 스마트폰은 2011년 ‘류성’을 시작으로 조금씩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2013년부터는 ‘평양’, ‘아리랑’, ‘진달래’라는 스마트폰 시리즈가 버전을 바꾸어가면서 계속 출시되고 있다. 요즘은 대략 20개 가량의 모델이 사용되고 있다.

프리미엄급 스마트폰이 아니면 스마트폰 내부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들이 모듈화 되어있어서 부분별로 부품을 사서 조립하면 스마트폰 생산이 가능하다. 조립PC를 만들 때 전자상가에서 메인보드와 사운드 카드, HDD 등을 따로따로 구매한 후 조립하여 사용한 것과 비슷하다고 평가된다. 다만 부품별 성능이나 규격을 얼마나 조화롭게 설계하였느냐에 따라 성능이 달라진다. 북한의 스마트폰 부품은 주로 중국에서 수입하여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주민들 역시 스마트폰을 통해 통화는 물론, 문자와 사진 등을 서로 주고받는다. 국제 인터넷망에 접속하지는 못하지만 북한 국내망에는 접속하여 정보를 찾아보거나 인터넷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기도 한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은 카메라 기능이다. 중요한 장면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마음은 남이나 북이나 마찬가지이다.

또한 북한에 종이 부족해서 교과서를 비롯한 인쇄물 책자를 제대로 발간하지 못하는 현실적 제약은 북한이 태블릿 PC(판형 컴퓨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었다. 스마트폰과 마찬가지로 2013년 즈음부터 자체 생산하기 시작한 북한 태블릿 PC는 ‘노을’, ‘삼자연’, ‘아침’, ‘룡흥’, ‘아리랑’, ‘올림’, ‘묘향’ 등의 이름으로 서로 다른 5~6개의 업체에서 생산되고 있다. 태블릿 PC에는 검색이 가능한 김일성·김정일 어록집이 수록되어 있고, 학생용 교과서가 모두 탑재된 것도 있다. 김일성, 김정일 통치 역사를 소설 형식으로 만든 책들도 수록되어 있다. 기기보다는 기기에 탑재되어 있는 문서들 때문에 남한을 비롯한 외국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일반 노트북은 물론 최근 자판 분리형 노트북과 스틱형 PC도 북한에서 생산되고 있다. 최근에 만들어진 기업소의 과학기술보급실이나 학교의 전산실에는 PC가 아니라 노트북이 놓여 있는 경우도 많다. PC나 모니터의 외형이 애플사의 맥북처럼 금속 재질인 경우도 등장했다. 개인용 컴퓨터의 경우 기술의 진보가 정체되어 있는 편이고 국가마다 기술격차도 많지 않은 편이라 북한도 그 발전 추세를 따라가고 있다고 평가된다.

북한의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는 윈도우를 사용하는 PC의 경우 외부의 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는 안드로이드용 앱들을 사용할 수도 있다. 다만 보안의 문제와 기술자립의 문제들로 인해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는 대응되는 자체 생산 소프트웨어가 개발 및 제공되고 있다. 리눅스를 기반으로 북한의 자체 운영체제로 개발한 ‘붉은별’의 경우 4.0 버전까지 출시되어 기술적 성능과 시스템적 안정성이 향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MS오피스의 워드/엑셀/파워포인트는 ‘우리 오피스 글/표/선전물’이라는 대응 소프트웨어 붉은별에 탑재되어 있다.

김정은 시대 들어 무엇보다 정보화 기술이 상당히 진전되었다. 현재 북한의 소프트웨어 발전을 위해 1990년 시작된 관련 경진대회인 ‘전국 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가 2016년부터는 이름을 ‘전국 정보화 성과 전람회’로 바꾸며, 정보화 성과에 좀 더 집중하고 경연보다는 상품 전람회 성격을 강화하였다. 이즈음부터 전국과학기술축전과 전국 발명 및 새 기술전람회, 전국정보기술성과전시회 등을 통해 다양한 ICT관련 기술과 제품들이 출품되고 있다.

이곳에 소개된 상품이나 기술들을 살펴보면 최근 북한의 관련 기술 수준이나 상품 제작 수준이 예상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형 LCD TV가 다양한 크기로 전시 판매되고 있는 모습이다. 정확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크기를 알 수는 없지만 대략 60인치가량 되는 LCD TV와 함께, 곡면 TV도 전시되어 있었다. 지능시계라고 불리는 ‘스마트워치’도 제작 및 전시되었다.

<사진 IV-5> 전국 정보화 성과 전람회



자료: 연합뉴스 제공

주: PC나 모니터의 외형이 애플사의 맥북처럼 금속 재질인 경우도 등장했다.



자료: <<https://www.flickr.com/photos/arirangmeari/36431817523>>

주: 북한 라원기술교류사에서 만든 LED TV이다. 수입한 부품과 함께 자체 설계한 회로를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2017년 ‘전국 정보화 성과 전람회’에는 다양한 최근 기기 및 프로그램들이 선보였다. 먼저 전국 수준에서 전력 생산 및 소비를 통제하는 시스템이 등장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의 전력공업성 산하 전력정보연구소의 ‘불야경’이라는 국가통합전력관리체계가 소개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ICT기술을 생산에 도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에서도 활용하라는 지침에 따라 각종 교수학습용 기기도 많이 출품되었다. 전자칠판은 물론, 프로젝터, 3D 입체 투영기 등도 제작되어 전시되었다.

또한, 내나라전자상점, 앞날전자상점 등 인터넷 망에서 물건을 고르고 주문하고 결제할 수 있는 쇼핑몰도 여러 개 소개되었다. 전자결제 방식의 도입과 함께, 전자카드, 24시간 주문 배송 서비스 등이 함께 소개되고 있다.

만방, 북한 IPTV 서비스

김정은 집권 후 2015년경부터 시작된 ‘만방’이라는 이름의 IPTV 서비스는 북한 정보통신 환경의 변화를 짐작하게 한다. 북한의 텔레비전 방송 채널들의 실시간 시청은 물론, 지나간 방송을 원하는 대로 주문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조선중앙텔레비죤 방송은 물론, 만수대텔레비죤(오락), 룡남산텔레비죤(교육), 체육텔레비죤의 지난 프로그램을 주문형비디오 VOD 방식으로 서비스하는 것이다. 가정집에서도 단말기를 구입하여 설치하면 이용이 가능하고 평양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다고 한다. 선로는 전화선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동영상 시청도 가능하다고 선전되고 있다.

오늘날 첨단 ICT 기술은 블록체인(Block Chain) 기술과 함께 인공지능(AI) 기술이다. 주목할 점으로 2017년 북한의 ‘전국 정보화 성과 전람회’에는 북한의 AI 관련기술도 선보였다. 문서인식, 음성인식 기술 관련 제품을 내왔던 북한은 이제 안면인식 기술까지도 전시한 것이다.

아직 그 실체를 확인하긴 어려우나 북한 당국의 선전 및 노동신문 등의 보도를 신뢰한다면, 북한의 ICT관련 분야는 여러 영역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사진 IV-6> 북한 IPTV 서비스



자료: 연합뉴스 제공

주: 북한이 처음 만든 IPTV 만방 접속화면이다. 지방의 일반 가정집에서도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5개의 방송을 다시보기 할 수 있고, 각종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 동영상도 잘 돌아갈 정도로 인터넷 속도는 빠르다고 한다.

The page features a decorative background with several thin, curved lines that sweep across the top and bottom. Two large, stylized circular elements are present: one on the left side, partially cut off, and one at the bottom center. Both circles are filled with a fine grid of small dots, creating a textured effect.

V. 교육: 공교육 개혁과 교육격차 확대

교육 부문은 김정은 정권의 개혁 의지와 개혁의 방향성이 일찍이 정책적으로 반영된 분야이다. 이 글에서는 김정은 시대 북한 교육의 특징을 교육정책과 제도, 초중등교육과정과 교과서, 과학기술교육과 교육 정보화, 학부모 교육비 부담과 교육격차, 사교육 등의 다섯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김정은 시대 들어 교육 사업은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의 주요한 수단으로 간주되며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김정은 시대 교육 정책의 두드러진 특징은 ‘글로벌 스탠더드’의 적용과 과학기술교육 강화 및 교육정보화 추진이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는 세계적 교육발전 추세를 우리식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최고지도자의 발언에서뿐 아니라, 2012년의 초중등 학제개편과 뒤이어 이루어진 교육과정 개정 및 각종 고등교육제도 개혁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또한, 김정은 시대 북한에서는 ‘정보산업시대’, ‘지식경제시대’인 현 시대에 과학기술 발전이 국력을 좌우하는 관건이 된다고 보고, 과학기술 부문의 인재양성을 통해 ‘사회주의문명강국’, ‘경제강국’을 건설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전략에 따라 학교교육에서 과학기술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새 세기 교육혁명’의 목표로 제시된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각종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교육과 원격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다.

이처럼 정책적 측면에서는 개혁적 조치들이 실시되고 있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정책 담론과는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경제난 이후 국가의 교육예산 지원 부족으로 인해 학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 부분을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교육접근성 악화로 이어진다. 도시와 농촌 간에 존재하는 교육시설, 환경, 교원 수준 등의 교육격차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주민들 속에서 개인교습 형태의 사교육이 제한적이거나 확산되고 있다. 이는 교육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인식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1. 정책방향과 제도개편: ‘전민과학기술인재화’와 국제수준 추구

‘세계적인 교육발전 추세’의 ‘우리식’ 수용

김정은 시대의 교육정책은 기본적으로는 김정일 집권 후기 교육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1990년대 경제난에 따른 공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북한에서는 2000년대 이후 ‘교육에서의 실리주의’를 표방하면서 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조해왔다. 과학기술교육과 외국어교육을 강화하고 초기에 영재를 발굴하며 중등 및 고등교육에서 ‘수재교육’을 강화함으로써 IT를 비롯한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인재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이 취해졌다.⁶⁹⁾

김정은 시대에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방향성을 견지하면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적용하여 교육제도와 교육과정을 조정하고 교육의 질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시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⁷⁰⁾ 또한, 정보화 시대라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정보통신기술을 비롯한 과학기술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다.

김정은 시대 교육정책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글로벌

69) 조정아, “김정은시대 북한 교육정책 방향과 중등교육과정 개편,” 『통일정책연구』, 제23권 2호 (2014), p. 179.

70) 예를 들면, 북한의 교육계에서는 대학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국제표준인 ISO9000 계열 질관리체계표준 도입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원칙 하에 교육과정 관리와 지속적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박영철박영순, “대학, 전문학교교수질관리에 대한 ISO9000계열 질관리체계표준도입의 가능성,” 『교원선진수첩』, 1호 (2015); 박영철박영순, “고등교육 부문에서 국규 10900(ISO 9000)계열 질관리체계표준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 『고등교육』, 2호 (2015); 김혁철, “원격교육평가와 국가규격 10900(ISO9000)계열표준의 유기적결합방법,” 『고등교육』, 4호 (2015).

스탠더드’에 대한 이해와 이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다. 김정은은 ‘새 세기 교육혁명’을 수행하기 위해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내다보는 주체적인 입장과 안목에서” 세계적인 교육발전 경험을 수용하여 교육을 ‘우리식’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최고 지도자의 발언과 당의 공식 담론에서뿐만 아니라 교육 관련 신문과 정기간행물에도 국제적인 교육 동향에 대해 해설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기사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2012년 학제개정을 필두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등 및 고등교육 제도 개선의 방향 또한 ‘세계적 교육발전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⁷¹⁾ 국제적 흐름을 염두에 둔 교육제도 및 교육과정 개선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외국과의 경쟁과 교류도 강조되고 있다.⁷²⁾

학제개편과 12년제 의무교육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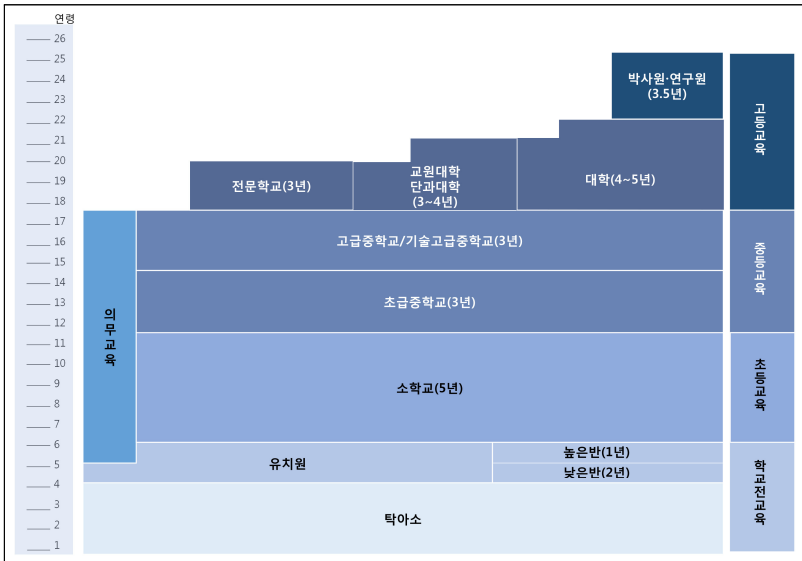
김정은 집권 이후 교육 부문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가시적인 개혁 조치는 초중등 학제개편과 12년제 의무교육 실시였다. 북한은 2012년 9월 25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6차 회의에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라는 법령을 발표하여 학제개편을 단행하고, 그 후속조치로 2013년부터 교육과정 개정과 새 교과서 편찬 작업을 추진하였다. 학제개편 이전의 기본 학제는 4년간의 초등교육, 6년간의 중등교육, 4~5년간의 고등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2012년

71) 조정아, “김정은시대 북한 교육정책 방향과 중등교육과정 개편,” pp. 184~185.

72) 2016년 9월 27일 ‘김일성종합대학창립 70돐에 즈음하여 대학 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김정은은 대학에 외국인유학생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박사원생들을 중심으로 다른 나라에 유학을 보내는 사업을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이 서한에서 “우리의 경쟁대상은 세계이며 경쟁의 주인공은 바로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이라고 하면서 김일성종합대학을 국제적 수준의 대학으로 발전시키는 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체혁명의 새시대 김일성종합대학의 기본임무에 대하여,” 『노동신문』, 2016.9.30.

학제개편을 통해 초등교육을 1년 연장하고 전기 중등교육기관인 초급 중학교와 후기 중등교육기관인 고급중학교로 분리하여, 5년간의 초등 교육에 이어 3년간의 전기 중등교육, 3년간의 후기 중등교육, 4~5년 간의 고등교육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학제개편 당시 중등교육기관은 계열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단선형 학제였으나, 2017년 후기 중등교육 수준에서 실업계열인 기술고급중학교를 100여 개교 설치하였다. 취학 전 교육기관은 2년제 유치원이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만 6세로 이전과 변동이 없다. 학제개편으로 의무교육기간을 1년 연장하여, 유치원 높은반 1년부터 고급중학교까지 총 12년간의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림 V-1> 북한 학제



자료: 저자 작성

2012년 학제개편은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교육과정의 도입을 통해, 경제난의 영향으로 하락하였던 교육의 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시도였

다고 볼 수 있다. 학제개편 결과, 북한의 학제는 기존 학제에 비해 국제표준학제에 보다 가까워졌고, 남한 학제와의 차이도 줄어들었다. 2012년 학제개편에서 초등교육 기간을 연장한 것은 소학교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제고함으로써 중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교육수준을 높여 중등교육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닌 것이었다. 또한, 초급 중학교와 고급중학교를 분리함으로써 초급중학교 단계에서는 각 분야의 기초지식 획득에, 고급중학교 단계에서는 기초 과학기술지식뿐만 아니라 실생활과 산업현장에서의 활용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교육을 실시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와 고등교육 제도 개혁

2016년 5월에 열린 조선노동당 7차 당대회에서는 과학기술강국 건설을 위한 ‘전민과학기술인재화’가 목표로 제시되었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을 “대학졸업정도의 지식을 소유한 지식형근로자로,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로 준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⁷³⁾ ‘전민과학기술인재화’라는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교육전략은 국제적 추세를 반영한 고등교육 구조조정과 대학-산업현장 간 연계성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고등교육 구조 조정과 관련하여, 연구형 대학과 직업기술대학의 분리, 대학 통합, 대학-박사원(대학원) 연속교육체계 발전, 주요 대학의 과학연구 및 국제학술교류 거점화 등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2012년 이후 종합대학 증설이 진행되어, 기존에 3개에 불과하였던 종합대학이 2016년 현재 10여 개로 늘어났다. 종합대학 증설은 각 도별로 존재하는 교원대학, 사범대학을 통합하여 지역별 종합대학을 만들거나, 지역 내 유사 부문의 단과대학을 통합하여 부문별

73) 최중식,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본질,” 『고등교육』, 9호 (2016), p. 4.

종합대학을 만드는 방식⁷⁴⁾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이외에도 산업 및 과학기술 발전을 고려한 학과 통폐합 및 신설, 교육과정 조정, 대학 입시제도 개선, 대학 학점제 도입 확대, 대학원 교육제도 개선, 원격교육 확대 등의 제도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흐름 속에서, 북한 교육계에서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염두에 둔 교육제도 개혁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학 통폐합과 학과 조정 등 고등교육 제도 개혁은 중국의 개혁 개방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조치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향후 북한 교육 개혁의 귀추를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⁷⁵⁾

다만, 이와 같은 교육개혁이 목표대로 이루어지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선결되어야 한다. 우선, 교육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 교원 확충 및 생활조건 보장, 교육정보화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예산의 대폭 확충이 필수적이나, 국가적 차원에서 별도의 재정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북한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인 엄격히 통제되는 과도한 정치사상교육은 교육개혁의 근본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⁷⁶⁾

74) 예를 들어, 함흥컴퓨터기술대학, 함흥경공업대학, 함흥건설대학은 함흥화학공업 종합대학으로 통합되었다. “북한, 대학체계 개편…종합대학·직업기술대학 신설,” 『연합뉴스』, 2015.5.1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15/0200000000AKR20150515180400014.HTML?input=1195m>> (검색일: 2018.9.10.).

75) 조정아, “전국교육일꾼대회 대회 담화를 통해 본 북한의 교육개혁 전략,”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4-13, 2014.9.16), p. 5, <<http://www.kinu.or.kr/pyxis-api/1/digital-files/24bbbf41-150e-40c1-a638-890ee505d03e>> (검색일: 2018.9.24.).

76) 위의 글, p. 6.

2. 초중등교육과정과 교과서 개정

교육과정 개정의 특징과 교과목

2012년 학제개편 이후 초중등교육과정과 교과서 개정 작업이 진행되었다. 교육과정 개정 결과, 소학교 교육과정은 다음 <표 V-1>에 명시된 13개 과목이 편성되어, 주당 22~26시간 수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초급중학교에서는 주당 32시간씩 총 16개 과목, 고급중학교에서는 주당 34시간씩 22개 과목이 편성되어 있다.

<표 V-1> 북한 초중등학교 교과목

학교급	교과목명
소학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어린시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어린시절,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 어머니 어린시절,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어린시절, 사회주의도덕, 국어, 영어, 수학, 자연, 정보기술, 체육, 음악무용, 도화공작
초급중학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활동,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혁명활동,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니 혁명활동,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혁명활동, 사회주의도덕, 조선력사, 조선지리, 국어, 영어, 수학, 자연과학, 정보기술, 기초기술, 체육, 음악무용, 미술
고급중학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력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혁명력사,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니 혁명력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혁명활동, 현행당정책, 사회주의도덕과 법, 력사, 지리, 심리와 논리, 국어문학, 한문, 영어,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정보기술, 기초기술, 공업(농업)기초, 체육, 예술, 군사활동초보

자료: 저자 작성

교과목 구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김정은 체제 출범에 따라 김정은 관련 정치사상 과목을 모든 학교급에 신설한 점과 함께, 자연과학 및 기술 관련 교과, 외국어교육이 강화된 점이 눈에 띈다. 과학기술 발전의 필요성 및 생산 현장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제도, 실습 등의 기술 교과를 '기초기술'로 통합하고 남녀학생 모두에게 동일한 내용을 교육

하도록 하였으며,⁷⁷⁾ ‘컴퓨터’ 과목의 내용요소를 확충하여 ‘정보기술’로 개편하였다. 영어와 ‘정보기술’ 과목은 소학교 4학년부터 가르치고 있다.

과목별 수업시수 변화를 보면, 영어과 수업시수와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정보기술 과목의 비중도 중등단계에서 증가하였다.

개정 교육과정은 나선형 교육과정, 통합교과 등 국제적 교육과정의 흐름을 부분적으로 반영하였다. 또한, 교과교육을 통해 특정한 지식이나 기술뿐만 아니라 사고력, 탐구력, 창조력 등 일반적인 지적 능력과 지식의 활용능력을 함양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교육과정 구성 및 교과목 체계의 변화는 북한 당국이 교육 부문에서 지향하고 있는 세계화, 정보화의 방향성을 보여준다.⁷⁸⁾

흥미도와 학습자 활동을 강화한 새 교과서

교과서는 더욱 두드러진 변화를 보여준다. 외형 면에서 총천연색을 사용하거나 읽기 편한 다양한 활자체, 아이콘, 삽화 등을 사용하여 가독성과 흥미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교과서에 삽입된 이미지도 실제 사진을 많이 활용하였다. 다음 <그림 V-2>와 같이 일방적인 주입식, 암기식 교육을 지양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수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과서 내용 전개방식을 개선하였으며, 그에 맞는 교육방법을 장려하고 있다.⁷⁹⁾

교과서 내용과 편성 체계 면에서도 국제적 흐름을 소개하거나, 학습자 중심의 탐구활동을 강조하는 등 최신 교육방법을 적용하는 시도가 눈에 띈다. 예를 들어 수학교과와 문장제 문제에서 현대적 스포츠의

77) 교육과정 개정 이전에 중학교 기술교과의 하나였던 ‘실습’과목의 경우, 성별에 따라 ‘남학생 실습’과 ‘여학생 실습’으로 다른 내용을 가르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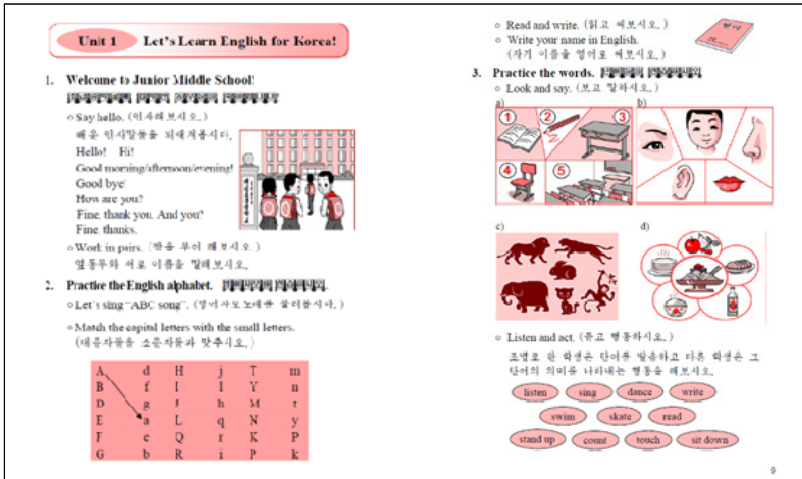
78) 조정아 외,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과서』(서울: 통일연구원, 2015), p. 262.

79) 위의 책, p. 262.

내용이 활용되고 있으며, ‘사회주의 도덕’ 교과에서는 지도자의 교시 내용을 대폭 축소하면서 정치·사상적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였다.⁸⁰⁾ 자연과학 및 기술 교과에서는 통합교육, 실생활의 응용, 과학적 연구방법론 습득을 강조하고 통합적 사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단순한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직접적인 체험, 관찰 등의 활동을 통해 과학적 사고력을 배양하고 활용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보여주었다.⁸¹⁾

영어과에서는 2000년대 초반의 본보기 문장 반복훈련을 통한 문장 외우기와 문법 위주의 내용구성에서 벗어나, 듣기와 말하기 교육을 강화하고 언어 통합기능 위주로 교과서를 구성하였다.⁸²⁾ 또한, 삽화를 활용한 단어 연결하기, 컴퓨터를 통한 활동 등 새로운 교육방법을 적용하였다.

<그림 V-2> 북한의 개정 교과서(초급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



자료: 『영어(초급중학교 제1학년용)』 (교육도서출판사, 2013), pp. 8~9.

80) 김정원 외, 『북한 교육정책 동향 분석 및 서지 정보 구축』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14), p. 79.
 81) 조정아 외,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과서』, pp. 190~191.
 82) 2015~16학년도부터는 대학입학시험과 예비시험에서도 기존의 필답시험에 더하여 외국어 청취 및 회화시험이 도입되었다. 『교원신문』, 2014.10.30.

3. 과학기술교육 강화와 교육정보화 추진

‘정보산업시대’ 인재양성을 위한 과학기술교육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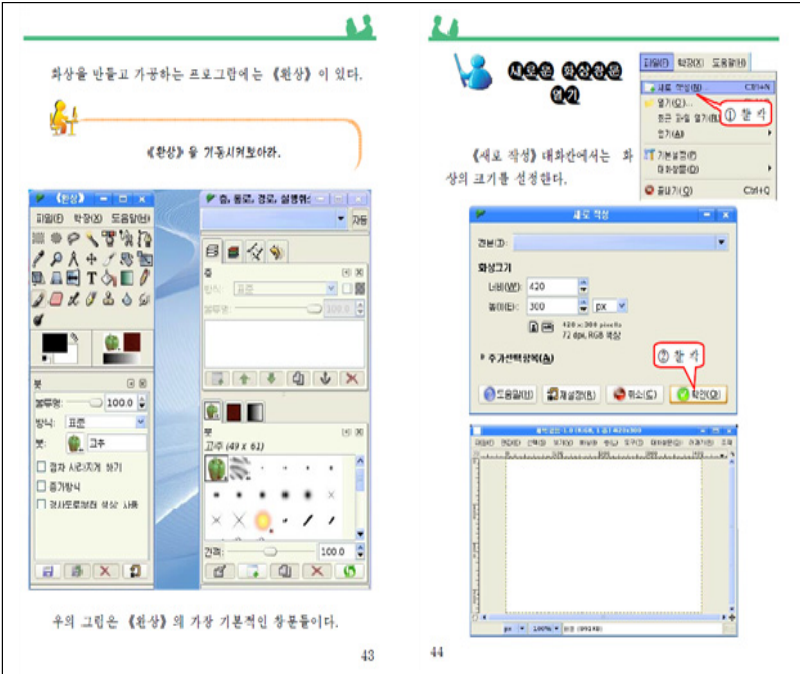
김정은 시대 교육의 또 한 가지 특징은 과학기술교육 강화와 교육정보화 추진이다. ‘정보산업시대’, ‘지식경제시대’인 현시대에 과학기술 발전이 국력을 좌우하는 관건이 된다고 보고, ‘사회주의문명강국’,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과학기술교육 강화를 통한 인재양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새 세기 교육혁명’의 목표로 제시된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각종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교육, 특히 교육 장소와 시간 등의 제한성을 극복할 수 있는 원격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다.

과학기술교육 강화 추세는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의 자연과학 교과 비중 확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교과목별 수업시간 수를 살펴보면, 과목별 총 수업시간 수가 많은 과목은 초급중학교는 수학>자연과학=>국어>영어>체육 순이며 고급중학교는 수학>물리>기초기술>화학>영어 순이다. 수학, 물리 등 기초 자연과학 교과군의 수업시수 비중은 소학교 24.8%, 초급중학교 31.5%, 고급중학교 35.8%이다. 여기에 ‘정보기술’ 등 기술교과를 합한 과학기술 교과군의 수업시수 비중은 소학교 26.0%, 초급중학교 37.1%, 고급중학교 50.4%로 매우 높다.

초중등교육과정에서는 ‘정보기술’ 과목을 통해 학생들이 정보통신 기술의 기본 개념과 정보화 사회의 시대적 흐름을 인지하고,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탐색하고, 응용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정보를 가공, 표현, 축적,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하도록 하고 있다.⁸³⁾

83) 조정아, “김정은시대 북한 교육정책 방향과 중등교육과정 개편,” p. 198.

<그림 V-3> 북한의 개정 교과서(초급중학교 1학년 정보기술 교과서)



자료: 『정보기술(초급중학교 제1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13), pp. 43~44.

국제기구의 통계자료를 통해 학교에서 진행되는 정보통신기술 교육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최근 석달간 파일 작업, 문서, 스프레드시트, 프리젠테이션, 프로그램 작성 등의 컴퓨터 관련 작업 중 한 가지 이상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전체 연령대에서 30.1%, 남성 41.0%에 불과하나, 고급중학교 취학연령대인 15~17세에서는 여성 65.9%, 남성 65.2%로 높게 나타났고, 성별 격차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⁸⁴⁾

⁸⁴⁾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of the DPR Korea and UNICEF, *DPR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17, Survey Findings Report* (Pyongyang: UNICEF DPRK, 2018), pp. 34~35.

‘다매체교수’ 확대와 ‘다기능화된 교실’ 증설

세계적인 정보화 추세 속에서 북한에서도 다양한 정보화 매체와 기술을 활용한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북한에서는 전자도서, 동영상자료 등 전자매체의 학습자료화, 모의실험이나 설계 등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이 추진되었다. ‘교육의 현대화’라고 불리어 온 이와 같은 움직임은 김정은 시대에는 ‘교육사업의 정보화’로 명명되면서 한 단계 발전되고 있다. 교육지원 프로그램 연구개발, 멀티미디어 편집물 제작기지 구축 및 보급체계 정비, 원격교육의 광범위한 도입, 교육행정 정보화 등이 교육정보화의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⁸⁵⁾

교육정보화는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방법에 변화를 가져온다. 주요 대학과 제1중학교 등 교육환경이 우수한 학교들을 중심으로 수업에 사진과 동영상 등의 멀티미디어 매체를 활용하는 ‘다매체교수’가 확대되고 있다. ‘다매체교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컴퓨터 및 컴퓨터 네트워크, 가상컴퓨터 환경, 액정 TV 등을 갖춘 ‘다기능화된 교실’을 구축하는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2014년에는 김일성종합대학에서 모든 교실이 다기능화된 교실로 전환되었고, 2016년에는 대학과 각급 학교에서 2만 3천여 개의 교실이 다기능화된 교실로 전환되었다.⁸⁶⁾ 아직까지는 북한의 일반적인 학급들이 이와 같은 멀티미디어 교수환경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향후 북한 교육의 발전 방향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원격교육 확대를 통한 ‘전민과학기술인재화’

북한의 교육정보화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원격교육

85) 김덕현, “교육사업의 정보화는 지식경제시대에 맞게 교육의 질을 최상의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필수적요구,” 『교원선진수첩』, 4호 (2013), pp. 54~56.

86)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2017), p. 437.

이다. 북한에서는 해방 이후 우편을 활용한 통신교육제도를 도입했고, 이후 라디오와 TV가 보급됨에 따라 방송을 활용한 원격교육제도를 운영하였다. 2000년대 들어 컴퓨터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이러닝을 활용한 원격교육이 도입되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주로 대학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이러닝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진행했다.⁸⁷⁾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활용한 원격교육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2007년 김책공업종합대학에 원격교육센터가 설립되면서부터이다. 2010년에는 김책공업종합대학에 원격교육대학이 설립되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고, 2011년에는 김형직사범대학에서 원격교육을 통해 대학교원들에 대한 재교육을 진행하였다.⁸⁸⁾

김정은 시대 들어서 원격교육은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한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전례를 따라 각 부문의 주요 대학에 원격교육대학을 부설하는 방식을 통해 원격교육대학을 확대하였다. 2016년 북한의 언론매체⁸⁹⁾에서는 전국 50개 대학에 원격교육대학이 구축되어 운영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원격대학에서는 본 대학의 전공 분야와 유사 분야의 기업소 현장기술자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여, 컴퓨터 네트워크 기반 원격교육 방식으로 대학 수준의 강의를 제공한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대학 사례를 살펴보면, 2015년 기준으로 40개 학과에 8천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었고, 2015년 10월에 110명의 첫 졸업생들이 배출되었다. 이들은 김정숙평양제사공장,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등 20여 개 기업소의 현장기술자들이었다. 학생들이 소속된 기업소에서는 통신네트워크와 시설을 갖춘 원격강의실을 설치하여 기업소에 소속된 학생

87) 김지수, “북한 성인대상 원격교육에 관한 연구: 변천과정을 통해 드러난 특성 분석을 중심으로,” 『평생학습사회』, 제5권 2호 (2009), p. 198.

88)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2016), p. 285.

89) 『조선중앙통신』, 2016.10.21.

들이 원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1,700여 개 기관과 기업소에서 원격교육대학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⁹⁰⁾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는 태블릿과 휴대전화를 이용한 원격교육도 진행하고 있다.⁹¹⁾ 선행연구에 의하면, 북한의 이러닝 수준은 상당한 발전단계에 도달해있다.⁹²⁾

<사진 V-1>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의 원격교육



자료: 연합뉴스 제공

90) 『교육신문』, 2015.11.12.

91) 교육신문사, “김책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사업에서 얻은 경험(2),” 『고등교육』, 10호 (2017), p. 27.

92) 이희정은 이러닝의 8개 표준영역 중 인프라, 콘텐츠, 표준화에 초점을 맞추어 북한의 원격교육 발전 수준을 진단한 결과, 북한의 원격교육이 개발, 발전, 확장의 3단계 중 콘텐츠 측면에서는 발전단계, 표준 측면에서는 확장단계, 인프라 측면에서는 개발단계와 발전단계의 사이 정도에 위치해있다고 분석하였다. 이희정, “김정은 시대 북한 원격교육 현황 연구: 교육콘텐츠, 표준, 인프라를 중심으로,” 『통일교육연구』, 제14권 2호 (2017), p. 2.

4.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증대 및 교육격차 확대

제도적 무상교육, 실질적 유상교육

경제난 이전까지 북한은 배급제, 11년제 무상교육, 무상치료를 실현하고 있었던 국가로, 이러한 기본적인 사회구조적 요건들은 북한 주민들의 삶의 기반이었다. 그러나 경제난 시기 교육을 비롯한 사회복지 인프라가 붕괴되었고 2000년대에 들어서도 완벽하게 복구되지 못하였다. 고난의 행군기를 경유한 후에 공교육 복원 작업이 시작되었지만, 이것이 곧바로 모든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국가의 교육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연결되지는 못하였다. 일반학교 교육재정에 대한 국가 지원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학교 시설 보수 및 확충 등 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학부모들의 지원으로 충당하는 관례가 일상화되었다. 교과서, 학용품으로부터 책결상 등의 교구비품에 이르기까지, 경제난 이전 시기에는 국가가 무상으로 공급해왔던 품목들은 이제는 부분적으로만 공급되고 있다.⁹³⁾ 공식적인 수업료는 존재하지 않지만,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 학부모들은 일정 정도의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만 하게 되었다.⁹⁴⁾

이러한 상황은 탈북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도 나타난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탈북민 중 ‘무상교육’에 대해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41.7%로, 만족한다는 응답비율 23.4%의 두 배

93) 북한 교육당국이 UNESCO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교과서 보급률은 2006년 63.7%, 2008년 66.8%, 2010년 68.0%이다. Education Commission DPRK, *Education for All 2015 National Review DPR Korea* (Paris: UNESCO, 2014), p. 46. 탈북교사들의 증언에 의하면, 김정은 집권기에 교과서 보급률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새 교과서 출판 후 대부분의 학교 현장에 새 교과서가 공급되었다고 한다.

94) 이교덕 외,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7), pp. 144~145.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의 교육이 ‘제도적 무상교육, 실질적 유상교육’이라는 북한 주민의 인식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⁹⁵⁾

‘세부담’과 취약계층의 교육접근성 악화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교육비의 증가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교육접근성 악화로 이어진다. 2011년 1월에 제정된 「보통교육법」에서는 “학교 추천이나 입학, 수업, 실습, 견학, 답사와 관련하여 돈이나 물건을 받았을 경우” 행정적, 형사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에게 의존하여 ‘세부담’, ‘꾸리기’ 등으로 불리는 비용을 충당하지 않고는 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시설비 명목의 큰 돈 이외에도 토끼가죽, 장갑, 파철, 파지, 공병, 빨감, 퇴비 등 다양한 종류의 ‘과제’ 수행이 학생들에게 부과된다고 한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은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위축시키고 결석을 유도하는 요인이 된다.⁹⁶⁾

국제기구의 조사에 의하면 북한 초중등교육 이수율 및 출석률은 다음 <표 V-2>와 같이 매우 높다. 각급 학교 이수율과 출석률이 높은 것은 초중등교육이 의무교육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95) 정근식 외, 『북한사회변동 2017: 시장화, 정보화, 사회분화, 사회보장』 (서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8), pp. 110~111.

96) 조정아·최은영, 『평양과 혜산, 두 도시 이야기: 북한 주민의 삶의 공간』 (서울: 통일연구원, 2017), pp. 138~139. 이와 관련하여 2017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북한에 대해 학교들이 비용, 식품 및 물품 기여를 요청하는 것들을 금지시키도록 하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한동호 외, 『북한인권백서 2018』 (서울: 통일연구원, 2018), p. 259.

<표 V-2> 북한 초·중·고등교육 이수율 및 출석률

(단위: %)

구분	소학교	초·중학교	고급중학교
이수율	100.0	99.8	99.9
출석률(NAR)	96.7	96.1	94.8

자료: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of the DPR Korea and UNICEF, *DPR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17, Survey Findings Report*, pp. 119~120.

그러나 탈북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위의 통계수치가 보여주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부모가 각종 교육지원 부담을 감당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거나 학생이 장사나 농사일 등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빈곤계층 아동들의 경우, 장기간 결석을 하거나 아예 공교육망에서 벗어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⁹⁷⁾

도·농 교육격차

북한 당국은 2016년 제7차 당대회에서 교육 부문의 과제 중 하나로 ‘중등교육에서 도농격차 해소’를 제시한 바 있다. 북한의 교육계에서는 농촌학교의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원인으로 “교육사업을 맡은 교원들의 무책임성”과 “농촌학교들의 교육조건과 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져있지 못한 것”을 들고 있다.⁹⁸⁾ 탈북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경제

97) 국제기구의 조사에 의하면, 기준시간 이상의 경제행위, 가사노동, 유해한 노동환경 하의 노동을 하는 아동노동 비율은 소득 상위 40% 집단에서는 1.3, 중위 40% 집단에서는 5.6, 하위 20% 집단에서는 10.9로, 경제적 계층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행위와 유해노동의 연령구간별 기준시간은 경제행위의 경우 5-11세는 일주일 기준 1시간 이상, 12-14세는 주당 14시간, 15-17세는 주당 43시간, 가사노동의 경우 5-14세는 일주일 기준 28시간, 15-17세는 43시간이다.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of the DPR Korea and UNICEF, *DPR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17, Survey Findings Report*, p. 137.

98) 리길준, “중등교육수준에서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울데 대한 사상의 본질적내용,” 『교원선진수첩』, 4호 (2017), pp. 40~41.

난 이후 시장화 과정에서 경제적 계층이나 지역별 교육격차는 상당히 커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는 초중등교육이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볼 때 집단별 교육기회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수재학교’로 불리는 제1중학교⁹⁹⁾와 일반중학교 간, 일반중학교 중에서도 도시와 농촌의 학교 간에는 교육시설, 환경, 교원 수준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탈북교사들의 증언에 의하면, 시장화의 확산으로 경제적 상류층의 주민들이 도시 지역 내에서도 시내 중심구역에 거주하게 되면서, 시내 중심구역의 학교는 학부모들의 지원으로 보다 좋은 교육 환경을 갖추게 되었다. 특히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김정은 집권 이후 한층 강조되고 있는 컴퓨터교육이나 외국어교육에 필요한 컴퓨터, 어학장비 등을 국가의 예산 지원이 아닌 학부모들의 지원으로 갖추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경제적 능력은 곧 학교 시설과 교육 환경으로 직결된다. 교원들 또한 경제적 상류층 학부모들이 많은 학교에 근무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실력 있는 교사들이 제1중학교나 시내 중심구역의 학교에 집중되는 것으로 보인다.

가용할 수 있는 북한의 교육통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역별, 계층별 교육격차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다음 지표는 지역별 교육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제한적으로나마 보여준다. <표 V-3>은 북한의 7-14세 아동의 기초학습능력 조사 결과이다. 기초학습 능력은 기초적 읽기기술 보유 여부와 산수 능력으로 대표된다. 이 표에

99) 영재교육기관인 제1중학교는 1984년 평양제1중학교 신설과 1985년 도별로 1개 교씩 도제1중학교 설립, 1999년 전국 시·군·구역마다 시·군·구역 제1중학교 추가 신설 조치에 따라, 2000년대 초반에는 200여 개로 증가하게 되었다. 제1중학교가 난립하면서 영재교육기관으로서의 의미가 희석되고 일반중학교 교육환경이 악화되는 문제점이 나타나자, 북한 당국은 2000년대 후반에 평양제1중학교, 도제1중학교, 일부 시제1중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구역 제1중학교를 일반중학교로 전환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농촌지역 학생들의 기초학습능력이 도시지역 학생들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한편, 경제적 소득구간에 따른 기초학습능력의 차이는 이 조사에서는 일관된 방향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표 V-3> 지역별, 성별 기초학습능력

구분	기초적 읽기기술 보유			산수 능력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평균	94.8	94.7	94.8	81.9	80.1	83.8
농촌	93.8	93.4	94.1	80.4	78.4	82.4
도시	96.1	96.4	95.7	83.9	82.2	85.6

자료: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of the DPR Korea and UNICEF, *DPR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17, Survey Findings Report*, pp. 126~129.

5. 사교육의 제한적 확산

사교육 확산 실태

북한에서 사교육은 경제난 시기에 등장하였고, 시장화가 진행되어 경제적 여유계층이 형성되면서 확산되고 있다.¹⁰⁰⁾ 사교육 확산 실태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를 확보할 수는 없으나, 북한에서 최근까지 개인 교습 형태의 사교육을 직접 수행했던 교원들의 증언이나 탈북민 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들어 대도시의 중상류계층을 중심으로 사교육이 확산되는 추세를 알 수 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탈북한 탈북민 중 북한에서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킨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 비율은 2014년 20.4%, 2015년

100) 경제난 이전 시기에도 기악 등 예술 분야처럼 한정된 분야에서 개인지도가 이루어 지기는 했지만, 이는 특정한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공교육 전반과의 연계성이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경제난 시기에 등장한 사교육과는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27.7%, 2016년 21.3%, 2017년 28.1%로, 대체적으로 2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¹⁰¹⁾ 사교육 경험은 자신이 상층이라고 인지하는 집단에서 33.3%로 가장 높았지만, 중층이라고 인지하는 집단에서도 25.8%로 나타났다.¹⁰²⁾ 탈북민의 사회경제적 구성이 북한 주민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결과를 북한 주민의 20% 이상이 사교육 경험이 있다고 확대해석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조사 결과에서 사교육 경험자가 최근 몇 년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과 사교육이 경제적 상층 집단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서 개인교습 형태의 사교육은 법으로 금지된 행위이다. 2011년에 제정된 보통교육법 제52조와 53조에서는 “리기적인 목적으로 비법적인 개인교수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행정처벌이나 형법상의 처벌을 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주도의 교육체계 운영을 교육의 원칙으로 천명하고 있는 북한에서 이와 같이 ‘이기적 목적’의 개인교습을 금지한다는 것이 법으로 명문화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사교육의 확산을 반증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탈북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사교육이 확산된 정도는 지역마다 크게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대도시에서는 낮설지 않은 현상인 듯하다. 같은 시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사교육의 정도는 차이가 많아, 농촌지역이나 시내를 벗어난 지역에서는 사교육을 받는 학생이 학교당 몇 명, 또는 한 학급당 한두 명 정도이지만, 시내 중심구역의 중학교에서는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주요 교과와 음악, 컴퓨터 등의 사교육을 받는다는 증언이 있다.

101)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7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변화 “병진노선”의 두 얼굴,” p. 102.

102) 위의 글, pp. 57~59.

사교육 양상

2000년대 초반 시기의 사교육 양상과 비교할 때, 현재 사교육은 양적인 면에서 확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초기에는 대부분 교원 또는 대학생들이 본래의 직업을 유지하면서 부업 형태로 개인지도를 했던 데 비해, 지금은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사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과외교사들이 나타났다. 특히 공교육 체계에서 교사로 일하다가 경제적인 이유로 퇴직한 교사들이 10~20명 이상의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교습하는 경우도 있다. 과외교사의 평판을 들은 학부모들이 과외교사를 찾아가 개별적으로 자녀를 맡기는 식으로 사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잘 가르친다고 소문이 난 과외교사들에게는 학생들이 몰리고, 교육의 효과가 나지 않으면 금세 학생들이 줄어든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과외교사들은 학생 개개인의 수준과 제1중학교 입시 또는 대학입시 대비 등과 같은 교육 목표에 따라 차별화된 교재를 사용하고, 중국에서 구한 참고도서를 직접 번역해서 교재로 활용하는 등 교육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다고 한다.

사교육이 이루어지는 형태를 살펴보면, 학생 한두 명이 교사의 집에 가서 배우는 형태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시간대별로 그룹을 형성하여 특정한 공간에 모여서 개별지도를 받는 공부방 형태로도 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후자의 경우에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에 따라 아침, 오후, 저녁조가 구성되고, 조별로 교사의 수업과 개별지도가 병행된다.

경제난 시기에는 사교육의 대가로 식량이나 생활필수품이 현금을 대체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일정한 액수의 현금이 지불된다. 수업료는 도시 중심지역인지 외곽인지, 과외교사의 명성과 과목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전국적으로 큰 차이는 없는 듯 보인다. 대체로 달러나 위안화로 시세가 매겨지는데, 한 달에 150~200위안 수준이다.

사교육의 종류도 다양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초기에는 악기교습과 수학, 물리 등 대학입시에 필요한 주요 과목을 중심으로 사교육이 이루어졌는데, 최근에는 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와 컴퓨터, 글씨쓰기, 노래부르기, 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교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초급중학교 학생들은 고급중학교 진학 시 제1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고급중학교 학생들은 대학 입시 준비를 위해 수학, 물리, 영어 등 주요 교과목의 사교육을 받는다. 접경지역의 경우, 중국과의 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실용적인 목적으로 초중등학교 교과목이 아닌 중국어를 사교육을 통해 익히려는 수요가 나타났다. 최근 컴퓨터 활용 능력이 강조되면서 컴퓨터 활용과 관련된 개인교습도 증가하였다. 접경지역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광장에 모여서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면서 노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2010년경에는 학생들뿐 아니라 중장년층의 주민들 사이에서 개인 춤 선생에게 춤추는 법을 배우는 춤 교습도 유행하게 되었다고 한다.¹⁰³⁾

사교육 확산의 의미

북한에서 사교육은 법으로 금하고 있는 위법행위이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강한 제재나 처벌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사교육도 학생들을 공부시켜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의 일환이라는 인식을 주민들이 공유하고 있고, 또 개인지도를 받는 학생 중에는 간부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과외교사들이 학부모와의 관계나 뇌물 등을 활용해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지 않다.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인 사교육이 암암리에 성행하고, 사교육을 전담하는 과외교사의 직업적 전문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경제 부문 전반에서 시장화에 따라 서비

103) 조정아·최은영, 『평양과 혜산, 두 도시 이야기: 북한 주민의 삶의 공간』, p. 153.

스업종의 직업 분화와 사적 고용이 이루어지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북한에 사교육이 보편화되었다거나, 북한 교육의 중요한 축을 구성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남한의 학원 같은 제도화된 사교육 기관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사교육 현상의 출현과 확산은 교육에 대한 북한 주민의 인식 변화를 보여주는 징후라는 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북한에서 교육은 국가가 후속세대들을 대상으로 공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함양하고,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길러내는 행위로 인식되어 왔다. 국가가 교육을 전적으로 담당하였고, 그런 점에서 교육은 핵심적인 사회복지 인프라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지금 북한의 일부 학부모들에게 교육은 국가를 대신해서 능력 있는 부모가 자기 자녀의 미래에 대한 투자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일종의 상품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¹⁰⁴⁾

104) 이교덕 외,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pp. 153~154.

The page features a decorative graphic consisting of multiple thin, curved lines that sweep across the page from the top left to the bottom right. Two large, grey, circular elements are integrated into the design: one on the left side, partially overlapping the top curve, and another on the bottom right, partially overlapping the bottom curve. Both circles have a white center and a grey outer ring with a fine grid pattern.

VI. 계층·지역·세대: 변화의 바람이 일상을 바꾸다

사회 구조는 가치와 규범, 행위와 관계, 문화 현상 등을 포함하며, 사회 변동은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구조적 변화이다. 동시대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을 통해 사회 변화의 흐름을 체감한다. 변화의 바람은 북한 주민의 일상을 바꿔놓았다. 이제 북한에서는 식량을 얻기 위해 양정소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 2014년 3월 5일 토지개혁법령 발표 68주년을 맞아 북한 지도부가 ‘쌀은 국력이고 사회주의다’라는 구호를 외쳤을 정도로 먹는 문제는 민심의 바로미터이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시장에서 스스로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제 북한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시장이 잘 돌아야 먹고 사는 문제도 잘 풀린다는 생각 정도는 누구나 갖게 되었다.

‘고깃국에 이밥을 먹는 것’이 더 이상 지상낙원에서만 가능한 일이 아닌 현실이 된지 오래다. 비단옷은 아니더라도 기성복 몇 벌 정도는 시장에서 사 입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되었다. 돈만 있다면 내가 살고 있던 살림집을 언제든지 팔고 더 괜찮은 살림집으로 옮길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소위 ‘돈주’라고 불리는 자본가들은 고리대업이나 살림집 건설 사업에 뛰어들어 큰돈을 번다. 정보통신기술의 보급은 자본과 상품의 이동 속도를 가속화하고 소비를 부추긴다. 바야흐로 소비사회가 도래하였다.

진정한 ‘자력갱생’의 시대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북한이 더 이상 ‘평등 사회’가 아님을 실감하며 살아남기 위해 매일 고군분투한다. 적어도 일상생활에서는 국가가 아닌 시장이 자원 분배를 주도하고 비공식 부문에서 획득한 소득이 가계경제를 이끌고 있다. 북한 사회는 한편으로 새로운 가치와 규범이 이전의 것들과 경합을 하고 새로운 분업체제와 행위양식이 점차 보편성을 획득해가며 다원화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먹고 사는 일이라는 이유로 다양한 일탈행위들이 정당화되고, 정치권력과 돈이 결합하여 더 큰 권력을 만들어가고

있다. 자원의 위계적 분배는 북한을 계층사회로 변모시켰다.

계층사회는 불평등을 전제로 한다. 불평등은 소득, 교육, 보건, 정보, 소비 등 사회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불평등은 개인과 가구(household)의 차원을 넘어 도시와 농촌, 대도시와 소도시, 접경지역과 내륙지역 등 지역 차원으로 확대되어 고착되고 있다. 자본과 상품의 이동, 그리고 시장의 규모와 접근성에 따라 지역의 부(富)가 재편되고 있다. 기존에 견고했던 정치적 신분질서에 생긴 균열이 점차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김정일 정권에서 육성되고 있는 ‘새 세대’에서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의 획득과 보유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1. 밥상의 빈부격차

유명무실화된 배급제

과거 북한 주민의 밥상은 배급표에 의해 차려졌다. 일반 노동자 가구의 밥상에는 입쌀과 잡곡이 3:7로 섞인 주식이 올라오고, 배급 받은 된장과 식용유로 조리한 몇 가지의 부식물이 올라왔다. 1년 중 명절과 생일날에 고깃국 먹는 것이 큰 기쁨이었다. 만일 옆집의 세대주가 사무원이라고 해서 더 많은 입쌀을 먹고 고기를 더 자주 먹는 것은 아니었다. 배급제는 소수의 특권층 가구를 제외한 전국 가구에 ‘평균적 밥상’을 제공했다. 적어도 1990년대 이전에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먹는 것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거나 기아에 허덕이는 일은 없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서면서 서서히 ‘평균적 밥상’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배급이 한두 달 미뤄지고, 6개월이 밀리고, 1년에 1~2번씩 나오다가 ‘고난의 행군’ 시기를 맞으며 결국 배급이 멈췄다. 노임(급여) 지불도 이뤄지지 않았다. 일반 노동자라면 하루 700g의 양표(糧表)가 지급된다. 이 배급량마저 김정은 정권 들어서 450g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식량배급소인 양정소가 텅텅 비어있다. 배급표는 그저 종이딱지에 불과하다. 노임표에는 월 급여액이 기재되어 있으나 여러 가지의 할당된 과제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나면 실제 지불금액은 “0원”으로 처리되어 있다.¹⁰⁵⁾ 설령 월 노임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더라도 급여 수준이 몇 천원에 불과하며, 그 돈으로 쌀이나 강냉이(옥수수) 1kg을 사기도 어렵다. 1990년대 말~2000년대 초에 kg당 2,000원대 수준이었던 쌀값은 2010년 이후 kg당 5,000원을 넘겼다.

<표 VI-1> 북한의 배급제: 급수별 1일 식량 공급량

급수	공급량	대상자
1급	900g	유해 직종 종사자, 중노동자
2급	800g	탄광·광산 운반공, 중장비 운전자
3급	700g	일반 노동자
4급	600g	대학생, 연로보장 근로자, 환자
5급	500g	중학생
6급	400g	소학생
7급	300g	연로 보장자, 전업 주부, 유치원생
8급	200g	1~4세 어린이, 죄수
9급	100g	1세 미만의 유아

자료: 통일교육원, 『2016 북한이해』 (서울: 통일교육원, 2016), p. 309.

시장으로 달라진 밥상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북한 주민의 밥상은 식량배급소가 아닌 시장에 의해 차려졌다. 시장에 가야 식량을 구할 수 있고 식량을 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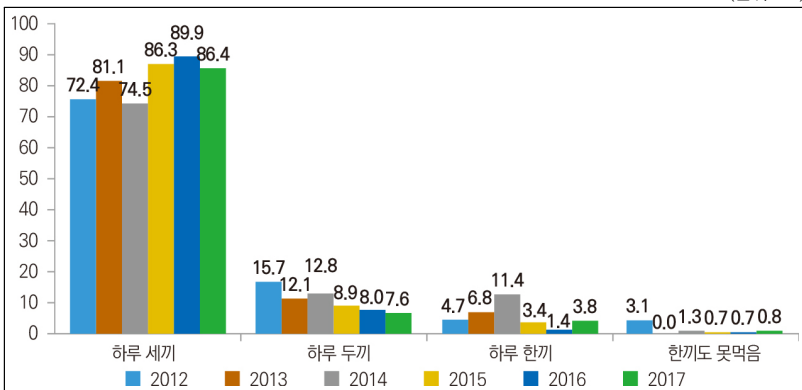
105)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매년 발표하는 조사에 의하면 김정은 정권 들어 공식 직장에서 받은 월평균 급여가 0원인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50%를 넘는다. 구체적으로 연도별 급여수준이 0원인 응답률이 2013년 51.9%, 2014년 61.1%, 2015년 54.8%, 2016년 58%, 2017년 47%로 나타났다. 정동준 외, 『북한주민의 통일외식 2017』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8), p. 30.

수 있는 돈을 벌 수도 있게 되었다. 거의 모든 북한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투 잡’(two jobs)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공장·기업소·농장·기관 등에 적(籍)-문건 상에 존재하는 소속기관-을 두고 있으면서 장사 또는 부업 등의 비공식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대놓고 비공식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직업 종사자들-예를 들어, 교사, 의사, 공안기관 및 당 일꾼 등-은 지위를 이용하여 뇌물로 부수입을 얻는다. 시장의 확산과 비공식 경제활동으로 인해 과거 배급 시기에 비해 북한 주민의 식생활은 크게 개선되었다.

<그림 VI-1>과 <그림 VI-2>를 보면, 2010년 이후 북한 주민의 식생활은 전반적으로 양적인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으며, 축산과 수산업의 증산으로 고기 섭취의 양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은 정권이 안정기에 들어선 2015년 이후에는 하루 세끼 식사가 가능했다는 응답률이 86%를 상회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고기 섭취 횟수 역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거의 매일 섭취” 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 이후 섭취 횟수가 뚜렷하게 증가했다.

<그림 VI-1> 북한 주민의 하루 식사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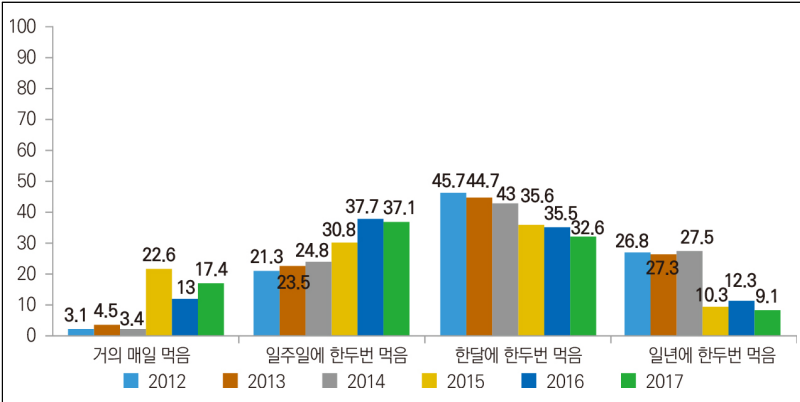
(단위: %)



자료: 정근식 외, 『북한사회변동 2017: 시장화, 정보화, 사회분화, 사회보장』, p. 35.

<그림 VI-2> 북한 주민의 고기 섭취 횟수

(단위: %)



자료: 정근식 외, 『북한사회변동 2017: 시장화, 정보화, 사회분화, 사회보장』, p. 37.

소득 불평등과 식생활의 양극화

비공식 경제활동으로 인해 북한 주민의 소득 불평등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북한사회변동조사’(2012~2016년)에서 주관적 계층인식과 비공식 소득 분포를 비교한 결과를 보면, 월평균 비공식 소득이 ‘100만원 초과’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층 36.4%, 중층 17.5%, 하층은 2.2%로 나타났다. 특히, 비공식 경제활동을 통해 중층의 소득 증가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100만원 초과’의 응답률이 2012년에는 3.6%에 불과했으나 2016년에는 21.5%로 크게 증가했다.¹⁰⁶⁾

소득의 차이로 인한 밥상의 빈부격차 역시 뚜렷해졌다. 상층은 기본적으로 쌀밥을 주식으로 하고, 고기나 과일 등 다양한 부식물을 섭취하는 등 식생활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으며, 아이스크림이나 커피 등의

106) 장용석 외, 『북한사회변동 2016: 시장화, 정보화, 사회분화』(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7), p. 83.

기호식품도 즐긴다. 평양 시민의 경우 피자, 스파게티, 햄버거, 콜라 등 고가(高價)의 외국 요리 전문식당에서 외식을 하기도 한다. 반면에 중류층은 세끼의 쌀밥을 먹을 수 있지만 다양한 부식물을 섭취하지는 못하며, 한 달에 한두 번 이상은 고기를 섭취할 수 있다. 하층은 강냉이 밥과 같이 잡곡 위주의 주식만을 섭취하고, 고기는 거의 섭취하지 못한다.

불행하게도 밥상의 빈부격차는 더 이상 국가의 조정이나 분배체제로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고 북한 주민들이 과거와 같이 식량배급 체제로의 회귀를 원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여느 사회와 마찬가지로 북한 사회에서도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부패 척결만이 밥상의 빈부격차 문제를 다소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 Ⅵ-1> 밥상의 빈부격차



* 평양에 있는 이탈리아 요리 전문식당으로 부유층이 주로 이용한다.



* 많은 하층민들이 강냉이밥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다.

자료: 연합뉴스 제공

2. 부동산 열풍! 사유재가 된 살림집

성공의 지표가 된 아파트

원칙적으로 북한에서 주택(살림집)은 국가가 배정한다. 쉬운 말로 표현하면, 북한의 주택정책은 ‘국가임대주택제도’라고 할 수 있다. 직장배치나 결혼을 통해 입사증(入舍證)을 발급받은 주택에 거주하는 대가로 일정한 주택사용료를 국가에 지불한다. 주택의 유형과 규모는 철저하게 권력과 정치적 요소에 의해 조정된다. 권력의 크기가 클수록, 지위가 높을수록, 당과 국가에 대한 충성도가 높을수록 좋은 집이 배정된다. 하지만 이 원칙은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급속도로 균열되기 시작했다. 시장화는 북한을 소비사회로 변모시켰으며, 살림집 역시

소비사회에서 사고팔 수 있는 중요한 재화가 되었다.

2000년 이후 살림집은 부의 과시와 성공의 욕망을 부추기는 상징이 되었다. 2006년 칸 국제영화제에서 소개된 북한 영화 ‘한 녀학생의 일기’에서 중요한 모티브로 등장하는 아파트는 신분 상승의 욕망과 충성에 대한 보상의 표징이다. 평양의 미래과학자거리와 려명거리에 들어선 화려하고 웅장한 신축 고층아파트는 끊임없이 북한 인민들의 상승과 과시의 욕망을 자극함으로써 당과 국가의 정책과 노선에 자발적 순응을 이끌어내는 소비시대 새로운 유형의 이데올로기 도구라 할 수 있다.

<사진 VI-2> 평양의 미래과학자거리와 려명거리



* 미래과학자거리는 2015년 10월에 완공되었고 대동강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장 높은 건물은 53층이다.



* 려명거리는 평양 룡남산지구에 위치한 신도시로 2,800세대의 살림집과 40개의 공공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7년 4월에 완공되었다.

자료: 연합뉴스 제공

북한 중앙통계국과 유엔인구기금(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이 공동으로 조사 발표한 『2014년 북한의 경제·사회·인구·보건 조사보고서』(원제: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ocio-economic,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2014, 이하 2014 SDHS 보고서)에 의하면, 주택 유형별 비중은 연립주택 41.7%, 단독주택 32.8%, 아파트 25%이며, 평양의 경우는 아파트의 비중이 62.9%로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고, 황해북도와 양강도의 경우는 아파트의 비중이 12% 안팎으로 평균 비중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일이 통치했던 2008년에 실시된 인구일제조사에서 파악된 주택 유형별 비중은 연립주택 43.8%, 단독주택 33.8%, 아파트 21.4%로 2014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 연립주택의 비중은 줄고 아파트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2> 주택 유형별 비중 변화

(단위: %)

구분	연립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2008년	43.8	33.8	21.4
2014년	41.7	32.8	25.0

자료: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of the DPR Korea and UNFP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ocio-economic,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2014* (Pyongyang: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2015), p. 13.

열악한 살림집 주거환경

김정은 집권 이후 아파트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주거 인프라의 수준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북한 중앙통계국과 유니세프(UNICEF)가 공동 조사한 다중지표군집조사 보고서인 '2017 DPR Korea MICS'에 따르면, 살림집까지 수도관으로 식수가 공급되는 가구 비율은 55.6%에 불과하다.¹⁰⁷⁾ 그런데 2008년 인구일제조사와 2014년 SDHS 보고서를 통해 알려진 개별 수도관을 통한 식수 공급 비율은 각각 84.9%, 82.1%로 오히려 최근에 식수 공급 사정이 더 나빠진 것으로 보인다.

2014 SDHS 보고서에 따르면, 화장실의 경우 수세식의 비중은 63.2%(개별+공동), 재래식의 비중은 36.8%(개별+공동)로 조사되고 있는데, 도시의 경우 수세식 비중이 71.1%인데 반해 농촌은 수세식의 비중이 48.9%에 불과해 도-농 격차가 크다. 게다가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제한적인 북한의 실정을 고려했을 때 수세식 화장실의 기능은 훨씬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 난방 연료의 경우 석탄의 비중이 56.5%, 땔감(목재)의 비중이 48.8%로 나타나고 있으며, 취사 연료 역시 석탄(56%)과 땔감(52.6%)의 비중이 커서 전형적인 후진국 저개

107)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of the DPR Korea and UNICEF, *DPR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17, Survey Findings Report*, p. 142.

발 국가의 주거 인프라 실태를 보이고 있다.

<표 VI-3> 화장실 형태

(단위: %)

구분	도시	농촌	전체
개별 수세식	71.1	48.7	62.5
공동 수세식	1.1	0.2	0.7
개별 재래식	20.6	49.0	31.5
공동 재래식	7.3	2.1	5.3

자료: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of the DPR Korea and UNFP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ocio-economic,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2014*, p. 15.

사고 팔리는 살림집, 사유재가 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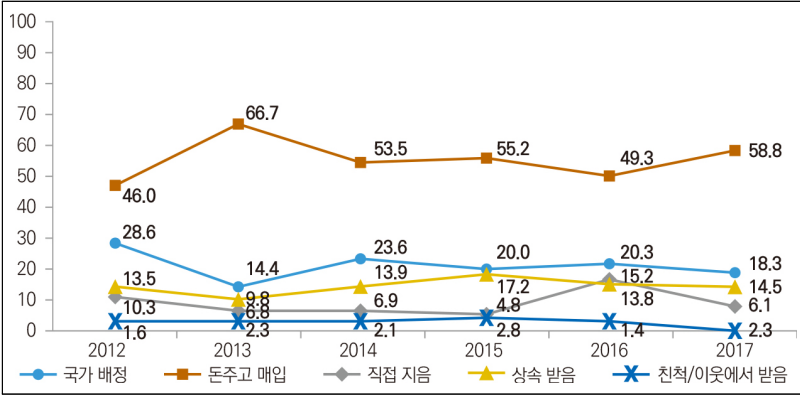
LH토지주택연구원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2015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북한에서 개인 간 거래를 통해 구입한 살림집에서 거주했다는 응답률이 46.4%로 조사됐으며, 국가에서 배정한 살림집에서 거주했다는 응답률은 53.7%로 나타났다.¹⁰⁸⁾ 이 조사 결과는 북한 사회에서 주택(살림집)의 사적 매매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음을 잘 보여준다. 살림집을 개인 간 매매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 행위이다. 2012년에 법률출판사에서 발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에 따르면, “리기적 목적 또는 기타 부당한 목적으로 살림집을 교환하는 행위, 국가 살림집을 팔고 사거나 비법적으로 다른 공민에게 빌려주거나 거간하는 행위” 등을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¹⁰⁹⁾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규정이 현실과 얼마나 유리되어 있는지는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된다.

108) 최상희 외, 『북한주택 현황조사·분석 연구』 (대전: LH토지주택연구원, 2015), p. 93.

109) 법률출판사 엮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전』 (평양: 법률출판사, 2012), p. 742.

<그림 VI-3> 살림집 장만 방법

(단위: %)



자료: 정근식 외, 『북한사회변동 2017: 시장화, 정보화, 사회분화, 사회보장』, p. 49.

주택의 사적 매매가 활성화되면서 주거생활의 계층 간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졌으며, 특히 소득이 낮은 하층의 주거생활이 크게 악화되었다. 또한 선호하는 주거양식의 계층 간 차이도 뚜렷해졌다. 고소득층의 경우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층은 연립주택에서 아파트로의 이동이 뚜렷하고, 아파트의 선호도가 높은 특징을 보인다. 하층의 경우 대다수가 연립주택에 살거나 기타 유형의 살림집(움집, 흙집, 집단수용시설 등)에 거주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민간 자본의 블루오션이 된 부동산

LH토지주택연구원에서 발간한 최상희 외(2015)의 연구¹¹⁰⁾는 2000년대 이후의 북한의 주택현황이 상세하게 총망라되어 있다. 이 연구팀은 평양, 청진, 함흥, 남포, 신의주 등 5개의 도시들에 거주한 2010년

110) 최상희 외, 『북한주택 현황조사·분석 연구』 (대전: LH토지주택연구원, 2015).

이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총 35명을 대상으로 거주실태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국가계획보다는 시장적 요소가 주거생활을 변화시키는 주요한 동인(動因)이다. 주택 공급측면에서 당국의 역할이 축소되고, 대신 신흥 부자(일명 ‘돈주’)와 기관시행자가 투자자를 모집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신규주택 건설에서 국가의 비중은 20% 내외로 파악되며, 계획에 의한 국가 주택 배정이 줄어들고 시장을 통한 공급과 자조주택 건설의 비중이 커졌다.

신축 주택뿐만 아니라 기존의 주택들도 돈주들에게는 실속 있는 투자 상품이다. 해외로의 인구 유출이 증가하고 인구 이동이 잦아지면서 빈집들이 늘어나자 돈주들은 빈집들을 싸게 사들여 리모델링한 후 비싸게 되파는 등 부동산 시장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교통수단과 상권 접근성은 주택 가격을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요인이 되고 있다. 북한 사회에서도 살림집이 거주 목적보다 재테크의 수단으로 더 중요하게 인식되는 날도 그리 멀지 않아 보인다.

3. 부(富)의 재편: 지역 불평등의 가속화

심각한 도-농 격차

사회주의국가에서 배급제와 계획경제와 같은 강제적 자원 배분 방식은 개인 차원에서 생활의 평준화와 지역 차원에서 ‘균등발전’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평양시민을 제외한 북한의 지방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양식은 놀라울 정도로 동질적이었다. 자연환경, 지리적 입지 조건, 지하자원, 산업구조, 교통인프라, 인구 등에서 지역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와 배급제가 지역 간 차등 발전을 억눌렀다. 하지만 ‘고난의 행군’ 시기를 지나 시장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지역의 잠금장치가 풀리기 시작하였다. 결과적으로 시

장 발달과 상품 유통의 용이성은 지역 간 부(富)의 불균등 분배를 초래하면서 지역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도-농 격차는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유니세프가 발표한 ‘2017년 북한 다중지표군집조사(2017 DPR Korea MICS)’ 보고서에는 흥미롭게도 이전 조사 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던 ‘Wealth Index’가 포함되었다. 이 지표는 각 가구의 전기 사용, 취사 연료, 인터넷 접근, 바닥 및 지붕 그리고 외벽의 주요 재료, 침실 수 등의 요소 등을 평가하여 재력 분포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표 VI-4>의 지역별 재력 분포를 보면, 최상위 40%에 속하는 가구가 도시의 경우 60%인 반면 농촌은 8.8%에 불과하고, 반대로 최하위 20%에 속하는 가구의 비중이 도시는 6.4%에 불과한 반면 농촌은 41.2%에 달하는 것으로 대조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행정지역별 재력 분포를 보면, 최상위 40%에 속하는 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단연 평양시로 86.2%에 달한다.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지역은 함경북도와 평안북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두 지역은 산업과 무역이 발달한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중위 40%에 속하는 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황해북도이고, 다음으로는 평안남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 두 지역은 평양시를 둘러싸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위 20%에 속하는 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양강도로 나타났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접경지역이라 무역이 발달할 수 있는 입지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 및 공업, 교통이 발달하기 어려운 자연·지리적 조건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표 VI-4> 지역별 재력 분포

(단위: %)

구분	최하위 20%	중위 40%	최상위 40%	전체
전체	20.0	40.0	40.0	100.0
도시	6.4	33.5	60.0	100.0
농촌	41.2	50.0	8.8	100.0
양강	63.2	18.9	17.8	100.0
함북	17.3	41.3	41.4	100.0
함남	28.9	39.4	31.7	100.0
강원	21.8	39.1	39.1	100.0
자강	32.0	37.9	30.1	100.0
평북	15.6	44.0	40.4	100.0
평남	9.7	55.7	34.6	100.0
황북	9.3	58.9	31.8	100.0
황남	47.7	31.1	21.2	100.0
평양	0.4	13.4	86.2	100.0

자료: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of the DPR Korea and UNICEF, *DPR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17, Survey Findings Report*, p. 19.

시장이 지역의 빈부격차를 만든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유니세프의 2017년 다중지표군집조사에서 재력 수준을 분류하는데 고려된 사항들이 대부분 하드웨어적 요소들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장 발달, 상품 및 화폐 유통, 자본 축적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들이 지역별 재력 수준을 평가하는데 포함된다면 그 결과는 위의 유니세프가 발표한 조사 결과와는 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보편적으로 재력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가구 소득이 유니세프의 조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은 치명적인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구들이 비공식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를 통해 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현실적 제약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도 오래 전부터 지역별 부(富)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져왔다. ‘북한사회변동조사’는 지역별 부의 수준을 북한 주민의 주관적 평가를 통해 파악하였다. 그 결과는 위의 유니세프 조사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다. 북한 주민의 주관적 평가에서는 유니세프의 조사에서 포함되지 못했던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들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평양을 제외하고 가장 잘 사는 지역(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표 VI-5>에서 보이듯 평안남도가 36.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함경북도(20.8%), 평안북도(16.8%), 양강도(15.9%)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인 평양과 인접하거나 중국과 접경지역이 잘 사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간 정도 잘사는 지역(도)에 대한 인식은 양강도와 함경북도가 모두 24%로 동률로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다. 두 지역은 모두 중국과 접경지역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가장 못사는 지역(도)에 대한 인식은 강원도가 38.8%로 다른 지역들과 큰 격차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황해남도(14.1%)와 자강도(12.8%)가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세 지역은 평양과 멀리 떨어져 있는 내륙지역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강원도와 황해남도는 남한과 군사분계선을 맞닿고 있는 연선지역이고 자강도는 군수공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모두 국가 통제가 심한 곳들이다. 또한 이 지역들은 인구의 이동이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시장과 무역이 발달하지 못했다.

<표 VI-5> 행정구역(도)별 재력 수준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평남	평북	함남	함북	자강	양강	황남	황북	강원
가장 잘사는 지역	36.1	16.8	3.9	20.8	4.6	15.9	1.0	0.6	0.3
중간 정도 잘사는 지역	11.6	11.0	11.0	24.0	8.3	24.0	3.7	3.0	3.3
가장 못사는 지역	0.9	1.4	8.6	5.6	12.8	8.6	14.1	9.3	38.8

자료: 장용석 외, 『북한사회변동 2016: 시장화, 정보화, 사회분화』, pp. 141~143.

다음으로 평양시를 제외한 시(市) 단위별 부의 분포 수준을 파악한 결과를 보면, 가장 잘 사는 시는 나선시(36.3%), 신의주시(28.5%), 평성시(13.1%) 순으로 나타났다. 나선시와 신의주시는 대표적인 접경 도시로 상품과 자본의 이동이 활발하며, 평성시는 평양의 관문도시로 평양으로 들어오려는 인구와 상품이 집결하는 곳으로 큰 물류시장이 형성된 곳이다. 중간 정도 잘 사는 시로는 청진시(19.4%)와 혜산시(17.8%)로 무역이 발달한 도시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가장 못사는 시는 사리원시(25.9%)로 농업도시라는 특성을 지닌다. 이 결과는 같은 조사에서 북한에서 가장 못사는 직업 1순위로 농장원이 꼽히는 응답결과(57.4%)와 일맥상통한다. 북한에서 농촌은 그들 용어로 '한심한 곳'이며, 농장원은 가장 열등한 직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표 VI-6> 행정구역(시)별 재력 수준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신의주	청진	라선	혜산	원산	남포	평성	사리원	개성
가장 잘사는 시	28.5	5.8	36.3	8.3	2.4	2.1	13.1	0.6	3.0
중간 정도 잘사는 시	15.4	19.4	15.3	17.8	5.0	4.9	16.2	2.9	3.1
가장 못사는 시	1.7	8.6	1.7	17.2	18.9	10.3	2.9	25.9	12.9

자료: 장용석 외, 『북한사회변동 2016: 시장화, 정보화, 사회분화』, pp. 144~146.

내구소비재로 본 지역별 생활수준 격차

유니세프가 발표한 북한의 2017년 다중지표군집조사는 북한의 지역별 생활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특히 지역별 가구 및 개인 재산 현황 지표는 북한 주민의 주관적 인식 차원에서 파악된 지역별 부의 분포 결과와 달리 지역 간 생활수준 차이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표 VI-7>은 TV, 냉장고, 냉동고, 전기밥솥, 세탁기, CD재생기 등과 같은 가구 내구재뿐만 아니라 경작지, 가축 등과 같은 가구 소득원, 손목시계와

같은 사치품, 그리고 자전거, 오토바이, 달구지 등의 이동 및 운송 수단, 마지막으로 컴퓨터와 핸드폰과 같은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등의 가구별 보유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표 VI-7〉에서 왼쪽의 끝 열은 전체 평균 재산 보유율을, 오른쪽의 끝 열은 평양시의 재산 보유율을 나타낸다. 한눈에도 평양시 가구 및 개인의 재력 수준이 다른 지역들에 비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다. TV를 제외한 냉장고, 냉동고, 전기밥솥, 세탁기 등과 같은 내구재의 경우 평양의 보유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전기 공급 여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대부분의 지방 도시들이 전기 공급이 원활치 않아 자체 발전기나 축전기를 이용해 제한적으로 전기 사용을 하고 있어 TV나 라디오 외의 전기제품은 거의 사용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개별 이동수단인 자전거의 경우는 모든 지역들이 평양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평양에는 자동차, 버스, 택시, 지하철 등 현대화된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는 반면 지방은 대중교통의 인프라가 열악하기 때문에 이동 시 자전거가 활성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평양을 제외한 지역들에서는 농업이 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황해 남도가 재산 보유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양과 지방 간의 생활수준 차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이다. 내구재의 보유 현황을 보면, TV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내구재들의 보유율이 도시에 비해 농촌에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세탁기의 경우 도시의 보유율은 22.6%인 반면, 농촌은 3.9%에 불과하다. 세탁기의 사용은 수도화의 수준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유니세프의 2017년 북한 MICS 보고서에 따르면, 살림집까지 수도관을 통한 물 공급률은 도시의 경우 66.4%, 농촌의 경우 38.7%로 크게 차이가 난다.¹¹¹⁾

111)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of the DPR Korea and UNICEF, *DPR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17, Survey Findings Report*, p. 142.

자전거는 농촌(85.7%)의 보유율이 도시(81.4%)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 VI-7> 지역별 가구 및 개인 재산 현황

(단위: %)

구분	전체	도시	농촌	양강	함북	함남	강원	자강	평북	평남	황북	황남	평양
TV	98.2	98.7	97.3	97.8	98.3	98.4	97.4	96.4	98.7	98.2	96.8	97.9	100
냉장고	30.3	37.7	18.4	20.0	27.9	25.5	30.1	27.9	23.1	32.5	21.3	19.1	59.3
냉동고	21.6	26.8	13.2	12.4	19.3	14.5	17.8	17.7	17.1	21.5	15.0	12.5	52.1
전기밥솥	62.6	69.7	51.1	70.3	64.3	63.6	63.6	69.5	62.5	52.5	54.2	44.7	88.0
세탁기	15.5	22.6	3.9	11.2	12.3	10.7	14.2	16.6	7.1	17.9	7.4	4.3	42.6
CD재생기	75.5	79.9	68.4	72.7	72.6	68.5	82.1	79.8	78.3	77.6	65.4	63.9	91.0
경작지	53.7	29.7	92.5	54.8	48.1	64.8	54.4	59.7	62.5	53.4	62.6	68.5	18.8
가축	53.9	33.1	87.6	50.6	52.6	61.9	57.5	62.3	52.4	54.3	68.7	73.0	17.8
손목시계	66.1	70.4	59.1	80.1	65.8	72.0	68.9	71.8	63.9	53.0	54.2	58.6	87.0
자전거	83.1	81.4	85.7	72.6	81.9	88.8	89.4	77.7	83.1	87.5	87.4	86.3	68.4
오토바이	5.2	6.0	3.9	2.3	5.3	3.6	4.0	8.6	5.0	6.7	3.7	8.2	3.8
달구지	1.0	0.8	1.3	2.9	1.4	0.9	0.6	3.8	0.6	1.4	0.1	0.2	0.4
컴퓨터	18.7	25.2	8.3	15.9	19.1	15.9	17.0	21.2	12.4	19.1	13.3	9.5	37.7
핸드폰	66.4	77.7	48.1	59.3	71.8	67.4	69.7	64.8	63.2	64.4	51.2	52.2	89.7

자료: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of the DPR Korea and UNICEF, *DPR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17, Survey Findings Report*, p. 18.

지역별 정보 불평등

김정은 정권에서 정책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정보화의 진행 역시 지역적 불균형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VI-8>은 지역별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장비와 인터넷 접속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라디오와 TV 보유는 지역 차이가 없이 보편적으로 보급되어 있는 반면에 유선전화, 이동전화, 컴퓨터의 보급은 지역 간 뚜렷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지역 차이는 행정지역 간 차이보다 도-농 간 차이가 훨씬 뚜렷하다. 유선전화의 경우 도시는 61.9%인

반면, 농촌은 18.1%에 불과하고, 이동전화의 경우 역시 도시는 80.4%에 달하는 반면, 농촌은 50.6%로 나타나고 있다. 컴퓨터는 도시의 경우도 보유율이 25.2%로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농촌은 8.3%에 불과해 농촌지역의 정보화 수준이 얼마나 저조한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집에서 인터넷 접속 비율은 지역 간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심지어 평양의 경우도 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북한의 정보 통제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평양은 대부분의 가구가 ICT 장비를 고루 보유하고 있어 정보화의 진행이 평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II-8> 지역별 가구의 ICT 장비 보유와 인터넷 접속 비율

(단위: %)

구분	라디오	TV	유선전화	이동전화	컴퓨터	집에서 인터넷 접속
도시	95.7	98.7	61.9	80.4	25.2	1.8
농촌	91.7	97.3	18.1	50.6	8.3	0.8
양강도	89.9	97.8	38.9	59.9	15.9	0.6
함경북도	94.0	98.3	54.7	73.3	19.1	0.4
함경남도	97.6	98.4	43.2	70.0	15.9	0.4
강원도	95.1	97.4	35.7	75.6	17.0	1.0
자강도	95.0	96.4	39.5	71.5	21.2	3.0
평안북도	93.9	98.7	35.9	65.3	12.4	1.7
평안남도	92.2	98.2	44.6	67.0	19.2	0.4
황해북도	94.3	96.8	33.6	55.8	13.3	0.8
황해남도	89.9	97.9	23.2	52.7	9.5	0.4
평양	96.8	100.0	82.6	90.6	37.7	5.2
전체	94.1	98.2	45.2	69.0	18.7	1.4

자료: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of the DPR Korea and UNICEF, *DPR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17, Survey Findings Report*, p. 31.

이상에서 본 것처럼, 기존에 지역의 평준화와 균등발전을 떠받치던 물적 토대가 붕괴되면서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시장과 무역의 발달이 지역의 부의 분포를 재편하고 있다. 지역의 부의 재편은 생활양식 차원에서 지역 불평등을 낳고 있다. 전통적으로 공업이 발달했던 지역은 계획경제의 침체로 더 이상 과거의 위상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평양시와 같이 큰 소비시장과 인접해 있거나 상품과 자본의 이동이 용이한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들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상업화라는 큰 흐름에 합류하지 못하고 격리되어 있는 농촌 지역은 과거나 현재나 여전히 가장 낙후한 곳으로 머물고 있어 도-농의 불균등 발전은 향후에 북한에서 가장 ‘핫’한 불평등 영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4. 소비의 계층화

소득 불평등과 사회계층화

북한 공식문헌에서 계층이라는 용어는 찾아보기 힘들다. 심지어 북한의 『조선대백과사전』(2004년)에서조차 계층이라는 용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반면에 사전에는 ‘계급’, ‘계급분화’, ‘계급사회’ 등의 용어들에 대한 정의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흥미롭게도 북한 공식문헌에서 계층의 용어가 등장하는 곳은 『정치사전』(1973년)이다. 북한의 『정치사전』에서는 계층을 “어느 계급에도 속하지 않는 사회적 집단”이라고 정의하면서 “계층은 독자적인 사회정치적 세력으로 될 수 없다. (중략) 사회주의사회에는 오직 노동자, 농민에게 복무하는 근로인테리만이 계층으로 남아있게 된다”¹¹²⁾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112)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 185.

같이 정치적 의미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던 계층이 21세기 이후 시장의 등장과 함께 북한 사회에 ‘부활’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변화이다.

계층은 재산, 권력, 위신 등과 같이 경제·정치·사회적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로 인한 서열화 된 위계적 집단이다. 배급이 아닌 시장 중심의 분배방식은 북한 사회를 점진적으로 계층화한다. 시장의 등장은 북한 사회를 빠르게 소비사회로 변모시켰다. 장 보드리야르는 『소비의 사회』에서 사물 앞에서는 불평등이 존재하며, 소비의 대상이 지위의 계층화를 만든다고 지적한 바 있다.¹¹³⁾ 공식 소득이 사실상 기능적으로 유명 무실화되고 비공식 소득이 가계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가구별 소득 격차는 빠르게 증가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된 『통일 대비 복지욕구 조사』(2017년)에 따르면, 국가에서 지급받은 공식 소득의 분포는 전체 북한이탈주민 응답자 100명(2015~2016년 탈북) 중 월평균 가구 수입이 0원인 경우가 60%에 달했으며, 그 다음으로 5천 원 이하가 32%, 10만 원 이하가 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비공식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월평균 소득은 전체 응답자 중 50만 원 이하가 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100만 원 초과가 22%, 100만 원 이하가 13%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¹¹⁴⁾ 이처럼 북한 사회에서 가구별 공식 소득과 비공식 소득의 격차는 엄청나다.

계층화된 소비사회의 도래

소득의 차이로 인해 소비의 계층화가 현실화되었다. 특히 의식주 생활에서 계층화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글에서 사용하고 있는

113) 장 보드리야르, 이상률 옮김, 『소비의 사회: 그 신화와 구조』(서울: 문예출판사, 2015), p. 78.

114) 소성규, 『통일 대비 복지욕구 조사』(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pp. 36~39.

상, 중, 하의 계층 구분은 조사 응답자가 탈북직전 시기에 자신이 속했던 계층을 주관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주관적인 계층의식 또는 귀속적 계층이다. 식생활과 주거생활에서 나타나는 계층별 차이는 위에서 다뤘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한다. 소비의 계층화 현상은 의류 소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소득수준에 따라 고급 의류 소비와 대중 의류 소비로 양분되어 있다. 상층 주민의 경우 남한산과 일본산의 의류 소비가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하층의 경우는 북한산 의류 소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옷의 구입처 항목에서도 백화점이나 해외에서의 직접 구입 응답은 상층에서만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진 Ⅵ-3> 소비의 계층화



* 평양제1백화점에서 쇼핑하는 평양시민들



* 대형마트인 광복지구상점중심에서 계산 중인 북한 주민들



*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북한 종합시장의 채소 매대

자료: 백화점 및 대형마트 사진은 연합뉴스 제공, 종합시장은 KBS <<http://d.kbs.co.kr/news/view.do?ncd=3453993>>

소비의 계층화는 한류 소비에서도 발견된다. 북한의 시장에서 남한산 상품은 중국산이나 북한산 상품에 비해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지위에 따라 남한산 상품의 구매력의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계층 간 남한산 상품의 소비 경험 응답률에서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였다. <표 VI-9>에서 보이듯 남한산 상품의 소비 경험에 대한 계층별 응답률을 살펴보면 상층 83.3%, 중층 71.3%, 하층 47.7%로 나타나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남한산 상품에 대한 소비 경험이 늘어난다. 남한산 상품의 소비 경험의 차이는 남한 사회에 대한 인식의 차이뿐만 아니라 남북한 통합에서 이질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VI-9> 계층별 남한상품 소비 경험 비교

(단위: 명, %)

경험 유무 \ 계층 구분	상층	중층	하층	합계
있다	25(83.3)	204(71.3)	51(47.7)	280(66.2)
없다	5(16.7)	82(28.7)	56(52.3%)	143(33.8)
합계	30(100.0)	286(100.0)	107(100.0)	423(100.0)

자료: 장용석 외, 『북한사회변동 2016: 시장화, 정보화, 사회분화』, p. 91.

북한 주민의 월소득 중 지출내역을 보면 북한 주민의 소비생활 패턴을 파악할 수 있는데 월 지출내역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이다. 하지만 계층 간 비중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상층 42.1%, 중층 70.8%, 하층 84.8%로 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가계 전체 지출 중 의식주와 같은 기초생활 유지를 위한 지출 비중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한편, 흥미로운 분석결과 중 하나는 가계 지출내역 중 자녀교육 지출 비중이 중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사회와 마찬가지로 북한 주민에게 교육은 중요한 계층 상승의 사다리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정치적·경제적 자원이 상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중층이 교육을 통한 계층상승의 욕구가 높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중층은 소비품 소비에서도 다른 계층과 차이를 보인다. 중국 사회의 경우 중간계층에서 고급 내구소비재의 구입 성향이 뚜렷하고 소비의 고급화를 주도하는 특징을 보이는데, 북한 사회에도 중층에서 그러한 성향이 발견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전체 가계 지출내역에서 사치품 소비의 비중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로서, 상층 0%, 중층 3.2%, 하층 0%로 나타났다.¹¹⁵⁾

재력 수준별 정보화

유니세프가 발표한 2017년 북한의 다중지표군집조사 보고서를 보면, 재력수준별 가구의 ICT 장비 보유율과 가정에서의 인터넷 접속 비율이 제시되고 있다. <표 VI-10>에서 나타나듯 라디오와 TV는 재력 수준의 차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대부분의 가구들이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유선전화와 이동전화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관련 장비의 보유율은 재력 수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흥미로운 것은 유선전화에서 나타나는 재력 수준별 보유율 격차보다 이동전화의 보유율 격차가 다소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동전화의 빠른 보급으로 인해 유선전화의 유용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컴퓨터의 경우 ICT 장비들 중에서 가장 보유율이 낮다. 최상위 40% 집단의 컴퓨터 보유율이 35%이며, 최하위 20% 집단에서는 4.6%로 거의 미비한 수준이다. 김정일 정권부터 김정은 정권에 이르기까지 정보화 정책이 20여 년 동안 추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화 인프라가 개인 영역에까지는 제대로 보급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집에서의 인터넷 접속율을 보면 재력 수준의 차이와 상관없이 거의 미미한 수준으로, 인터넷은 일종의 소비의 '통제구역'이라 할 수 있다.

115) 정은미, “북한 중간계층의 결정요인과 특성,” 『통일과평화』, 제7집 2호 (2015), pp. 99~100.

<표 VI-10> 재력수준별 가구의 ICT 장비 보유 및 인터넷 접속 비율

(단위: %)

구분	라디오	TV	유선전화	이동전화	컴퓨터	집에서 인터넷 접속
최하위 20%	86.4	95.8	11.7	36.4	4.6	0.5
중위 40%	94.3	97.8	32.3	66.1	11.0	0.8
최상위 40%	98.1	99.4	77.3	91.2	35.0	2.7
전체	94.1	98.2	45.2	69.0	18.7	1.4

자료: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of the DPR Korea and UNICEF,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17, Survey Findings Report*, p. 31.

5. 새 세대의 욕망이 꿈틀대다

자기 발전을 꿈꾸는 새 세대

2015년에 방영된 북한의 TV드라마 <표창>은 변화한 경제사회 환경에서 나타나는 세대 간 갈등의 원인과 양상, 그리고 새 세대의 가치와 욕망의 지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작품이다. TV드라마 <표창>은 사회진출과 계급이동의 사적 욕망을 꿈꾸는 새 세대의 인민들을 공적 이데올로기에 포섭하고자 하는 의도로 제작되었다.¹¹⁶⁾ 주인공인 강리창은 비료공장의 수리공이다.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도 같은 공장의 수리공이었다. 그는 평소 수리공을 “하찮은 직업”이라고 생각했고 “보다 높은 곳으로 나래치고” 싶은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 그는 삼대째 이어오는 수리공으로서의 삶을 만족하지 못하고 사회적 진출을 희망하며 상급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자기발전의 욕망을 지닌 새 세대의 전형을 상징하다. 드라마에서 강리창은 자연스럽게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고, 그의 연인 안영순은 컴퓨터가 있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휴대전화를 사용

116) 강민정, “소설의 TV드라마화에 반영된 북한 김정은 체제의 정치적 달레마-원작소설 『딸의 고민』과 텔레비전극 『표창』 서사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제64집 (2015), p. 120.

한다. 서사의 개연성과 상관없이 자주 노출되는 현대화된 이미지들은
김정은 체제의 인민들에게 개인의 발전과 계층 이동의 욕망을 자극한다.

생활에서 나타나는 불평등과 상대적 박탈감의 심화는 전통적 가치
에 대한 회의와 함께 새로운 가치로 대치되는 의식의 변화를 동반한다.
북한에서 집단주의는 사회주의체제를 지속시키는 핵심 가치이자 원리
로 인식된다. 하지만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자력갱생의 삶을 강요
받았던 북한 주민의 의식은 개인과 물질(돈)이 국가(당)와 집단이 우선
하던 자리를 빠르게 대치하고 있다. 독일의 사회학자 칼 만하임(Karl
Mannheim)은 세대를 만들어내는 세대성은 세대가 공유하는 공통된
의식에 기반을 둔다고 분석했다.¹¹⁷⁾ ‘장마당’의 등장과 함께 급변하는
경제사회적 환경 속에서 ‘새 세대’가 등장하였고, 새 세대는 김정은
정권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주체이기도 하다.

새 세대의 정체성과 연대의식

김정일이 2012년에 공식적으로 권력 승계를 한 후 첫 번째로 공포한
법령이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2012년 9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 제정)라는 교육 개혁 관련 법령이었
다는 사실은 김정은 정권이 인식하는 새 세대 문제의 위치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개편된 교육제도 하에서는 영어교육과 함께 ‘지식경제시대’,
‘정보산업시대’에 걸맞은 인재양성을 위한 과학기술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새로운 교육제도 하에서 성장한 새 세대들은 이전 세대들과는
다른 국가 연대의식과 정체성을 형성해 나갈 것이다.

김성경의 연구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 장마당을 경험하면서 유년기
를 보낸 북한의 청년세대가 기성세대와 다른 의식과 경험 세계를 구축

117) 카를 만하임, 이남석 옮김, 『세대 문제: 해제·운동론의 관점에서 본 세대론』 (서울: 책세상, 2013), pp. 65~66.

함으로써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집단, 즉 체제의 대항 집단으로 보는 시각이나 주장을 비판적으로 접근한다.¹¹⁸⁾ 그는 20~35세에 해당하는 54명의 북한이탈주민 청년들을 심층면접한 결과, 안정된 사회주의체제를 경험한 기성세대와 시장의 중추세력이 된 ‘혁명 4세대’의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는 불안감을 내재하고 있으면서도, 국가에 대한 감정적 연대의식을 갖고 있는 동시에 시장이 가져다주는 다양성과 풍요로움을 모두 누리하고자 하는 이중적인 행동체계를 보인다. 북한의 청년세대들은 국가 권력의 위력을 인정하고 당원이 되고 싶은 정치적 욕망을 포기하지 않으며, 동시에 ICT와 같은 현대 문물에 대한 관심이 높고 남한 영상물의 소비를 통해 남한의 대중문화에도 노출되어 있다. 청년세대들은 북한에서 ‘문화 소비’의 주체이자 유행을 만들어나가는 선도 집단이기도 하다.

<사진 VI-4> 북한 대학생들의 일상 모습



* 백팩을 메고 등교하는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

118) 김성경, “북한 청년의 세대적 ‘마음’과 문화적 실천: 북한 ‘사이(in-between) 세대’의 혼종적 정체성,” 『통일연구』, 제19권 1호 (2015), pp. 5~39.



* 전자도서관에서 컴퓨터를 이용 중인 대학생들

자료: 연합뉴스 제공

새 세대의 일상이 된 정보기술

필자가 2018년 7월에 만난 20대의 북한이탈주민 A씨는 북한의 혜산시에서 사진관 종업원으로 일하다 2017년에 탈북하였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혜산시의 젊은 사람들은 거의 100%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보급률이 높다. 그 역시 핸드폰을 처음 갖게 된 시기가 2012년인데 취업 기념으로 부모님이 폴더폰을 선물해 주셨다. 젊은이들은 핸드폰 신상이 나올 때마다 변경하는 것이 유행이며, A씨는 북한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에 인기 있던 스마트폰의 모델명 ‘평양2413’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북한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어떤 ‘판번호’(모델명)의 핸드폰을 갖고 있느냐가 체면을 유지하는데 중요하게 인식된다고 한다. 또한 체신소(우리의 우체국과 같음)에 가서 여러 가지 유형의 앱을 돈 주고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데, 한 개의 앱을 다운로드받는 비용은 보통 북한돈으로 5천원 정도한다.

또 인기 있는 앱이 얼마나 핸드폰에 많이 내장되어 있는냐가 개인 간 중고폰 거래에서 구매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유니세프가 발표한 2017년 북한의 다중지표군집조사 보고서에는 연령별 ICT 장비의 이용률이 포함되어 있다. <표 VI-11>는 연령별로 남녀의 ICT 장비의 이용 빈도를 제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모든 연령 집단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ICT 장비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컴퓨터의 경우는 연령집단 간 이용률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가운데 10대의 이용률이 가장 높다. 이 결과는 새로 개편된 12년 의무 교육제도 하에서 컴퓨터와 같은 정보기술 교육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핸드폰의 경우는 비교적 연령집단 간 이용률 격차가 크지 않은 가운데 20대와 30대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인터넷 이용률은 모든 연령집단에서 대부분 낮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10대와 20대 초반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표 VI-11> 연령별 ICT 장비의 이용률

(단위: %)

사용 빈도	컴퓨터				핸드폰				인터넷			
	사용한 적 있음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사용		사용한 적 있음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사용		사용한 적 있음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사용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연령												
15~19세	63.9	70.7	43.9	51.6	73.6	79.0	50.1	50.2	8.9	13.6	6.2	8.9
20~24세	46.6	52.3	32.9	42.8	88.5	91.0	69.7	69.2	9.9	18.9	7.7	12.8
25~29세	34.9	52.4	24.3	39.0	85.2	94.7	68.9	77.3	6.7	15.3	4.8	10.2
30~34세	30.5	44.5	18.3	34.4	85.0	91.8	68.6	74.8	3.5	12.5	2.4	8.3
35~39세	23.4	37.7	14.9	28.3	80.9	89.5	66.1	73.4	4.2	9.1	3.0	6.2
40~44세	20.2	33.6	11.3	24.6	81.3	87.8	63.8	69.9	2.6	9.1	1.6	6.3
45~49세	13.6	29.4	7.2	20.0	82.4	87.5	63.1	71.0	1.0	6.7	0.7	4.8

자료: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of the DPR Korea and UNICEF,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17, Survey Findings Report*, pp. 32~33.

주: 최근 3개월 동안의 사용 빈도 기준

북한의 '새 세대'는 물질과 부, 권력에 대한 강렬한 욕망을 내재하고 있고, 외부 문화의 접촉 및 지역 이동의 경험 증가로 외부 세계에 개방적이며, 국가 규율과 가부장적 규율에 대한 구속의식이 약한 특징을 보인다.¹¹⁹⁾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새 세대'가 체제 저항적 의식이 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2011~2015년에 실시된 북한이탈주민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김정일·김정은에 대한 지지도가 젊은 연령층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김정일·김정은을 지지한다는 응답률은 20대 71.2%, 30대 66.2%, 40대 55.3%, 50대 59.8%, 60대 이상 60.2%로 나타났다.¹²⁰⁾ 젊은 지도자에 대한 젊은 세대의 높은 지지도는 한편으로 북한 당국의 청년중시 정책의 결과이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 젊은 지도자를 바라보며 꿈꾸는 '새 세대'의 권력 욕망의 표출이기도 하다. 꿈틀대는 권력을 향한 욕망은 새 세대와 김정은이 이끄는 국가 사이에 강한 연대의식을 만들어가고 있다.

119) 조정아, “북한 청소년의 세대 경험과 특성,” 『KDI 북한경제리뷰』, 제17권 6호 (2015), pp. 82~83.

120) 정은미 외, 『북한주민의 통일의식 2015』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6), p. 130.

The page features a decorative background of thin, curved lines that sweep across the top and bottom. Two large, grey, circular shapes are positioned on the left and right sides, each containing a smaller, dotted circle. The text is centered in the upper half of the page.

VII. 젠더와 재생산: 변화하는 사회적 성(性)을 말하다!

김정은 정권의 모성(母性)정책 강화 및 북한의 시장화와 정보화가 아래로부터 진전되면서, 북한 여성/남성의 생활방식과 의식 변화가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일상생활 세계를 이끌어나가는 여성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사회적 성(性)의 변화를 주제로 북한의 경제사회 내에서 젠더와 재생산 영역의 변화를 짚어낸다.

세부적으로 김정은 시대 변화하는 사회적 성 역할 및 가사·양육·출산 등 재생산 영역에서의 실태를 살펴보고 평가한다. 먼저 국가정책 및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여성/남성의 의식과 행위 변화를 진단한다. 다음으로 데이트 → 결혼 → 출산 → 이혼이라는 흐름에 맞추어, 최근 북한 주민들의 ‘사랑과 타협, 그리고 결별’의 실태와 변화의 주요 원인을 평가한다.

1. 변화하는 여성과 모성정책의 딜레마

남성은 전방, 여성은 후방

1990년대 북한의 선군정치가 본격화되면서 북한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나뉘어졌다. 남성은 전선(戰線)에서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전방(前方)의 전사(戰士)’로서의 역할이 부여되었다. 여성은 전선을 엄호하며 가정을 중심으로 사회를 지켜내는 ‘후방(後方)의 전사’로서의 역할이 부여되었다. 즉, 전시체제에서 사회적 성인 젠더가 재구성된다.

김정일 시대 전면화 된 이와 같은 ‘군사적 성별 역할’ 규정이 2018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미묘한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정책측면에서는 질적 차이가 없이 지속된다. 이 과정에서 사회와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북한 여성들의 후방 전투는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그 결과가 북한의 시장화 및 정보화이다.

한편 지난 30여 년 북한의 전쟁준비는 지속되었으나 전쟁은 발발하지

않았다. 따라서 전선에서 전방을 책임지던 남성들은 점점 무력해졌다. 이로 인해 전선을 떠나 후방으로 복귀했을 때 자신의 역할을 찾지 못하는 남성들이 많아졌다. 물론 사회적 지위 또는 능력이 있는 남성들은 간부가 되거나 무슨 일이든 하여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려 한다. 그러나 공장이 돌아가지 않아도 출근하여 조직생활을 해야 하는 보통의 남성 세대주들은 여성들의 생활력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의 생활과 의식의 변화는 쉽지 않다.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상대적 기득권 집단이 자신의 생활 습관이나 우월적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하나는, 노동당과 군대를 앞세워 비상산적인 사회위계를 지속하는 북한 정권의 가부장성 때문이다.

따라서 '생산적 노동'으로 가족단위 중심의 주민생존을 책임지고 있는 북한 여성들의 변화가 남성들에 비해 빠르게 이루어진다. 또한 그들은 북한 정권과 남성들의 가부장 권력에 직접적으로 저항했을 때의 고초와 후과를 알고 있다. 그러므로 개개 여성들이 자신/가족의 삶에 이롭게 권력을 비껴가거나 그 권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실행하고 있다.

특히 경제난이 30년 정도 지속되고 생활유지를 위해 가능한 방법을 시도했으나 새로운 전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생계 해결에 급급했던 북한 여성들의 의식과 행위에 변화가 생긴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시장경제를 발전키시고 사적 재산을 축적할 뿐만 아니라, 권력의 통제와 체제로부터 벗어나려는 흐름이 드러난다. 이러한 변화에는 특히 시장의 확산과 정보 유통, 이동의 확대 및 국경 왕래 증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었다.

무엇보다 북한 사회에서 장마당(market place) 운영의 주체는 여성이다. '시장 나가 돌멩이 뿌리면 맞는 게 다 여자'라고 할 정도이다. 생존을 위해 시작된 장사행위로 시장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북한의 시

장 사회화가 진전되었다. 또한 장사의 주체인 여성들의 사유재산 축적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북한 여성들이 시장의 효용성을 경험하면서 더 나은 삶을 위한 미래를 고민하기 시작한다.

돈의 맛

북한 주민들이 애초 장사에 대해 적극적이거나 호의적이진 않았다. 오히려 계획경제 및 봉건적인 문화 속에서 정치사회적으로 장사를 천시하는 문화가 팽배하였다. 그러나 가족의 생존을 책임지는 어머니들이 장사를 시작하고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하면서 시장에서 장사를 한다는 것에 대한 의식이 서서히 달라졌다. 결정적 계기는 ‘돈의 맛’을 알게 된 것이다. 돈이라는 물질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로 자신과 가족의 삶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여성들이 장사를 하고 돈의 맛을 알아나가면서 장마당 활동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면서 점차 장사를 못하는 게 더 창피스러운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돈에 대한 개념’이 생기고 사람들이 돈맛이 드니까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했다. 이웃 간의 관계도 물질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고 이기주의적 행태가 점차 확산되었다. 돈을 벌기 위해 ‘별난 짓’을 다 하는 상황이 되었다.

또한 자재와 전력 부족으로 공장과 기업소 가동률이 낮아진 것에 반해, 여성들이 주도하는 가내작업반이나 부업을 통한 생산물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율이 높아졌다. 이 과정에서 북한 여성들은 돈이 단순한 생존뿐 아니라 나와 가족이 잘살고 발전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이와 함께 물질주의 및 개인주의 문화가 확산되고, 출신성분이 나쁘더라도 시장에서 능력을 발휘하여 부를 축적한 계층이 형성된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경멸’에서 ‘부러움’으로 바뀌게 되었다.

또한 사유재산의 규모에 따라 북한 사회에 새로운 계층화가 이루어졌다. 즉, 과거 출신성분/토대에 따른 계층구분이 경제적 부의 규모에 따른 계층으로 변화된다. 그리고 시장화 주체인 여성들의 더 나은 생활을 향한 욕구가 증대된다. 특히 어머니들의 경우, 자식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는 의지가 강해졌다.

돈 버는 길이 출세하는 길

시장화와 함께 북한 여성들의 '자유에 대한 욕구'가 확산된다. 그리고 출신성분(토대)에 따른 차별 통제에 대한 저항과 사회적 일탈이 증대된다. 특히 북한체제로부터 소외되었던 적대계층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시장경제가 발전하면서 적대계층 주민들은 '돈 버는 길이 곧 출세하는 길'이고 돈이면 권력도 명예도 살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중에서도 출신성분으로 인해 진학이나 직장배치, 결혼 문제 관련하여 상처를 받은 이들의 의식과 행위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사랑과 결혼 문제에 직면했을 때 돈의 위력을 알게 된다. 돈의 위력을 발휘하는 여성들 중에는 토대로 인해 상처를 받은 이들이 상당한데, 이때 출신성분으로 인한 피해의식이 크게 작용한다. 또한 과거에는 천시 받았던 일본, 중국, 남한 등 국외출신자 가족들이 각 나라의 친척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잘사는 걸 보면서 이들이 사회적으로 동경의 대상이 된다.

나아가 북한이탈주민 70% 이상이 여성인 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북한체제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거나 시도하는 주민들 중에는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훨씬 많다. 물론 당국으로부터의 통제가 여성에 비해 더 심한 남성들의 탈북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 않은 점이 있다. 그러나 젠더 시각에서 볼 때, 가부장적 북한체제에 대해 여성들이 남성보다 기대와 희망이 더 낮은 구조적 요인이 작용한다. 북한 사회에서 출신성

분이 좋지 않은 다수 여성들이 살아가기는 남성보다 훨씬 녹록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각종 통제/감시 및 경제적 여건이나 인맥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탈북을 시도하지 못할 지라도, 상당수 여성들은 북한 사회의 변화를 원하고 촉진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주목할 점으로 탈북 배경을 살펴보면 그 성격이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생존 자체가 절대위기 상황이었던 2000년 전후에는 식량을 구하기 위한 단순 탈북 후 귀환이나 생존을 위한 탈북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2010년 기점 북한체제가 위기국면을 넘어서면서, 더 나은 사회와 삶에 대한 동경과 욕구가 탈북의 주요인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렇듯 변화하는 북한 여성들은 현재 북한 사회에서 오늘을 살아가기 위한 생존전략을 실행하면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발전전략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시행하는 북한 경제사회 변화의 역동적 주체들이다.

2. 시장화와 가정 내 성역할 변화

어머니 역할 강화 및 '집지키는 명명'

국가수립 과정에서부터 현재까지 북한의 여성정책 기조는 전통적인 어머니 역할에 사회경제적 역할을 부가한 '어머니-노동자 이중 역할론'이었다. 이러한 이중 역할론은 북한의 어머니들에게 슈퍼우먼이 되기를 요구한 정책이다. 그런데 경제난과 시장화 과정에서 후방을 책임지던 북한 여성들에게 북한 정권은 '이악한 어머니' 역할을 강조한다.

오랜 세월 여성은 남성에 비해 의·식·주를 중심으로 한 가족 일상생활 관리의 주체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일상생활의 어려움이나 위기의 시기 가족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여성, 특히 어머니는 가족구성원 중 우선적으로 내핍과 출혈노동을 감내하곤 한다. 그리고 한 체제의 자원

배분 우선순위가 국가안보나 군사, 군수공업일 때, 일상을 꾸려나가는 여성은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위해 내핍적 생활습관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북한 여성들은 내핍과 출혈노동을 넘어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위해 강한 생활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또한 1990년 가족법 제정 이후 가정을 지키고 책임지는 여성의 역할은 어머니의 역할과 등치된다. 따라서 김정일에 이은 김정은 시대에서 북한 당국은 〈어머니대회〉를 개최하고 헌신적인 어머니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다. 나아가 김정은 시대에는 〈어머니의 날〉을 제정하여 이를 기리고 모델화한다. 그리고 가족의 생계를 중심으로 한 북한의 지속과 경제적 발전을 위해 어머니의 이악하고 헌신적인 행동과 의식을 정책화한다. 따라서 현재까지 북한의 여성정책은 모성을 극대화한 어머니 역할이라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여성이 자녀양육과 가사를 책임지는 위계적 사회문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북한 남성들은 대개 체제보위를 위한 각종 안보기관의 구성원들이다. 가족 내에서 아버지들은 대개 양육과 일상생활에 크게 관여하지 않고 가사 및 육아를 여성의 고유 역할로 인식한다. 따라서 다수 여자들이 아이들을 업고 나가서 장사를 하거나 어머니에게 자식을 맡기고 일을 마치고 돌아와 식사와 청소를 하는 생활이 지속된다. 그리하여 평범한 가정의 남편들은 가정 내에서 특별한 역할이 없는 상황이 초래된다. 즉, 다수 북한이탈주민이 증언하듯, 남자들이 하는 일이 없이 “집지키는 멍멍이”로 비취지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30년 이상 지속되면서 북한 여성들 중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흐름이 강화되었다. 돈을 버는 데 가사와 육아도 책임지는 상황에서 남편들은 여전히 ‘집지키는 멍멍이’나 ‘병풍’처럼 가정 내 자신의 역할을 찾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더욱이 자기 존재의 무력함을 술이나 폭력으로 푸는 가정 내 남성 지배 문화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또한 다수 남성이 직간접적으로 국방안보 사업에 동원된 상황에서, 북한 여성들은 여성동맹과 인민반이 조직하는 농촌동원을 포함해 각종 사회적 노력동원 및 노약자 지원 사업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노동에 대한 '생산적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 즉, 이중 노동에 상응하는 정치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여 '노동에 대한 권리'도 뒤따르지도 않는다.

이같은 현실은 북한 여성들로 하여금 체제를 아래로부터 불신하게 만드는 심리적 저항감을 쌓이게 한다. 또한 이리다 보니 여성들이 더 이상 참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의식 변화와 함께 자신과 가족을 힘들게 하는 남편에 대한 결별을 모색한다. 그 결과가 여전히 재판이혼 제도 하의 북한 사회에서 여성들의 이혼 요구 증대로 나타난다. 이처럼 여성들의 의식 변화와 함께 이혼이라는 적극적 행동 변화가 확대되면서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화된다.

경제권이 발언권으로, 발언권이 주도권으로

여성이 주도하는 시장화 및 여맹 활동 강화 등으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이전보다 다소 개선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여성 응답자가 다수인 북한이탈주민 의식조사를 살펴보면, 여성들의 역할 증대에 따른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주목할 점으로 가정 내에서 부부관계가 다소 평등해지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나타난다. 또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 개선에 대한 요구 및 기대치가 높아지는 추세이다. 여전히 가정 내에서 아버지들이 주도권을 가지지만 어머니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흐름이다. 남성들의 의식은 쉽게 바뀌지 않았음에도, 어머니들이 돈을 벌다보니 목소리가 커지면서 경제적 주도권을 가지게 되었다.

여성들이 변화했어도 남녀관계에는 가부장적 문화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주목할 점으로는 남자들이 현재는 돈 많은 여자를 만나야 된다는 걸 목표로 결혼 대상자들을 물색하는 것이다. 사회적 의식을 보면, 남자들은 국가가 요구하는 사회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기 위해 장사하여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여성 배우자를 선호하는 양상이다. 여자들이 장사를 안하면 가족이 다 굶어죽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내의 능력이 월등하고 주장이 강하며 남편이 무능력한 가정에서는 남편의 발언권 및 주도권 자체가 약해졌다. 남편이 아내에게 돈을 받아쓰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가 죽은 것이다. 물론 다수 남성은 이러한 상황을 못마땅하게 인식한다. 그럼에도 아내가 가족과 자신을 먹여 살리는 상태가 지속되면서 점차 여성 주도 생활경제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수준으로 변화된다.

특히 엘리트층 남성들은 사회생활에 비해 가정생활에서 여성들의 지위가 유독 낮았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기도 한다. 남자들은 이혼하면 사회생활이 여성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이다. 청년동맹 활동과 같은 사회생활에서는 남녀가 큰 차이가 없이 '동지', '동무'라 부르며 생활한다. 그러나 결혼하여 가정생활을 하다보면 여성들이 많은 일을 함에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이 남성들 사이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또한 여성들이 장사를 하면서 기가 세지고 과거와 달리 남편에게 대들고 이혼을 요구하게 되자, 점차 아내의 권리 실현에 대한 암묵적 목인이 이루어진다. 별다른 능력이 없는 남자들은 이혼하면 인생이 끝장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남편들이 아내의 목소리를 참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이해하며 사는 상황으로 변한다. 즉, 여성들의 활동력 증대로 가정 내 여성의 경제권 정도가 발언권 정도를 규정짓고 있으며, 그 발언권 정도가 가정 내 주도권을 결정짓는다.

돈 버느라 바쁘는데 양육에 가사까지?

어머니들의 경제생활 강화에 따라 자녀 양육문제가 가정의 큰 문제가 되었다. 법제도적으로는 어머니가 장사나 사회생활로 바쁠 경우 탁아소나 유치원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공식 직장에 소속되지 않은 부모의 자녀들은 국가시설을 이용하기 어렵다. 또한 국가경제의 재정난이 지속되며 탁아소나 유치원에서 부모들에게 각종 운영비용 및 물품 요구가 증대하였다. 따라서 어머니들은 가까운 친인척에게 양육을 부탁하거나 지인들에게 일정한 비용을 주고 아이를 맡기곤 한다.

아버지가 특별한 일이 없이 놓고 있어도 양육은 대개 어머니의 책임이다. 전통적인 어머니의 양육 역할 뿐 아니라 여성들이 가정 경제와 일상생활에 대한 책임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자녀 양육은 온전히 어머니가 책임질 문제이다. 북한의 가족법에도 이혼할 경우 양육 우선권은 어머니에게 있다. 사회적으로도 부부가 이혼할 경우 양육 담당자는 어머니라는 인식이 절대 다수이다.

한편 가사에 대한 인식에는 일정한 변화를 보인다. 최근 북한이탈주민 200여 명을 대상으로, 남편과 아내가 모두 직장에 다닐 경우, 저녁 음식을 누가 해야 하느냐에 대한 생각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아내가 해야 한다는 의견이 약 65%로 가장 많다. 그러나 같이 해야 한다는 의견도 약 27%로 나타났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 해야 한다거나, 먼저 들어온 사람이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장사를 하는 여성들이 생활을 꾸려나가느라 바쁘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서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도가 증대한 것으로 평가된다. 가사에 대한 여성 편중성이 여전히 높지만, 1/4 이상의 응답자들이 부부가 다 직장을 다닐 경우 가사노동을 같이 해야 한다고 답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여성들이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가사를 시간이 되는 남성들이 해야 한다는 인식이 증대한

것이다. “쌀독을 처(아내)가 쥐고 있기” 때문이다.

남자들이 자신이 벌여 가정생활을 유지할 때는 가정 내 남편의 권한이 높았다. 그러나 여자들한테 돈하고 쌀독이 넘어가기 시작하고, 그런 여자를 남자가 도와줘야 되는 형편이다 보니 남자의 권한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반대로 여성들의 목소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여성들이 밖에 나가 힘들게 일하니까 이래저래 따지기보다는 남자들이 집안일이라도 좀 도와야 되겠다.’라는 의식이 확장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북한 사회와 가정도 오늘날 많이 바뀌게 되었다.

<사진 VII-1> 북한의 여성과 양육



자료: 연합뉴스 제공

3. 데이트와 결혼

나도 최고지도자 부부처럼

이전 시대와 달리 최고지도자 부부인 김정은과 리설주의 자유스럽고 세련된 부부동반 행보는 북한 젊은이들의 데이트 양상에도 영향을 미쳤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사회에서도 모란봉 공원 등에서 남자가 여자를 업고 다니는 모습이나, 여자 무릎에 남자가 누워있거나, 남자 무릎에 여자가 누워있는 모습, 쌍쌍이 팔짱을 끼거나 어깨로 상대를 감싸고 데이트 하는 등의 자유연애의 모습이 증대하였다. 김정일 시대에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모습이었다.

북한 사회 내 시장화·정보화가 진전되며 변화에 민감한 20~30대 초반 청년세대들의 의식은 기성세대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시장화와 정보화 이후 북한 주민들 사이에 ‘당이나 국가보다 가족을 중시하는 가족주의’ 및 ‘돈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물질주의’가 확산되었다. 그 중 청년세대에는 물질주의가 빠르게 확산되었고 거기에 정치에 무관심한 개인주의가 더 두드러진다. 이들 청년세대는 유년기부터 초등학교 시절 ‘북한의 시장화’를 경험한 시장세대라고 명명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경제의 특징을 정체성으로 지니고 있다.

연애 코스의 다양화

북한의 시장경제 발전과 함께 각종 개인 서비스업이 발전하면서, 북한 젊은이들의 연애 장소와 코스가 다양해졌다. 구체적으로 해외영화 관람, 수영장, 노래방, 목욕탕, 당구장, 볼링장, 스케이트장 등이다. 평양에서 유행하는 목욕탕의 경우, 한국의 사우나 시설과 비슷하여, 입장료는 1인당 3~4불 수준이며, 초음파 마사지나 다양한 한증막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특히 커플 목욕탕이 인상적인데 돈을 좀 더 주면

커플만이 즐길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준다고 한다.

김정은 시대를 전후하여 시장화 진전과 개인들이 운영하는 상업 및 서비스 업소가 증대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특히 평양과 신의주, 혜산 등 대도시에 다양한 유흥장들이 생겨났다. 북한 청년세대들은 ‘문수물 놀이장’ 처럼 국가에서 하는 것보다는, 개인들이 하는 물놀이장이 더 멋있고 비용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개인 시설을 선호한다.

데이트 비용 분담 실태 및 연애 과정에서 여성존중 의식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데이트 비용은 여전히 남자가 많이 낸다. 매번은 아니지만 남자가 내는 비율이 많은 편이다. 특히 커플들끼리 함께 데이트를 할 경우 남자들 끼리 돈을 모아 지불하곤 한다. 그러나 장사를 하는 여성들과의 연애 시 여성들이 데이트 비용을 충당하기도 한다. 북한에도 연상연하 커플이 증대하고 남성들이 경제력 있는 여성을 선호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한 정보화와 함께 북한도 국제화 및 인권이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연애 과정에서도 여성존중 의식이 형성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데이트 실태를 볼 때 김정일 시대에 비해 김정은 시대에는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잘해준다고 한다.

미래 엘리트들의 연애

북한의 대학생들은 학년별로 데이트 양상이 다르다. 1~2학년 때는 개인이 아니라 학급별로 많이 놀러 다닌다. 그러다 3학년 이상부터는 개인 또는 몇 명 친한 친구들끼리 그룹을 지어 함께 노는 커플 데이트가 많이 이루어진다. 주로 2~3커플, 4~6명 정도 규모로 함께 모여서 수영장이나 노래방 등에서 많이 즐긴다.

평양의 경우, 여대생들은 수영장에 비키니를 입고 자유롭게 남녀가 어울려 놀곤 한다. 특히 김일성종합대 수영장의 경우 높은 다이빙 시설도 갖추고 규모가 큰 수영장이 있어, 김일성종합대에 다니는 이성 친구

나 애인이 있으면 많은 부러움을 산다고 한다. 김일성종합대학 수영장 내에서도 여대생들이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남녀가 어울려 놀곤 한다.

한편, 대학 내 연애는 여전히 금물(처벌대상)이다. 그러나 캠퍼스 밖에서의 연애는 김정일 시대에 비해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소개팅이나 대학생 노력동원 중 건설장이나 행사장에 동원 나갔을 때 만나는 경우도 많다. 또한 대학생들이 교도대 훈련(전쟁대비훈련)이나 건설현장 집단 동원에 나갈 때는, 데이트를 하려면 조퇴를 해야 하기에 소대장에게 ‘아프다고 조퇴일지’를 써주도록 뇌물(고이기)을 주기도 한다. 즉, 훈련이나 노력동원에 갈 때, 데이트를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뇌물(고이기) 증여의 필요가 증대하고 있다.

김정일 시대에는 소위 풍기문란 관련 단속이 많아 공공장소에서 연애 행위(공원에서 무릎베개하기, 허리 감싸고 걷기 등)는 한국의 경찰에 해당하는 인민보안성 소속 보안원들에 의해 단속이 되곤 했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에는 김정은의 ‘청년중시’, ‘인민중시’ 정책으로 이전과 같은 남녀 간의 소위 ‘풍기문란 단속’은 그리 많지 않다. 다만 한국을 포함한 해외 영상물 유포에 대한 검열과 단속은 심화되었다.

또한 인민보안성 성원들이 시장활동이나 영상물 유통 단속 등에 많이 동원되기 때문에 연인들이 많이 찾는 강가나 공원 등에 대한 단속은 적어졌다. 더욱이 각종 사설 서비스봉사센터에서는 보안성 성원들에게 뇌물을 주며 단속을 피하게 한다.

계층·지역별로 다른 데이트 양상

북한의 시장화와 함께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자신이나 부모님의 부의 규모나 권력 수준에 따라, 상류, 중류, 하류층 간에 데이트 장소 및 방법의 격차가 상당히 커졌다. 북한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가 계층별 연애 장소 및 코스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상류층 자녀들은 외화식당이나 외화상점, 노래방을 넘어서 ‘개인투자 서비스센터’(북한식 종합 유흥몰)에서 수영, 당구, 볼링, 스케이트, 빠짱꼬, 탁구 등을 즐기는 ‘평양식 연애’를 한다. 중류층 자녀들만 해도 도시에 많이 생긴 수영장이나 목욕탕, 노래방, 국제영화관 등에서 연애를 즐긴다. 특히 중류층에서 커플들끼리 모여서 돈을 모아 할 수 있는 유흥을 즐긴다.

하류층에서는 전통적으로 즐기던 강가나 공원 산책과 식사, 국립극장 등에서의 연극이나 영화 관람 등이 지속된다. 그러나 하류층이라도 평양 등 대도시에 거주하는 젊은이들의 경우, 가끔씩 수영장이나 목욕탕에서의 연애, 두 커플 이상이 모여서 카드놀이(주패) 등을 해 돈을 모아 노래방이나 당구, 볼링 등도 즐긴다.

지역별 데이트 양상도 크게 차이가 난다. 도시일지라도 혜산이나 신의주에 비해 각종 유흥시설이나 서비스업이 집중적으로 발달한 평양의 경우, 연애할 장소가 매우 다양하고 그 모습도 자유로워졌다. 반면 농촌의 경우 서비스업 수준이 낮고 이용자들도 별로 없어, 농촌 젊은이들은 도시나 해외로 나가 자유로운 데이트를 해 보고 싶은 열망이 상당히 크다.

특히 김정은 시대 도시-농촌 및 평양-지역 간 각종 유흥시설 건설의 차이가 커짐에 따라 데이트 양상의 격차도 커졌다. 김정은 시대 시장경제가 확장되며 도시 중심의 건설업이 발전하였고, 김정은 정권이 평양과 대도시 중심 각종 건설사업 및 위락-유흥시설 건설 활성화 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사진 VII-2> 롤러스케이팅장에서의 데이트 모습



자료: 연합뉴스 제공

배우자 조건 1순위, 경제력

최근 북한 미혼 남녀의 배우자 조건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력이다. 그 다음으로 출신성분/집안, 지식 정도, 성격, 외모 순이다. 직업은 경제력과 직접적 상관성이 있다. 과거 배우자 조건의 중요 요인은 성격, 출신성분, 학력, 외모 순이었다. 북한 사회에서 출신성분은 여전히 중요한 요인이나 1순위가 성격에서 경제력으로 변화된 것이다.

배우자 조건으로 경제력과 출신성분이 중시되는 것은, 북한에서 가정 생활을 꾸려나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력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정치적 계층 질서와 연좌제가 여전히 작동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정치적 신분인 토대의 중요성 역시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신분이나 직업 등을 고려하기는 하지만, 남녀 모두에게 배우자의 조건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력이다. 경제력은 결혼의 조건이 될 뿐만 아니라 외도 등의 이혼 사유가 있을 때 가정을 유지하도록 하는 조건으로도 작용한다.

경제적 규모에 따른 계층화가 이루어지면서 개별 가정에 ‘5장 6기’를 갖춘 집안이 잘사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 5장 6기는 최근 북한의 경제력 있는 아내/남편이 혼수로 준비하는 물품이기도 하다. 5장은 이불장, 옷장, 장식장, 책장, 식장(식기진열대)이고, 6기는 TV, 녹화기(비디오), 선풍기, 세탁기, 냉동기(냉장고), 자전거이다.

4. 출산율과 출산의지 저하

출산율 저하 추세

북한 사회 및 여성의 변화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통계 수치는 출산율이다. 1993년과 2008년 북한인구총조사, 그리고 2014년 유엔인구기금과 북한 중앙통계국이 공동 조사한 북한의 15~49세 기혼여성 총 10,035명에 대한 조사 결과¹²¹⁾를 보면 북한 기혼여성의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저하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기준 북한의 출산율과 추세를 살펴보자.¹²²⁾ 북한의 2014년 현재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출산력은 합계출산율(TFR) 및 출산연령, 출산간격, 평균 출생/현존/사망 자녀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합계출산율이다. 2014년 북한 기혼여성(15~49세)의 합계출산율은 1인당 1.89명이다. 1993년 인구센서스 결과는 2.13명이었고, 2008년 결과는 2.01명이었다. 이는 북한의 출산율이 지난 30여 년간 인구 대체수준보다 낮아져서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출산력이다. 2014년 북한 기혼여성(15~49세)의 평균 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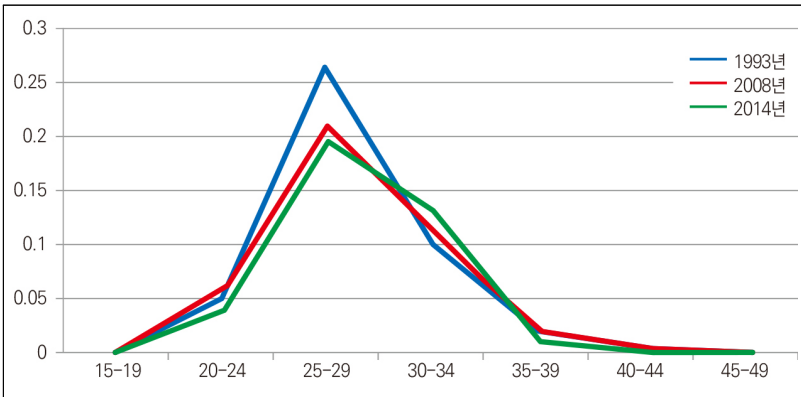
121) 중앙통계국·유엔인구기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14년 사회경제인구 및 건강조사』(평양: 중앙통계국·유엔인구기금, 2015). 이 조사의 대상인 15~49세 기혼여성은 총 10,035명으로 2009년(MICS) 854명, 2010년 5,093명에 비해 2배 표본 추출규모이다. 따라서 이전 조사보다 대표성이 크다.

122) 위의 책, pp. 48~52.

연령은 29.0세이다. 1993년(센서스) 28.6세, 2008년(센서스) 28.7세로 출산율에 비해 출산능력의 변화 폭은 적음을 알 수 있다. 그 주요 배경으로 이전에는 25~29세 집중된 출생아 출산율이 점차적으로 30~34세까지로 출산 폭이 넓어지는 흐름을 지목할 수 있다. 즉, 만혼 및 늦은 출산 경향의 증대이다.

이러한 출산율 저하 추세를 <그림 VII-1> 1993~2014년 북한 기혼여성 1인당 연령별 출산율 추세를 통해 살펴보자.

<그림 VII-1> 북한 기혼여성 연령별 출산율 추세(1993-2014)



자료: 중앙통계국유엔연구기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14년 사회경제인구 및 건강조사』 (평양: 중앙통계국유엔연구기금, 2015), p. 52.

<그림 VII-1>은 북한의 1993년, 2008년, 2014년 연령별 출산율을 보여 준다. 이 그림으로 볼 때, 앞서 언급한 만혼 흐름과 함께 북한 기혼여성 중 25~29세 연령대 및 30~34세 연령대에 출산이 집중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북한 여성들의 출산 특징이라 평가할 수 있다. 즉, 자연 임신이 주를 이루는 북한의 출산 환경에서는 25~34세 연령대에 출산이 집중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아직까지 조사 대상자들의 첫째 출산 평균 연령은 24.9세이다.

10대의 출산은 0%이나 이는 북한 당국에 의한 공식적 조사라는 점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출산간격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고위험 대상자인 18개월 간격 미만은 4.4%로 낮은 수준이다. 평균적인 출생 자녀수는 1인당 1.74명이며 평균적인 현존 자녀수는 1.71명이다. 35세 이상 북한 여성의 60%가 자녀를 두 명 두고 있다. 평균적인 사망 자녀수는 0.03명으로 경제난 완화 및 영양공급 증대로 영유아 사망률이 낮아진 결과로 보인다.

경제난 극복과 더 나은 삶을 위한 출산기피

고난의 행군 시기 상당한 인구를 상실한 북한 정권은 2000년대 들어서 출산장려 정책을 본격화하였다. 임신과 출산시기 휴가를 증대하는 등 나름의 모성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장사에 나서서 가족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산전산후 휴가 증대는 유명무실하다.

따라서 이미 존재하는 가족들의 생계도 책임지기 힘든 북한 여성들은 임신을 기피하고 임신해도 낙태를 많이 한다. 또한 부부가 밖으로 나가 생계를 꾸려 나가야 하는 가족 중에 장사나 양육 문제 때문에 임신 및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경제난으로 인한 출산 기피는 북한의 경제난이 다소 완화되면서 그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출산기피’ 현상으로서의 변화이다. 아이를 많이 낳아 고생하는 것보다, 1~2명의 아이를 낳아 이들을 남부럽지 않게 잘 키워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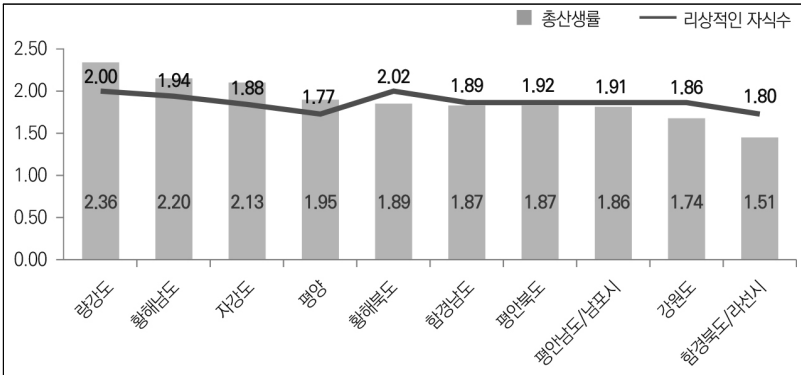
이러한 변화는 최근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 사이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이 희망하는 자녀수는 1~2명이다. 주목할 점으로는 김정은 시대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의 10명 중 1~2명은 자식을 낳고 싶지 않다고 증언하곤 한다. 특히 왕성한

출산 연령대인 20~30대 젊은층에서 자식을 낳지 않거나 1명 정도 희망하는 이들이 많다. 이는 최근 탈북민들이 20~30대에 집중되어 있기에 다수 젊은 세대들의 의견이 반영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똑똑한 여자들의 선택, 책임질 수 있는 만큼!

최근 북한 여성들의 평균 출산연령은 20여 년 전과 큰 변화를 확인 하긴 어렵다. 그러나 기혼여성 집단 내부에 차이가 뚜렷해지고 있다. 도시 출신, 고학력자, 고소득 가구의 기혼여성들의 저출산 경향 추세이다. 대표적으로 평양에 사는 고학력자, 고소득 가구 기혼여성들의 자녀수가 낮게 조사되었다.¹²³⁾ 2014년 기준 북한의 산생실태를 보면 특히 학력과 지역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다. 학력수준으로 보면, 대학교와 전문학교 졸업자들이 고등중학교 졸업자들에 비해 출산율이 낮다. 지역적으로는 도시에 비해 농촌지역의 출산율이 높다. <그림 VII-2>에서 보여주는 지역별 총 산생률 및 이상적인 자녀수 간의 차이를 살펴보자.

<그림 VII-2> 북한 기혼여성 1인당 산생률과 이상적 자녀수 차이(2014)



자료: 중앙통계국유엔연구기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14년 사회경제인구 및 건강조사』, p. 60.

123) 중앙통계국유엔연구기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14년 사회경제인구 및 건강조사』, pp. 52~56.

〈그림 VII-2〉를 통해 볼 때 지역별 총 산생물은, 농촌지역이 넓게 분포한 양강도 지역이 가장 높고(2.36명), 개방특구로 부유층이 많은 라선시가 가장 낮다(1.51명). 한편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상적인 자녀수 의식조사에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인 지역은 농촌지역이 많은 황해북도(2.02명)이다. 반면, 가장 낮은 이상적 자녀수 결과를 드러낸 지역은 기혼여성 1인당 1.77명으로 집계된 평양이다.

즉, 시장경제가 발달하고 경제수준이 높은 도시지역 여성들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저발전 농촌지역에 비해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수의 자녀를 낳아 남부럽지 않게 잘 키우고 싶은 근대화 된 여성들의 자녀관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평양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이상적인 자녀수’ 인식이 가장 낮게 집계되었다.

아들보다 딸이 더 좋아요

북한 여성들의 시장 활동력이 증대되고 가정경제를 여성들이 꾸려 나가면서, 북한 사회에 아들보다 딸을 선호하는 의식이 높아졌다. 기본적으로 북한은 사회주의 평등 이념에 따른 역사적 전통이 있기 때문에 남한에 비해서 남아 선호사상이 그리 높지는 않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난과 시장화를 경험하면서 아들보다 딸을 선호하는 흐름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아들과 딸 중에서 어느 쪽을 선호하느냐고 질문해 보면, 상관없다는 응답 및 딸이 좋다는 응답이 10명 중 각각 4명 정도 비율로 응답한다. 반면에 아들을 좋다는 응답은 20% 미만이다.

한편, 딸 또는 아들 선호에 대해서는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남성일수록 아들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여성들 사이에서는 딸 선호 및 상관없음이 상대적으로 높게 드러난다. 북한의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딸을 선호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

다. 하나는 가부장성이 강한 북한 사회의 어머니에게는 딸이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딸이 아들에 비해 가정에 대한 경제적 기여도가 더 크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북한 남성들 사이에서는 아들을 선호하는 전통적인 남아 선호 사상이 여성보다 더 많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북한의 경제사회적 변화 속에서 여성의 변화가 큰 반면, 젠더관계에서 사회적 우위를 차지했던 북한 남성들의 의식 변화가 느리기 때문이다.

5. 사랑과 결혼의 타산: 혼인신고 기피와 이혼

‘결혼하면 너무 힘들어요’

북한 여성들의 혼인신고 기피, 만혼, 동거 선호 등이 증대하고 있다. 결혼하면 여성들이 가족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하기 때문이다. 출신성분 및 집안을 보던 과거와 달리 현재 북한 여성들에게도 결혼의 제1조건은 남성들의 경제력과 발전가능성이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을 갖춘 남성들이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미혼여성들의 결혼기피가 증대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부부와 가족관계에서 여성이 독립적일 수 있는 연상연하 커플이 증대하고 있다. 똑똑한 남자들은 여자가 애 엄마로 애가들이 있더라도 장사를 잘하는 여자와 살려고 한다. 대개 남자들이 제대하면 30살 정도가 되는 데 장사 경험과 능력이 있고 똑똑한 여자들은 대개 이들보다 나이가 많다. 따라서 남자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위이고 어지간히 생활에 경험이 있는 여자와 살려고 한다.

이러한 흐름으로 인해 북한 사회에서 ‘리찬의 시대’라는 말이 나온다. 북한 체제 수립기 연상의 여인을 사랑하여 결혼한 리찬이라는 엘리트를 연상하여 부르는 말이다. 이러한 사회 변화에 따라 남자들이 자기보다 5살, 6살 이상의 여자들과 사는 경우도 많다. 애가 둘이라도 관계없이

결혼하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한다.

그리고 북한 여성들의 생계부양 책임이 가중되면서, 당국에 결혼신청을 하지 않는 동거도 미혼여성들 사이에 증대하였다. 가족생계를 여성, 특히 아내나 어머니가 책임지면서, 자신의 삶과 발전을 위해 미혼여성들이 결혼을 회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한편 군대와 군수산업, 건설 돌격대 등 체제유지를 위한 집단 사업에 남성 상당수가 배치되어 있다 보니, 사회적으로 남성의 수가 여성에 비해 월등히 적다. 이 때문에 남자들은 군대를 제대하면 대개 결혼하는데, 여성들은 자신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남자들이 드물다 보니 결혼하지 않는 소위 노처녀들이 많아졌다.

더 이상 참고 살지 않겠어!

북한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안이 여성주도 이혼 문제이다. 이혼 문제는 현상적으로 생존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족해체 양상이기도 하나, 그 특성은 ‘북한 여성들이 더 이상 참고 살지 않겠다.’는 독립선언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생계 그 자체가 이혼의 결정적 원인이라기보다는 그동안 묵시되었던 가부장적 부부관계가 폭발하는 양상이다.

경제적 어려움이 부부갈등을 고조시키면서 이전에는 웬만하면 참고 견디었던 남편의 폭력이나 외도에 대해 더 이상 참지 않고 이혼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제적 문제로 인한 부부 갈등과정에서 남편들이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를 때, 과거와 달리 아내들이 이러한 남편의 폭력을 참지 않고 이혼하는 비율이 증대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북한 여성들 사이에서 ‘더 이상 과거처럼 당하고 살지 않겠다.’는 의식이 형성된 것이다. 이혼이 자유롭지 못한 재판이 혼제도 하에서도 일단 결혼하면 남편의 잘못에 대해서도 참고 살아야

한다는 봉건적 부부관이 아래로부터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한 마을에서 이혼한 부부가 따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그런데 이제는 한 마을에서 따로 살아도 사회적 시선에 큰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 여성들의 경제력과 목소리가 커지고 무능력한 남성들이 여전히 가부장적 우월성을 강요하다보니, 마을 사람들도 이혼한 여자에 대한 시선이 관대해진 것이다.

무엇보다 물리적 폭력에 대해서는 참지 않겠다는 의식이 높아졌다. 과거와 달리 부부싸움이 여자들이 남편에게 대드는 사례가 증대하였다. 사회적으로 남편들이 때려가지고 매 맞으니까 못살겠다고 해서 이혼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없는 살림에 장사에 나가 어렵게 가족 생계를 이어나가는데 싸우며 두들겨 맞기까지는 못 참겠다는 흐름이다.

한편 사회적 분위기가 변화하면서 과거에 비해 이혼 판결이 상당히 용이해졌다. 특히 남편의 지속적 폭력과 외도 등에 대해서는 재판부도 가정생활 유지가 어렵다고 이혼을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사회의 남성중심성으로 재판이혼 세대주인 남성의 의사가 더 많이 반영된다고 한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은 북한의 재판부에서 남편의 이혼 제기를 아내의 이혼 제기보다 더 중시한다고 증언한다.

이와 같은 남성 중심적 이혼 판결이 여성들의 결혼 회피와 새로운 이성관 모색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북한 전역에 이혼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당국이 이혼하는 자는 강제추방 하겠다는 조치를 내린 적도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당국의 엄포를 중시하지 않는다. 결혼이나 이혼을 굳이 당국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신고 없이 살다가 안 맞으면 헤어지면 된다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결혼하는 사람들 중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몇 달이나 몇 년 살다가 힘들거나 싫으면 갈라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살아보고 결정해요~

최근 탈북한 북한이탈주민들 중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일’로 인식하는 비중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특히 20~30대 층에서 결혼에 대해 유동적인 답변을 하는 이들이 50% 정도에 이른다.¹²⁴⁾ 가부장적인 북한 사회에서 결혼은 너무나 당연한 생애 과정이었다. 그런데 시장화 및 정보화와 함께 이러한 인식이 크게 변하고 있다.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식이 줄어들면서 이혼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선도 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북·중 접경지역 도시의 경우, ‘정상적인’ 결혼관계가 아닌 형태로 남녀가 가정을 이루어 한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증대하였다고 한다. 특히 북한의 20~30대 젊은이들 속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를 하는 문화도 확산된다고 증언한다. 혼인신고를 할 경우에 재판이혼제도 등으로 인해 이혼을 하는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거나 배우자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는 경우에는 먼저 동거를 하는 실태이다. 동거를 하다가 자녀를 출산하면 결혼신고를 하거나 맘이 맞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결별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은 사회의 ‘세포’인 가족 단위를 안전하게 확립할 때만이 유기체로서의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는 논리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난 이후 국가정책의 실패를 가족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재가족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러나 현재 사회 변화가 먼저 드러나는 북·중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세포로서의 가족을 구성하고 결속시키는 결혼제도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24) 주목할 점은 2018년 6월 현재, 20~30대 탈북여성이 탈북민 전체의 43.01%를 차지하고, 여성 탈북민 중에는 60.22%를 차지하는 등 젊은 세대 여성 탈북민들의 비중이 급증해 하였다는 점이다.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책,” <<http://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lyle/>> (검색일: 2018.6.30.).

주목할 점으로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하는가’의 여부는 성별과 계층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에게서 반드시 해야 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가부장성이 강한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결혼제도에 대한 긍정 인식이 높기 때문이다. 결혼과 관련하여 북한의 남성들이 여성들의 변화를 따라가기는 쉽지 않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대개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결혼으로 인한 이점이 많다. 또한 이러한 사회에서 남성들이 결혼을 못하면 무언가 문제가 있거나 부족한 사람으로 인식되어 사회생활에도 장애가 따른다.

토대에 기반한 정치신분에 따라서는 정치적 하층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적대계층일수록 자신을 보호해줄 수 있는 밀접한 관계 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부의 규모에 따라서는 경제적 중상층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는 비율이 높다. 그 이유는 비공식적인 시장경제를 주도하는 계층에서 서로를 보호하면서 경제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1차적 네트워크가 가족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북한 사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적 지위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여성들 사이에서 결혼제도에 대한 부정의식이 크게 증대하였다. 그 외에 전통적 가족관이 지속되는 정도가 더 높은 정치적 하층에서는 결혼을 당연히 여기고 있다. 또한 가족관계가 가장 중요한 ‘비공식 네트워크’로 기능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경제적 중상층에서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정치적 계층과 경제적 계층에서 결혼제도와 관련한 다소 다른 인식을 가지고 보이는 양상이다.

사랑과 이익의 선택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미혼모이거나 이혼을 하면 뒷말이 많아

그 지역에서 살기가 힘들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 여성들이 ‘더 뻔뻔스럽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바쁘고 이혼이 늘며 여성들의 자립이 증대하면서, 이혼에 대해 ‘개인적 사정이 있을 것’이라는 사회적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더 이상 ‘매 맞고 살 수는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었다.

최근에는 북한의 가정도 남한과 같이 남편의 지위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부부관계가 다르게 나타난다. 남편이 경제사회적 역할을 못하면 아내에게 말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가 안정된 가족은 이혼을 거의 하지 않는다. 나아가 돈 잘 버는 사람이 바람피우는 건 여자건 남자건 눈을 감아주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 경제권이 있는 사람이 가정 내 주도권을 가지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북한의 시장경제가 더욱 확장되면서 돈 잘 버는 아내의 외도에 대한 관대한 분위기가 확장되었다. 아내가 남편의 생계를 포함한 가정 경제를 책임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집에서 내조만하는 아내가 바람이 나면 용납되지 않는다. 또한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외도를 묵인하는 풍토도 확장되고 있다.

능력 있는 남편의 경우 바람을 10번 넘게 폼이라도, 순간 감정을 내세우지 않고 자신과 자식들의 미래를 고려하여 혼인관계 유지 또는 결별을 결정한다. 특히, 남편의 경제력이나 권위에 기대어 살았을 경우 자식들의 미래를 고려하여 참으며 요령 있게 대처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자신은 남자도 없는데 무조건 이혼하면 손해라는 인식도 퍼지고 있다. 즉, “사랑과 경제, 타산”을 잘해야 하는 상황이다.

The page features a decorative background of thin, curved lines that sweep across the top and bottom. Two large, stylized circular elements are present: one on the left side, partially cut off, and one at the bottom right. Both circles are filled with a grid of small dots, with the density of the dots increasing towards the right side of each circle. The text is centered in the upper half of the p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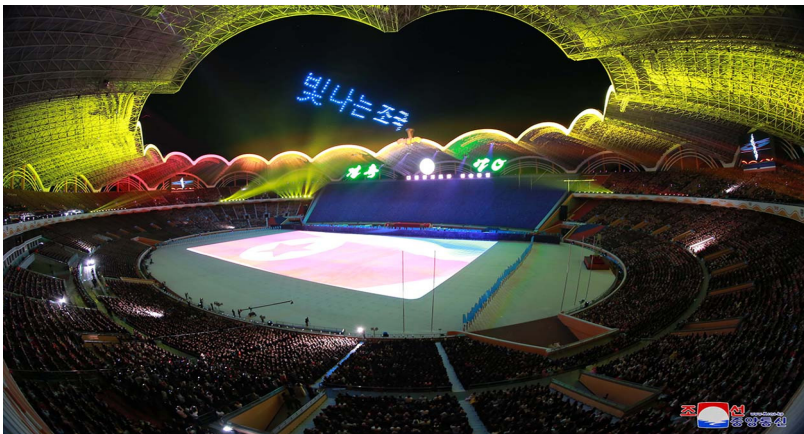
**VIII. 문화와 유행:
문명국 건설 행보와 욕망 확대**

김정은 체제의 문화정책 목표는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이다. ‘사회주의 문명국’은 ‘높은 문화지식과 건강한 체력,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닌 인민들이 누리는 ‘건전한 생활기풍이 차 넘치는 사회’이다.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은 문명국 건설과 함께 문명 향유를 포함한다. 모란봉악단을 통해 혁신적인 안목과 진취적인 자세로 새로운 사회를 건설 하자는 요구와 함께 유희장을 비롯한 현대적인 문화후생시설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 보건, 문학예술, 체육을 비롯한 문화건설’을 통해 ‘사회주의 제도의 문명국’을 건설하여, 인민제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축구’는 각 분야에서 세계 수준을 이룩하고, 문명국의 위용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겠다고 주력하는 분야의 하나이다. 려명거리로 대표되는 새로운 도시 건설은 사회주의 문명국의 모델 사업이었다.

‘사회주의 문명’을 ‘향유’하는 사회로 변화하면서, ‘절제’와 ‘헌신’을 미덕으로 여기던 풍조가 쇠퇴하고, 개인의 행복과 욕망을 지향하는 풍조가 확산되고 있다.

<사진 VIII-1> 북한의 집단체조 ‘빛나는 조국’



자료: 연합뉴스 제공

주: 2018년 북한 정권수립 70주년 기념일(9·9절)에 공연된 집단체조 ‘빛나는 조국’의 한 장면

1.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

가재 '사회주의 문명국'으로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은 김정은이 제시한 발전 목표이다.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은 김정은 체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2년 1월 1일 『로동신문』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명시화되었다. 김정은은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사망 이후 형식적인 권력 승계 과정을 압축적으로 마무리하고, 2012년부터 새로운 시대를 선언하였다. 2012년은 북한 식 연호인 주체 101년이다. '주체의 한 세기'를 마치고 새로운 주체의 한 시기가 시작된 2012년에 장기적인 국가발전 목표로 제시한 것이 바로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이었다.

2012년 신년 공동사설에서는 “우리 조국을 발전된 사회주의 문명국으로 빛내여 나가야 한다.”며, '사회주의 문명국'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 세계문명을 따라 가야한다.”고 하였다. 신년 공동사설에 이어 2012년 4월 15일 연설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에서 김정은은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에 새 세기 산업혁명을 더하면 그것은 곧 사회주의 강성국가”라고 하여, 사회주의 문명국이 곧 사회주의 강성국가의 구체상임을 밝혔다. '사회주의 강성국가'는 김정일 시기부터 강조하였던 '사회주의 강성대국'보다 강도가 약해진 표현이다. '대국'에서 '국가'로 바뀐 것은 이상적 목표를 앞세웠던 김정일과 달리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김정은의 리더십 스타일이 반영된 것이다.

새로운 국가상으로 '사회주의 강성국가'와 비슷한 시기에 '백두산 대국'이라는 용어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백두산 대국'은 김정은 시대에 등장한 용어로 2012년 6월 27일 『로동신문』에서 확인된다. '백두산 대국을 일떠세우는 것이 김일성-김정일의 유훈이며, 김정은의 뜻'

이라고 하였다.¹²⁵⁾ 이후 ‘백두산 대국’은 2012년에 공개한 가요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윤두근 작사, 김문혁 작곡)의 후렴 가사 “나가자 백두산대국아” 등을 통해 사회적 확산을 시도하였다. ‘백두산 대국’은 ‘사회주의 문명국’이나 ‘사회주의 강성국가’와 차별화된 개념은 아니다.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혈통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상징적 차원의 용어이다. 실제 ‘백두산 대국’에서 강조하는 것은 ‘유훈’이며, 혈통이지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김정은의 후계 구도와 관련하여 백두산의 신성성, 백두혈통의 정통성을 강조하려는 수사적인 용어로 판단된다.

문명사회 건설을 위한 인재양성

‘사회주의 문명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로동신문』 등의 언론을 통해 확장되었다. 김정은은 2012년 4월 6일 조선로동당 중앙책임일꾼들과 한 담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를 통해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핵심은 교육 분야의 투자를 통한 인력 양성이었다.

“교육, 보건, 문학예술, 체육을 비롯한 문화건설에서 모든 부문에게 끊임없는 혁명적 전환을 일으켜 우리나라를 발전된 사회주의 문명국으로 빛내여 나가야 합니다.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늘이고 교육의 현대화를 실현하여 중등일반교육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대학교육을 강화하여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떠매고 나갈 세계적 수준의 재능 있는 과학기술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고 시대적 명작들을

125) “김일성-김정일의 유훈을 받아 주체의 강성국가, 세상에서 제일가는 백두산대국을 일떠세우는 것이 김정은의 뜻이며 결심이다.” 『로동신문』, 2012.6.27.

더 많이 창작보급하며 체육을 대중화하고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들이 고상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문화의 창조자, 향유자가 되게 하며 온 사회에 희열과 랑만이 차 넘치게 하여야 합니다.”는 것이었다.

교육 분야의 투자를 통해 인력을 양성하여 문명국가를 이룩하겠다는 것이다. 교육에서 강조한 것은 특히 과학기술이었다. 2013년에는 ‘사회주의 문명국’을 ‘높은 문화지식과 건강한 체력,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고 ‘건전한 생활기풍이 차 넘치는 사회’로 규정하였다. 이는 북한이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는 지(智), 덕(德), 체(體)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주의 문명국’은 ‘전체 인민이 높은 문화지식과 건강한 체력,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닌 선진적인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문화예술 분야를 포함하여 교육, 보건, 체육 분야 등 사회 제반 분야에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민들의 전반적 수준을 높여 인민생활을 풍요롭게 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은 2012년에 이어 2013년에 이르면서, ‘원수님의 과업’, ‘사상’으로 높아졌다. 2013년 7월 14일자 『로동신문』의 기사 ‘우리당의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 사상의 정당성’에서 ‘사회주의 문명국’을 “사회주의 문화가 전면적으로 개화 발전하는 나라, 인민들이 높은 창조력과 문화 수준을 지니고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창조하며 향유하는 나라”로 규정하면서,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 사업을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에 제시된 중요한 과업”이자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21세기의 현실적 요구”를 반영한 사상으로 평가하였다.¹²⁶⁾

과학으로 돌파하고, 과학으로 건설한다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강조하는 일차적인 목표는 권력 계승과

126) “우리당의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 사상의 정당성,” 『로동신문』, 2013.7.14.

관련된다. 김정일 사망 이후 새로운 세기의 지도자로 등장한 김정은은 인민의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세기의 비전으로 제시해야 했다. 김정은은 ‘사회주의 문명국’이라는 구체적인 발전 운영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미래 사회 건설이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 아닌 선대의 유훈으로 규정하였다. “과학, 교육, 보건, 문학예술, 체육, 도덕을 비롯한 모든 문화분야를 선진적인 문명강국의 높이에 올려 세우는”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의 구체적인 방도로 제시한 것이 “문화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장군님께서서와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사상과 로선, 방침을 철저히 관철”¹²⁷⁾하는 것이었다. 정리하면 새로운 지도자 김정은을 모시고 선대 수령의 사상과 노선,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 문명을 건설하자는 것으로 귀착된다.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은 김정은 시대의 비전인 동시에 선대의 유훈을 받드는 사업인 것이다.

김정은이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으로 제시한 것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이었다. ‘모든 문화 분야’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인민들로 하여금 ‘사회주의 문화의 창조자, 향유자’가 되도록 하려면 모든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이 필요한데, 이러한 발전을 과학기술의 혁신과 인재양성을 통해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과학은 21세기를 ‘과학과 기술의 시대’, ‘지식경제의 시대’로 규정할 정도로 강조하면서 총력을 기울이는 분야이다. 과학기술은 ‘문화의 중심적인 형태의 하나로 인류 문명 정도를 규제하고 높은 단계로 발전하도록 추동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통해서 인류 문명의 새로운 개화기를 열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지식경제시대를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새로운 세기의 문명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가 ‘사람들을 보다 더 문명한 인간으로 키우는’ 교육이고, 사회의 생산환경, 생활환경을 더욱 ‘위생문명적이

127) 위의 기사.

고 아름다우며 현대적인 것'으로 변모시켜 나가는 것이었다.

2012년 김정은 체제의 첫 사회개혁으로 교육제도를 개편하였다. 교육은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위한 핵심 과제의 하나인데, 현재의 교육으로는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지식경제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교육기간을 연장하고, 교육내용을 개편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전민과학인재화, 과학기술보급실 건설 등의 과학 인프라 건설과 함께 각종 유희장과 편의시설을 통해 문화 인프라 건설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 모란봉악단의 '창조 기풍'과 '일본새'

시범공연에 나타난 미키마우스

모란봉악단은 2012년 7월에 창단한 전자음악단이다. 모란봉악단의 창작은 김정은의 직접 지시로 이루어졌다. 북한 언론에서는 “모란봉악단은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에 따른 것”이라고 선전하면서 “김정은이 직접 악단 이름을 짓고 시연회와 공연을 수십 차례 직접 지도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¹²⁸⁾

모란봉악단은 2012년 7월 6일 평양 만수대예술극장에서 ‘시범공연’을 통하여 첫 선을 보인 이후 김정은 체제의 혁신과 변화를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창단 공연 이후 삼지연악단, 은하수관현악단을 제치고 가장 혁신적인 모범예술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모란봉악단의 혁신적인 창작에 대해서 ‘모란봉악단의 창조기풍’, ‘모란봉악단의 일본새’라는 신조어를 만들면서 사회 각 분야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128) “김정은 동지께서는 주체조선의 새로운 100년대가 시작되는 올해에 문학예술부 문에서 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모란봉악단을 친히 조직하여 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조직된 모란봉악단의 시범공연을 관람하시었다,” 『로동신문』, 2012.7.9.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였다.

모란봉악단이 주목받는 것은 김정은 체제에서 창단된 예술단이면서, 창단 공연에서부터 과감한 퍼포먼스와 선곡을 선보였기 때문이었다. 2012년 7월 6일에 있었던 창단 공연에서는 미국 영화 <룩키>의 주제곡인 ‘Gonna Fly Now’, 미국 월트디즈니사의 애니메이션 주제곡인 ‘곰아저씨 뿌’, ‘비비디바비디부’, ‘미인과 야수’,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 등을 연주하였다. 뿐만 아니었다. 무대에는 디즈니 만화영화의 캐릭터 인형들이 무대에 등장하였다.

<사진 VIII-2> 2012년 모란봉악단 창단 시범공연에 나타난 디즈니 캐릭터



자료: 조선중앙통신 영상화면

김정온이 참관한 가운데 진행된 모란봉악단의 시범공연에 대해 “내용에서 혁명적이고 전투적이며 형식에서 새롭고 독특하며 현대적이면서도 인민적인 것으로 일관된 개성 있는 공연을 무대에서 펼치였다...(중략) 화려한 무대조명의 효과로 하여 청각과 시각적으로 변화무쌍한 공연은 음악형상창조의 모든 요소들을 예술적으로 완전히 조화시켰다. 공연의 주제와 구성으로부터 편곡, 악기편성, 연주기법과 형상에 이르는 모든 음악 요소들을 기성관례에서 벗어나 대담하게 혁신”하였다고 평가하였다.¹²⁹⁾

129)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조직된 모란봉악단의 시범공연을 관람하시였다.” 『로동신문』, 2012.7.9.

모란봉악단의 창단 시범공연은 텔레비전을 통해 전역으로 퍼졌다. 북한은 2012년 7월 11일과 12일 오후 8시 15분 「조선중앙TV」를 통하여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진행한 모란봉악단 시범공연”이라는 타이틀로 녹화 방영하였다. 모란봉악단의 실황 공연이 방영되자, 평양거리가 한산해질 정도로 큰 관심을 모았다.¹³⁰⁾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이 사망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기였다. 엄숙해야 할 국상 기간에 해당한다. 2012년부터 김정은 체제가 시작되었다는, 하지만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퍼포먼스로 보였을 것이다.

변화와 혁신의 아이콘 모란봉악단

이후 모란봉악단은 창단 6개월 만인 2013년 1월 1일 ‘감사문’을 받을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하였고, 김정은 체제를 대표하는 예술단으로 자리 잡았다. 모란봉악단은 이후 북한의 핵심 명절이나 기념일에 빠지지 않고 등장했으며, 합동공연에서도 주도적으로 공연을 이끄는 핵심 단체로 자리 잡았다. 2014년 5월 16일자 『로동신문』의 기사 “위대한 령도의 손길아래 자라난 음악예술단체들”에서는 “새 세기 조선의 예술을 대표하고 선도하는 관록 있는 예술단체로 일약 솟구쳐 오른 모란봉악단”으로 소개하기도 하였다.

북한의 예술단으로는 모란봉악단에 앞선 2009년에 창단한 ‘삼지연악단’, ‘은하수관현악단’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란봉악단을 창단한 것은 크게 몇 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정치적으로는 김정은의 예술적 감각을 선전하기 위한 목적이다. 3대 세습의 후계자로 김정은은 자신의 정치적 능력을 보여주기보다는 선대 수령의 혈통과 자질을

130) 『조선신보』, 2012.7.15.

이어받은 것으로 정통성 구축 작업을 진행하였다. 김일성의 외모와 과감성을 포인트로 하면서 김정일의 음악적 재능을 이어받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김정은 체제의 국가 운영 방향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예술과 방송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인민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김정온이 모란봉악단을 통해 보여주고자 한 키워드는 ‘혁신’과 ‘변화’였다. “문학예술 부분의 모든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이 모란봉악단의 창조기풍을 적극 따라 배워 문학예술 창작 창조 활동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일으켜나갈 것을 바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과 기대가 어려웠다.”¹³¹⁾는 평가는 김정은이 요구한 혁신과 변화의 구체적인 정황을 모란봉악단을 통해 보여주고자 한 것이었다. 모란봉악단이 보여준 것과 같은 혁신과 변화를 혁신의 모범사례로 삼아 사회 각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키자는 주문이었다.

“사상관점에서부터 완전히 때벗이를 하여야 한다”

‘모란봉악단의 창조기풍’은 곧 ‘혁명적이며 진취적인 창조기풍’이었다. 구체적으로 모란봉악단의 창조기풍에 대해서는 ‘당이 준 과업을 열백 밤을 패서라도 최상의 수준에서 완전무결하게 실천하고야 마는 결사관철의 정신, 기성의 형식과 틀에서 벗어나는 혁신적 안목에서 끊임없이 새것을 만들어 내는 참신하고 진취적인 창조열풍, 서로 돕고 이끌면서 실력전을 벌려나가는 집단주의적 경쟁열풍’으로 설명한다.¹³²⁾ 모란봉악단이 바로 당에서 요구하는 ‘비상한 당성, 혁명성, 인민성을 갖춘’ 본보기 악단으로 보았다.

131) “모란봉악단의 창조기풍으로 명작창작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 올리자,” 『로동신문』, 2014.6.3.

132) 위의 기사.

2014년 5월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평양에서 제9차 전국예술인 대회가 개최되었다. 김정은 시대 들어 처음으로 개최된 예술인 대회였다. 이 대회에서 김정은이 주문한 것은 “모든 창작가, 예술인들을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이 모란봉악단의 창조정신과 투쟁기풍으로 문학예술 활동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함으로써 주체문학예술의 새로운 개화기를 열어”나가자고 하면서, 모란봉악단이 창조한 ‘새로운 시대의 창조기풍’과 ‘일본새(일하는 본보기)를 따라 배울 것’을 주문하였다.

모란봉악단의 창조기풍인 ‘당에서 제시한 과업을 어떤 일이 있어도 관철’하는 ‘결사관철의 정신’, ‘혁신적이고 진취적인 창조열풍’, ‘집단주의적 경쟁열풍’을 본받아 나갈 것을 주문하였다. 모란봉악단에 대해서도 “당이 바라고 인민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열백 밤을 패서라도 해내고 세계를 앞질러 끊임없이 새것을 개척해나가는 모란봉악단의 혁명적이고 진취적인 창조정신과 투쟁기풍”을 만들어 “우리 군대와 인민을 새로운 시대정신 창조에 힘있게 고무 추동하였다.”고 평가하였다.¹³³⁾

예술인 대회가 끝나고 참가자들을 위한 축하공연을 진행한 것은 모란봉악단이였다. 모란봉악단은 축하공연에서 북한의 주요 가요와 함께 ‘세계 명작모음’이라는 타이틀 아래 클래식을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알려진 민요, 오페라곡을 과감한 스타일로 연주하였다. 화려한 무대와 색소폰 독주, 기타 독주를 선보인 연주퍼포먼스는 이전의 공연과는 차별되는 무대였다.

모란봉악단의 ‘혁신적 변화’를 본받아 “모든 창작가, 예술인들은 모란봉 악단의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혁명적 기풍을 본받아 사상관점에서부터 완전히 때뱃이를 하여야 한다.” “주저앉아 우는 소리

133) “강성국가건설의 대진군을 선도해나가는 제일나팔수-모란봉악단 지난 1년간 혁신적인 창작공연활동으로 천만군민을 최후 승리로 고무 추동.” 『로동신문』, 2013.7.9.

나 하고 조건타발만 하는 패배주의적 관점과 일본새를 결정적으로 뿌리뽑아 나갈 것을 호소하였다. ‘모란봉악단으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시대의 창조 기풍’을 사회적으로 확산해 나가고 있다.

3. 공연문화의 변화¹³⁴⁾

핫팬츠에 민소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북한의 공연문화가 달라졌다. 공연문화의 변화를 읽을 수 있었던 단초가 된 것은 2018년 2월에 있었던 삼지연관현악단의 축하공연이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성공 기원 축하공연’으로 열린 삼지연관현악단의 공연은 클래식 연주와 남한의 대중가요, 북한 가요로 구성되었다.

삼지연관현악단의 공연에서 가장 튀었던 장면은 가요 ‘달려가자 미래로’였다. 검은색의 타이트한 핫팬츠에 민소매의 빨간색 상의를 입고 노래와 울동으로 무대를 누볐다. 북한 공연단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장면이었다.

<사진 VIII-3>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모란봉악단 축하공연



자료: 조선중앙통신 영상화면

134) 해당 절은 전영선, “북한의 ‘대중문화’ 어디까지 왔나?,” 『민족화해』, 통권 92호 (2018), pp. 60~63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

<사진 VIII-4> 삼지연관현악단의 강릉공연



자료: 삼지연관현악단의 강릉공연 '달려가자 미래로' 장면 © 전영선

우리의 걸그룹을 연상시킬만한 공연이었다. 북한에서 가수가 이처럼 화려한 복장과 춤으로 공연하는 경우는 없었다. 북한에서는 가수와 무용수가 분명히 구분된다. 가수는 노래하는 사람이지만 울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기껏해야 리듬에 맞추어 가볍게 움직이거나 무대를 가로지르는 정도였다. 북한 공연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삼지연관현악단은 무척이나 이색적인 무대였다.

파격적인 공연이었던 만큼 해석도 분분하였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공연을 살펴보면 그렇게 특별하다고 보기 어렵다. 최근 북한에서 진행된 공연에서는 정치적 주제의 가요와 연주를 중심으로 진행하면서도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화려하고 파격적인 '현대무용'을 선보이고 있다. 북한의 최근 공연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 공연이 화려해지고 다양해졌다.

화려하고, 다양하고, 민망하기까지

삼지연관현악단이 화려한 퍼포먼스로 부른 <달려가자 미래로>는 김정은 시대에 창작된 인기곡이다.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불리며, 무대에

서도 가장 많이 활용된다. <달려가자 미래로>는 왕재산예술단의 무용 배경곡으로 더 많이 활용된다.¹³⁵⁾ 2017년 7월에 있었던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 성공 기념 음악무용 종합공연”¹³⁶⁾에서는 몸매가 그대로 드러나는 타이트한 흰색 바지에 흰색 상의를 입은 왕재산예술단 소속 여성무용수 6명이 출연하여 <달려가자 미래로>에 맞추어 시원하고 활기찬 율동을 선보였다.

<사진 VIII-5> 왕재산예술단의 공연 <달려가자 미래로>



자료: 조선중앙통신 영상화면

왕재산예술단은 최근 북한 무대 공연의 변화를 주도하는 예술단이다. 왕재산예술단은 최근 다른 예술단과 함께 무대를 꾸미는 종합공연을 비롯하여, 전국적인 순회공연을 통해 남다른 존재를 과시하고 있다.

왕재산예술단은 2016년 량강도 삼지연군의 공연을 시작으로 지방 순회 공연을 진행하였다. 량강도 순회공연, 청진 공연, 흥남비료련합기업소 공연, 김책시 공연, 신의주 공연, 평안남도 순회공연, 황해제철련합기업소 공연, 평양 공연에 이르기까지 130여 회의 공연을 진행하였다.

135) 무용곡으로 활용되는 노래로는 <우리 사랑한다>, <배우자>, <우등불>, <보란듯이>, <세상이여 부러워하라>, <우리 사랑한다> 등이 있다.

136) <달려가자 미래로>를 활용한 무용공연은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 성공 기념 음악무용 종합공연” 외에도 2017년 9월 함흥, 신의주, 강계시, 사리원시에서 진행된 공훈국가합창단, 모란봉악단, 왕재산예술단이 합동으로 진행한 합동 순회공연(음악무용종합공연)에서도 빠지지 않은 레퍼토리였다.

2017년 7월의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 성공기념 음악무용 종합 공연”은 왕재산예술단의 공연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무대였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만든 축하 무대로 모란봉악단, 청봉악단, 왕재산예술단이 참가한 종합공연이었다. 김정은이 직접 참관한 무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박봉주 내각 총리,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당·정·군 간부와 함께, 시험 발사에 기여한 국방과학 부문의 책임일꾼들과 과학자들이 참가하였다.

공연에서 왕재산예술단은 가요 〈승리의 축배〉를 배경음악으로 타프춤과 룬춤을 공연하였다. 타프춤은 ‘탭댄스(tap dance)’의 북한식 표현이다. 북한에서 타프춤은 최근 합동공연에서 빠지지 않은 레퍼토리의 하나이다.¹³⁷⁾ 군복을 입은 남성무용수 8명과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의 원색을 입은 여성무용수 8명으로 구성된 16명의 단원들이 동작에 맞추어 탭댄스를 선보였다.

<사진 VIII-6> 왕재산예술단의 타프춤(탭댄스)



자료: 조선중앙통신 영상화면

137) 타프춤에서 불리는 노래는 〈청춘시절〉, 〈승리의 축배〉, 〈샘물터에서〉 등이 있다.

왕재산예술단의 파격적인 연출은 <륜춤> 공연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륜’은 동그라미로 ‘홀라후프’의 북한식 표현이다. ‘륜춤’은 곧 홀라후프를 이용한 현대무용이다. <륜춤>에는 7명의 여성 무용단원이 출연하였는데, 검은색 짧은 탱크탑의 상의와 초미니스커트였다. 북한에서 진행된 공연무대에서는 가장 파격적인 무대 의상이었다. 기계체조를 응용한 아찔하고 파격적인 무용 동작을 선보였다.

<사진 VIII-7> 왕재산예술단의 륜춤



자료: 조선중앙통신 영상화면

4. 유희장과 위락시설 건설

유희장 건설에서 시작한 김정은 정치

김정은 체제의 출발은 놀이공원 개보수로부터 시작하였다고 할 정도로 문화시설 건설이 늘었다. 인민들이 자주 찾는 곳, 인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곳에 ‘문화 휴식터’를 새롭게 건설하고 있다. 평양에서 시작한

문화시설 건설이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시작은 평양이었다.

김정은 체제 이후 평양시에 다양한 문화시설, 유희장, 경기장이 건설되었다. 새롭게 생겨난 문화시설로는 창광원식 목욕탕, 평양민속공원, 류경원, 인민극장, 룡라인민유원지, 룡라곶등어관, 류경원, 개선청년공원유희장, 인민야외빙상장, 미림승마구락부, 소흥아동공원, 문수물놀이장, 마식령스키장, 통일거리운동센터, 해당화관 등이 있다. 인민편의와 여가를 위한 시설들이다.

<사진 VIII-8> 스케이트장을 배경으로 한 북한 만화영화



자료: <<http://anitown.net/bestofbest/1101534>>

평양을 중심으로 시작된 ‘유희장’ 건설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가고 있다. ‘현대적인 문화후생시설과 공원, 유원지’를 더 많이 세워서, 인민들이 새 시대의 문명한 생활을 누리게 할 것을 지시하였다. 김정은 교시 이후 전국적으로 유희오락시설 건설이 진행 중에 있다. 평안북도 신의주시, 동림군, 향산군, 태천군 등에 새롭게 유희오락시설과 휴식

장소를 만들었고, 압록강유원지와 동림폭포지구 등이 문화 휴식터로 새롭게 건설된 것이다.

인민편의시설과 유희장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짧은 기간에 김정은의 업적을 과시할 수 있는 성과물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편의시설과 유희장은 ‘인민제일주의’를 실천하는 지도자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다. 김정은의 정치적 성과를 인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일이 강조한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주의 선진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문화 사업은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의 핵심 분야이다. 하지만 북한은 다양한 문화시설이나 문화 인프라가 충분하게 갖추어져 있지 않아 실제 인민들이 즐길 수 있는 것은 제한되었다. 전국에서 건설되고 있는 문화시설은 김정은 시대의 도시 재건 사업과 새로운 지도자로서 김정은 체제에서는 미흡한 문화시설을 설립함으로써, 무엇인가 달라졌다는 변화를 구체적이고 체험적으로 느끼게 해줄 수 있다.

인민제일주의로 이어진 이민위천(以民爲天)의 유희

북한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희장을 비롯한 대중 편의시설 건설은 김정은 체제의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책에 따른 것, 인민 대중을 앞세운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로 선전한다. 즉 김정은 시기의 대중 위락시설 건설은 수령의 사상과 영도를 이어온 당의 특징으로 선대 수령의 정신으로 강조한다.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 계승성이 확고히 보장된 수령의 당,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건설되고 발전된 조선로동당의 성격적 특징은 우리 당의 시종일관한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에 그대로 반영되어있다.”¹³⁸⁾는 것이다.

김정일이 대중들 앞에 모습을 보일 때부터 인민생활을 지도하는 이

미지를 만들었다. 인민생활과 관련한 세세한 모습을 방송언론에 노출함으로써 친근한 이미지를 만들었다. 2012년 5월 유희장 건설장을 찾은 김정은은 놀이기구에 직접 올라가 타보기도 하고, 건설된 유희장을 돌아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질책하는 모습을 그대로 방송하였다. 김정은이 지적한 내용은 유희장 내의 도로 파손, 유희기구의 도색상태, 물놀이장의 안전문제, 잡초 제거 등의 문제였다. 새로운 놀이장 건설의 성과를 홍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페인트칠이 벗겨졌거나 잡초가 난 부분을 지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최고지도자가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는 모습을 통해 인민들을 위한 세심한 지도자로 이미지를 구축한 것이다.

인민을 앞세우는 행보는 김일성의 ‘이민위천’으로부터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의 핵심 키워드이다. 김정일 시기부터 소비재를 중심으로 생산 공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표준화 할 것을 강조하였다. ‘화장품’의 경우에는 품질 향상을 강조하는 영화 <봄향기>를 제작하였고, 식품류의 품질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된 <부부지배인> 등의 영화를 통해 품질 향상의 중요성을 인민에게 강조하였다. 3대에 걸쳐서 인민을 제일로 여기고 있는 정치가 북한 체제 안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김정은은 ‘인민생활 제일주의’를 내세우면서 소비자 수요가 높은 상품 생산과 품질 향상을 강조하였다.

김정은은 특히 화장품, 휴대폰, 가정용품, 전자제품, 과자류 등의 식료품, 섬유 잡화제품에 대한 품질 제고를 주문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술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여 인민생활 향상에 기여한 기업을 소개하면서, 인민생활과 연결되어있는 제품의 디자인 개발과 품질 향상을 적극 주문하였다.

138) 김려숙, “우리 당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를 구현한 명작대품으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빛나게 장식하자,” 『조선문학』, 1호 (2016), p. 4.

5. '축구강국'의 열망¹³⁹⁾

“위성은 우주로, 축구는 세계로”

김정은 시대의 구호 “위성은 우주로, 축구는 세계로”는 ‘축구 강국’을 향한 열망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구호이다. 축구 강국은 2011년 1월 1일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공식화 되었다. 축구강국은 “축구는 우리나라에서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대중화되고 사람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체육종목입니다. 축구기술이 높으면 나라와 민족의 영예를 온 세계에 빛낼 수 있습니다”는 김정일의 교시를 기본으로 축구 수준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정책이다.

<사진 VIII-9> 축구 조기교육을 강조한 과학영화 “축구인재와 조기교육 2”



자료: 조선중앙통신 영상화면

2011년 1월 16일자 『로동신문』은 사설 “축구강국을 향하여”를 통해서 “선군조국을 축구의 나라, 축구강국으로 빛내이려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다. 모두 다 당의 부름에 애국의 한마음 다 바쳐 이 하늘 아래, 이 땅 위에 온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축구강국 건설의 장엄한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자.”고 하면서, 축구 강국 건설을 노동당의 핵심정책임을 강조하였다.

139) 해당 절은 김동선·전영선, 『북한의 체육정책과 체육문화』 (서울: 경진문화사, 2018)의 “제1부 축구열풍: 위성은 우주로, 축구는 세계로”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

북한에서 축구에 대한 강조가 시작된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기였다. 김정일은 ‘체육에서 기본은 축구’라고 하면서 축구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1990년 평양컵 국제대회를 개최하면서 상금제 성격의 준 프로팀 운영이 가능하도록 상금제를 도입하였고, 연맹전 경기를 통해 수준별 리그제를 정착시켰다. 북한의 축구 리그제는 최상급 1부 리그에 해당하는 ‘최상급축구련맹전’에 15개 팀, 2부 리그 40개 팀, 3부 리그 80개 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정도의 축구팀으로 리그를 운영하는 것은 숫자 면에서 세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모든 성인 팀을 리그로 편입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상급축구련맹전은 전후기 리그로 진행되는데, 전후기 성적을 합산하여 우승팀이 결정되고, 1부 리그 최하위 팀은 2부 리그로 2부 리그 최상위 팀은 1부 리그로 승격하는 승강제로 운영한다.

축구로 열어가는 세계화

김정일 시기로부터 시작된 축구 강국 정책은 김정은 체제에서 세계화로 나타났다. 축구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이 추진되었다.

우선 축구 유망주에 대한 해외 유학이다. 계기가 된 것은 2016년 노르웨이 출신인 예른 안데르센 감독을 축구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한 것이다. 안데르센 감독 선임을 계기로 선진 축구 기술의 접목과 축구 세계화를 추진하였다. 다수의 유망주를 스페인, 이탈리아의 축구 아카데미 유학을 보냈고, 평양국제축구학교를 통한 축구인재양성에 힘쓰고 있다.

2013년 4월에는 평양에 세계적인 수준의 선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평양국제축구학교를 개설하였다. 평양국제축구학교는 1만 2,200㎡의 부지면적에 현대적인 교육시설과 식당, 목욕탕, 세탁소 등의 문화시설을 갖추었다. 북한 전역에서 선발된 90명의 남녀 학생으로 운영한다. 해외 유학생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외 진출도 추진하였다. 태국 1부 리그 무안톤 유나이티드에 미드필더 박남철 선수와 수비수 리광천 선수가 진출한 것을 비롯하여 유럽 무대로의 진출도 있었다. 2016년 최성혁이 이탈리아 세리에A 피오렌티나팀의 산하 청소년팀인 프로마베라에 입단하였고, 2017년 3월에는 한광성이 이탈리아 세리에A팀인 칼리아리 칼초와 계약을 맺고 이탈리아 리그에서 뛰는 최초의 북한 선수가 되었다. 2017년에는 공격형 미드필더 정일관 선수가 스위스 프로축구 1부 리그 팀인 FC루체른과 2년간 정식 계약을 맺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편 여자축구 선수인 리은심과 김경애 선수가 2005년 스웨덴 여자축구 1부 리그에 속한 발링예(Balinge) IF로 진출하기도 하였다.

축구 열풍을 안방으로

축구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로동신문』을 통해 영국 프로리그를 비롯하여 주요 국제 소식을 소개하기도 하고, 남녀 축구팀의 1급 경기대회 일정과 결과를 보도하고, 축구 관련 드라마를 만들어 보급하였다.

축구를 소재로 한 드라마도 제작하였다. 텔레비전 드라마 <우리여자축구팀>은 2006년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20세 이하 여자월드컵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북한 여자축구팀의 우승 과정을 담은 드라마이다. <우리여자축구팀>은 여자축구팀의 새로운 감독으로 부임한 정우 감독이 ‘당의 신임에 꼭 보답’해야 한다는 말을 새기면서, 과학적인 훈련과 정신력으로 세계 강호를 이기고 우승한다는 내용이다. 공격적인 축구와 지능훈련을 주장하는 새로운 감독 정우는 선수들에게 지능 훈련과 다양한 방법으로 훈련효과를 높이면서, 공격적인 축구 전술을 구사한다. 정우 감독이 내세운 전략은 축구의 ‘사상전’, ‘투지전’, ‘속도전’, ‘기술전’이었다.

5부작으로 구성된 이 드라마에는 경기에 출전하였던 축구 선수들이 직접 출연하였으며, 실제 경기 장면을 곳곳에 편집하여 드라마의 사실성을 높였다.

<사진 VIII-10> 북한 여자축구를 다룬 드라마 '우리여자축구팀'



자료: 연합뉴스 제공

2014년에는 평양연극영화대학 청소년영화창작단에서 3부작 텔레비전예술평화 <소학교의 작은 운동장>을 창작하였다. <소학교의 작은 운동장>은 2009년부터 북한 전국의 소학교, 초급 및 고급 중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축구반을 소재로 한 영화이다. ‘소학교의 작은 운동장’은 축구 후비들이 뛰고 있는 작은 운동장이 미래의 축구선수를 키우는 큰 운동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강원도 통천군 송전리의 작은 소학교 축구팀이 선향의 헌신적인 지도로 우승한다는 내용이다.

<사진 VIII-11> 축구를 소재로 한 북한 영화 ‘소학교의 작은 운동장’



자료: 연합뉴스 제공

6. 도시 재건과 ‘김정은 신화’ 창조

김정은 시대 도시 건설의 신호탄 만수대거리 살림집

새로운 도시 건설은 김정은 체제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의 하나이다. 북한에서 도시 건설과 관련한 보도는 1987년 6월 6일 『로동신문』에 「새로 형성되는 고층살림집거리」 기사가 실린 이후 사라졌다.

아파트 건설과 관련한 기사가 다시 등장한 것은 김정은의 후계 작업이 진행되던 2009년 만수대거리 아파트 건설 기사였다. 2009년 10월 22일 『로동신문』 사설로 「선군시대의 본보기로 일떠선 만수대거리의 만점짜리 살림집」 기사가 실렸다. 새로 시작된 만수대아파트에서 강조한 것은 환경이었다. 빠른 속도나 고층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높이와 개성, 조경을 갖춘 아파트로 만수대거리 살림집이 소개되었다.

만수대거리 살림집은 1980년대 후반 이후 중단되었던 아파트 건설을 재개하는 신호탄으로 본격적인 도시 개발 사업이 시작되었다. 새로운 형태의 도시개발은 김정은의 과학중시, 인민생활제일주의와 연결되어 기획되었다. 동시에 아파트 개발은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의 후계자로서 능력을 보여주는 신화 창조의 과정이었다.

김정은은 현장을 방문하면서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공사가 지지부진하고 제대로 진척되지 않자, 관계자들을 질타하였고, 총동원을 통해 공사를 독려하였다. 이러한 결과 살림집 건설 과정에서는 단 1년 만에 만수대의 옛 흔적을 완전히 없애고 새로운 거리를 만들었다. 만수대거리 살림집 건설을 통해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평양 속도’가 등장한 것이다.

김정일로부터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후계기간이 짧았고, 김정은의 업적으로 선전할 만한 것이 많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고층 아파트 건설과 도시개발은 인민들에게 김정은 시대의 변화를 보여주고, 지도자로서 이미지를 구축하는 소재가 아닐 수 없었다.¹⁴⁰⁾ 특히 초고층아파트 건설 사업은 21세기 당의 위용을 보여주는 본보기 사업으로 규정되었다.

2010년 이후의 아파트 건설이 도시 재건축 차원에서 진행되면서, ‘새로운 세기’, ‘새로운 평양속도’와 함께 등장하였다. 김정은의 정치적 역량도 아파트 건설을 통해 과시되었다. 김정은이 도시개발에 본격적으로 참여한 것은 2010년 건설된 창전거리 아파트 건설이었다. 창전거리 건설은 새로운 지도자 김정은의 업적 칭송과 함께 제국주의와의 결전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었다. 노동계급을 이끌고 제국주의와 투쟁하는 지도자로서 김정은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갔다. 당시 김정은이 현장을 지휘하면서, 후계자의 위상은 높여 나갔다. 창전거리 공사가 지지부진하자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현장을 방문하여 건설 사업을 독려했으며, 부실공사에 대해서도 질책하였다.

김정은 시대 속도전은 아파트 건설로

김정은 체제가 시작된 2012년 1월 김정은은 개교 60주년이 되는 ‘평양건설건축재대학’을 종합대학으로 승격시키면서, ‘평양건축종합대학’으로 학교 이름을 바꾸었다. 동시에 평양시 동대원구역에 부지 20,000㎡에 대외교류를 전담하는 ‘대외교류센터’를 신설하였다. 2013년 11월에는 평양건축종합대학을 찾아가 명예총장을 자처하기도 하였다.

김정은 체제의 키워드인 혁신과 변화는 건축을 통해 나타났고, 도시 건설로 구체화되었다. 김정은이 주도한 초고층살림집 건설 사업은 김정은 세기의 상징이 되었다. 김정일이 사망한 이후에는 김정일의 유혼을 명분으로 도시 건설과 도시 미화사업을 강행하였다. 김정일의 유혼으로서 강성대국의 수도를 건설하기 위한 ‘평양속도’가 ‘새로운 평양

140) “이 땅에 백년, 천년이 흐른 뒤 우리 후손들은 오늘의 건축물을 보며 위대한 김정은 시대에 대해 알게 될 것이고 또 그에 대해 이렇게 칭송할 것이다. 위대한 김정은시대 인간들은 건축으로 사회주의문명국의 새 모습을 그리었다고, 제국주의자들과 싸워 이겨 마침내 부귀영화를 누리었다고, 건축으로 마침내 세계를 뒤흔들었다고, (정론) 참으로 멋있는 시대,” 『로동신문』, 2014.11.18.

속도'로 다시 등장하였다. '건축'은 김정은 시대의 키워드인 '과학', '민족'과 결합하면서, 강성대국 건설을 과시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성과물로 추진되었다.

2012년 이후 아파트 건설은 매년 마다 새로운 지구에 새로운 형식으로 추진되었다. 김정일의 유훈을 명분으로 2012년 6월 만수대지구 창전거리에 45층짜리 초고층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었다. 만수대지구 건설 사업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종합개발이었다. 초고층 아파트를 중심으로 인민극장, 편의봉사 시설, 공원 등으로 구성되었다. 규모도 커졌다. '10만 세대 살림집건설'사업이 제기되었다. 평양시를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수도답게 더욱 훌륭하게 꾸미기 위한 10만 세대의 살림집 건설 사업을 '힘있게 다그치자'는 결의 속에 만수대지구 살림집이 추진되었다.¹⁴¹⁾

이어 2013년에는 은하과학자거리, 김일성종합대학 과학자살림집을 건설하였고, 2014년에는 위성과학자거리와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을 건설하였다. 이어 2015년에는 미래과학자거리,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려명거리아파트 사업을 추진하였다.

과학자 시대를 상징하는 미래과학자아파트

김정은 시대 건축은 새로운 지도자의 비전을 도시건설과 아파트를 통해 보여주려는 듯 웅장하고 화려한 외관으로 지어졌다. 새롭게 건설된 아파트들은 평양 도심의 스카이라인을 바꾸어 놓을 만큼 과시적이면서도 다양한 형태로 세워졌다. 외관에서부터 이전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추진되었다.

2015년 완성한 미래과학자거리아파트는 대동강변을 끼고 화려한 외관을 갖춘 고층아파트로 건축되었다. 각 대학에서 과학기술분야의 전문가, 퇴직 원로들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이다. 미래과학자아파트는

141) "10만세대 살림집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새로운 《평양번영기》를 펼쳐나가자," 『로동신문』, 2010.6.23.

거리 자체도 매우 화려하여, 아파트 외벽을 네온사인으로 장식하였다.

김정은이 주도하는 것으로 선전하는 북한에서는 이러한 건축을 ‘21세기 건축’으로 규정하면서, 21세기 건축이 “철두철미 인민의 지향과 요구, 생활풍습과 생활양식에 맞게 세계적인 수준에서 창조”되었다고 하였다.¹⁴²⁾

김정은이 우선 공급한 아파트의 입주 대상자는 교육과 과학 분야의 종사자들이었다. 김일성종합대학교 교원아파트, 김책공업종합대학교 교원아파트,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가 우선 지어졌다. 첫 본보기가 된 것은 김일성종합대학교 교원, 연구사들을 대상으로 한 김일성종합대학 과학자살림집이었다. 김정은 체제에서 강조하는 교육과 과학 증시정책을 아파트를 통해 과시한 것이다.

더불어 새로운 도시 건설과 아파트 건축은 문학 창작의 소재로 적극 활용되기도 하였다. 『조선문학』 2011년 11호에 실린 전수철의 ‘건설자의 벽시’에는 만수대지구 아파트 건설과 관련한 시(詩) 〈하늘우의 결승선〉, 〈전화중소리〉, 〈병사들의 말〉, 〈속보원동무에게〉가 실렸다. 『조선문학』 2012년 1호에는 류응희의 시 〈눈내리는 만수대지구건설장〉 등은 만수대지구 아파트 건설을 소재로 한 시작품이었다. 『조선문학』 2016년 1호에 실린 리응수의 소설 〈려명〉은 김정은 시대의 동트는 새벽을 상징하는 제목으로 여명거리의 명명과 공유되는 상징을 소재로 한다.

7. 개인의 욕망 확대

‘나 잘난 맛’에 산다

김정은 시대의 변화로 주목되는 것은 개인적 욕망의 창출이다. 평등을

142) “천재적인 예지, 특출한 령도력으로 펼치신 주체건축의 최전성기,” 『로동신문』, 2014.3.25.

강조하는 북한 사회에서 개인성은 조직을 해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김정은 체제에서는 사회 발전 속에서 개인적인 욕망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양한 유희장 건설을 통해서 인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확충하면서, 한편으로 뷰티 분야를 비롯하여 개인적인 욕망을 충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인민들에게 ‘절제’하고 ‘헌신’할 것을 강조하던 것에서 능력에 따라서 ‘사회주의 문명’을 ‘향유’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북한 체제와 사회 풍속과 관련한 정책은 주로 ‘통제’였다. 사회주의 미감을 명분으로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개별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체제수호 차원에서 외부와 북한 사회를 구분하는 ‘북한식’을 절대화하였고, 외부 사조의 유입은 모기에 비유할 정도로 배척하였다.

그러나 김정은 체제에서는 ‘사회주의 문명국’을 명분으로 인민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을 설립하면서, 사회주의 문명국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다’는 것을 인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김정은 체제의 변화는 주민들의 인식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공동체를 강조하던 것에서 제한적이지만 개인적인 차이를 인정하고, 개인을 중시하는 경향이 생겨났다.

대동강맥주집과 대동강맥주축전

인민생활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음주문화이다. 기호식품으로서 맥주가 뜨고 있다. 2002년부터 현대식 시설을 갖추고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간 대동강맥주공장은 ‘김정일장군님의 애민헌신의 손길이 어린’ 공장으로 선전하는 곳이다.

대동강맥주공장에서 생산되는 대동강맥주는 7가지 종류가 있다. 원료인 보리, 호프, 쌀의 비율에 따라서 1번부터 5번까지가 있고, 여성과 신세대를 위한 맥주로 커피향이 강한 6번 맥주와 초콜릿향이 강한

7번 맥주를 판매하고 있다.

대동강맥주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대동강맥주집, 청량음료점도 여러 곳에 생겨났다. 특히 경흥관대동강맥주는 옥류관의 냉면과 함께 시민들이 많이 찾는 평양의 명소이다.

대동강맥주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우기 위한 대동강맥주축전도 개최하였다. 2016년 8월 12일부터 약 한 달 동안 대동강맥주축전이 진행되었다. 대동강맥주축전은 대동강 바람을 쏘일 수 있는 옥류교와 대동교 사이의 둔치와 유람선 대동강호에서 진행되었다. 축전에는 대동강맥주공장에서 생산된 보리맥주, 쌀맥주, 흑맥주 등의 신선한 맥주가 선을 보였다. 북한 주재 외국인도 참가한 한 가운데 맥주맛보기, 유람선 대동강호 예술소조원들의 공연이 있었다.

<사진 VIII-12> 도서 『인기있는 대동강맥주』



자료: 『인기있는 대동강맥주』 (평양: 평양출판사, 2016).
 주: 2016년 평양출판사에서 출판한 도서 『인기있는 대동강맥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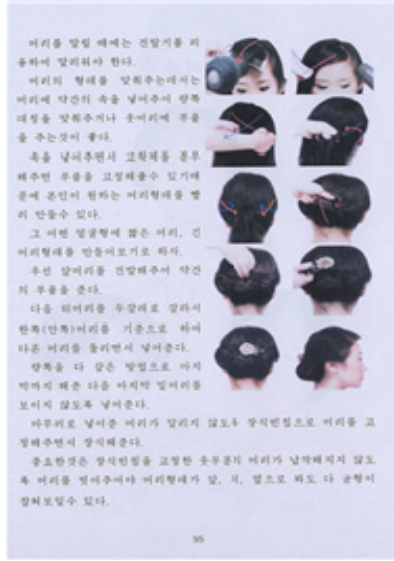
‘아름다워질 수 있다면’

김정은 체제에서 주목되는 현상의 하나는 뷰티 열풍이다. 자신 스스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성의 경우에는 쌍꺼플 수술이나 성형 수술 같이 자신에 대한 투자가 많아졌다. 평양을 중심으로 주요 도시에 사는 해외 유명브랜드 선호 등의 현상도 확산되고 있다.

여성들의 머리 모양이 다양해지고, 화장도 다양해졌다. 북한에서 발간하는 화보 『조선』에는 미용실에서 머리를 손질하는 남성들의 사진도 실렸다. 김정일 시기부터 강조한 화장품 품질 고급화는 김정은 체제에서도 여전하다. 북한에서의 뷰티 열풍과 인민봉사에서 벗어나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체를 위하여 통제하고 억제하던 시대에서 제한적이지만 개인의 취향과 욕망이 확산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의 리더십은 당에서 제시한 목표를 따라 자신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였다면 김정은 시대에는 새로운 시대를 향한 ‘욕망의 창출’이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진 VIII-13> 북한의 미용관련 도서



자료: 『누구나 아름다워질 수 있다』 (조선출판물수출입사, 2017).

<사진 VIII-14> 북한의 화장품 광고



자료: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조선상품 2018」.

이젠 티 좀 내고 산다

북한의 결혼식이 화려해지고 있다.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과정으로서의 결합, 당이 원하는 곳으로 자원하는 결혼, 명예군인과의 결혼은 옛이야기가 되었다. 힘이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 당간부의 자식이나 출신 성분이 좋은 집안의 결혼, 경제력을 중시하는 결혼이 대세이다. 한쪽이 기운다고 생각되면 파혼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결혼식도 집안의 세를 과시하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결혼식 문화도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다. 조촐하게 집이나 회관 같은 곳에서 결혼식을 올리던 것에서 유명식당에서 결혼식을 올리거나 고급 승용차를 동원하여 자기 집안의 세를 과시하기도 한다. 결혼식장에 최고급 승용차가 동원되기도 한다.

2009년 1월에 조선중앙텔레비죤에서 방영한 토막극 <축하합니다>는 허례허식을 버리고 우리식의 결혼문화를 만들어 나가자는 주제를 담고 있는 드라마이다. 드라마를 만들어 홍보할 정도로 건전한 결혼식 문화를 강조하지만 현실은 이와 달리 부의 과시로 바뀌고 있다.

<사진 VIII-15> 결혼식 하객들을 태운 유람선



자료: © 전영선(2016, 단둥).

A decorative graphic on the left side of the page. It features several thin, curved lines that sweep across the page. Two large, grey, circular elements are positioned on the left. The upper one is a thick ring with a white center, and the lower one is a smaller, solid grey circle. Both circles have a fine grid of small dots on their right-hand side.

맞는말: 정책적 시사점

본문에서 자세히 살펴보았듯이 김정은 시대 경제사회 변화의 주요 동력은 시장화와 정보화이다. 이러한 변화는 2000년대 김정일이 부분 개혁을 시도하면서 진행된 연장선에 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드러난 지점은 이러한 변화를 정책적으로 흡수한 것이다. 특히, 경제사회 분야에서 김정은 집권 후 소위 ‘인민중시’ 및 ‘청년중시’ 정책에 따라, 북한 주민과 사회의 변화 요구를 수용하려는 조치가 많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경제적 변화에 비해 사회적 변화가 두드러진다.

북한 내부적으로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화가 아직 제조업의 본격적인 성장을 이끌어 내지는 못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국가의 집중투자가 필요한데 2017년까지 김정은 정권이 핵·미사일을 중심으로 한 군수산업 분야에 국가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6년간 김정은 정권의 안정화를 위해 ‘김일성-김정일주의’ 이데올로기 수립 및 우상화 사업에 국가 투자를 집중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직까지 북한의 경제 정책과 제도의 변화 수준은 핵·미사일 발전 수준이나 통제경제 상황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반면, 아래로부터의 사회 변화는 크게 드러나고 있다. 시장경제가 북한 사회의 비공식 영역에서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시장화 과정에서 발전한 정보화 역시 비공식 사회영역에서 진전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사회 분야의 정책과 제도의 변화 측면보다는 북한 사회영역에서 북한 당국이 ‘비사회주의 현상’으로 지목하는 주민들의 의식과 행위 변화가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기반한 주요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자.

1. 경제적 변화에 조응하는 시사점

북한 경제 회복의 주요 동력은 시장화이나, 이 흐름은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발전의 근간인 제조업으로는 아직 연

계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경협을 통한 공동번영이라는 정책 기조에 따라 남북경협 정책을 수립 및 집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 경제 회복의 성격과 양상, 그 가능성과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는 비핵화 문제가 진전될 경우, 남북경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 기업 관련 제도의 변화로, 북한 기업의 무역, 합영·합작 분야에 자율성이 증대되고, 시장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남북경협 활성화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측면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과거에는 북한 '민족경제협력위원회'를 통해서만 경협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는데, 이제 다양한 북한 기업이 우리 기업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갖추어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도적 변화에 맞게 실제로 남북 기업이 긴밀히 접촉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남북경협에 대한 북한과의 협의 과정에서 북한 내의 제도적 변화에 부합하게, 북한 기업이 보다 자율적으로 경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과거 남북경협은 남북의 접촉에 제한이 컸던 탓에 북한에 제한적인 수준의 영향만 미칠 수 있었다. 향후 남북경협 전개 과정에서 북한의 보다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기업이 참여하여 접촉면을 넓혀 간다면, 남북경협은 북한 경제의 성장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금융과 화폐 측면에서의 변화는 북한 경제사회 변화의 복잡성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6년 북한의 1인당 GNI는 한화 146만 원이다. 세계은행 기준에 따르면, 이는 북한이 여전히 최빈국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난 10년

간 북한 경제가 호전되었다는 상반된 주장과 지표들이 있다. 아사자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탈북자 증언을 넘어 택시·버스, 국산품, 휴대전화 보급, 관광 상품 증대, 수영장·헬스장을 비롯한 여가시설 확대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변화가 부각되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북한 당국은 ‘돈의 출처를 묻지 말라’, ‘주민들 속에서 사장되어 있는 돈을 동원해 집을 지어준다.’는 문구를 법령에 삽입했다. 뿐만 아니라 전자결제카드, 이자지급 등 금융에서 시장 친화적인 정책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 의식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 분야 변화는 북한의 경제사회 발전을 추동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북한의 경제사회 발전에 중요 동력인 과학기술과 정보화 관련 정책적 시사점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비롯한 각종 첨단무기를 만들기 위해 CNC기술을 발전시켰다. 그런데 최근 김정은 정권의 경제 우선 정책은 이러한 군수기술을 민수로 전환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김정은 정권은 과학기술을 북한 산업 전 분야에 확장시켜 북한산 제품의 생산능력을 단번에 도약시키길 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무기를 더 이상 만들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필요하다. 또한 군수산업 기술을 민수로 전환시킬 수 있는 교류협력 및 지원이 필요하다. 남북 과학기술 및 정보화 교류 과정에서, 군수기술의 민수기술로의 전환 관련 기술이전 등이 이루어진다면 남북교류 협력의 질적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 다르게 주목할 점으로 북한의 정보기술 수준의 경우, 국제수준이나 한국에 비해 하드웨어 실력은 뒤떨어진 편이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실력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향후 남북한 공생공영의 교류협력을 대비하여 기술적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북한의 소프트웨어 산업을 정책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사회적 변화에 조응하는 시사점

교육 분야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세계화' 및 '정상국가화' 정책 의지가 가장 잘 반영된 분야이다. 따라서 향후 남북교류협력 과정에서는 2000년대 초중반에 이루어졌던 물자지원 중심의 교류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정치군사 중심의 교류를 앞장세우는 것 또한 갈등의 소지가 너무나 많다. 따라서 정치와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으면서도 북한이 개선 과제로 삼고 있는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교류협력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 분야가 중등교육 부문에서 과학기술교육, 컴퓨터교육, 영어교육이다.

또한 대학 구조조정 및 제도개혁과 관련된 협력, 교육 정보화 및 교육행정 정보화, 교수법 및 교육평가 분야의 교류협력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향후 교육 분야의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는 시점에서 교사 및 교육연구인력 교류와 교사교육 관련 교류협력을 추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세계 관련해서는 계층, 세대, 지역, 성에 따른 다양한 수위의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 이때 주목할 지점으로 북한 주민들을 '가난한 독재국가의 신민(臣民)'으로만 접근하는 프레임은 가용할 정책의 다양성을 제약한다.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관찰되는 변화는 복합적이면서 다층적이고 장기적이다. 시장화와 정보화로 인해 사회관계와 분업체계는 더욱 복잡해졌고, 다양한 사회 행위주체들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변화는 남북관계 차원에서 교류협력의 대상과 주체가 다변화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심화되고 있는 사회 불평등의 현실은 인도적 지원 사업의 현실화와 함께, 목표 설정 및 표적 집단의 변경을 제기한다. 적어도 '빈민 구제'와 같은 지원 사업의 목표는

변화한 북한 사회와 어울리지 않는다. ICT를 활용한 개발협력이 오히려 더 현실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김정은 정권은 문화예술 분야가 주도하는 소프트한 아젠다로부터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공연 중심의 교류협력을 넘어서서 인적 교류가 왕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의 교류협력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남북한 교류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기조는 두 방향이다. 하나는 북한의 각 분야 실태를 정확히 인식하고 변화의 중심 고리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는 각 분야 관련자들이 북한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적하면서, 연쇄적 변화 발전을 추동할 수 있는 소재를 발굴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또 다른 하나는 북한 경제와 사회를 북한 주민 스스로 변화·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것이다. 즉, 최근 다양한 저발전 국가 지원 및 개발원조 프로그램에서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에 따른 남북한 교류협력이 추진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동선·전영선. 『북한의 체육정책과 체육문화』. 서울: 경진문화사, 2018.
- 김정원 외. 『북한 교육정책 동향 분석 및 서지 정보 구축』.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14.
- 박영자 외. 『북한 기업의 운영실태 및 지배구조: 북한의 공식·비공식 혼합경제 실태와 영향』. 서울: 통일연구원, 2016.
- 법률출판사 엮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전』. 평양: 법률출판사, 2012.
-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사건』.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 소성규. 『통일 대비 복지육구 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 이교덕 외.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7.
- 이상신·오경섭·임예준. 『북한 해외노동자 실태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17.
- 이석기 외. 『2015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16년 전망』. 세종: 산업연구원, 2016.
- _____. 『북한의 서비스산업』. 세종: 산업연구원, 2017.
- 이석기·변학문·나혜선.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산업 및 산업정책』. 세종: 산업연구원, 2018.
- 이석기·양문수·정은이. 『북한 시장실태 분석』. 세종: 산업연구원, 2015.
- 이애리아·방일권·이창호. 『러시아 모스크바 및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의 북한 노동자』. 서울: 통일연구원, 2018.
- 이애리아·이창호·방일권.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북한 노동자』. 서울: 통일연구원, 2017.
- 임수호. 『계획과 시장의 공존: 북한의 경제개혁과 체제변화 전망』.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8.
- 장 보드리아르·이상률·윤김. 『소비의 사회: 그 신화와 구조』. 서울: 문예출판사, 1992.
- 장용석 외. 『북한사회변동 2016: 시장화, 정보화, 사회분화』.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7.
- 정근식 외. 『북한사회변동 2017: 시장화, 정보화, 사회분화, 사회보장』.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8.

- 정동준 외. 『북한주민의 통일외식 2017』.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8.
- 정은미 외. 『북한주민의 통일외식 2015』.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6.
- 조선백과사전편찬위원회 경제부문편찬위원회 엮음. 『광명백과사전 5. 경제』.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10.
- 조선중앙통신사 엮음. 『조선중앙년감 2012』.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2012.
 _____ . 『조선중앙년감 2017』.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2017.
- 조정아·최은영. 『평양과 혜산, 두 도시 이야기: 북한 주민의 삶과 공간』. 서울: 통일연구원, 2017.
- 중앙통계국·유엔연구기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14년 사회경제인구 및 건강조사』. 평양: 중앙통계국·유엔연구기금, 2015.
- 최상희 외. 『북한주택 현황조사·분석 연구』. 대전: LH토지주택연구원, 2015.
- 카를 만하임. 이남석 옮김. 『세대 문제: 해제·운동론의 관점에서 본 세대론』. 서울: 책세상, 2013.
- 통일교육원 엮음. 『2016 북한이해』.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5.
- 한동호 외. 『북한인권백서 2018』. 서울: 통일연구원, 2018.
- 홍 민 외. 『북한 전국 시장 정보: 공식시장 현황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16.
- 홍제환. 『김정은 정권 5년의 북한경제: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17.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of the DPR Korea and UNFP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ocio-economic,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2014*. Pyongyang: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2015.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of the DPRK and UNICEF, *DPR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17, Survey Findings Report*. Pyongyang: UNICEF DPRK, 2018.

Education Commission, DPRK. *Education for All 2015 National Review Report: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aris: UNESCO, 2014.

2. 논문

- 강민정. “소설의 TV드라마화’에 반영된 북한 김정은 체제의 정치적 딜레마.” 『통일인문학』. 제64권, 2015.
- 교육신문사. “김책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사업에서 얻은 경험(2).” 『고등교육』. 10호, 2017.
- 김 혁. “신용카드의 종류와 경제적 기능.” 『경제연구』. 3호, 2013.
- 김광진. “북한 금융기구의 종류와 역할.” 한국수출입은행 북한·동북아연구센터 엮음. 『북한의 금융』. 서울: 오름, 2016.
- 김덕현. “교육사업의 정보화는 지식경제시대에 맞게 교육의 질을 최상의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필수적요구.” 『교원선진수첩』. 4호, 2013.
- 김려숙. “우리 당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를 구현한 명작대풍으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빛나게 장식하자.” 『조선문학』. 1호, 2016.
- 김성경. “북한 청년의 세대적 ‘마음’과 문화적 실천: 북한 ‘사이(in-between) 세대’의 혼종적 정체성.” 『통일연구』. 제19권 1호, 2015.
- 김영남. “현시기 유희화폐자금과 그 동원리용.” 『경제연구』. 4호, 2014.
- 김영희. “북한의 5대시장 형성과 작동 메커니즘을 통해 본 시장화 실태.” 『KDB북한개발』. 통권 10호, 2017.
- 김지수. “북한의 성인대상 원격교육에 관한 연구: 변천과정을 통해 드러난 특성 분석을 중심으로.” 『평생학습사회』. 제5권 2호, 2009.
- 김혁철. “원격교육평가와 국가규격 10900(ISO9000)계열표준의 유기적결합 방법.” 『고등교육』. 4호, 2015.
- 류 전. “전자화폐의 리용.” 『경제연구』. 4호, 2013.
- 리길준. “중등교육수준에서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울데 대한 사상의 본질적내용.” 『교원선진수첩』. 4호, 2017.
- 문성민·이동현. “북한 금융의 특징과 제도·정책 변화.” 한국수출입은행 북한·동북아연구센터 엮음. 『북한의 금융』. 서울: 오름, 2016.
- 박영철·박영순. “고등교육 부문에서 국규 10900(ISO9000)계열 질관리체계 표준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 『고등교육』. 2호, 2015.
- _____. “대학, 전문학교교수질관리에 대한 ISO9000계열 질관리체계 표준도입의 가능성.” 『교원선진수첩』. 1호, 2015.
- 변학문. “김정은 정권 과학기술 정책의 특징과 산업 발전 전략.” 『통일부

- 신진연구자 정책연구과제. 서울: 통일부, 2016.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7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변화 “병진노선”의 두 얼굴.”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학술회의, 2017.8.30.
- 양문수. “김정은 집권 이후 개정 법령을 통해 본 ‘우리식경제관리방법.’” 『통일정책연구』. 제26권 2호, 2017.
- 양문수·윤인주. “북한 기업의 사실상의 사유화: 수준과 추세에 관한 정량적 분석.” 『통일연구』. 제20권 2호, 2016.
- 윤인주. “북한의 사유화 현상 연구: 실태와 함의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18권 1호, 2014.
- 이석기. “북한의 기업관리제도 변화와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KIET 산업경제』. 5월호, 2018.
- _____. “김정은 시대 북한산업과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KIET 산업경제』. 8월호, 2018.
- _____. “북한의 서비스 산업.” 『KIET 산업경제』. 3월호, 2018.
- 이희정. “김정은 시대 북한 원격교육 현황 연구: 교육컨텐츠, 표준, 인프라를 중심으로.” 『통일교육연구』. 제14권 2호, 2017.
- 전영선. “북한의 ‘대중문화’ 어디까지 왔나?” 『민족화해』. 통권 92호, 2018.
- 정은미. “북한 중간계층의 결정요인과 특성: 북한이탈주민의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통일과평화』. 제7권 2호, 2015.
- 정은이. “[북한돋보기] 북한 장마당 인사이드 3: ‘평양’, ‘아리랑’, ‘진달래’ … 휴대전화가 바뀌놓은 새로운 세상.” 『통일한국』. 4월호, 2017.
- _____. “북중 간 비공식 송금시스템의 생성과 발전: 탈북자 송금을 중심으로.” 『동북아연구』. 제20권 4호, 2017.
- 조정아. “북한 청소년의 세대경험과 특성.” 『KDI 북한경제리뷰』. 제17권 6호(2015년 6월호), 2015.
- _____. “김정은시대 북한 교육정책 방향과 중등교육과정 개편.” 『통일정책연구』. 제23권 2호, 2014.
- _____. “전국교육일꾼대회 대회 담화를 통해 본 북한의 교육개혁 전략.”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4-13, 2014.
- 최 문. “조선의 국내 금융과 현대화 추진.” 『북한과의 비즈니스: 현대화와 신소비문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국제학술회의, 2017.6.14.
- 최종식. “전민과학기술인재회의 본질.” 『고등교육』. 9호, 2016.

홍영의. “은행의 역할을 높이는 것은 경제강국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
『경제연구』. 3호, 2014.

3. 기타자료

『KBS』.

『VOA』.

『교원신문』.

『교육신문』.

『데일리NK』.

『로동신문』.

『연합뉴스』.

『조선신보』.

『조선중앙통신』.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 <<http://www.nktech.net>>.

애니타운 <www.anitown.net>.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bok.or.kr>.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조선상품 2018」.

『누구나 아름다워질 수 있다』. 평양: 조선출판물수출입사, 2017.

『영어(초급중학교 제1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13.

『인기있는 대동강맥주』. 평양: 평양출판사, 2016.

『정보기술(초급중학교 제1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13.

KINU 통일포럼 시리즈

2016-01	제12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와 대북정책방향	통일연구원
2016-02	제13차 KINU 통일포럼: 북한 제7차 당대회 분야별 평가 및 향후 전망	통일연구원
2016-03	제14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한국의 북한인권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통일나침반

2016-01	효율적 대북제재: 데이터 분석과 함의	이 석
2016-02	2016년 북한 신년사 분석	김갑식 외
2016-03	4차 북핵실험 이후 대북정책	통일연구원 현안대책팀
2016-04	4차 북핵실험 이후 정세 전개와 향후 전망	통일연구원 현안대책팀
2016-05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반도 정세 및 대응 방안	통일연구원 북핵대응 T/F팀
2016-06	4차 북핵실험 이후 미중관계와 대북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대외협력팀
2017-01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관련 주요 발언	통일연구원
2017-02	2017년 북한 신년사 분석	홍 민 외

KINU Insight

2017-01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주요 활동 분석	홍 민
2017-02	중국의 19차 당 대회 평가와 정책적 고려사항	전병곤
2017-03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 평가 및 권력구조 전망	박영자
2018-01	2018년 김정은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홍 민 외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6	도경옥 외 18,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6	도경옥 외 22,500원
북한인권백서 2017	도경옥 외 2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7	도경옥 외 24,500원
북한인권백서 2018	한동호 외 2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8	도경옥 외 24,000원

2016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2016-01	북한 핵 개발 고도화의 파급영향과 대응방향	정성윤 외	14,000원
2016-02	일본 아베정권의 대외전략과 대북전략	이기태, 김두승	6,500원
2016-04	과학기술발전과 북한의 새로운 위협: 사이버 위협과 무인기 침투	정구연, 이기태	6,000원
2016-05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및 통일담론: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분석	오경섭, 이경화	8,000원
2016-06	남북통일과 국가재산·채무·양허권의 승계	이규창	8,000원
2016-0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주화 외	12,000원
2016-08	대북정책전략 수단 효용성 분석: 이란의 경험과 경제제재를 중심으로	홍우택 외	7,000원
2016-09	북한 민생경제 진흥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	김석진, 홍제환	8,000원
2016-10	북한 기업의 운영실태 및 지배구조	박영자 외	13,000원
2016-11	북한에서 사적경제활동이 공적경제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	조한범 외	9,500원
2016-12	북한인권 제도 및 실태 변화추이 연구	임예준 외	8,500원
2016-13	최근 중동사태에 비추어본 북한 체제지속성 연구	김진하 외	7,000원
2016-14	「그린데탕트」 실천전략: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사업을 중심으로	조한범 외	7,000원
2016-15	Pathways to a Peaceful Korean Peninsula: Denuclearizatio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도경욱 외	14,000원
2016-16	한중수교이후 북중관계의 발전: 추세분석과 평가	이기현 외	8,000원
2016-17	국내적 통일준비 역량 강화방안	김수암 외	8,500원
2016-18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탈북민 인식조사	김수암 외	15,000원
2016-19	전환기 남북관계 영향 요인 및 향후 정책 방향	신종호 외	16,500원
2016-20	북한인권 책임규명 방안과 과제: 로마규정 관할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문제를 중심으로	이규창 외	12,000원
2016-21	2016년 통일예측시계	홍우택 외	7,000원
2016-22	남북한 주민의 통일국가정체성 인식조사	박종철 외	19,000원
2016-23	구술로 본 통일정책사	홍민 외	12,000원
2016-24	북한 전국 시장 정보	홍민 외	13,000원
2016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와 한국의 정책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7,500원
2016	북한의 제4차, 5차 핵실험 이후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통일전략 모색과 통일공감대 확산 방안	홍석훈 외	9,500원

■ 정책연구시리즈 ■

2016-01	미국 대선 주요 후보의 Think-Tank 및 의회 네트워크 분석	정구연, 민태은
2016-02	대북제재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	신종호 외
2016-03	개성공단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개성공단 운영 11년(2005~2015)의 교훈	임강택, 이강우
2016-04	북한 해외노동자 실태 연구	이상신, 오경섭, 임예준

■ Study Series ■

- 2016-01 Identifying Driving Forces for Changes and Policy Challenges on the Korean Peninsula(2015-2030) Park, Hyeong Jung et al.
- 2016-02 China's Neighborhood Diplomacy and Policies on North Korea: Cases and Application Lee, Ki-Hyun et al.
- 2016-03 The Costs and Benefits of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Areas Cho, Han-Bum et al.
- 2016-04 Development of Unification Diplomacy Contents Kim, Jin-Ha
- 2016-05 South and North Korean Integration and North Korea's Adaptability: From the Perceptive Point of View Kim, Soo-Am et al.

2017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 2017-01 북한인권 피해구제 방안과 과제 - 인도에 반한 죄를 중심으로 - 이규창 외 11,500원
- 2017-03 201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주화 외 12,000원
- 2017-04 통일 이후 통합방안: 민족주의와 편익을 넘어선 통일담론의 모색 이상신 외 8,500원
- 2017-05 대북·통일정책 관련 주요 쟁점과 정책추진방향 민태은 외 9,500원
- 2017-06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복지, 그리고 시민권에 대한 인식 민태은 외 13,000원
- 2017-07 전환기 남북관계 발전 추진 방안 조한범 외 7,500원
- 2017-08 한반도 평화로드맵 실천전략 홍민 외 7,000원
- 2017-09 북한 주민들의 복지와 시장화 임강택 8,000원
- 2017-10 한반도 평화체제 구성과 대북정책 정성윤 외 8,000원
- 2017-11 평양과 혜산, 두 도시 이야기: 북한 주민의 삶의 공간 조정아, 최은영 9,500원
- 2017-12 북중관계 주요분야별 현황 분석 임강택 외 12,000원
- 2017-13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동아시아 전략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 김상기 외 11,000원
- 2017-14 동맹의 진화와 글로벌 파트너십 정구연 외 7,000원
- 2017-15 북한인권 정책환경 분석 한동호 외 7,500원
- 2017-16 북한 재난협력 방안과 과제 임예준, 이규창 9,000원
- 2017-17 김정은 시대 조선노동당의 조직과 기능: 정권 안정화 전략을 중심으로 박영자 13,000원
- 2017-18 김정은 정권 5년의 북한경제: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홍제환 7,500원
- 2017-19 김정은 정권의 통치 테크놀로지와 문화정치 홍민 6,000원
- 2017-20 김정은 정권의 핵전략과 대외·대남 전략 정성윤 6,500원
- 2017-21-01 뉴노멀 시대 미중 전략 경쟁관계와 한반도에의 함의(1부) 전병곤 외 9,500원
- 2017-21-02 뉴노멀 시대 미중 전략 경쟁관계와 한반도에의 함의(2부) 전병곤 외 9,500원
- 2017-22-01 주변국 국경안보: 이론과 실제 현승수 외 10,000원
- 2017-22-02 주변국 국경안보: 사례와 검증 현승수 외 9,500원
- 2017 사회권의 관점에서 본 북한인권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13,500원

■ 정책연구시리즈 ■

- 2017-01 지속가능한 통일·대북정책: 환경 분석과 추진방향 이규창 외
- 2017-02 통일국민협약 추진방안 조한범, 이우태
- 2017-03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서독정부의 대동독정책 연구 이상신 외
- 2017-04 대북제재 국면에서 남북교류협력 추진 방안 임강택, 홍제환
- 2017-0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이규창 외

■ Study Series ■

- 2017-01 Implications of North Korea's Nuclear Advancement and Response Measures Chung, Sung-Yoon et al.
- 2017-02 Study on Changing Trend of Human Rights Institution and Situation in North Korea Rim, Ye Joon et al.
- 2017-03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North Korea's Asymmetric Threat: Rise of Cyber Warfare and Unmanned Aerial Vehicle Chung, Kuyoun-Lee, Kitae
- 2017-04 Study on North Korean Defectors' Perception about Democracy and the Market Economy Kim, Soo-Am et al.

2018년도 연구보고서

■ 정책연구시리즈 ■

- 2018-01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사회 8대 변화 박영자 외

■ Study Series ■

- 2018-01 The Implementation Strategy of the Establishment for Peaceful Community on the Korean Peninsula Hong, Min·Cho, Han-Bum·Park, Ihn-Hwi
- 2018-02 2017 Survey of Inter-Korean Integration Park, Juhwa·Rhee, Minkyu·Cho, Won-Bin
- 2018-03 North Korean Economy in the Kim Jong-un Regime Hong, Jea Hwan
- 2018-04 Peace Regim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 Korean Policy Chung, Sung-Yoon·Lee, Moo Chul·Lee, Soo-hyung

연례정세보고서

- 2016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6~2017 통일연구원
- 2017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7~2018 통일연구원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25권 1호 (201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5, No. 1 (201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5권 2호 (201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5, No. 2 (201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6권 1호 (201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6, No. 1 (201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6권 2호 (201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6, No. 2 (201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7권 1호 (201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7, No. 1 (2018)	10,000원

기 타

2016	북한 내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한동호 외
2016	Torture and Inhumane Treatment in North Korea	Han, Dong-ho et al.
2016	북한 여성·아동 인권 실태	도경옥 외
2016	Human Rights Situation of Women and Children in North Korea	Do, Kyung-ok et al.
2016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북한 노동자	이애리아 외
2017	북한 내 이동의 자유	한동호 외
2017	Freedom of Movement in North Korea	Han, Dong-ho et al.
2017	러시아 모스크바 및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의 북한 노동자	이애리아 외
2018	한반도 평화체제 및 비핵화 관련 자료집	박주화, 윤혜령 53,500원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9,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 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신청서

* 표는 필수항목입니다.

신청자 성명* (입금자가 다를 경우 별도 표기)			소 속*		
간행물* 받을 주소	(우편번호 :)				※도로명 주소 기입必
연락처*	TEL		이메일		
이메일 서비스	수신 ()		수신거부 ()		
회원 구분*	학생회원 ()		일반회원 ()		기관회원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통일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연구원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도서회원 가입 신청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소속, 주소, 연락처, 회원구분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금일로부터 1년
※ 회원자격 갱신 시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1년간 연장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안내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도서 회원 가입 및 발송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

※ 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보내주시시오.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함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8, E-Mail: books@kinu.or.kr

※ 온라인 신한은행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